



물고기 싹이 터라

언덕에서

소개글

Daum 블로그 <벽공무한>에서 1년 가까이 연재했던 '내가 읽은 좋은 시 100편 감상'을 블로그 북으로 만들어 본다. 오프라인 책으로 출간할까 생각도 했지만 의외로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여 블로그 북으로 갈음한다. 많은 분들이 이 블로그북을 읽고 시심이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훌륭한 시는 높은 수준의 주제의식과 거기에 걸맞게 잘 끌려진 문체, 삶의 정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미학적 구성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여기 실린 작품들은 "다시 읽고 싶은 명시"로 꼽아도 손색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시를 읽는 경험이 될 것이고, 일반인에게는 우아하고 격조 높은 운문에서 묻어나는 삶의 숨은 진실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많은 분들의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표지사진:정미정)

목차

1	이별가(離別歌) / 박목월	8
2	결빙(結氷)의 아버지 / 이수익	11
3	설야(雪夜) / 김광균	14
4	쉽게 씌어진 시 / 윤동주	16
5	너희는 시발을 아느냐 / 신현림	19
6	비 개인 여름 아침 / 김광섭	22
7	절대 고독(絶對 孤獨) / 김현승	24
8	조등(弔燈)이 있는 풍경 / 문정희	27
9	마지막 섹스의 추억 / 최영미	30
10	정님이 / 이시영	33
11	인생아 / 박찬	37
12	효도(孝道)에 / 마광수	40
13	엄마야 누나야 / 김소월	43
14	장만옥 / 박정대	45
15	풀버렛소리 가득 차 있었다 / 이용악	48
16	남(南) 으로 창(窓) 을 내겠소 / 김상용	51
17	연혁(沿革) / 황지우	54
18	자모사(慈母思) / 정인보	57
19	바람의 말 / 마종기	65
20	백마고지(白馬高地) / 김운기	68
21	병상록(病床錄) / 김관식	71
22	연보(年譜) / 이육사	74
23	강릉바다 / 김소연	77
24	낙화(落花) / 조지훈	80
25	북에서 온 어머니님 편지 / 김규동	83

26	데킬라 / 문혜진	87
27	아니오 / 신동엽	90
28	분수(噴水) / 김춘수	92
29	북한강에서 / 정호승	95
30	정원(庭園) / 강은교	97
31	나직한 송가(頌歌) / 김남조	99
32	안녕, 안녕 / 박남수	102
33	진달래 / 이영도	105
34	유리(里)에 가면 / 노태맹	107
35	시간을 위한 조곡(組曲) / 홍윤숙	110
36	타는 목마름으로 / 김지하	114
37	비옷을 빌어입고 / 김종삼	117
38	세상 처음 / 하종오	120
39	옥탑방 / 함민복	122
40	필사적으로 / 김사인	125
41	님의 침묵(沈默) / 한용운	128
42	하(河) / 이호우	130
43	행복(幸福) / 유치환	132
44	관계 / 고정희	135
45	비 / 김수영	138
46	정동(貞洞) 골목 / 장만영	142
47	구절초 시편 / 박기섭	145
48	어머니 / 박경리	148
49	바다가 보이는 산길 / 김윤성	151
50	그해 여름 숲 속에서 / 김지향	154

51	비처럼 음악처럼 / 안현미	158
52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김남주	161
53	즐거운 편지 / 황동규	164
54	사람들은 왜 모를까 / 김용택	167
55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 / 장정일	170
56	하늘 / 박두진	174
57	도솔가(兜率歌) / 김혜순	177
58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 김광규	180
59	저녁눈 / 박용래	183
60	추억(追憶) / 조병화	185
61	오후의 마천령(摩天嶺) / 박세영	188
62	사향(思鄉) / 김상옥	192
63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 김영랑	195
64	흰 바람벽이 있어 / 백석	198
65	세월이 가면 / 박인환	202
66	편지 - 어머니에게 / 박영근	205
67	가을비 / 신경림	207
68	귀족도(歸蜀途) / 서정주	209
69	한로(寒露) / 이상국	212
70	유리창 / 오정환	214
71	가을 강물 소리는 / 이향아	218
72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 최승자	221
73	정릉(貞陵) 살면서 / 박재삼	224
74	소릉조(小陵調) / 천상병	227
75	가을에 / 정한모	230

76	저녁 숲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 유현숙	234
77	술 노래 / 정현종	237
78	봄날은 간다 / 기형도	241
79	폐사지(廢寺地) / 도종환	244
80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 이해인	247
81	너의 창에 불이 꺼지고 / 황금찬	250
82	꽃피는 나무에게 / 장석주	254
83	향수(鄉愁) / 정지용	257
84	우리 오빠와 화로 / 임화	260
85	사평역(沙平驛)에서 / 곽재구	264
86	비가(悲歌) / 신동춘	267
87	서시 / 이성복	269
88	산 너머 남촌에는 / 김동환	271
89	아지매는 할매되고 / 허홍구	274
90	어떤 개인 날 / 노향림	277
91	엽서 두 장 / 이유경	279
92	소금인형 / 류시화	282
93	가을 빗소리 / 박화목	285
94	미완성을 위한 연가 / 김승희	288
95	겨울골짜기 / 조향미	292
96	낙엽론 / 허만하	294
97	수수께끼 / 허수경	297
98	북방(北方)의 길 / 오장환	300
99	재 한 줌 / 조오현	302
100	설날 아침에 / 김종길	305



이별가(離別歌)

박목월

워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워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른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뽀락카노 뽀락카노
씩어서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을 말자
인연은 갈발을 건너는 바람

뽀락카노 뽀락카노 뽀락카노
니 흰 옷자라기만 펄럭거리고……

오냐, 오냐, 오냐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발을 건너는 바람

뽀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시집 <경상도의 가랑잎>(민중서관 1968)

경상도 사투리가 사별의 회한을 어루만지는 특이하면서도 아름다운 시이다. <가시리>에서 찾을 수 있는 별리의 정한은, 황진이에게 와서 서정 미학의 꽃으로 피더니, 김소월에게 와서 역설의 미학으로 한 차원 높은 별리의 서정을 완성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 시에서 박목월 시인(1916~1978)은 삶과 죽음을, 이승과 저승을 뛰어넘는 어법을 내밀고 있다. 너무도 처연하여서 아름다운 시이다.

이 작품은 죽음의 문제를 다루되, 말하는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어쩌면 어릴 적부터의 친구이거나, 심심할 때 막걸리를 나누던 이웃 사람인지도 모른다. 시 '하관(下棺)'에 나오는 시인의 동생인지도 모르겠다. '중요한 점은 그가 누구인가보다 작중 화자와 그와의 사이에 있는 깊은 인연이다.

이 작품에서 삶과 죽음 사이의 간격은 강에 비유된다. 강의 저편이 저승이라면 이쪽은 이승이다. 친구는 강 저쪽에서 이쪽에 있는 이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바람에 날려서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지금 강 위에 뜬 배를 타고 있다. 그것이 저승으로 가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저승과 이승이란 그리 먼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 역시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멀지 않은 죽음을 내다보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유서에 나왔던 '삶과 죽음이 자연의 일부분이 아니냐.'는 구절이 갑자기 떠올랐던 것은 왜일까?

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시어는 '뭐라카노'이다. 표준말로 하면 '뭐라고 하니' 정도가 되겠다. 이 시어가 소설의 화소(話素)처럼 이야기를 끌고가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누군가가 강의 저편에서 화자에게 말을 건네나 바람에 날려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는다. 강 이편의 화자 역시 상대방에게 뭐라고 외치지만, 그 목소리 또한 확연히 전달되지 않는다. 그와 나를 이승과 저승으로 갈라놓은 것은 강이다. 강은 삶과 죽음의 간격을 의미하는 것일 게다.

이제 끊어질 듯했던 그와의 인연이 더욱 깊어진 탓으로, 마침내 그의 '흰 옷자락'이 보이게 되고, 분명하지는 않아도 그의 말이 희미하게 들리게 된다. 그래서 나는 '오냐, 오냐, 오냐. /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이 다짐의 말도 '바람에 날려' 그에게 잘 들리지는 않아도, 화자는 더욱 큰 소리로 재회의 약속을 하며 그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애타게 노래하는 것이 아닐까.



결빙(結氷)의 아버지

이수익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시집 <야간열차> (예문관 1978)

영하의 추운 겨울날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가난했던 유년시절 밤 추위를 온몸으로 막아주시던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해내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 시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는 화자의 차분하면서도 애뜻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어 읽는 순간마다 눈물이 난다. 동일한 감각적 이미지(추위-유년의 고통과 시련, 차가운 얼음-아버지의 따뜻한 사랑)를 대조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슬프고도 아름답게 강조하고 있다.

이수의 시인(1942~)의 시에서는 구조적인 완결미와 우수 어린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방법적인 면에서는 이미지즘의 영향을, 내용적인 면에서는 심미주의적 경향을 나타내는 시들을 주로 썼는데, 그의 시에서 두드러진 것은 이미지의 선명성과 아름다움이다. 이수의 시인의 유년은 적산가옥 마을이었다. 재개발 탓에 많이 정리되었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에는 일제시대의 적산가옥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시의 애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의 시세계가 지닌 특징은 대상과 인식을 같은 차원에 두고 상호 교감의 일치점이 되도록 선명한 이미지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념이나 철학성에 대한 관심을 두기보다는 인간적인 우수(憂愁)와 비감(悲感)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를 읽으면 문득 아버지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된다. 몇 년 전 모신문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아버지는 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서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돈 벌어오는 사람', '밤늦게 집에 오는 사람', '술 마시고 오는 사람' 으로 표현한 것을 보았다. 그런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고대 문집부터 살펴보더라도 사모곡은 있어도 사부곡은 없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인 것이 아버지가 아닌가.

위의 시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내세울 만한 사부곡 하나를 가졌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가난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노라면 어머니라는 단어는 가슴을 아리게 만들지만, 아버지라는 단어는 '쓸쓸함'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하고 싶다. 시인은 '짹 짹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모습으로 아버지를 참으로 쓸쓸하게 형상화내고 있다.

가장 큰 차가움으로 가장 큰 따뜻함을 만들어내셨던 아버지…….

오늘 당신이 유난히 그리워집니다.



설야(雪夜)

김광균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훑날리느뇨.

처마 끝에 호롱불 아위어가며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흰눈이 내려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먼 곳에 여인(女人)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追悔)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호올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흰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1938. 1. 8)

더위가 절정으로 치달고 있다. 이런 염천에 눈 오는 밤에 관한 시를 생각해 보았다. 〈설야〉는 강설(降雪)의 이미지가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회한(悔恨)과 추억으로 다양하게 구사되어 지난날의 사진과 그리움이 한데 어울려져 있는 아름답고 고운 시이다. 서글프고 서러운 밤에 내리는 눈, 그 눈이 도회인의 건조한 감정에 잔잔히 물결치면서 부드러운 서정을 나타내고 있다. 서경적인 이미지와 절제된 감정이입이 조화된 그야말로 보기 드문 감각적 주지시인 것이다.

이 시는 눈 오는 날 밤의 정경을 통해 지향 없는 그리운 감정과 상실감에서 오는 서글픔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눈 오는 고요한 밤의 조용한 정경 속에서 피어나는 추억과 환상을 그린 시이다. 시인은 센티멘털리즘(感傷主義)을 청산하는 데 필사의 노력을 바쳐왔다. 센티멘털리즘은 예술을 부정하는 한 개의 허무(虛無)다' 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의 시구(詩句)는 주지시가 무색할 만큼 솔직한 감상(感傷)이 노출되어 있다.

김광균 시인(1914 ~1993)의 작품 거의 전부는 〈추일 서정〉과 마찬가지로 주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미지 수법을 구사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시 〈설야〉 한 편만은 주지적 경향과는 아주 다른 부드러운 서정의 시이다. 이 시 가운데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흰 눈이 내려', '호올로 차디찬 의상을 하고' 등과 같은 이미지 수법이 눈에 안 띄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이 시는 감정을 흔들고 호소하는 서정풍의 작품이다.

우리 모두가 존경해 마지않는 김현승 시인은 이 시에서 가장 뛰어난 곳은 단 1행으로 된 제4연의 표현이라고 했다. 약간의 성적 매력이 보태진 것을 관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순수하고 차원이 높은 폴 발레리의 시에도 가끔 이러한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저속해 떨어지지 않고 품위를 유지하면, 시로서는 오히려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4연의 표현은 관능적이면서도 품위를 유지하여, 이 시를 전체적으로 완성된 구조를 느끼게 만들고 있다.

작가는 뜰에 내려 눈을 맞으면서 이미 싸늘한 옛 추억에 다시 가슴을 앓고, 그것은 하나의 슬픔으로 승화되어 눈 위에 곱게 서리는 것을 본다. 눈은 빛도 향기도 없고 싸늘하지만, 그 눈발 하나하나의 옛 추억들의 조각이고, 내려서 쌓이는 소리는 옛날 사랑했던 한 여인의 옷 벗는 소리를 연상케도 하는 것이다. 밤에 내리는 눈과 옛 추억을 연결하여 사랑의 허무, 인생의 애상을 노래한 그림 같은 시이다.



쉽게 씌어진 시

윤동주

창(窓)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詩人)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詩)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學費) 봉투(封套)를 받아

대학(大學)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教授)의 강의(講義)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澣)하는 것일까?

인생(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창(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물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慰安)으로 잡는 최초(最初)의 악수(握手).

-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

윤동주 시인(1917~1945)은 1943년 여름 방학을 맞아 귀국 직전 독립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검거되어(43년) 2년 형을 받고(44년) 규슈(九州) 후쿠오카(福岡) 감옥에서 복역 중 1945년 2월 29세를 일기로 옥사했다. 이 작품은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 중이던 1942년에 씌어졌다. 윤동주의 마지막 시인 것이다. 당숙인 윤영춘(尹永春)이 확인한 죄목은 ‘사상 불온, 독립 운동, 비일본신민, 서구사상 농후’였다.

장동건보다 훨씬 미남인 윤동주의 삶은 불운하며 불행했다. 위의 시에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구절에서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그가 익숙하지 않은 일본식의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다미 여섯 장의 넓이로 그의 세계를 한정하는 구속, 부자유의 은유이다. 그는 이러한 공간 안에 갇혀 있으면서 시를 쓴다. 이 때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라고 그가 말하는 이유는 무

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시인이 현실을 직접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데 대한 괴로움에 연유하는 듯하다. 요즈음의 모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식의 강박관념은 식민지 치하의 청년에게 국가의 독립에 직접적인 힘이 되지 못했음에 치욕과 고통을 주었을 것이다.

이 시에서는 윤동주 시의 중요 내용의 하나인 '부끄러움'이란 개념이 등장한다. 그것은 삶의 어려움과 암흑함에 대해 자신의 시가 정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반성적으로 묻는 성실성의 소산이다. 이처럼 괴로운 반성과 연민의 시간에도 비는 내린다. 그리고 육첩방은 그 좁음과 낯설음으로 그의 영혼을 압박한다.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 차 있고, 그의 가슴 속에는 번민이 숨친다.

그러나 〈별 헤는 밤〉의 경우와 비슷하게 윤동주는 이 음울한 상황에 체념하지 않고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 온 세상에 가득한 어둠을 한 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등불을 밝혀 그것을 조금 내몰 수는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어둠과 절망을 견디면서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 이 때의 아침이란 좁게는 개인적 번민으로부터의 해방일 터이고, 더 넓게는 정직한 영혼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게 하는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때를 의미한다.

윤동주의 시는 완결미가 느껴지지 않는 투박함이 있는데 바로 그 점이 그의 시를 더욱 완성된 시로 만드는 정갈함이다. 시에서 엿보이듯 그는 대단히 맑고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1995년에는 그의 모교인 일본의 도시샤대학에도 대표작 〈서시〉를 친필과 함께 일본어로 번역, 기록한 시비가 세워졌다. 그리고 금년 7월 2일 일본 시민단체 '시인 윤동주 기념비 건립위원회'는 교토부 우지(宇治)시의 우지공원에 윤 시인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인은 불행하게 떠나고 그의 시는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찬란하고 영원하게 인류의 가슴에 남아있다.

너희는 시발을 아느냐

신현림

아, 시바알 셸러리맨만 쉬고 싶은 게 아니라구

내 고통의 무쏘도 쉬어야겠다구 여자로서 당당히 홀로 서기에는 참 더러운 땅이라구 이혼녀와 노처녀는 더 스트레스 받는 땅
 직장 승진도 대우도 버거운 땅
 어떻게 연애나 하려는 놈들 손만 버들가지처럼 건들거리지 그것도 한창때의 애기지
 같이 살 놈이 아니면 연애는 소모전이라구 남자는 유곽에 가서 몸이라도 풀 수 있지 우리는 그림자처럼 달라붙는 정욕을 터뜨
 릴 방법이 없지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하는 피로감이나 음악을 그물침대로 삼고 누워 젖가슴이나 끌어내리는 설움이나 수다로 풀며 소나무처럼
 까칠해지는 얼굴이나
 좌우지간 여자직장 사표내자구 시발

여보게 여성동지, 고통과 고통을 왕복하는데 여자 남자가 어딴나

남성동무도 밖에선 눈치보고 갈대처럼 굽신거리다가 집에선 클래식 뽕뽕 누르듯 호통이나 치니 다 불쌍한 동물이지 아, 불쌍
 한 씨발

- 시집<세기말 블루스>(창작과 비평사 1996)

신현림 시인(1961~)을 아시나요? 물론 모르는 분은 없겠죠?

신현림은 당대의 베스트셀러 시인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진작가, 수필가, 싱글 맘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TV에도 가끔 나온
 다.

신현림의 시들은 파격적이다. 그리고 술술 읽힌다. 수사학의 숨바꼭질을 단념하고 독자들을 향해 직진하는 그의 시의 매력은
 공들여 쓴 유행가 가사의 매력과 통하는 데가 있다. 그의 시들이 비교적 널리 읽히고 있는 비결 하나가 그런데 있을 것이다.
 신현림의 시어들은 통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파를 꺼리지 않으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를 닮으려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고
 꺼리기는커녕 그 언어들은 통속과 신파 한 가운데서 숨 가쁘게 돌진한다. 세상과 통하고 통속되기 위해 신현림은 화자들이 감
 수하는 정서적 파열과 신파조의 눈물을 ‘세상과의 로맨스’라 일컬은 바 있다.

통속과 신파를 가로지르는 신현림의 이 로맨스는 점잖은 체하는 ‘진지한’ 독자의 가슴까지 울렁이게 만든다. 그것은 이 로
 맨스가 순정함과 우직함으로, 요컨대 생활의 건강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힘찬 순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
 현림 시의 순정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약 십 삼 년전에 '세기말 블루스'란 시집을 처음 읽었다. 시집의 많은 시 중에서도 위의 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신선한 충격
 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집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보이지 않는 슬픔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필자는 당시 함께
 근무하는 '울드미스' 여직원에게 위의 시를 일독을 권한 적이 있다.

"이 시를 읽는 내내 너무 통쾌했어요. 그런데 다 읽고나니 산다는 게 비참하네요."

위의 시에서 '남성동무'의 모습은 요컨대 힘이 약한 아이가 힘센 아이에게 얻어맞고 난후 자기보다 더 약한 아이를 때리는 느
 낄이랄까……. 신현림의 화자들이 더러 내비치는 눈물과 분노는 일차적으로 제 고단한 몸뚱이와 쓸쓸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이내 비슷한 처지의 독자들을 다독거리고 격려하는 연대와 연민의 물줄기로 변한다. 바로 거기에, 그만의 순

정의 힘이 있다.



비 개인 여름 아침

김광섭

비가 개인 날,

맑은 하늘이 못 속에 내려와서

여름 아침을 이루었으니

녹음(綠陰)이 종이가 되어

금붕어가 시를 쓴다.

-시집 <동경(憧憬)> (대동인쇄소 1938)

'서늘한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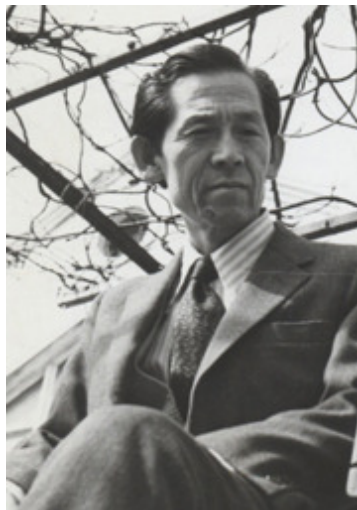
가을 같은 날씨이다. 이상기후 속에서 여름다운 여름을 생각해 한다.

짙통 같은 더위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아침의 느낌은 어떨까? 위의 시는 5행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 산뜻한 여름 감각이 유감 없이 표현되어 담담한 한 폭의 수채화를 대하는 느낌이다. 비가 갠 날의 유난히 맑은 하늘, 녹음은 질어 새로이 윤기가 흐른다. 물속을 들여다보니 맑은 하늘이 내려와 잠겨 있고, 질푸른 녹음이 그림처럼 곱게 배경을 이루고 있다. 금붕어도 신이 나서 멋지게 헤엄치며 놀고 있다. 그것을 지은이는 무슨 색지를 펴놓고 금붕어가 시를 쓴다고 표현했다. 아름다운 것은 역시 시의 최대의 매력이요, 기쁨이다. 이 시를 읽으면 시적인 매력과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다. 자연의 맑고 깨끗한 풍경을 속이 들여다보이도록 선명한 이미지를 구사해 놓았으며, 티 없이 맑은 정서를 나타내 보였다.

김광섭 시인(1905 ~ 1977)의 시풍은 고요한 서정과 냉철한 지성으로 짜여 있으며, 일제 말엽에 쓴 시들은 당시의 시대적 고민을 짙게 나타내고 있다. 일제가 언론을 말살하고 우리말을 송두리째 근절시키려던 그 시기에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 8개월이라는 옥고를 치러내는 고난을 겪기도 했다.

1938년에 낸 첫 시집 <동경>에 대한 신간 평에서 정인섭은 '이 세대에 있어서 금후로 광섭식의 시풍이란 것도 한 커다란 조류를 이룰 것이 추측되는바' 라고 하여 그의 시를 높이 샀다. 김광섭 시인 이후의 시인들 중에서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의 시문학은 시어가 풍부하고 다양하며 어휘 선택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이미지에서도 체계의 다양성과 함께 상징성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없는 국가이다. 그러나 김광섭 시인의 시가 있기에 그런 나라들이 부럽지 않다.

위의 시는 '비 개인 여름 아침'을 한눈에 보여 주고 있다. 모더니즘의 기법으로 참신한 이미지를 제시하여 비 그친 뒤의 신선한 분위기까지 느끼게 해 주는 이 작품은 시인이 돌아가고 싶어 하는 어린 시절의 고향 세계이며, 일제 치하의 현실에서 그가 꿈꾸는 이상 세계로 해방된 조국의 모습일 것이다.



절대 고독(絶對 孤獨)

김현승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던
영원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
그 끝에서 나는 눈을 비비고
비로소 나의 오랜 잠을 깬다.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영원의 별들은 흩어져 빛을 잃지만,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나는 내게로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따스한 체온을 새로이 느낀다.

그 체온으로 내게서 끝나는 영원의 먼 끝을
나는 혼자서 내 가슴에 품어 준다.
나는 내 눈으로 이제는 그것들을 바라본다.

그 끝에서 나의 언어들을 바람에 날려보내며,
꿈으로 고이 안을 받친 내 언어의 날개들을
이제는 티끌처럼 날려 보낸다.

나는 내게서 끝나는
무한의 눈물겨운 끝을
내 주름잡힌 손으로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며,
더 나아갈 수도 없는 그 끝에서
드디어 입을 다문다 — 나의 시와 함께.

-시집 <절대고독> (성문각 1970)

김현승 시인(1913 ~ 1975)의 제4시집 <절대 고독>의 표제가 된 작품이다. 그의 시는 후기로 접어들면서 ‘고독’의 추구에 집중되었다. 시집 <견고한 고독>(1968), <절대 고독>(1970) 등은 이러한 시인의 경향을 대표한다.

‘고독’은 인간에게만 있는 인간의 특권이다. 이 시에서 나타난 ‘고독’은 절망적인 고독이 아니다. ‘이들테면 부모 있는 고아와 같은 고독’이라고 지은이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고독을 표현하는 것은 나에게서 가장 즐거운 시예술의 활동이며, 윤리적 차원에서 참되고 굳세고자 함이다’라고 스스로 그의 시집 <절대 고독>의 자서(自書)에서 수차례 설명했다. 시인이 예로 부모를 둔 것은 기독교를 의식한 것 같다.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김현승 시인은 서구적이며 기독교적인 시인이다. 그런데 신앙의 등지 속에서 그리스도의 박해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고독을 추구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시인은 신앙과는 별개로 노경(老境)의 경지에서 인생을 재발견하려는 집요한 추구가 ‘고독’에게 귀결되는 자유롭고 허허로운 경지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흔히 고독이 고립 의식이나 적료감(寂寥感)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생을 소극적, 부정적인 경향으로 보기 쉽다. 쉽게 이야기해서 외로운 사람이 신경질적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고독은 인간에게만 있는 문제이므로 오히려 인간의 조건, 인간의 특권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대의 문학적·철학적인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즉 고독은 자기 자신, 실존(實存), 단독자(單獨者)로서의 인간의 한 표지(標識)이며, 모든 진리는 단독자에 의해서만 전해지고 받아들여진다고 키에르케고르가 설명한 부분과 맥이 닿는다.

신의 무한성, 영원성은 실존하지 않으며 인간은 그 근원에서부터 고독하다는 시인의 자각은 <견고한 고독>, <절대 고독>이라는 시집으로 결실을 맺는다. 여기서의 ‘고독’이란 ‘외로움’과 다르다. 그것은 단독자로서의 인간적 실존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는 철학적인 개

념으로 쓰이고 있다. 짐승과는 달리 인간은 자신이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앎으로써 세계와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독의 세계에서 비로소 인간은 절대자(또는 신)와 대면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자신을 새로 발견하는 탄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시인의 일관된 인식이다.

김현승은 지성적인 시인이다. 1930년대의 그의 초기 시도 이상(李箱)이나 편석촌 등의 당시 수준에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를 ‘1950년대에 와서야 발견된 1930년대의 우리 시단(詩壇)의 모더니스트’ 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절대 고독>은 모더니스트가 전에 없이 깊은 시적 사유(思惟)에 도달한 철학시, 추상시(抽象詩)라고 할 것이며 우리나라 현대시의 격을 몇 단계나 높인 수작이라고 할 것이다.



조등(弔燈)이 있는 풍경

문정희

이내 조등이 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어머니는 80세까지 장수했으니까

우는 척만 했다
 오랜 병석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죽었다
 내 엄마, 그 눈물이
 그 사람이 죽었다
 저녁이 되자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내가 배가 고파지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죽었는데
 내 위장이 밥을 부르고 있었다
 누군가 갖다준 슬픈 밥을 못 이긴 척 먹고 있을 때
 고향에서 친척들이 들이닥쳤다
 영정 앞에 그들은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몇 십 년만에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아니, 이 사람이 막내 아닌가? 폭 늙었구려."
 주저없이 나를 구덩이 속에 처박았다.
 이어 더 정확한 조준으로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다
 "못 알아보겠어.
 꼭 돌아가신 어머니인 줄 알았네."

- 시집 <양귀비꽃 머리에 꽃고>(민음사 2004)

'문정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연애시'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랑시', '연애시'의 대가이다. 문정희 시인(1947 ~)은 무엇보다 쉽게 읽히는 시를 쓴다. 시인은 작금의 연애시에는 몸만 있고 가슴이 없다고 꼬집는다. 부모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주 문한다. 사회적이고 민족적으로 확산된 사랑도 그 속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문정희'식의 연애시에 대한 감상을 하지 않겠다. 민망해서 차마 필설할 수 없는 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중학생인 우리 딸아이가 볼까봐 걱정된다.

초기 작품에서 그는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그려내었다. 삶, 현실, 소망을 자신의 시적 감각으로 정확히 포착하여 정서적 감각으로 묘사를 하던 시풍은 후기로 와서 얼마간 모습을 달리 한다. 점차 일상사에 대한 신변적 사항을 시에 담으려는 의지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는 그의 시를 보다 깊이 있는 삶에 대한 통찰의 소산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필자는 위의 시 '조등(弔燈)이 있는 풍경'을 문정희의 '비연애시의 백미'로 생각하기로 했다. 쉬운 시이지만 더욱 쉽게 내 스타일대로 산문으로 풀어 헤쳐서 아래와 같이 일단 써보기로 했다. (산문이라도 재미있다)

'80세가 넘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수하셨으니까 그나마 호상(好喪)이다. 그래도 남의 눈도 있고 자식도리에 슬퍼야 하겠는데

슬프지가 않다. 나는 나쁜 년이다. 그런데 더 나쁜 년이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울다가 혼절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밥때가 되었다고 배가 고프다는 것이다. 그래도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니깐 밥을 먹었다. 그것도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상주(喪主)는 죄인인데 그것을 확 무시하다고 말이다. 그때 고향에서 부고(訃告)를 받은 친척들이 들이 닥쳤다. 그들은 영정 앞에 문상(問喪)을 하는 등 마는 등 했다. 원래 초상(初喪)은 오랜만에 친척들이 만나는 축제이다. 그리고 실로 간만에 만난 친척은 나에게 많이 늙었다면서 여자의 자존심을 건들렸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돌아가신 어머니와 같은 레벨인 할머니로 조준과 확인사살로 결정타를 날리면서 말이다.'

문정희의 시는 잘 읽힌다. 그리고 재미있다. 그 재미있는 이유는 요즘 우리 시에서 흔히 보이는 비판적 탐색이나 비극적 전망, 이로 인한 관념적 상징 같은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시력 30년을 훌쩍 넘긴 중년의 그가 어찌 생활의 타성과 속세의 욕망에 젖지 않았으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는 여전히 건강하고 솔직하다. 그에게 시란 마음의 무늬에 따라 진행된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문정희 시에서 느껴지는 일상적 자연스러움은 근본적으로 시인이 자신의 원초적 본능, 자연스러운 몸의 욕망과 시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가 어렵고 무겁고 난해해야만 좋은 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위의 시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정직한 모습이 담겨있다. 솔직하고 격의 없는 모습과 가식 없는 표현……. 모호함과 난해함으로 화장을 하여 무엇이 맨 얼굴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진 이 시대에 시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마지막 섹스의 추억

최영미

아침상 오른 굴비 한 마리

발르다 나는 보았네
마침내 드러난 육신의 비밀
파헤쳐진 오장육부, 산산이 부서진 살점들
진실이란 이런 것인가
한꺼풀 벗기면 뼈와 살로만 수습돼
그날 밤 음부처럼
무섭도록 단순해지는 사연
죽은 살 찢으며 나는 알았네
상처도 산 자만이 걸치는 옷
더이상 아프지 않겠다는 약속

그런 사랑 여러번 했네
찬란한 비늘, 겹겹이 구름 걷히자
우수수 쏟아지던 아침햇살
그 투명함에 놀라
껍질째 오그라들던 너와 나
누가 먼저 없이, 주섬주섬 온몸에
차가운 비늘을 꽃았지

살아서 팔딱이던 말들
살아서 고프던 몸짓
모두 잃고 나는 씹었네
입안 가득 고여오는
마지막 섹스의 추억

-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 (창작과 비평사 1994)

최영미의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1980년대를 마감하는 의미를 지녔다. 최영미의 시인(1961 ~)시는 쉽고 솔직하게 읽혀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를 써내기 위해 시인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가는, 시를 통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는 이념이 사라진 1990년대의 환멸을 성적인 언어 등으로 도발적으로 표현하여,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끌어냈던 여성시인이다. 교과서가 없는 시대를 고투하며 건너온 젊은 영혼의 편력을 도시적 감수성으로 노래했다. 청춘과 운동, 사랑과 혁명 같은 이질적 요소를 구체적 삶 속에서 융합시킨 시를 쓰고 있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에는 이념의 홍수가 지나간 후 그가 가담했던 세대의 과감하고 솔직한 시어들이 눈길을 끈다. 이것이 '마지막 섹스'라든지 '컴퓨터와 씹할 수 있다면' 등의 시인의 모던한 기질과 도발적 언어에 힘입어 전개되었다. 1980년대의 사랑과 아픔과 상처와 위선, 부딪치며 살아남은 자의 깨어짐이 날것 그대로, 때로는 비틀려 더욱 투명해지는 시어들로 새겨지는 것이다.

'너무 튼다.'라고 할 수 있는 직설적이고 도발적인 시어들은 충격적이기도 하다. 몇 가지 예를 보기로 하자.

같은 시집의 시 '목욕'에는 '한때 너를 위해 / 또 너를 위해 / 너희들을 위해 / 씻고 닦고 문지르던 몸 / 이제 거울처럼 단단하게 늙어가는구나'

같은 시집의 시 'Personal Computer'에는 '아아 컴-퓨-터와 씹할수만 있다면!'

아래는 '?'가 제목인 시의 끝부분이다.

'왜 혼자 식사하나요? / — 남들과 어울리면 음식의 맛을 모르니까 // 무슨 재미로 혼자 마셔요? / — 술 마시는 재미로 // 누구와 자느냐고, / 그들은 내게 감히 묻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튀고 거친 표현은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아닐 것이다. 위의 시에서 나타나 있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겠다는 약속', '우수수 쏟아지던 아침햇살'은 1980년대의 민주화 과정에서 군부독재의 암울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봄이 오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직선적인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 잃어가는 것들, 그것으로 인한 무력감. 하지만 현실엔 하늘이라는 무심한 방관자가 현실을 덮는다. 1980년대가 지나가고 1990년대를 거치며 그는 많은 것을 회의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들이 있다. 그의 글은 변한 것을 속속들이 드러냄과 동시에 아직도 그들 세대의 마음속에 변치 않고 남아 있는 그 어떤 갈망과 아픔과 우수를 어루만져 준다. 시인의 시가 읽는 이에게 당혹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강렬하게 흡입되는 것은 진심어린 일상의 진솔함에서 솟구쳐 나온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사랑과 운명, 그리고 근원에 대한 질문은 최영미 시의 근간을 이루며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되어왔다. 이제는 오십을 바라보는 시인이 쓸 새로운 시집에서 이 추억은 어떤 형태로 그려지고 있을까.



정님이

이시영

용산 역전 늦은 밤거리
내 팔을 끌다 화들짝 손을 놓고 사라진 여인
운동회 때마다 동네 대항 릴레이에서
늘 일등을 하여 밥술을 타던
정님이 누나가 아닐는지 몰라
이마의 흉터를 가린 긴 머리, 날랜 발
학교도 못 다녔으면서
운동회 때만 되면 나보다 더 좋아라 좋아라
머슴 만득이 지게에서 점심을 빼앗아 이고 달려오던 누나
수수발을 매다가도 새를 보다가도 나만 보면
흠 묻은 손으로 달려와 청색 책보를
단단히 동여매 주던 소녀
콩깍지를 털어 주며 맛있니 맛있니
하늘을 보고 웃던 하이얀 목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지만
슬프지 않다고 잡았던 메뚜기를 날리며 말했다.
어느 해 봄엔 높은 산으로 나물 캐러 갔다가
산땀에 허벅지를 물려 이웃 처녀들에게 업혀 와서도
머리맡으로 내 손을 찾아 산다래를 쥐여주더니
왜 가 버렸는지 몰라
목화를 따고 물레를 잣고
여름밤이 오면 하얀 무릎 위에
정성껏 삼을 삼더니
동지 선달 긴긴 밤 베틀에 고개 숙여
달그랑잘그랑 무명을 잘도 짜더니
왜 바람처럼 가 버렸는지 몰라
빈 정지 문 열면 서글서글한 눈망울로
이내 달려 나올 것만 같더니
한 번 가 왜 다시 오지 않았는지 몰라
식모 산다는 소문도 들렸고
방직 공장에 취직했다는 말도 들렸고
영등포 색시집에서
누나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끝내 대답이 없었다.
용산 역전 밤 열한시 반

통금에 쫓기던 내 팔 붙잡다
날랜 발, 밤거리로 사라진 여인

-시집 <만월>(창작과 비평사 1976)

이시영 시인(1949 ~)의 시는 전통적 서정시 형식에 서사성을 담아내고 있다. 서사성의 세계는 보편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사실성을 획득 할 수 있다. 시인의 시에서 자주 보이는 이러한 기법은 불우한 이웃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립하려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이다. 그의 시는 70년대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토속적인 삶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사실적 묘사를 통해 70년대 한국 사회가 안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들 —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의 그늘에서 생겨난 비참한 삶의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 주고 있다. 명랑, 쾌활하고 순박하기만 했던 정남이가 식모로, 방직공장 여공으로, 색시집의 창녀로 전락해 갔던 당시의 사회 문제들을 부각시키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력하고 왜소하기만 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 있다.

이시영은 한국적인 서정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의식과 예술 의식을 탄력 있게 조화시킨 교과서와 같은 모범을 보여 주고 있는 시인이다. 그의 시 세계는 대체로 민중적 현실에 바탕을 둔 비판의 목소리가 주조를 이룬다. 1970년대의 폭압적 정치 현실에 저항하던 민중들의 삶과 사상을 서사적인 골격의 이야기를 가진 '이야기시'로 독특한 리얼리즘 시의 경지를 개척하던 그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짧은 서정시를 통하여 민중들의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여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새롭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자도 위의 시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부산 OO동의 달동네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앞집에 윤씨집이라고 불리던 노가다 하러 다니던 부부 슬하에 1남 4녀를 둔 가난하기 짝이 없는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 집 큰 아들과 나의 형은 동갑이었는데, 아버님께서는 형이 명문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그 집 아들 앞에서 '대학생티'를 내지 마라시며 엄명을 내리셨다. 그해가 1974년이였다. 다같이 가난한 집안끼리 누구집 아들은 대학생이고 누구집 아들은 공장에 다니던 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것이다. 그로부터 6년 후 나도 형이 다니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이후 7년 동안 군에 가고 제대하고 복학하고 졸업하고 그리고 사회로 나가게 되었다. 대기업 신입사원 시절, 자신만만하게 시작했지만 직장생활은 고단하기 짝이 없었다. 서울에서의 3년간의 하숙생활은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향수병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사에게 곤죽이 되도록 야단을 맞게 되었다. 그것을 건수로 하여 퇴근길에 회사 맞은편의 북창동에서 소주를 열이 나도록 마신 후 같은 방향인 동료와 들어서 '입가심'하자며 영등포 시장의 싸구려 선술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맥주를 두병 시켜서 마시는데 빨간 드레스를 입은 작부풍의 술집 아가씨 두 명이 옆에 앉았다. 취중이지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동네의 여자 아이에서 처녀가 되었지만 분명히 얼굴생김이 어린시절 윤씨집의 셋째 딸이었던 것이다. 가름한 얼굴에 찢어진 눈초리, 눈 밑의 점까지도 어릴 때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고 서울말씨를 흉내 내고 있었지만 억센 경상도 사투리의 흔적은 어쩔 수 없었다. 스무 일곱 여덟 정도였을까. 내가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은 예상한 그대로였다.

"아가씨, 고향이 부산 OO동이지요?"

"네, 어떻게 아세요?"

"성이 윤씨이지?"

"어머, 그건 어떻게……."

그칠 것이 없었다.

"집안이 1남 4녀였지?"

"아저씨, 도대체 어떻게 그걸 ……."

"……."

그곳에서 남은 맥주를 동료와 한잔씩 더 마신 후 자리를 떴다. 거리에서 문득 떠오르는 아버님 생각에 눈물이 나올 뻔 했다. 그날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난하기는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매 한가지였지만 15년 후의 모습은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뼈가 빠지게 짐승처럼 일하던 그 애의 부모님과 오빠가 떠올랐다. 그리고 가난을 탈출하려던 즈음에 과실을 보지 못하고 별세하신 아버님이 생각이 나는 것이었다. 아버님은 셋째이자 막내인 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52세의 좋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아, 화제를 돌려야겠다.

위의 시는 이시영 시인의 이야기시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과거와 현재를 교묘하게 교직(交織)시키고 있다. 우연히 마주친 용산 역전 밤거리의 한 여인을 통해 화자는 추억 속의 '정님이'를 떠올리게 됨으로써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농촌 공동체의 달콤한 회상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러나 무정한 현실로 복귀하는 이 시의 비극적 결말을 통해 결국은 그 달콤함도 잠시만의 행복으로 그치고 만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이 시의 사실적 묘사는 1970년대 한국 사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문제점, 즉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의 그늘 속에서 파생된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명랑하고 순박하기만 했던 '정님이'가 식모로, 방직 공장의 여공으로, 다시 영등포 색시집의 창녀로 전락해 가는 삶의 여정은 바로 70년대 후반까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소녀들의 무작정 상경'을 상기시키는 한편, 리얼리즘 문학관의 기본이 되는 '환경 결정론'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게 한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운명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처럼 '정님이'도 '변두리 인간(marginal man)'이 걷는 삶의 궤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준다. 물론, 이 시에서 그녀가 정말 '정님이'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정님이 누나가 아닐는지 몰라'라며 단정하지 않는 데 이 시의 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생아

박찬

많이들 바쁘곤본디 어서들 싸게 가보쇼,
나는 그냥저냥 가는둥 마는둥 갈라요.
장다리 발에 노닐며 장다리꽃 따먹다,
아지랑이 어질어질 나비따라 가다가,

뒷동산에 올라 송화가루 얼굴에 분칠도 하고,
 아카시아꽃 흠어먹다,
 들에 내려가 자운영 다복습 논두렁에 앉아
 풀인 보릿대 꺾어 보리피리 불면서
 놀다가 갈라요,
 그렇게 노닐다 싸목싸목 갈텡께,
 빨리오라 늦게오라 궁시령 마쇼.
 이리기도 저리기도 결국은 가는 길인디,
 무어 할라고 그리 바쁘게도 종종 거린다요.
 그래도 먼저 간곳 북적거리거든,
 내 자리도 하나 봐서 남겨 주었으면 쓰겼소.

꽃상여 단풍든 산넘어가네,
 산 넘어 눈 쌓인 산마을 달거든,
 지친몸 거기 퍼지게 누웠다가,
 한 바람 눈 발에 어디든 휘날리리.

- 유고시집 <외로운 식량> (문학동네 2008)

위의 시는 2007년 1월 세상을 떠난 박찬 시인(1948~2007)의 유고 시집에서 발췌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무엇일까? 가장 절실하게 말했으므로 가장 기쁘게, 눈물겹게 남을 말은 무엇일까. 삶이 그린 만화경, 그 모든 인연의 최후는 무슨 말이라야 할까. 그 말은 “개화산 미타사 미륵불 아래” “별빛” 처럼 될 것이다. 시인은 이 시집 도처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다. 시인의 임종 순간을 문예지 기사를 통해 접한 적이 있다. 아내와 두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다만 “사랑해” 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랑!’ , 그 한마디 말만 꽃처럼 골라 물고 그는 “흰 구름 둥둥 여여하” 듯 그렇게 고요히 떠나갔던 것이다.

위의 시 '인생아'는 전라도 사투리를 시어로 잘 표현한 아름다운 시이다. 경상도 사투리 시의 대표작이 박목월의 '이별가'라면 전라도 사투리 시의 그것은 박찬의 '인생아'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는 말년에 시인이 자신의 인생을 개관하고 인생역정을 정의하기 위해 쓴 시로 보인다. '이리기도 저리기도 결국은 가는 길인디, 무어 할라고 그리 바쁘게도 종종 거린다요.' 부분에 있어서는 인생의 본질의 꿰뚫어보는 시인만의 달관된 시선이 드러난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슬프다.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단풍든 가을 산에서 눈 쌓인 겨울 산마을로 이미지가 전환된다. 가기 싫지만 언젠가는 가야할 곳……. 그러나 단풍들고 눈 내리는 아름다운 산하이기에 별미련과 아쉬움 없이 어디든 휘날릴 수 있는 넉넉함과 푸근함을 시인은 잘 전달해주고 있다. 그의 시 세계는 자연적인 죽음의 경계선에 의해 단절되지 않는다. 그의 시적 추구의 본령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통과하면서도 그 이분법적 틀 속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초

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영생하는 대자연의 법칙과 순리대로 흘러가야 할 ‘도(道)’의 세계와 비슷한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지루하고 막막한 날이 끝나간다

그 끝에서 홀로 붉게 타는 칸나여, 안녕!

다시는 못 볼 푸른 하늘이여, 너도 안녕!

- 「소리를 찾아서 -서래봉 가는 길」 전문

이 시집을 다 읽고 책장을 덮기 전, 맨 마지막에 실린 「소리를 찾아서-서래봉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소리 내어 읽어보면, 붉은 칸나에게도 푸른 하늘에게도 “안녕!” 이라고 작별인사를 고하고 뒤돌아서서 휘적휘적 걸어가는 시인의 모습이 선연하게 떠오르는 듯하다.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안녕'이라는 단어와 함께 홀연히 떠나면 되는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가.



효도(孝道)에

마광수

어머니, 전 효도라는 말이 싫어요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왔나요?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싶어서 낳으셨나요?
 또 기르시고 싶어서 기르셨나요?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이런 이야기를 전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와 전 어쩌다가 만나게 된 거지요.
 그저 무슨 인연으로, 이상한 관계에서
 우린 함께 살게 된 거지요. 이걸
 제가 어머니를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예요.
 제 생을 저주하여 당신에게 핑계대겠다는 말이 아니예요.
 전 재미있게도, 또 슬프게도 살 수 있어요
 다만 제 스스로의 운명으로 하여, 제 목숨 때문으로 하여
 전 죽을 수도, 살 수도 있어요.
 전 당신에게 빚은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우린 서로가 어쩌다 얹혀 들어간 사이일 뿐,
 한쪽이 한쪽을 얹은 건 아니니까요.
 아, 어머니, 섭섭히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난 널 기르느라 이렇게 늙었다, 고생했다'
 이런 말씀일랑 말아주세요.
 어차피 저도 또 늙어 자식을 낳아
 서로가 서로에 얹혀 살아가게 마련일테니까요
 그러나 어머니, 전 어머니를 사랑해요.
 모든 동정으로, 연민으로
 이 세상 모든 살아가는 생명들에 대한 애정으로
 진정 어머닐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차피 우린
 참 야릇한 인연으로 만났잖아요?

- 시집 <가자, 장미여관으로> (자유문학사 1989)

시인·소설가. 서울 출생. 1968년 대광고등학교 졸업, 1972년 연세대 국문과, 1974년 동대학원 졸업. 1983년 문학박사(연세대학교). 1977년 [현대문학]에 <배꼽>, <망나니의 노래>, <고구려>, <당세풍의 결혼>, <검>, <장자사> 등 여섯 편의 시가 박두진 시인에 의해 추천되어 문단에 데뷔. 1989년 [문학사상]에 장편소설 <권태>를 연재하면서 소설가로도 등단. 홍익대 국어교육과 교수를 거쳐 연세대 국문과 교수. 이상은 마광수 시인(1951 ~)의 주된 이력이다.

주된 이력 외에 추가적으로 보태지는 '구속', '수감', '항소심' 등이 말이 등장하는 다른 이력은, 마치 무슨 민주화 운동가의 이력을 보는 듯할 만큼 극적이다. 그는 화제를 몰고 다니는 저자 중의 하나이다. 위의 긴 약력이 보여주는 것은 마광수의 글들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동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모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마광수가 정작 자신은 자신을 '무슨 운동가'로 규정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물론 마광수가 자신을 규정하는 사회적 주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소설가 이문열은 마광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를 읽고서, "마광수의 보잘 것 없는 상품이 쓰고 있는 낯 두꺼운 지성과 문화의 탈"과 "이미 자신의 생산에서 교육적인 효과는 포기한 듯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라는 신분을 애써 유지하는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마광수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다. 자신은 자신의 하고 싶은 말, 옳다고 생각한 말을 했을 뿐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은 처벌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마광수는 무슨무슨 운동과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광수의 글과 생각은 그것이 발표될 때마다 사회적인 거부감과 동시에 일종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 성격은 이문열이 일으키는 파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문열의 파장은 보수주의자로서의 '문화권력'에 기인한다면 마광수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로서의 소극적 자기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그것은 마광수의 생각이 가지는 일종의 '솔직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마광수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언한다. 이것의 그가 대중에게 호소력을 발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동시에에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혹독한 지탄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글로 인해서 욕고를 겪거나 고통을 받았지만 마광수는 유난히 많은 문제를 겪었다.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직되어서 시간 강사로 일하기도 했으며 재판정에 나가야만 하기도 했다. 박노해가 진보주의자라면 이문열은 보수주의자이다. 그리고 마광수는 자유주의자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상적인 분류와는 관계없이 마광수가 이름을 알린 것은 분명히 성에 대한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거침없는 발언들 때문이다. 그의 불행의 시발점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 앞서 나간 자유분방함을 가진 점이 아닐까 한다. 대개 음습한 곳에서만 이야기되던 개인의 성적 취향을 사회의 토론장으로 끌어들었다는 것이 마광수에 대한 비판의 주된 근거들이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서 마광수는 자신만의 주제와 글쓰기 스타일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주요한 논제가 아닐 것이다. 마광수는 아직도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생각이 없으며, 동시에 한국 사회 또한 마광수에 대한 비판을 멈출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위의 시는 과다한 성적 묘사로 지탄을 받았던 문제의 서적 <가자, 장미여관으로>에 실려 있는 시로써, 성이 소재가 되지 않은 몇 개의 시 중의 하나이다. 이 시에서도 자유주의자의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위 시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어머니는 효도라는 명목으로 자식을 속박하지 말아 달라. 인간의 태어남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운명적인 게 아니냐. 나도 지식에게 효도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것도 효도의 의무로서가 아니고 동정과 연민으로 사랑한다. 우리는 아릇한 인연으로 만났지 않느냐.'

전형적인 후레자식의 불효스런 상소리로 치부할 수 있었던 내용이 끝부분의 2연에서 반전을 일으킨다. 자유주의자로서 제도와 관습의 틀에 속박 받고 싶지 않지만 '모든 살아가는 생명들에 대한 애정으로' 어머니와 자식관계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는 이야기이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존중해주고 싶은 생각을 시를 잘 읊긴 수작이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보태고자 한다. 직장 후배 중에서 Y대 영문과를 나온 친구가 있었다. 교양과목으로 마광수 교수의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다고 했다. 수업을 진행하는 분위기라던 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수로서의 철학 같은 것이 궁금했다. 후배는 '햇하' 웃으며 대답했다.

"다른 특별한 기억보다는……. 시험지에 답안을 적을 때 성적인 표현을 노골적으로 곁들여서 저 나름대로 '아주 야하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학점이 A플러스가 나오더라고요."

하하, 인간의 본질상 취향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 월간 <개벽 19호> (1922. 1)

너무나도 유명한 시이다. 남이던 북이던 조선족이던, 고려인이던 해외동포이던 한민족의 피를 타고 태어났다면 이 시와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 시는 각 행 모두 3음보의 리듬을 사용하여 자연에 대한 순진무구한 동경을 진솔하게 노래함으로써 서정시의 완벽한 음악화를 이룬 작품이다. 이 곡은 동요로도 많이 불려졌다. 혹자는 노래가 시를 다 망쳤다고 하고, 어떤 이는 노래가 이 시를 살렸다고 하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강변'으로 대유된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마음은 '엄마야 누나야'라는 어린아이의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순수하다. 그가 엄마, 누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강변'은 그에게 평화와 행복을 보장해 주는 안식처로서, 가족들과의 행복을 이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를 뜻할 수도 있고, 당시 현실 상황에 견주어 볼 때는 일제의 모진 압제를 벗어난 어떤 이상향일 수도 있다. 어떤 책에서는 경술국치를 당하여 우국지사인 아버지와 형은 만주 벌판을 헤매거나, 항일 의병 활동 중에 아버지와 형을 잃은 어느 소년이 만주로 이사 가려는 엄마와 누나에게 정든 친구가 있는 곳을 떠나기 싫어서 강가 하천부지에서라도 살자고 떼를 쓰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 모르겠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나 할까. 명시에는 이러저러한 사족들이 너무 많이 붙는다. 그냥 읽고 감상할 수 있으면 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시인이 꿈꾸는, '갈잎의 노래'가 들려오고 금빛 모래가 반짝이는 그 곳은 꿈의 세계만큼이나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서러운 정감을 느끼게 해 준다. 평화로운 세상에의 동경을 노래한 이 시는 가족애를 바탕으로 한 자연 속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남자 아이가 화자로 등장하는 이 시는 '반짝이는' 밝은 느낌을 준다. 이런 단조롭고 평범한 내용임에도 이 작품이 호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음악성에 있다. 1행과 4행의 반복행절인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에서 느끼는 감정의 원천은 정한적(情恨的)인 데 있다. 민요조의 가락과 소박한 감정의 직정성(直情性), 반복적인 운율의 묘를 최대한으로 살린 점이 소월시의 한 특징이라 하는데, 그것은 이 작품에 통용될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여 이 작품은 자연에 대한 동경을 소박한 정감으로 노래한 서정시라 할 수 있다.

김소월(1902 ~ 1934) 시의 매력은 민요조 서정시의 좋은 점을 잘 살려 쓰고 있는 데 있다. 이 작품 역시 자연에 대한 순수한 동경을 진솔하게 노래하여 완벽한 서정시의 음악화에 성공한 작품이다.

서정시에 있어서 음악성은 그의 본질이다. 1행과 4행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고 반복 호소된 이 시구는 일상어를 피하고 어린이 말투인 ‘엄마야 누나야’로 표현했고, 순진무구한 어린이처럼 금모래 빛이나 갈잎의 노래를 벗 삼아 자연의 한 자리인 강변에서 살자는 것이다. 감정의 순수성이 빛나는 그만큼 사람을 사로잡는 천진하듯 솔직한 음악적 호소다. 그리고 이 시구가 의외에도 거의 유성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독특한 밝은 음향을 보이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 시의 정신은 엄마랑 누나랑 같이 사는 평화경(平和境)에 대한 갈망이다. 그것은 가족적 단란(團欒)을 이상으로 하는 가정의 표현이기도 하다. 꿈과 같이 그리운 밝은 평화, 그것이 강변이라는 조금은 고적한 자연계와 어울려,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서러운 정감까지를 담백 담고 있어 더욱 아름다운 시이다.



장만옥

박정대(1965~)

멀리 가는 길 위에 네가 있다
 바람 불어 창문들 우연의 음악을 연주하는 그 골목길에
 꽃잎 진 복숭아나무 푸른 잎처럼 너는 있다
 어느 날은 잠에서 깨어나 오래도록 네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사랑은 나뭇잎에 적은 글처럼 바람 속에 오고 가는 것
 때로 생의 서랍 속에 커켜이 묻혀 있다가
 구랍의 달처럼 참 많은 기억을 데불고 떠오르기도 하는 것
 멀리 가려다 쉬고 싶은 길 위에 문득 너는 있다
 꽃잎 진 복숭아나무들이 긴 목책을 이루어
 푸른 잎들이 오래도록 너를 읽고 있는 곳에
 꽃잎 진 내 청춘의 감옥,
 복숭아나무 그 긴 목책 속에

- 시인세계 2006 가을호

우연히 읽게 된 박정대(1965 ~)시인이 쓴 '장만옥'이라는 위의 시는 참으로 낭만적인 작품이다. '길', '우연의 음악', '복숭아나무', '구랍의 달', '청춘의 감옥', '목책' 등 무언가 아련한 느낌을 주는 시어들로 가득하다. 이런 시는 읽고 난 후 눈동자가 약간 허공을 향해 올라가면서 멍해지게 된다.

저는 왕자웨이(王家衛) 감독의 영화 <동사서독>을 본 후 장만옥이 좋아졌다. 복숭아꽃 난분분 흩날리는 누각의 창틀에 기댄 장만옥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붉은 입술만이 지나치게 강조된 그 얼굴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지만 이후로 중국여성의 아름다움과 한국여성의 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후의 명화 <화양연화>에서의 장만옥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혹적이었다. 길고 가는 목, 실파 같은 팔목, 조용히 숨을 내쉬던 얼굴의 단아하면서 섬세한 움직임.

이 시에서 "사랑은 바람 속에 오고 가는 것/ 서랍 속에 묻혀 있다가 참 많은 기억을 데불고 떠오르기도 하는 것"이란 구절은 장식에 지나지 않을 듯하다.

아마 시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멀리 가려다 쉬고 싶은 길 위에 문득 너는 있다"라는 구절일 것이다.

아마 남자들의 기억 속에 지나간 사랑은 장만옥처럼 기억될 지도 모른다. <동사서독>의 장만옥처럼 비현실적이고 탈색된 이미지로, 그리고 <화양연화>에서의 장만옥처럼 목과 팔목, 얼굴의 떨림과 같은 소소한 이미지로 말입니다. 그 이미지는 고단하고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다, "쉬고 싶은 길 위에"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문득 떠오르게 한다. 지금은 지나가고 없지만 문득, 때로 때때로 생각나는 옛 사랑의 기억 같은 것이다.



풀버렛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용악

우리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最後)의 밤은
풀버렛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嶺)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울만(灣)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깔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停止)를 가르쳤다.

때늦은 의원(醫員)이 아모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었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버렛소리 가득 차 있었다.

- 시집 <분수령>(삼문사 1937)

* 아르물만(灣) : 흑룡강 하류의 아무르 지역.

* 니코리스크 : 시베리아 하구의 항구 도시 니콜라에프스크를 가리킴.

월북 시인 이용악(1914~1971?)의 대표작이다. 이용악 시의 특징은 '이야기' 형태로 시가 전개된다는 점이다. 이 시는 러시아를 넘나 들며 상인으로 삶을 꾸려가던 한 조선인 아버지의 최후를 통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유랑하는 민중의 비참한 삶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물론 이 시속의 아버지가 시인의 실제 아버지였는지의 사실 여부는 작품 감상에 큰 보탬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시인 자신의 체험을 어느 정도 객관화시켜 북방 지역에 삶의 근거를 둔 어느 유랑 조선인의 허망한 죽음을 형상화한 것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는 지극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10세도 안 되어 아버지를 여의었으며,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금을 얻기 위해 소금을 싣고 러시아 영토를 넘나들며 장사를 하였던 것이 최근에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용악의 시가 대부분 그러한 비극적 삶의 체험 세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그 어느 누구의 작품보다도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이 시의 핵심은 아버지가 '우리집도 아니고 / 일가집도 아닌 집 / 고향은 더욱 아닌 곳' '아라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에 있다. 화자는 1연에서 아버지의 죽음에 따른 비참한 심정을 서정적으로 표출한 데 이어, 2연에서는 아버지의 과거 삶과 아버지의 주검을 바라보는 화자의 심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 마디 남겨두는 일도 없었고'라는 구절에서 그의 죽음이 객사(客死)일 뿐 아니라, 급작스러운 죽음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술은 화자 개인의 가족사적 비극 체험을 지나 당대 조선 민중의 비극적 삶을 표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당대 유이민(遊移民)을 대표하는 대유적 기능을 갖는다.

3연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과 그 죽음의 현장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르쳤다.'라는 표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묘사이고,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 이 옷 늙은이 손으로 / 눈빛 미명은 고요히 / 낮을 덮었다.'라는 표현은 죽음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제시이다. 이렇게 죽음의 현장을 객관적인 묘사와 사건의 제시를 통해 장면 위주로 전달함으로써, 그 처참한 현장이 보다 더 사실적으로 전달되는 한편, 그만큼 슬픔의 강도도 커지는 시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4연은 1연의 반복으로, 소위 수미 상관의 구조로 주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안정감을 부여시키고 있다. 여기서 '풀버렛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표현은 때마침 집 주위에서 울고 있는 풀벌레 소리에 대한 사실적 묘사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죽음에서 느끼는 화자의 참담한 내면 심경을 대변해 주는 소재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후의 밤'에 가득 찬 '풀버렛소리'는 화자가 통곡하는 슬픔의 강도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이 시는 국경을 넘나들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 결국은 낯선 땅에서 '침상 없는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한 조선인 아버지의 임종을 통해 나라 없는 민족, 시베리아 유이민의 참담한 실상을 탁월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 시 외에도 <눈 나리는 거리에서> <슬픈 사람들끼리> 등의 '이야기 시'가 가진 매력은 당시 일제치하에서의 조선민중의 삶을 압박하는 정치·경제적 고통을 구체적인 경험에 긴밀히 관련시켜 하나의 분명한 예술적 형상, 또는 문학적 전형을 창출해 보이는 데서 찾아진다. 1930년대의 그의 시는 식민지 시대의 민족적 현실을 서정적이면서도 고통스럽게 노래하였다. 그의 시는 서정과 서사를 결합한 독특한 울림을 가지고 있다. 현실에 대한 강렬한 저항을 드러내지 않고 내면화하고 있으면서도 문학적 가치를 놓치지 않은 그의 작품은 시에 사실주의를 도입·실험한 성공적인 사례에 속한다고 한다. 그의 시의 탁월함은 모더니즘이라는 현대적인 기교 대신 구체적인 자기 삶에 굳건히 바탕을 둔 '이야기 시'를 지향할 때 비로소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南)으로 창(窓)을 내겠소

김상용

남(南)으로 창(窓)을 내겠소

발이 한참갈이

광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 시집<망향> (문장사 1939)

흔히들 우리나라의 전원시의 백미로 손꼽는 작품이다. 김상용 시인(1902~1951)이 1934년 <문학>지 제2호에 발표한 시이다. 소박한 전원생활을 제재로 노래한 작품으로 자연 친화적인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흙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길지않은 시 전반에 잘 나타나 있다. '남(南)'이 주는 밝고 건강한 이미지와 함께 시적 화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전원에서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삶의 태도, 훈훈한 인정, 달관의 모습을 넉넉하게 보여 주고 있다.

작중 화자는 평화로운 전원적 삶에의 소망을 말한다. 해가 잘 드는 남쪽으로 창문을 내고 흙과 더불어 사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구름, 즉 헛된 세속적 이익이나 명예 따위가 유혹한다(꼬인다) 해도 그는 가지 않으려 한다. 다만 너그럽게 자연을 즐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 왜 사느냐고 묻지 말라. 이 평화로운 삶의 기쁨, 그것이 곧 삶의 여유가 아니겠는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복잡한 도시 생활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종의 모성 회귀(母性回歸)의 본능과 같은 것이다.

화자는 이 전원생활 속에서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도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라고 말하고 있다. 땅을 일구고 자연을 벗하며 인정미 넘치는 삶의 여유와 관조가 회화조의 친근한 어조에 융해되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잔잔한 웃음으로 답하는 모습은 삶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우러나오는 초월과 달관의 경지를 함축적으로 보여 주는 시적 표현의 백미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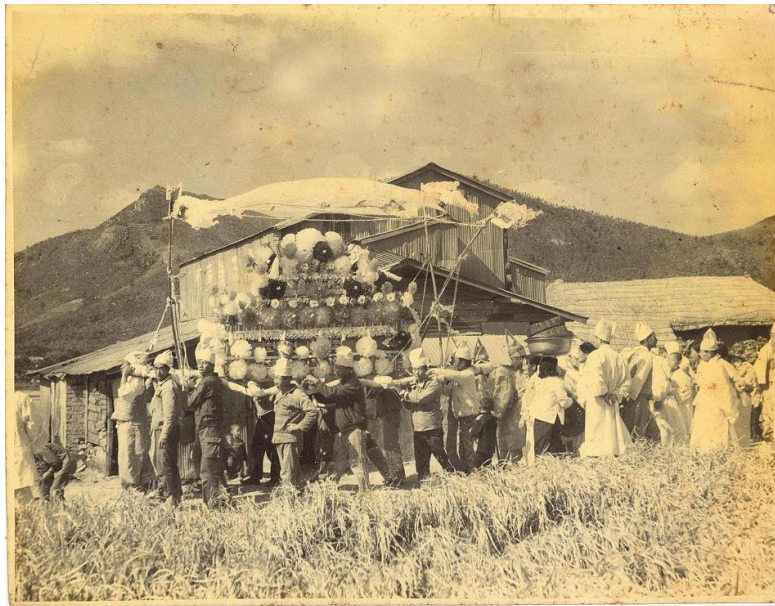
김현승 시인은 다음과 같이 이 시를 극찬했다. "창을 남쪽으로 내겠다는 제목부터가 생활의 건강하고 낙천적인 면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에 대한 굳은 신념을 나타내면서도, 역설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제2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학과 더불어 매우 시다운 표현을 하고 있다. 이 점이 이 시의 특별한 매력이다.

마지막 연은 의미의 함축성과 표현의 간결성 및 탄력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도회 생활의 공허한 삶은 생각지도 않고 무슨 재미로 전원엔 파묻혀 사느냐고 질문하는 친구에게 만족한 대답을 주려면 한 권의 책을 써도 모자랄지 모른다. 그것을 시는 '웃지요'라는 단 한 마디로 표현하고 있다.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회의, 번민, 사색, 해답, 결심이 하나로 압축된 자신의 생활관을 실증하는 웃음인지 모른다. " -김현승: <한국현대시 해설>—

김상용이 쓴 대부분의 시가 대개가 우수(憂愁)와 동양적 체념이 담긴 관조적 서정시였다고 한다면, 이 시는 이와는 좀 다른 시풍을 지닌 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시는 언뜻 보면 도피와 체념과 간조가 주된 정조(情調)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이 시에는 우수(憂愁)의 그늘이라곤 없다. 남으로 창을 낼 만큼 마음은 밝으며, 새 노래를 즐길 만큼 마음에는 여유가 있다. '한침

같이' 밖에 되지 않는 발을 뿔이로 파서 강냉이를 심고 '남으로 창을' 낼 만큼 생활에 적극적이다. 세속적인 일들이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건강한 신념이 있는 것이다. '왜 사냐건 / 웃지요' 에 체념이 아니라 달관(達觀)이 있을 뿐이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집을 짓고 그 집에 남으로 창을 내고 주경야독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그날이 기다려 진다.



연혁(沿革)

황지우

선달 스무 아흐레 어머니는 시루떡을 던져 앞바다의 흩어진 물결들을 달래었습니다. 이튿날내내 청태(靑苔)밭 가득히 찬비가 물려왔습니다. 저희는 우기(雨期)의 처마 밑을 바라볼 뿐 가난은 저희의 어떤 관례와도 같았습니다. 만조(滿潮)를 이룬 저의 가슴이 무장무장 숨가빠하면서 무명꽃이 져온 저희 일가(一家)의 심한 살냄새를 맡았습니다. 빠른 물살들이 토방문(土房門)을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희는 낮은 연안(沿岸)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근경(近景)에서 이름 없이 섬들이 멀어지고 늦게 떠난 목선(木船)들이 그 사이에 오락가락했습니다. 저는 바다로 가는 대신 뒤안 장독의 작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빈 항아리마다 저의 아버님이 떠나신 술섬 새울음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물 건너 어느 계곡이 깊어가는지 차라리 귀를 막으면 남만(南灣)의 멀어져가는 섬들이 세차게 울고울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붙들었고 내지(內地)에는 다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럴수록 근시(近視)의 겨울 바다는 눈부신 저의 눈시울에서 여워어갔습니다. 아버님이 끌려가신 날도 나루터 물결이 저렇듯 잠잠했습니다. 물가에 서면 가끔 지친 물새떼가 저의 어지러운 무릎까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느 외딴 물나라에서 흘러들어온 흰 상여꽃을 보는 듯했습니다. 꽃 속이너무나 환하여 저는 빨리 잠들고 싶었습니다. 언뜻언뜻 어머니가 잠든 태몽(胎夢)중에 아버님이 드나드시는 것이 보였고 저는 석화(石花)밭을 넘어가 인광(磷光)의 밤바다에 몰래 그물을 넣었습니다. 아버님을 태운 상여꽃이 끝없이 끝없이 새벽물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삭망(朔望)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바람 속은 저의 사후(死後)처럼 더 이상 바람 소리가 나지 않고 목선(木船)들이 빈 채로 돌아왔습니다. 해초 냄새를 피하여 새들이 저의 무릎에서 물으로 날아갔습니다. 물가 사람들은 머리띠의 흰 천을 따라 내지(內地)로 가고 여인들은 환생(還生)을 위해

저 우기(雨期)의 청태(靑苔)밭 넘어 재배삼배(再拜三拜) 흰떡을 던졌습니다. 저는 괴로워하는 바다의 내심(內心)으로 내려가 땅에 붙어 괴로워하는 모든 물풀들을 뜯어 올렸습니다.

내륙(內陸)에 어느 나라가 망하고 그 대신 자욱한 앞바다에 때아닌 배추꽃들이 떠올랐습니다.
먼 훗날 제가 그물을 내린 자궁(子宮)에서 인광(磷光)의 향아리를 건져올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집〈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문학과지성사 1983)

황지우 시인(1952 ~)의 작품들은 대체로 회화적이면서도 감각적 이미지들이다. 그러면서도 현실의 상황에 고통스러워 하는 시인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역사적 상황의 억압 때문에 뒤틀린 내면의 복잡함을 다양하고 낮은 실험적 형식으로 드러낸다. 그러면서 경직된 인식의 전복, 권위의 파괴, 그리고 시인이 바라보는 내면의 진정한 가치의 정립을 지향하고 있다.

이 시를 읽으면 마치 전설속의 어떤 바닷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상이 떠오른다. 때는 한 해가 끝나는 12월 31일 날, 겨울 우기에 오랜 비가 내리고 있다. 바다에는 섬들이 떠 있고, 청태밭이 있으며, 목선이 있고, 물새 떼가 있고, 굴(석화)밭이 있다. 물에는 어촌에서 붙어서 겨우 먹고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화자에게는 어머니가 있고, 이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아버지가 있고, 그 중심에 조용히 고통스런 의례를 지켜보는 어린 아이인 자신이 있다. 유년시절에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고통스런 의례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 화자의 눈에는 바닷가에 존재하는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이 예식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름대로 어려운 시이니만큼 풀어서 이해를 하도록 해보자. '연혁'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변천하여 온 과정'. '내력' 등을 의미한다. 바다는 지구의 기나긴 역사와 함께 수많은 과정을 걸친 변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운명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드나들고 있으며, 어머니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운명적인 바다를 달래려 애쓴다.

처음 두 개의 연은 그와 같은 어두운 예감에 둘러싸인 풍경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세 번째 연에 이르면 아버지의 부재가 자발적으로나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그 무엇'에 의해 강제된 것이 은연 중에 드러나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내가 이루는 혈연의 유대는 신비로운 환상의 빛깔을 띤다.

네 번째 연에는 인간의 죽음과 어떤 연유에서인지 바닷가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바다를 달래는 여인들이 등장한다. 이 연의 마지막 문장 '저는 괴로워하는 바다의 내심으로 내려가 땅에 붙어 괴로워하는 모든 물풀들을 뜯어 올렸습니다.'로써 이 시의 흐름은 절정을 달한다. 그것은 땅 위에서의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며 달래려는 시인의 상징적인 외침으로 보인다.

그리고 짧은 마지막 연은 이 시의 앞길과 의미를 눈부시게 정리하고 있다. 어두운 분위기로 이어온 이 시는 혈연의 지속을 통해 삶의 미래와 꿈에 대해 긍정적이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황지우 시인과 관련된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한다.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다가 3년 만에 복학한 나는 한동안 정신적인 공황상태를 겪어야만 했다. 무슨 연유인지는 필설(筆舌)로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사고(思考)가 정체되어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패닉상태 같은 것이었나 보다. 그런 혼돈스런 심경을 정리하기 위해 틈만 나면 시를 적기 시작했는데 당시(1985년) 군사정권에 대한 분노, 과연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것이 참다운 인생인가 하는 의문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억압된 군대생활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것은 국민의 의무이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스러운 사고(思考)의 폭을 줄여 놓은 것은 인간의 정체성(identity)을 박탈당해서 무뇌아(無惱兒)가 되어서 돌아온 심정이었다. 내가 쓴 '영터리 시'를 누군가가 많이 읽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객기(客氣)에서 몇 편의 시를 완성하여 학교의 신문사에 투고를 했다. 그 '영터리 시'의 내용은 군부대의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형상화하여 그것이 자신의 사고(思考)를 억압하는 '벽'으로 상징하고 그리운 '누군가'를 '당신'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푸른 제복을 입은 청년의 소박한 갈망을 나름대로 서정적인 운문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그런데 학보사에 기고를 한 지가 한 달이 지나도록 신문에 내 시가 실리지 않는 게 아닌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나는 대학신문사를 찾아가서 원고를 회수하기로 했다. 그런데 학보사에서 만난 담당기자는 같은 학과(學科) 같은 학년의 후배 여학생이었다. 수업시간마다 만나는 사이였으므로 통성명을 할 필요는 없었다. 내 시가 실리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원고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후배가 가져온 나의 원고는 빨간 색연필로 이리저리 갈겨놓은 글씨들로 난도질이 되어있었다. 학교 신문사를 총괄하는, 문학평론가로도 유명한 국문과 교수가 당시 군사정부의 검열을 감안해 이곳저곳 마음에 들지 않는 과격한 표현들을 손대다 보니 일어난 결과였다. 원고를 되돌려 받고 돌아서는 나에게 후배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시였다……. 안타깝다……. 기자로서 미안한 마음뿐이다……. 황지우의 시를 읽는 기분이었다……. 대단한 실험시라고 생각한다……. ' 그런 위로의 변을 들려주었다. 틈만 나면 학과 공부와는 별도로 치열하게 문학공부를 했다고 자부해왔지만 나의 과문(寡聞)함 탓이었는지 처음으로 황지우라는 시인의 이름을 들은 날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7~8년 전에 모 방송사의 여기자가 취재를 나갔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 참변을 당한 여기자가 위에서 언급한 후배이다. 고향이 거제도였던 후배의 고향은 바다가 보이는 어촌의 언덕동네였는데, 유년시절부터 하도 바다를 많이 바라보아서 눈 흰자위가 시퍼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황지우 시인의 '연혁'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 후배가 생각이 나서 몇 자 적어보았다. 늦게나마 후배의 명복을 빈다.

산문으로 씌어진 위의 시는 산문시가 아닐 것이다. 읽어가는 도중에 운율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절바르게 또박또박 존칭어미를 사용한 이 시는 찬찬히 읽을 때 각별한 운율이 느껴진다. 기존의 황지우 시인의 시를 읽은 이들에게 이 시는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는 면이 있다. 1980년대 초중반에 실험적이며 재기에 넘친 풍자의 목소리로 써내려갔던 형태 파괴적 해체주의 시, 정치풍자 시, 선적(禪的) 서정시 등과는 다른 면이 있다. 1980년대의 시가 세칭 민중시와 형태 파괴시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때, 그 두 가지 흐름을 하나로 통합시키며 독자적인 시 세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시인이 바로 황지우다. 그가 이질적인 두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던 바탕은 물론 섬세한 서정성이다. 미학을 전공한 시인의 회화적이면서 감각적 이미지들이 현실을 아파하는 시인의 처절한 심정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서정성이 도처에 번득이는 아름다운 시이다. 시인이 먼 바다를 날아가는 철새 때의 자유와 쌍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 그가 속한 1980년대적 현실의 조건은 더욱 더 비극적 색깔을 분명히 한다.

자모사(慈母思)

정인보

1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불고 앞 드는데

가신 님 어이하여 돌오실 줄 모르는가
살뜰히 기르신 아이 옷 품 준 줄 아소서

2

부른 배 골리보고 나온 얼굴 병만 여겨
하루도 열두 시로 곧 어떨까 하시더니
밤송인 쪽으령인 채 그지 달려 삽내다

3

동창에 해는 뜨나 님 계실 때 아니로다
이 설움 오늘날을 알았드면 저즘미리
먹은 맘 다 된다기로 앞 떠날 줄 있으리

4

차마 님의 낮을 흠으로 가리단 말
우긋이 어겼으니 무정할 손 추초(秋草)로다
밤 이어 꿈에 뵈오니 편안이나 하신가

5

반갑던 님의 글월 설움될 줄 알았으리
줄줄이 흐르는 정 상기 아니 말랐도다
받들어 낮에 대이니 배이는 듯하여라

6

므가나 나를 고히 보심 생각하면 되 서워라
내 양자(樣子) 그대로를 님이 아니 못보심가
내 없어 네 미워진 줄 어이 네가 알것가

7

눈 한번 감으시니 내 일생이 다 덮여라
질 보아 가련하니 님의 속이 어떠시리
자던 닭 내려쳐 울면 이때리니 하여라

8

체수는 적으셔도 목소리는 크시더니

이 없어 움으신 입 주름마다 귀엽더니
굽으신 마른 허리에 부지런히 뵈더니

9

생각도 어지렐사 뒤먼저도 바없고야
쓰다간 눈물ियो 쓰고 나니 한숨이라
행여나 님 들으실까 나가 외워 봅니다

10

미달이 달히었나 열고 내다보시는가
중문 턱 바빠 넘어 앞 안 보고 걸었더니
다친 팔 도진다마는 님은 어대 가시고

11

젓 잃은 어린 손녀 손에 끼고 등에 길러
색시쫄 백여가니 눈에 오죽 밝히실가
봉사도 님 따라간지 아니 든다 읊내다

12

바릿밥 님 주시고 잡숫느니 찬 것이며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얇은 옷을
숨치마 좋다시더니 보공되고 말어라

13

씩이신 님의 속을 깊이 알 이 뉘 있스리
다만지 하루라도 웃음 한번 도읍과져
이저리 쓰옵던 애가 한 꿈되고 말아라

14

그리워 하 그리워 님의 신색 하 그리워
뉘를 이 뉘 없으니 어딜 향해 찾으오리
남으니 두어 줄 눈물 어려 캄캄하고

15

불현듯 나는 생각 내가 어이 이려한고
말 갈 데 소 갈 데로 잊은 듯이 열흘 달포
설움도 팔자 없으니 더욱 느껴 함내다

16

안방에 불 비치면 하마 님이 계시온 듯
닫힌 창 바빠 열고 몇 번이나 울었던고
산 속에 추위 이르니 님을 어이 하올고

17

밤중만 어매 그늘 세 번이나 나린다네
게서 자라날 제 어인 줄을 몰랐고여
님의 공 깨닫고 보니 님은 벌써 머셔라

18

태양이 더웁다 해도 님께 대면 미지근타
구십춘광(九十春光)이 한 웃음에 퍼지서라
멀찌기 아득케나마 바랄 날이 언제뇨

19

어머니 부르울 제 일만 있어 부르리까
젖먹이 우리 애기 왜 또 찾나 하시더니
황천(黃泉)이 아득하건만 혼자 불러 뵈내다

20

연긴가 구름인가 옛일 벌써 희미(熹微)해라
눈감아 뵈오려니 떠오느니 땀 낮이라
남없는 거룩한 복이 언제런지 몰라라

21

등불은 어이 밝아 바람조차 부는고야
옷자락 날개 삼아 훨훨 중천 나르과저
이윽고 비소리나니 잠 못 이뤄 하노라

22

풍상(風霜)도 나름이라 설움이면 다 설움가
오십년 님의 살림 눈물인들 남을 것가
이저다 꿈이라시고 내 키만을 보셔라

23

북단재 뽕죽집이 전에 우리 외가(外家)라고
자라신 경눗골에 밤동산은 어디런가
님 눈에 비취던 무산 그저 열둘이려니

24

목천(木川)집 안방인데 누우신 양 병중이라
손으로 머리 짚자 님을 따라 서울길로
나다려 말씀하실 쟈 진천인 듯하여라

25

뵈운 배 꿈이온가 꿈이 아니 생시런가
이 날이 한 꿈되어 소스라쳐 깨우과져
긴 세월 가진 설움 맘껏 하소 하리라

26

시식(時食)도 좋건마는 님께 드려 보을 것가
악마디 풋저림을 이 없을 때 잡숫더니
가지록 빼아품내다 한(恨)이라만 하리까

27

가까이 곁에 가면 말로 못할 무슨 냄새
마시어 배부른 듯 몸에 품겨 봄이온 듯
코끝에 하마 남은가 때때 말아 봄내다

28

님 분명 계실 것이 여기 내가 있도소니
내 분명 같을 것이 님 가신지 네 해로다
두 분명 다 허사외라 뵈와 분명한온가

29

친구들 나를 일러 집안 일에 범연타고
아내는 서워라고 어린아이 맛없다고
여린 맘 설움에 찢겨 어대 간지 몰라라

30

집터야 물을 것가 어느 무엇 꿈아니리

한 깊은 저 남산이 님 보시던 옛 낮이라
게섯자 눈물이리만 외오 보니 설워라

31

비 잠깐 산 씻더니 서릿김에 내 맑아라
열구름 뜨자마자 그조차도 불어 없다
맘 선뜻 반가워지니 님 뵈온 듯하여라

32

마흔의 외동이를 응아하자 만동서께
남없는 자애렸만 정 갈릴가 참으셨네
이 어찌 범절만이로 지덕(至德)인 줄 압내다

33

찬 서리 어린 칼을 의로 죽자 내 잡으면
분명코 우리 님이 나를 아니 불드시리
가서도 계신 듯하니 한 걸음을 그리까

34

어느 해 헛소문에 놀라시고 급한 편지
네 걸음 헛디디면 모자 다시 안 본다고
지질한 그날 그날을 뜻 받았다 하리오

35

백봉황(白鳳凰) 깃을 부쳐 도솔천궁(兜率天宮) 향하실 제
아득한 구름 한점 옛 강산이 저기로다
빗방울 오동에 드니 눈물 아니 지신가

36

엽둔재 높은 고개 눈바람도 경이랴다
가마 뒤 잦은 걸음 애기 어이 그쳤으리
주막집 어둔 등잔이 맛본상을 비춰라

37

이 강이 어느 강가 압록(鴨綠)이라 옛자오니
고국산천이 새로이 설워라고
치마끈 드시려 하자 눈물 벌써 굴러라

38

개울가 버들개지 바람 따라 휘날린다
행여나 저러할라 돌이고도 굴지 마라
이 말씀 지켰다한들 누를 향해 사될고

39

이만 사실 님을 뜻조차도 못받든가
한번 상해드려 못내 산 채 억만년을
이제와 뉘우치란들 님이 다시 오시랴

40

설워라 설워라해도 아들도 딴 몸이라
무덤풀 육은 오늘 이 살붙어 있단 말가
빈 말로 설운 양함을 뉘나 믿지 마음소

- 시조집<담원 시조집> (을류문화사 1947)

* 우긋이: 무성한 모양

* 배이는: 점음

* 므가나: 미운

* 양자(樣子): 모양

* 질: 저를

* 봉사: 봉선화의 와(訛), 소녀들이 봉선화를 짓궂어서 손톱에 홍색을 들이니 이를 봉사들인다고 한다.

* 이저다: 이것 저것 모두

* 뽕죽집: 천주교당(天主敎堂)의 속어

* 경눗골: 정릉동(貞陵洞)

* 무산: 무산(巫山) 십이봉(十二峰)

* 악마디: 억세인 것

* 그리까: 만과(瞞過), 속여 넘김

* 맛본상: 겸상으로 보아 놓은 밥상

* 밤송인 쪽으령: 우리 속담에 쪽으령 밤송이 삼년 달린다는 말이 있다. 다병(多病)한 사람이 그대로 부지하는 것을 이에 견주어 말하며 못 생기고 오래 사는 것을 이에 견주어 말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심에 서러워 눈물을 흘려도 아들은 어머니와 한 몸이 될 수 없는 법이다. 이 작품에 보이는 어머니는 한국의 정통적인 어머니 상(像)이다. 지은이는 그 어머니를 회상하며 자신의 보잘것없는 정성을 자책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 누워 계시는 무덤 앞에 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돌아가신 후 눈물을 흘리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살아 생전 효도하지 못한 자책의 눈물이다.

위당 정인보 선생은 사학자·한문학자·시조시인 등 타이틀이 많은 분이다. 일제 치하에서 지조를 잃지 않고 우리 학문을 지켜낸 임흑 속의 별과 같은 민족의 기둥이셨다. 그가 한국의 얼을 심은 최대의 국학자였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치 못할 것이다. 그는 조년(早年)에 가정 학문으로 한학의 깊은 조예를 터득했고, 또 민족의 실의기(失意期)에는 민족의 나아갈 바와 선열들의 지나간 자취를 들추어내는 데도 안간힘을 다했다. 문약(文弱)의 시대……. 2009년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이런 위대한 사상가, 문사(文士)가 없음이 안타깝다.

이 시조는 우리가 고교생 시절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시조이다. 우리말과 시조가 왜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우리문학의 백미이다. 발췌되어 교과서에 실린 부분을 찾기 위해 다시금 읽어보니 12수와 37수, 40수가 그 부분이었던 것 같다. 40수에 이르는 대작을 자세히 읽어보니 지사(志士)의 향기와 대가(大家)의 박식함, 그리고 극진한 효심을 눈앞에서 느끼는 듯하다. 청소년 시절, 그 때는 건성건성 읽었는데 불혹의 나이가 지나서 읽으니 이제야 눈물이 난다. 이런 위대한 작품 앞에서 어떤 설명과 감상과 사족(蛇足)이 필요하겠는가. 1수에서 40수까지 빠짐없이 일독을 권한다.



바람의 말

마종기

우리가 모두 떠난 뒤
내 영혼이 당신 옆을 스치면
설마라도 봄 나뭇가지 흔드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마.

나 오늘 그대 알았던
땅 그림자 한 모서리에

꽃나무 하나 심어 놓으려니
그 나무 자라서 꽃 피우면
우리가 얻은 모든 괴로움이
꽃잎 되어서 날아가 버릴 거야.

꽃잎 되어서 날아가 버린다.
참을 수 없게 아득하고 헛된 일이지만
어쩌면 세상의 모든 일을
지척의 자로만 재고 살 건가.

가끔 바람 부는 쪽으로 귀 기울이면
착한 당신, 피곤해져도 잊지 마.
아득하게 멀리서 오는 바람의 말을.

- 시집 <안보이는 사랑의 나라> (문학과 지성사 1980)

이십 대 초반에 이 시를 처음 읽었다. 읽고나서 한동안 가슴이 시려오면서 아팠다. 그날 저녁, 영문을 모르는 친구를 붙잡고 학교 앞 시장 통에서 통음(痛飲)을 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특히 좋아하는 부분은 3연의 첫째 줄이다. ‘꽃잎 되어서 날아가 버린다.....’ 어찌 보면 밋밋해 보이기도 하는 이 구절은 화자의 혼잣말로 읽을 때 더욱 비감함이 살아난다. 상상과 체념이 뒤섞인 듯한 이 구절은 손에 움켜 쥔 것을 허공에 풀어놓을 때의 처연함과 허탈함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게 만든다.

이 시를 읽다가 조용필의 노래 하나가 생각났다. 데자뷰 현상인가?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로 호소하듯이 부르는 ‘바람이 전하는 말’ -양인자 작사, 김희갑 작곡으로 되어 있는 노래이다. 마종기 시인(1939 ~)의 시집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는 1980년에, 조용필의 앨범은 1985년에 나왔으니 작사자는 시를 표절한 게 분명하다. 그러나 시인은 머나먼 이국(異國)에서 말이 없다. 그의 정신세계가 젊고 쿨(cool)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종기 시인은 유명한 아동문학가 마해송님을 아버지로 두었다. 그의 시는 초기의 소란한 서정에서 출발하여 점차 의사(醫師)로서의 삶과 이국(異國)에서의 삶에서 정결하고 따스한 인간 통찰의 세계로 바뀌었다. 그것은 타인의 병(病)과 아픔과 죽음을 대하는 의사의 괴로운 깨달음과 이국(異國)에서 조국을 보는 시인의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복합된 세계일 것이다. 오롯한 그리움과 따뜻한 진심이 느껴지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의 시는 어떤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권위로부터 자유롭다. 그 자유로운 세계가 아직 잃지 않고 있는 초기시의 단순성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그의 시에 힘을 부여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바람을 생각하는 일이란 마음이 울렁거리는 일이다. 김광석의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처럼 바람이 불어오면 그곳이 어디인지 찾아서 길을 떠나고 싶고, 바람에 몸을 맡기고 머나먼 곳에서 그리운 이를 생각하게 되고, 바람을 따라서 이곳저곳 가다 보면 잡다한 세상 속의 작은 이치를 깨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람을 생각하는 일이란 시인에게는 '참을 수 없게 아득하고 헛된 일'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했을 것이다. '봄 나뭇가지 흔드는 바람'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말아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인생사의 많은 부분들이 원래 헛되고 부질없는 게 아니겠는가. "착한 당신, 피곤해져도 잊지 마"라는 이 '아득하게 멀리서 오는 바람의 말'과 함께.

백마고지(白馬高地)

-제9사단 제28연대 제6중대장 김운기 대위

백마고지 잔인한 어머니, 그 품속에 말없이 누워

하늘의 별을 세는 땅 위의 별들을 본다.

우람한 원시의 생명과 작은 들꽃의 향기와

새들의 노래 대신, 포탄의 잔해와
 화약냄새와 그 밑의 생명이
 별이 되어 쉬고 있는, 그 산은 백마고지
 다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다가서고 싶은 그리움도 민통선에 묶이는 산
 395고지 백마산, 이름 없는 능선이
 세계의 戰史에 떨친다
 언제면 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산은 산으로 돌아오려나.

- 〈용산 전쟁기념관 자료실〉

*백마고지 : 1952년 10월 6일, 저녁 장용후이[江擁輝] 장군이 지휘한 중국 인민지원군은 제38군단의 6개 연대에 지원부대병력을 합하여 총병력 4만 4,056명을 이끌고 철원 서북방 395고지를 공격했다. 국군은 김종오 소장이 지휘하는 제9사단 예하의 제28·29·30연대 병력 2만 명에 국군 제51·52·53포병 대대, 국군 제53전차중대, 미군 제214자주포병대대, 미군 제955중포병대대, 미군 제73전차대대 등의 지원을 받아 중국 인민지원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9일 동안 12번의 공방전 끝에 중국 인민지원군은 1만여 명, 국군은 약 3,500명의 사상자를 냈고, 10월 15일 오전에 국군의 승리로 끝났다. 7회나 주인이 바뀌는 혈전을 수행한 끝에 백마고지를 확보하였다. 이 와중에 산정상은 3m나 깎였다. 속살을 보인 산 정상 하얀 바위들이 백마를 닮았다고 하여 395고지가 백마고지로 불리게 되었다.

위의 시는 기성시단의 유명 시인이 쓴 시가 아니다. 6.25 전쟁 중, 참전군인이 생과 사가 오가는 치열한 전투 중에 낙서처럼 적었던 절절한 메모이다. 하긴 유명한 시인이 썼다고 다 좋은 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중학교 국어시간에 선생님이 시를 두 편씩 원고지에 적어오라고 숙제를 주셨다. 모두들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엉터리 시를 지어갔지만 엉뚱한 친구 한 녀석이 유명 시인의 별로 유명하지 않은 시를 베껴서 제출했다. 국어 선생님은 우리들이 제출한 시를 읽으시며 일일이 촌평을 하셨다. 마침내 녀석이 제출한 작품을 보셨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모두들 숨을 죽였다. 선생님은 '이것은 시가 아니라 단어들을 배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야단치셨다. 수업이 끝난 후 모두들 웅성거렸다. 까까머리 중학생들의 주된 의견은 '유명시인의 시를 베껴서 제출한 것은 물론 잘못이지만 일개 중학교 국어교사가 유명시인의 작품을 저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옳으셨다.

최근, 베스트셀러인 유명 시인의 시집을 읽었는데 몇 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가 무책임한 단어배열과 관념의 유희들로 가득 찬 낙서장갈다는 느낌이 들었다. 최근 이 나라에 가장 많은 것 세 가지가 러브호텔과 교회와 시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인이 너무 많은 나라의 비극인 것이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 100년간 한국어로 쓰인 100편의 명시를 고르라면, 감히 김운기의 '백마고지'를 꼽겠다고 했다. 하늘을 쳐다보

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르다 목숨이 꺾인 젊은이들에게 백마고지는 ‘잔인한 어머니’ 며 ‘하늘의 별’이었을 것이다. ‘하늘의 별을 세는 땅 위의 별’은 죽은 전우들이다. 들꽃 같은 군인은 세계사에서도 보기 드문 동존상잔의 피비릿내 나는 6·25전쟁을 가슴 저리게 적고 있다. 세계적인 거장이 만든 그 어떤 영화보다 전쟁의 참상이 생생히 그려져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별들. 산산이 가루가 되어 연기처럼 사라진 들꽃 같은 그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김운기 대위라는 분이 누군지 궁금했다. 다행히 그가 적은 수기류의 자료가 몇 가지 있어 일부를 소개한다.

"자, 가자! 지금부터 낙오하는 놈은 용서 없어!" 대위는 이렇게 소리치며 전투에 나섰다. 나도 그 대열에 끼어들었다. "이봐, 소위! 귀관은 뭐야?" 대위는 나를 쏘아 보았다. "예, 저는 00연대 하사관 교육대 구대장입니다." "귀관은 머저리구만." "예?" "따라오지 말고 귀관의 부하들을 수습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 자리에 우뚝 서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수습해야 할 병사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철의 삼각지> 김운기1989

병상록(病床錄)

김관식

병명도 모르는 채 시름시름 앓으며
몸져 누운 지 이제 10년
고속도로는 뚫려도 내가 살 길은 없는 것이냐
肝, 心, 脾, 肺, 腎.....
오장(五臟)이 어디 한 군데 성한 데 없어
생물학 교실의 골격표본처럼
뼈만 앙상한 이 극한상황에서.....

어두운 밤 터널을 지내는
 디젤의 엔진 소리
 나는 또 숨이 가쁘다 열이 오른다
 기침이 난다
 머리맡을 뒤져도 물 한 모금 없다
 하는 수 없이 일어나 등잔에 불을 붙인다
 방안 하나 가득찬 철모르는 어린것들
 제멋대로 그저 아무렇게나 가로세로 드러누워
 고단한 숨결은 한창 얼크러졌는데
 문득 둘째의 登錄金과 발가락 나온 운동화가 어른거린다.
 내가 막상 가는 날은 너희는 누구에게 손을 벌리나
 가여운 내 아들딸들아,
 가난함에 행여 주눅들지 말라
 사람은 우환에서 살고 안락에서 죽는 것,
 백금(白金) 도가니에 넣어 단련할수록 훌륭한 보검이 된다
 아하, 새벽은 아직 멀었나 보다.

- 시집 <다시 광야(曠野)에서> (창작과비평사 1976)

자고로 사모곡(思母曲), 사부곡(思父曲)이 많다지만 죽음을 앞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며 쓴 시는 드물었다. 이 시는 가난한 시인이 병이 든 채 몸져누워 극한에 도달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아들딸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유언을 일기형식을 빌려 표현한 애절한 시이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난뿐이지만 가난함에 주눅 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생전 아버지로서 도리를 해주지 못한 것들이 등록금, 떨어진 운동화로 표현되어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더구나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음을 염려하고 있는 장면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그러나 빛만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법……。 인간의 삶이 우환에서 살고 안락에서 죽는 것이고, 백금(白金)은 뜨거운 도가니에 넣어 모질게 단련될수록 훌륭한 보검이 됨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사후에 예견되는 고난을 이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현(又玄) 김관식(1934~1970)은 어려서 시 1천 수를 외는 신동(神童)으로 소문이 났으며, 한학(漢學) 수학을 하며, 동양고전과 유학(儒學)을 두루 섭렵하였다. 강경농고 졸업 후 동국대학교 농과대학을 다니다 중퇴하였으며, 서울상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55년 [현대문학]에 시 <연(蓮)> <계곡에서> <자하문 근처>가 동서지간(同壻之間)이던 미당 서정주에 의해 추천되어 문단에 정식 등단하였다. 미당 서정주의 손아래 동서이다.

이 후 [세계일보]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1960년 4·19혁명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물 정치인 장면(張勉: 후에 총

리)과 겨루기 위해 서울 용산 갑구에 출마해 낙선한 뒤,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리다 병을 얻어 1970년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세속적 굴레에 얽매이지 않는 호방(豪放)한 기질 탓에 문단사(文壇史)에 몇 안 되는 기인(奇人)으로 손꼽힐 만큼 많은 기행(奇行)과 일화(逸話)를 남기며, 문단에서 ‘미친 아이’로 불렸다. 그는 타인의 시에 가식(假飾)이 있다거나 바르지 못하다는 판단이 서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곧바로 독설(毒舌)을 내뱉었다. 문단의 중진들을 부를 때도 격식과 예의를 차리지 않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에게도 ‘군(君)’자를 붙여 제자 다루듯 대했다. 4·19혁명에 감격해 국가의 민주화와 발전에 기여한 다며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당연히 낙선했다. 그 후 가난한 시인들을 위해 집을 지어준다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산동네에 무허가 판잣집을 지어 파는 등 기행(奇行)을 펼쳤다.

그는 어려서 한학(漢學)을 수학하며 동양고전과 유학(儒學)을 두루 섭렵했다. 서예(書藝)에 조예가 깊었던 까닭에 동양적 가치와 정신세계에 깊은 애정을 갖고 동양적인 감성을 시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정서와 정감(情感)을 지키고 동양적 가치를 긍정하는 시인의 작품들은 자연히 당시의 서구 동경적(西歐憧憬的) 시대 조류에 반(反)한 것으로 큰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다시 그의 작품은 노장사상(老莊思想)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된다. 그의 기행(奇行)은 이러한 흐름과 세태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자 반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면이 있다.

김관식 시인의 아내 방옥례씨의 회상기에 의하면, ‘세검정 산등성이의 술집에서 그를 모르면 간첩’ 이라고 할 정도로 술꾼이었다. 미당 서정주의 처제이기도 한 방 여사는 은행원이던 21세 때 세 살 아래인 김 시인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프러포즈를 받았다. 방 여사가 거절하자 그는 음독자살 소동을 벌이고, 결국 그들은 술처럼 ‘영망진창’인 결혼식을 했다. 그는 신혼 초부터 술과 아내와 동거하며 교편을 잡았으나, 술에 취해 교단에 서고, 교장 사택에 용변을 보고, 제자들과 ‘왕왕 구락부’를 조직해서 남의 개를 잡아 먹었고, 술에 취해 거의 매일 지게꾼에 실려 집에 왔다. 그래서 자주 학교를 옮겨 다녔고, 그러면서 술 주전자와 술 빈 병을 재산으로 남기고 타계(他界)했다.

남편이 간 후 방씨는 2남 3녀를 키우기 위해 스웨터 행상, 군화공장 공원, 회사원 등으로 온갖 고생을 해 왔는데, 이즈음 비로소 남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다고 한다. ‘조그만 인생이 되길 거부하는 거인, 천길 벼랑 청솔가지 위에 다리 하나 오그려 젖힌 거만한 송골매, 하늘 끝까지 올라간 송골매 중 가장 억센 송골매’라고 김관식 시인을 표현했다. 그가 말했던 새벽은 어두운 밤 터널을 지나서 죽음 이후에 밝아오고 있었던 것일까?



연보(年譜)

이육사

'너는 돌다릿목에서 쥐 왔다'던
할머니의 핀잔이 참이라고 하자.

나는 진정 강언덕 그 마을에
버려진 문발이였는지 몰라.

그러기에 열여덟 새 봄은
버들피리 곡조에 불어 보내고

첫사랑이 흘러간 항구의 밤
눈물 섞어 마신 술, 피보다 달더라.

공명이 마다곤들 언제 말이나 했나
바람에 붙여 돌아온 고장도 비고

서리 밟고 걸어간 새벽 길 위에
간(肝) 앞만이 새하얗게 단풍이 들어

거미줄만 발목에 걸린다 해도
쇠사슬을 잡아맨 듯 무거워졌다.

눈 위에 걸어가면 자욱이 지리라.
때로는 설레이며 바람도 불지.

- [시학] 창간호(1939. 4)

이육사 시인(1904 ~ 1944) 은 시작(詩作)활동 못지않게 독립투쟁에도 헌신한 분으로 전 생애를 통해 열 일곱 번이나 일제에 투옥되었다. 요즈음의 말로 하자면 이육사 시인의 본업(本業)은 독립운동이고 부업(副業)이 시작(詩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광야>와 <절정>에서 보듯이 그는 식민지하의 민족적 비운(悲運)을 소재로 삼아 강렬한 저항의 의지를 나타내고, 꺼지지 않는 민족의 의지를 장엄하게 노래한 대표적인 민족시인이다.

이 시는 육사의 시에서 쉽게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강인한 남성적 어조 대신 화자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고통과 질곡, 불안한 의식 등을 잔잔한 어조로 솔직 담백하게 펼쳐 보여 주는 소품(小品)이다. 주지하다시피 육사는 시인이면서도 40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친 우국지사요 독립 운동가였다. 국내는 물론 만주와 중국 대륙을 전전하며 항일 독립 운동에 모든 것을 바친 그는 자그마치 열일곱 번이나 일경에 체포되어 구금, 투옥 생활을 했으며, 결국은 광복을 불과 1년 정도 앞두고 낯선 중국 땅에서 옥사했다. 이같이 화려한 항일 무장 투쟁 속에서도 그는 한 인간으로서 겪던 고뇌와 좌절을 솔직히 표출한 시를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그런 특징을 드러내는 작품으로는 위의 <연보>와 <노정기(路程記)>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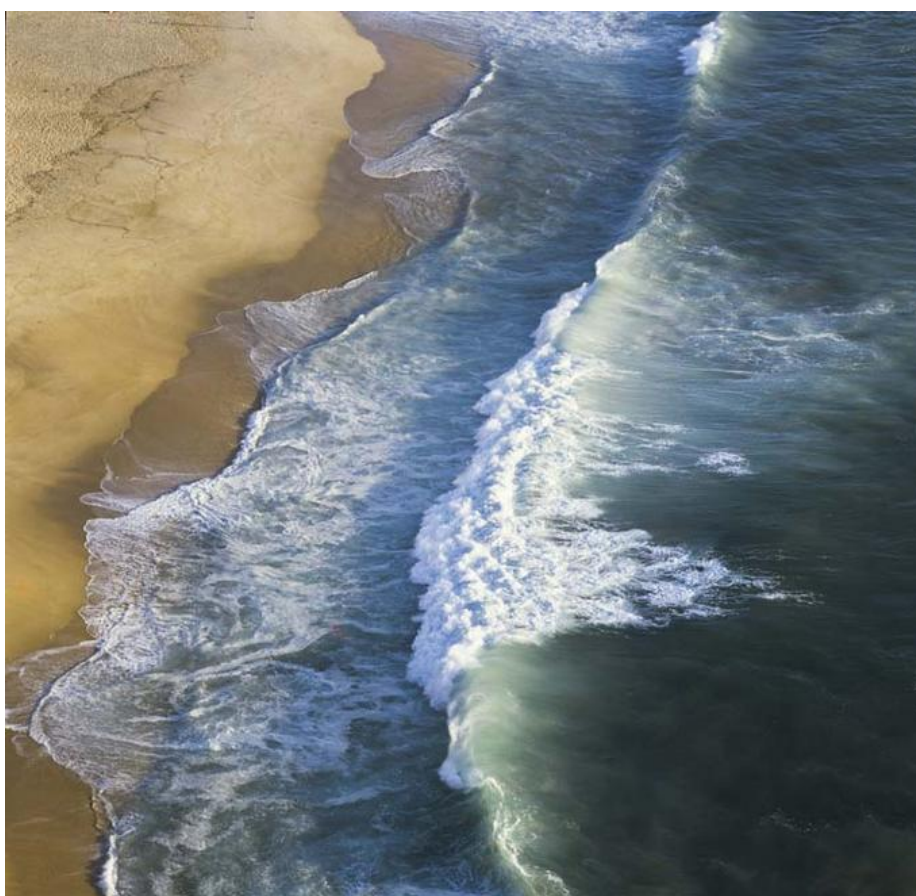
위의 시 <연보>는 각 연이 2행으로 된 전 8연의 구성으로, 육사시 특유의 정형성을 보여 주는 이 시는 내용상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1~4연의 앞 단락은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과 흘러간 세월의 덧없음을 표출하고 있다. '너는 돌 다릿목에서 쫓아 왔다면 / 할머니의 핀잔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화자에게서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순진무구하게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런 장난기 어린 어른들의 말을 듣고 자라났다. 화자는 나아가 '강 언덕 그 마을에 / 버려진 문받이였는지 모른다'고 인식할 뿐 아니라, '열여덟 새 봄은 / 버들피리 곡조에 불어 보냈다'고 하면서, 고통과 슬픔 속에 흘러가 버린 자신의 삶을 슬픈 눈으로 되돌아보기도 한다. 그도 인간이어서 그랬던 것일까. 강한 신념의 시인답지 않은 의외의 어조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화자는 마침내 '첫사랑이 흘러간 항구의 밤 / 눈물 섞어 마신 술, 피보다 달더라'라며 극한적인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게 된다.

5~8연의 뒤 단락은 현재의 삶 속에서 겪는 고통과 질곡이 나타나 있다. 힘겨운 독립 투쟁의 유랑 생활을 하는 그이기에 '바람에 불여 돌아온 고장도 비어' 있을 뿐이다. 또한 '서리 밟고 걸어난 새벽 길 위에 / 간헐만이 새하얗게 단풍이 들어'라는 구절에서 '서리'는 그의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며, '단풍'은 그가 자신의 삶을 이미 퇴색해 버린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거미줄만 발목에 걸린다 해도 / 쇠사슬을 잡아맨 듯 무거워지'는 고통의 극한에 자신이 처해 있음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끝내는 자신의 삶에 대해 슬픈 긍정과 자기 위안을 보내는 비장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시인 이육사는 1941년 폐를 앓아 성모병원에 입원, 잠시 요양했으나, 독립운동을 위해 1943년 초봄, 다시 북경으로 갔다. 그 해 4월 귀국했다가 6월에 피검(被檢), 북경으로 압송되어 수감 중 병보석으로 출옥해 친척집에서 사망했다. 유해는 고향 뒷산에 안장되었고, 1968년 안동시에 시비(詩碑)가 세워졌다.

그가 문학 활동을 한 때는 문학사적으로 보아 문단의 암흑기였다. 이 시기에 이광수, 서정주 등 많은 문인들이 변절하여 친일문학으로 타락했으나, 그는 끝까지 민족적 신념을 지키며 죽음으로써 일제에 저항했다.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시풍을 보이면서도 <절정> <광야> <꽃>에서 보듯 서정을 잃지 않은 저항시를 썼으며, 상징적이면서도 화려한 수법으로 암흑 속에서도 민족의 신념과 의지를 노래했다. 그의 작품의 대부분이 1935년을 전후해서 씌어졌는데, 이때는 그가 중국과 만주 등지를 전전하던 때인 만큼 광활한 대륙을 배경으로 한 북방의 정조(情調)와 함께 전통적인 민족정서가 작품에 깃들여 있다. 생전의 유작(遺作) 20여 편은 신석초 등의 문우(文友)들에 의해 1946년 <육사시집>으로 꾸며졌다.



강릉바다

김소연

우리 다음 생애에 다시 만나면
이렇게 잘 닦여진 길 안에서 하염없이
걷고 걷고 또 걷고... 그러지 마요

길을 버리고 걸어가요
바다로 걸어 들어가요

넓은 앞치마를 펼치며
누추한 별을 행구하고 있는

나는 파도가 되어
바다 속에 잠긴 오래된
노래가 당신은 되어

주어(主語)의 위치를 살짝 비틀어 바꿈으로써 묘한 맛을 이끌어내는 마지막 두 줄이 압권인 아름답기 그지없는 시이다. 게다가 넓은 앞치마를 펼쳐서 누추한 별을 행구는 정갈함에 온 몸이 전율한다.

인간의 삶은 윤회(輪廻)한다. 인간의 삶이 윤회(輪廻)한다는 것은 석가의 가르침 이전인 힌두교에서부터 믿어왔던 것이고 그리스도 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약, 구약성서에서 줄기차게 빠져나오는 사실들이다. 시인은 강릉바다를 보며 인간의 고독에 대하여 다음 생애를 연관시켜서 걷고 있다.

김소연 시인(1967~)의 시는 인간내면의 바깥에 서 있는 존재의 절망과 고독과 소외의 의식을 보여준다. 자의식에 가까운 시인의 이러한 감정들이 서로 융합되고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무의 냄새를 불러일으킨다. 위의 시 '강릉바다'는 우선 바깥의 풍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 바깥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은 끊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심은 완벽하게 폐쇄되어 있어 거기에 이르는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 중심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법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김소연의 시에서는 안의 풍경을 비춰주는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곳은 시인에게 있어 '알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시인에게 남아 있는 길은 그 주변 풍경이나마 온전히 그려내고 노래하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끊어진 길 위에서 부르는 노래이기에 적절한 울림을 갖고 있다.(문학평론가 김진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위대한 관계, 사랑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아야겠다.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걷고 또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 닦여진 길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를 읽고 난 다음부

터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너무 넓고 흔한 사랑법이라고 이 시는 말하고 있다. 이미 정해진 길을 쳤바퀴 돌 듯 따라가는 일은 다음 생애가 있고 그 다음 생애가 또 있는 바에야 너무 지겹고도 따분한 일이 아닐는지. 길을 버리고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일……. 조용하고 쓸쓸하며 앞이 확 트인 강릉 바다 앞에 서면 저도 누구라도 그런 사랑을 꿈꿀 것 아닌가.



낙화(落花)

조지훈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랴.

주렴 밖 성긴 별이
하나 둘 스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담이가
우련 붙어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허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 〈상아탑 5호〉 (1946. 4)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지는 꽃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서글픔을 차분하게 노래한 한 폭의 잘 그린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이 시는 조지훈 시인(1920 ~ 1968)의 대표작품이다. 화자의 쓸쓸한 삶의 우수가 적막한 분위기, 전통적 율조를 바탕으로 절제된 언어 속에 압축되어 있다. 또한, 시의 진술이 비유 없이 묘사적 심상에 의지하고 있어 읽을수록 시의 이미지 속으로 몰입되게 만든다.

이 작품에서는 속세를 멀리한 은자(隱者)의 체념과 선비의 정신적 지조와 자부가 동시에 드러난다. 옛 시조에서 흔히 보이는 주제 의식과 맞닿아 있으며 선비로서의 기품과 달관의 고양된 정신세계가 정적이며 신비감을 주는 아침녘 뜰의 분위기와 조화되어 선적(禪的)이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더욱이 '지기로소니, 탓하랴, 저어하노니' 등의 우리말의 고풍스런 시어들은 은자의 이미지와 어울리면서 높은 품격을 더하고 있다. 세 마디와 네 마디 가락을 섞어 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연시조 형태에 가깝게 느껴진다.

시상의 전개를 살펴보면, '뜰→ 방안→ 마음'으로 이어지는 공간 이동의 추이에 따라 '낙화→ 낙화의 아름다움→ 은자의 고운 마음'으로 이어지며, 화자의 심정을 낙화의 이미지로 그리면서도 고상하고 아취(雅趣) 있는 선비의 기품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연, '꽃이 지는 아침은 / 울고 싶어라'에서는 정적이며 신비감을 주는 이미지에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시심의 극치를 만들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사라질 때에는 아쉽고, 쓸쓸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람의 일상적 감정이 시인에게는 늘 주요한 시적 주제가 되어 평범한 소재도 다채로운 목소리로 노래하게 된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이 꽃의 떨어짐을 보면서 걱정적인 슬픔을 노래한다면, 이 시는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삶에의 달관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 작품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새벽이 가까운 밤의 적막한 분위기에 어울리게 나지막이 들려온다.

한국의 전통 의식과 민족의식을 서정적 대상을 삼는 조지훈 시인의 초기의 시적 성과는 박두진, 박목월과 함께 펴낸 〈청록집〉에 집약되어 있다. 해방 공간에서 조지훈은 순수한 시 정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시인으로 설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개성의 자유를 옹호하고 인간성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 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는 절제된 언어, 정형시에 가까운 정도로 정돈된 시행이 전체적인 시적 균형을 이루는 단아(端雅)하기 짝이 없는 작품이다.

북에서 온 어머님 편지

김규동

꿈에 네가 왔더라
스물세 살 때 훌쩍 떠난 네가
마흔일곱 살 나그네 되어
네가 왔더라
살아생전에 만나라도 보았으면
허구한 날 근심만 하던 네가 왔더라
너는 울기만 하더라

내 무릎에 머리를 묻고
한마디 말도 없이
어린애처럼 그저 울기만 하더라
목놓아 울기만 하더라
네가 어찌면 것처럼 여위었느냐
멀고먼 날들을 죽지 않고 살아서
네가 날 찾아 정말 왔더라
너는 내게 말하더라
다신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눈물어린 두 눈이
그렇게 말하더라 말하더라.

- 시집 <죽음 속의 영웅> (근역서제 1977)

냉전의 이데올로기가 거의 사라지고 민족의 분단이 부재한 것이 오늘날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산가족의 슬픔이 남아있는 기구한 민족이 우리겨레이다. 1925년생으로 함경북도 경성이 고향인 김규동 시인(1925 ~)은 김일성대학 출신이다. 그가 김기림의 영향으로 월남한 이후 곧장 6.25전쟁이 터지게 된다. 단신으로 서울로 남하하게 된 탓으로 흠어머니와 두 누님과 동생과의 연락이 끊겨버린 것이다. 그리고 노년이 된 시인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머니를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시는 분단으로 인해 헤어진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시이다. 화자가 '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되어 있다. 물론 이 편지는 북에 있는 어머니가 실제로 인편을 통해 남에 있는 아들에게 직접 보낸 편지가 아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머니가 만약 아들인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는 시인의 마음이 담긴 시이다.

'멀고먼 날들을 죽지 않고 살아서 / 네가 날 찾아 정말 왔더라' 는 구절을 통해 시인은 앞으로 통일이 되어 더 이상 혈육의 헤어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규동 시인의 다른 시 '천(天)'을 보도록 하자.

천(天)

규천아, 나다 형이다 (전문)

규천(奎千)은 1948년 1월 평양에서 헤어진 아우 이름이다. "규천아, 나다 형이다" 이 한 마디 불러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 하늘을 올려보고 그리워했겠는가. 사람이 살며 하늘을 바라보아야 보이는 그런 사람, 바다를 보아야 보이는 사람, 그 한 사람 가슴에 묻고 산다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격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고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는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헤어짐의 업보를 타고나는 존재는 아닐지 모르겠다. 아,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데킬라

문혜진

데킬라 생각나게 하는 비다
멕시코 남자 싸한 콧김이
플라타너스 잎새에 닿았다가
내 빨간 어깨로 뿜어지는 저녁

술잔을 탁자에 탁 내리치고
반달로 자른 레몬에
설탕, 커피를 꼭꼭 눌러
한입에 빨아들인다
침이 확 고이고
코끝이 시큰거려
신맛
단맛
쓴맛이
왈칵
죽은 애인의 주소처럼 밀려온다

인생은 참 화냥년 같아*
그치?

*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조르바가 한 말이다.

- 시집 <질 나쁜 연애> (민음사 2004)

멕시코 특산의 다육식물인 용설란(龍舌蘭)의 수액을 채취해 두면, 자연히 하얗고 걸쭉하게 되어 풀케라는 탁주가 된다. 이것을 증류한 것이 테킬라이다. 멕시코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용설란을 삶아서 갈아 즙을 낸 후 발효해 마시던 술이 있었는데 그게 널리 멕시코인들에게 사랑받는 우리의 맥주처럼 애용한다는 풀케(Publique)다. 풀케는 우리의 막걸리 같은 양조주다. 이후 스페인으로부터 증류기술이 전파되고 이 풀케를 증류해서 맑게 만든 것이 메스칼(Mescal)이다. 이 메스칼은 멕시코의 여러 곳에서 생산 되지만 그 중 Agave Azul Tequilana를 원료로, 데킬라 지방에서 생산해 내는 술을 정부가 특별 관리해서 데킬라란 술이 만들어진다. 주정도 40도 정도의 무색투명한 술인데 마실 때는 손등에 소금을 올려놓고 그것을 핥으면서 쪽 들이켜는 것이 본식(本式)이다. 원래 테킬라는 한 지방의 토속주로서 그다지 고급술은 아니었으나 1960년을 전후로 세계적으로 유행한 '테킬라'라는 재즈에 의해 선풍적으로 유

명해졌으며, 특히 멕시코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문혜진 시인(1976 ~)은 현대인, 그 중에서도 ‘도시 아이들’의 놀이 현장을 발랄하고 경쾌한 감각과 과감하고 거침없는 몸짓으로 장난기 가득하게 그려낸다. 그래서 그의 시는 언뜻 만화, 영화, 대중음악 등 도시적 요소와 약물에 취한 뒷골목 아이들의 반항과 일탈의 기록인 듯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각 시편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잃어버린 순수성과 상처 입은 영혼에 대한 연민, 그리고 기계적이고 비인간화된 도시문명을 원초적 생의 에너지로 극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발견하게 된다. 시인은 화려하고 선정적인 것들로 가득한 도시에 신선하고 생생한 야성을 되살려 냄으로써, 순정하지 못한 지적 포즈보다는 차라리 ‘질 나쁜 연애’가 더 생애 충실한 것일 수 있음을 대단히 명쾌하게 보여준다.

"외설스러울 정도로 대담한 성적 표현들, 억압적인 제도에 반기를 드는 불온한 진술들, 문혜진의 시는 미지근하거나 밋밋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본능을 거침없이 표출한다."고 최승호 시인은 평가했다. 그것은 도시 문명의 특성과 관계된다. 도시는 콘크리트와 유리질의 견고한 성체인 동시에 흡입과 발산이 빠른 대단히 탄력적인 구조다. 그곳에선 진지함은 우스꽝스럽고 ‘촌스러운’ 것이 되며, 무거운 것을 무거운 것으로 이겨내려는 것은 어리석고 구태의연한 발상일 뿐이라는 것이 시인의 인식인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 도시에선 심각해지기보단 그저 질 나쁜 연애나 하고 말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시인의 몽상일 뿐이며, 단언컨대 현실에서는 결코 그렇게 쉽게 연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연애는 질이 나쁘거나 좋을 수 없는, 언제나 절실하기 때문에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적나라해진 화자는 거의 아이와도 같은 눈빛으로 글을 전개한다. 그리고 그 천진한 시선에 비친 도시의 환영과 허상을 거침없이 발설함으로써 독자들은 숨길 수 없는 치부를 들킨 것처럼 뜨끔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과감하게 ‘말해’ 버려도 여전히 남는 질문은 있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도시에서 떠나고 싶은, 그러나 떠나지 않는, 혹은 떠날 수 없는 무수한 ‘나’들은 떠나지 않고, 다만 살아갈 뿐이다. 이 비극을 비장한 것으로 몰아가지 않고 희화화함으로써 단숨에 그 무게를 털어낸다. 이렇게 우리들은 도시 속에서 살아나가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침, 위의 문혜진의 시와는 별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해서도 생각나는 것이 있다. 지금도 백발의 노인 조르바가 말하고자 했던 ‘자유’가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다만 살아갈 뿐이다’가 답이 아닐는지? 카잔차스키의 묘비명인 ‘아무 것도 원치 않는다,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에서 말하는 그것(자유)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아무 것도 원치 않는 자유,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는 과연 존재하긴 하는 걸까, 하는 점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다만 살아갈 뿐인데…….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란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지요?”

“자유라는 거제!”

-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카잔차스키) 중에서-

아니오

신동엽

아니오
미원한 적 없어요,
산 마루
투명한 햇빛 쏟아지는데
차마 어둔 생각 했을리아. 차마,

아니오
괴롭힌 적 없어요,
능선(稜線)위

바람 같은 음악 흘러가는데
뉘라, 색동 눈물 밖으로 쏟았을 리야.

아니오
사랑한 적 없어요,
세계의
지붕 혼자 바람 마시며
웃입은 도시 계집 사랑했을리야.

-〈신동엽 전집〉(창작과 비평사 1975)

이보다 훌륭한 시는 scarce 했지만, 위의 시보다 간단명료하면서 강한 메시지를 품은 사랑시를 나는 보지 못했다. 나의 과문함 탓이겠지만 요즈음 발표되는 시들에게선 왜 이처럼 운율이 두드러지고 호소력 강한 시를 찾을 수가 없을까.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차이이겠지만 요즈음의 젊은이들은 시를 잘 읽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청소년들이여, 시를 읽으세요. 제가 여기에서 소개하는 신동엽(1930~1969)은 양미간이 좁은 얼굴의 개그맨이 아니고 불꽃처럼 살다간 위대한 시인의 이름이다.

흔히들 신동엽과 김수영을 다만 참여시의 양대 산맥쯤으로 생각하지만 두 사람의 시세계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김수영이 도회지 출신(종로6가)으로 도시적 감수성의 시를 썼다면 신동엽은 농촌 출신으로 농촌 공동체적, 자연친화적인 시풍을 지녔다. 주제 면에 있어서도 김수영이 모더니즘적 전통에서 출발해 '자유'의 문제를 탐구했다면 신동엽은 이것을 민족의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그의 시에 드러나는 서정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시어들은 그의 실제 삶 체험에서 녹아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동엽은 외세 강점기인 일제 말기에 태어나, 외세의 대리전쟁이랄 수 있는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엔 밀려드는 외세의 문물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우리의 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시인이었다. 그가 오늘날 참여시의 원조 격으로 분류되는 탓에 그의 시어가 지닌 농밀한 서정성을 등한히 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의 시가 지닌 품격은 단지 그가 참여적인 강한 메시지를 담은 시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작품 자체가 지닌 높은 문학성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관한 평전과 미발표 시집 및 산문집을 접해 보면 무엇보다도 그는 '사랑'의 서정시인으로 출발하여 우람하게 민족정서를 퍼 담는 장시(長詩), 담시(譚詩)의 민중시인으로 나아간 것임을 살필 수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시가 위의 시 '아니오' 일 것이다. '세계의 / 지붕 혼자 바람 마시며 / 웃 입은 도시 계집 사랑했을 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가 진정 사랑하고 동경했던 세계가 무엇인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의 시세계는 그 한쪽 끝에 식민지 정서와 6·25와 분단이라는 깨뜨려버려야 할 어두움이 도사려 있고 반대쪽에는 민족유년기의 사랑 사화(史話)인 아사달, 아사녀와 부여 곶나루의 동학과 수유리의 4·19, 그리고 민족통일의 벽찬 꿈이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분수(噴水)

김춘수

발돋움하는 발돋움하는 너의 자세는 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하는가.

그리움으로 하여
왜 너는 이렇게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져야 하는가.

2

모든 것을 바치고도
왜 나중에는
이 찢어지는 아픔만을
가져야 하는가.

네가 네 스스로에 보내는
이별의
이 안타까운 눈짓만을 가져야 하는가.

3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떨어져서 부서진 무수한 네가
왜 이런
선연(鮮然)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야만 하는가.

- 시집 <꽃의 소묘> (백자사 1959)

김춘수 시인(1922 ~ 2004)은 1940년대까지 이어온 전통적인 정조(情調)와 리듬에 도전, 신 감각으로 시사(詩史)에 있어서 새로운 문학정신과 사실성 표현하여 독자적인 시의 경지를 구축해 왔다. 그의 초기 시는 인식의 추구가 앞서고, 이후에 있어서는 의미 배제의 경향이 짙게 변모된 것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1980년 광주 항쟁 이후 태동한 전두환의 5공화국 독재 정권 하에서 자신의 지론인 순수시, 무의미 시의 철학과는 정반대로 당시 민정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어 그 '순수시의 순수성'이 지닌 불순한 의도를 의심받게 되었다. '독재자의 개'가 된 것이다. 이는 미당 서정주가 전두환을 '단군 이래 5천년 만에 만나는 미소의 인간'으로 말하고 찬양 연설을 한 것과 함께 당시 젊은 문학 지망생들과 양심 있는 지식인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희대의 사건이었다. 두고두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 '분수'를 읽으며 사람은 자신의 언행에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시인과 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김춘수의 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자. 다들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겠는가. 김춘수의 시에서 보이는 언어는 인식을 위한 도구로서 의미 전달이라는 언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미지 환기의 수단으로 표현되었다. 아울러 그는 의미를 배제한 이미지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시의 조형적(造型的) 사실성(리얼리티)을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그의 시에 있어서 언어는 단지 이미지만 남아있는 느낌을 짙게 풍겨주어 설명적 요소와 논리적 요소가 제거된 시적 상황을 새로운 활로(活路)로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런 그의 시 경향을 전문용어로 난센스 포에트리(nonsense poetry-무의미시)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위의 시 '분수'가 아닐까 한다.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한 안타까운 발돋움을 하지만, 마침내 처참한 좌절을 겪고는 한다. 시인은 그러한 안타까운 그리움의 발돋움과 좌절의 원인을 추적해 나가고 있다. 1, 2, 3부로 나아가면서 이 물음은 심화되어 간다. 1부의 경이와 충격의 물음이 2부에선 향의를 담은 안타까운 물음으로, 3부에선 마침내 숙명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해답을 얻어 깨달음에 이르는 물음으로 발전한다. 그리하여 안타까운 발돋움과 좌절, 다시 시도하는 발돋움의 이 끝없는 눈물겨운 되풀이는 그리워하도록 숙명 지어진 그 영원한 그리움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는다. 좌절을 딛고 선연한 무지개로 다시 피어오르게 하는 그리움이 우리 마음에도 번져오게 만드는 감동적인 시이다.

이 시에는 세 가지 형식적 특징이 있다. 1, 2, 3부로 나뉘어 있고, 모든 연이 의문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시 전체가 순수한 이미지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각 부는 2연씩으로 이루어져 다른 시의 한 연과 같은 구실을 하고, 각 부는 3단계로 발전하여 이 시를 완성한다. 3단계적 점층 구성을 이루고 있다. 안타까운 발돋움과 좌절, 다시 시도하는 발돋움의 끝없고 숙명적이며 눈물겨운 되풀이……. 그리워하도록 운명 지어진 그 영원한 그리움……. 선연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야만 하는 아픔. 여러번 되풀이해서 읽으면 자신에게 내재된 숨은 시적 감각이 살아날 것 같은 좋은 시이다.



북한강에서

정호승

너를 보내고 나니 눈물 난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날이 올 것만 같다
만나야 할 때에 서로 헤어지고
사랑해야 할 때에 서로 죽여버린
너를 보내고 나니 꽃이 진다
사는 날까지 살아보겠다고
돌아갈 수 없는 저녁 강가에 서서

너를 보내고 나니 해가 진다
두 번 다시 만날 날이 없을 것 같은
강 건너 붉은 새가 말없이 사라진다

- 〈창작과 비평〉 1989년 여름호

인간과 인간간의 안타까운 헤어짐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글을 꼽으라고 하면 나는 정호승 시인(1950 ~)의 '북한강에서'를 꼽겠다. 정호승의 시는 무엇보다 중간중간 끊김없이 잘 읽히는 강한 흡인력을 갖고 있다. 부담감을 주는 시어(詩語) 또한 없다. 이는 시인이 전통시가의 율격, 구어 혹은 민요체를 사용하며 시적 소재를 일상의 친숙한 대상에서 구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또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꾸밈없는 위로의 목소리도 이에 한 몫 한다. 그의 시편들은 한 지점에서 삶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일상적인 삶과 짝 엉겨 붙어 있다. 그의 시를 읽음으로써 막연한 위로가 아닌 구체적인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호승은 소외된 주변인들의 고단하고 사연 많은 삶을 아궁이에 지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스한 기운을 시의 세계로 옮겨놓고 있다. 고단한 삶을 마치 땀감처럼 지피는 그의 마음은 읽는이 본인의 사정처럼 간절하게 읽혀진다. 그는 결국 이 세상을 덮히는 땀감은, 다름 아닌 상처를 떠안고 살아가는 주변인들, 거대한 힘에 눌려 사는 소시민들의 애절한 삶임을 설파한다. 이 애절한 삶은 세상의 곁핍을 드러내는 삶이며, 기다림과 그리움의 삶이다. 정호승은 서럽고 억울한 삶들이 기다리는 것과 자신의 기다림을 섞어 버무리며 우리에게 삶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직접 얘기했던 "나는 인간이 이루는 삶의 비극성에 관심을 갖는다. 이것이 내 시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라고 이야기한데서 다시금 확인된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전통적인 정서인 한(恨)이나 비애의 세계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그는 이 '슬픔'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들의 아픔, 전쟁이나 분단, 독재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의 상처까지도 끌어안고 따뜻하게 위무해 준다. 이처럼 그는 현실의 모순 아래서 고통 받고 있는 삶을 노래하면서도 그 삶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 미래 지향적 자세를 보여 준다는 면에서 그의 시는 너무도 따뜻하다.

불행히도 인간의 만남은 늘 그렇듯이 헤어짐을 동반한다. 헤어짐 없는 만남은 없다. 어쩌면 이별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세상에 눈물 없는 이별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우리는 이별할 때 '잘'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안타깝게 설명하고 있다. 사심을 훨씬 넘겨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어쩌면 어떻게 만나느냐보다 어떻게 헤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게 우리네 삶이 아닌가.



정원(庭園)

강은교

옛날 아주 옛날
옛날 내 살던 곳에
빛 하나 소리 하나 기쁨 하나 살았네
성도 이름도 속맘도 몰랐지만

참 깊이 우린 서로 사랑했네
산 강물 바다 넘고 넘어
이제 꽃지는 천지에
어디갔을까
모두 영 가버렸을까

옛날 아주 옛날 옛날
참 깊이 우린 서로 사랑했네
산 강물 바다 넘고 넘어
이제 꽃지는 천지에
어디갔을까
모두 영 가버렸을까

- 계간지 <창작과 비평> (1977 봄호)

이 시는 한동헌이 작곡한 노래에 양희은이 노래하여 나름대로 알려지기도 한 시이다. 우리시대의 대표 여류시인인 강은교 시인(1945~)의 시는 허무를 직관의 인식작용으로 포착하고, 내면의식의 승화작용을 시도하면서 언어의 아름다움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대표 시집 <허무집>의 제목이 말해주듯 그의 시는 짙은 허무의 그림자로 싸여있다. 그 허무는 무속(巫俗)에 대한 시인 나름의 인식 및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 개성 있는 여성적 발상에 의해 자기가 좋아하는 시어(詩語)들을 여성적 운율에 담아 노래한다. 예를 들어, 사랑의 불교적 윤회(輪廻)에 대한 직감을 보여주는 <우리가 물이 되어>는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많은 평론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는 그 당시 여류 시인들이 보여 주고 있던 폭이 좁은 진부한 주제의식과 소박한 서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심도 있고 참신한 시세계를 구축하였다. 당시 삶의 연륜이 짧은 그가 사물과 삶에 대한 인식이 심화될 수 있었던 계기의 하나가 뇌종양의 병고에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다.

허무주의는 그의 초기 시에 있어서 창작 방법상의 주요한 모티브로 자리 잡고 있다. 허무의식을 통해 삶과 죽음의 심연을 파헤치려는 시각에서 씌어진 그의 시는 단순한 느낌의 자세에서 얽혀지기를 허락하지 않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자세를 독자들에게 요구한다. 그가 대학 시절을 보낸 1960년대 후반은 4·19와 5·16을 거쳐 월남파병, 그리고 장기집권을 위한 이른바 근대화정책이 졸속 정책으로 진행되면서 독재적 정치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 팽만해지고 진정한 인간다움의 삶이 극도로 소외되어 가던 시기였다.

그러한 점에 대한 반성은 위의 시 '정원(庭園)'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정원(庭園)의 사전적인 의미는 '집 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이다. 시인은 그러한 정원과 같은 이미지의 고통 없는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작고 소박한 집이 있었고 집 안에는 뜰이 있었다. 꽃나무들도 심겨져 있었다. 그 속에 희망의 빛이 있었고 아름다운 새소리가 있었고 삶의 기쁨도 있었다. 우리는 그러한 에덴동산과 같은 정원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모두가 떠나버렸다. 아니, 누군가가 떠나가게 만들었던 것이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억압된 외부적인 사회현실의 상황 속에 젊은 시절 그의 허무주의는 올바른 삶을 지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현실 대응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의 의도가 어땠던 간에 위의 시 정원(庭園)은 아름답다.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 잊어버린 것들, 찾아야 할 것들, 다시 사랑해야 할 것들, 사과해야 할 것들, 화해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직한 송가(頌歌)

- 金樞機卿 着座式典에

김남조

한국의 흰 꽃에선
순교하신 분들의 피내음이 납니다
차마 눈도 못뜯 피범벅의 형장(刑場)에서
소름끼치며 불 붙이던
영혼의 햇불
그 순교
주의 말씀으로는 사랑이웁는 그것

하긴 그만큼은
아프고 못견딜 열이었기에
땅에 뿌리면 몇 갑절로 솟아오르는 나무가 되고
신령한, 살아있는 바람으로 불어
세계의 못 변방에
청청한 고함으로 번지었거니

초록이 흐르는 오월
주의 형관(荊冠)을 짜는 가시나무조차
함께 유성(油性)의 햇살을 짙는
생명과 관용의 절기
또 이 날에
소박한 축연, 나직한 송가들이 울리며
한 어른을 앞세우고
당신 앞에 더 한결 간망(懇望)의 눈을 적시웁니다
주여

신앙을 위해선
이미 목숨을 바칠 까닭도 없어졌는데
무엇으로 저 넋을 건지리까

소리없는 주악(奏樂)
눈감아 가슴 더욱 깊이 울리웁거니
한국의 흰 꽃에선
순교하신 분의 피내음이 납니다

김남조 시인(1927~)은 1950년대에 등장하여 전세대인 모윤숙·노천명과 후세대인 1960년대 시인들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한 대표적인 시인이다. 그의 시의 정신적 지주는 가톨릭의 사랑과 인내와 계율이다. 때문에 모든 작품은 짙은 인간적인 목소리에 젖어 있으면서도 언제나 긍정과 윤리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종교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배경은 인간적인 목소리를 더욱 짙고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구실을 한다. 한편 기법상으로 보아 관심을 끄는 것은 리듬이 대부분 시행의 자유로운 배열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 형상이 우아하고 유연한 리듬으로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다. 이미지보다는 의미가 강한 그의 언어가 생생한 생명력을 지니는 것도 언어를 꿰뚫는 이러한 리듬 때문일 것이다. 김남조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시의 아름다움은 '인간에 대한 애정, 삶에 대한 경건함' 그리고 사랑의 단심(丹心)을 여성다운 곱고 섬세한 언어로 형상화한 점에 있다.

그는 여성의 섬세한 감각으로 '사랑과 인내' 등을 종교적으로 승화. 가톨릭의 사랑과 인내, 계율을 바탕으로 언제나 사물을 긍정시 여기고, 윤리 의식이 상당히 묻어 나오는 시를 창작했으며 제9시집 〈동행〉 이후 신예의 절대 귀의가 뚜렷이 드러난다.

이 시는 1969년 김수환 추기경의 추기경 착좌식전(着座式典)에서 쓴 시이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새해의 행운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가 범람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면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기원하는 '기념시', '행사시'가 봇물을 이룬다. 그러나 이 시를 읽으면 교인이던 교인이 아니던 뭔가가 기존과는 다른 아름다움과 따스함 그리고 신성함과 경건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추기경은 로마교황이 선임하는 최고 고문으로서 교황청의 각 성성(聖省), 관청의 장관 등의 요직을 맡아보며, 교황선거권을 행사하는 사제 중의 최고위직이다. 김수환 추기경은 1969년 4월 25일 교황 요한 바오로 6세에 의해 당시 전세계 추기경 가운데 최연소 추기경·동양권 최초의 추기경이 되었다. 시인은 '한 어른'의 추기경 착좌가 차마 눈도 못뜰 피범벅의 형장(刑場)에서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하신 분들의 피내음에서 기인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1968년에는 100년 전 병인박해에서 순교한 근 1만 명의 신도 중에서 24 위에게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에서 시복(諡福)함으로써 한국의 복자위(福者位)는 모두 103위가 되었다. 그리고 1983년 9월 로마 교황청은 이들 복자를 다시 성인(聖人)으로 승품시켰고, 1984년 5월 로마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한국 천주교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식전에서 이들 복자위 성인 승품식을 친히 집전하였다.

김남조 시인이 위의 시를 쓴 지도 어언 40년..... 2009년 2월 16일, 세월은 흐르고 흘러 김추기경은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심고 선 종하였다.

'하느님을 말하는 이가 있고, 하느님을 느끼게 하는 이가 있다. 하느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 존재로써 지금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영혼으로 감지하게 하는 이가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이를 잃은 슬픔에 젖어 있다.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 그분이 그토록 사랑한 이 나라, 이 아름다운 터전에 아직도 개인 간, 종파 간, 정당 간에 미움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폭력과 살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진다. 이러한 성인이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났는데도 아직 하느님의 나라는 먼 것인가.(2009. 2. 16자 조선일보, 법정 스님)'

김남조 시인의 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은 가톨릭의 박애정신과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인간 내면의 목소리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노래했고, 언어의 조탁을 통한 유연한 리듬과 잘 짜인 시형의 아름다움은 읽는 이에게 친숙한 느낌과 맑게 정화된 듯한 기운을 안겨 준다. 아름다운 흰 꽃은 아프고 못건달 열이었기에 마침내 땅에 뿌리면 몇 갑절로 솟아오르는 나무가 되고 신령한, 살아 있는 바람으로 불었던 것이다.



안녕, 안녕

박남수

1.

눈총의 난타를 맞으며
실의를 부끄러움으로 바꾸어 지고

돌아오는 금의환향의 입구를
몰래 빠져나가는 좁은 출구에서
손 한번 흔들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비뚤어진 다리를 옮긴다

인사는 못하고 떠나지만
통곡하며 갔다고 전하여다오

2.

언어를 깨던 하얀 손으로는
석탄도 소금도 캐기는 어렵지만
생활의 물결의 높낮이에, 어쩌다
쫓아보는 머리를 쳐들고
새처럼 날아보았으면
새처럼 날아보았으면

그만둘 직장도 없는
정년퇴직의 나이를 꽃지계에 지고간다

3.

웃지 말라, 꾸짖지도 말라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
때리는 채찍은 장난이겠지만
맞는 개구리의 배는
생명과 이어지는 아픔
한 사람의 깊은 아픔은 누구도 달래지 못한다

안녕은 못하고 떠나지만
잊지 않을거라고 전하여다오

- 시집 <그리고 그 이후> (문학수첩 1993)

박남수 시인(1918 ~1994) 은 1970년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시가 실릴 정도의 우리 문학사와 문단에 비중이 대단한 시인이다.

'(전략) 즐거운 지상(地上)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開闢)을 한다.'

박남수 시인의 '아침 이미지'라는 주지시는 필자의 고교시절 대학 예비고사와 본고사에 무척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어 나온 관계로

있을 수 없는 시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시인에게도 정든 땅에서 밥 먹고 살아가기는 힘들었나 보다. 박남수 시인은 유신시절인 1975년 58세의 나이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19년 후인 1994년 미국 뉴저지 주 자택에서 별세한다. 1992년 부인과 사별한 그는 1993년 4월에는 이국생활의 외로움을 그린 〈그리고 그 이후〉라는 시집을 펴내었다.

빛나는 감성의 소유자인 노시인이 조국을 등지고 이역 나라로 가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그를 타국으로 내몰았을까? 위의 시에서 그 실마리들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단 1연의 실의로 인해 비틀거리며 통곡을 하는 모습에서는 읽는 이 누구나 비통함을 느끼게 한다. 2연에서는 좀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나타난다. 시작만 해오던 언어를 깨던 하얀 손으로 그것도 정년퇴직을 할 나이에 새처럼 날아보았으면 하는 갈망 하나로 이민을 떠나는 것이다. 3연에서는 그 동기를 개인적인 아픔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 다음은 독자의 몫이다. 60살이 다된 나이에 조국을 등지고 떠나는 이의 심경을 적은 시에 다른 관념이 끼어들기는 힘들어 보인다.

어떤 고도한 의식의 그것보다도 아주 일상적인 개인사의 고민이 온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 그만큼 진솔하기 때문이다. 시인이 1939년 조지훈·박두진·박목월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문장]지를 통해 정지용의 추천을 받아 등단, 1994년 미국에서 사망하기까지 그의 문학적 삶과 시의 역정이 남달랐음을 이해하고 보면, 저간의 사정은 더욱 짙게 우리에게 공감시키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는 1951년 월남했고, 다시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해 살았다. 연속된 실향, 평생 뿌리내리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그는 이른바 ‘경계인’ 이었다. 이제 여기서 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시는 그의 시집 〈그리고 그 이후〉(문학수첩, 1993)에 실려 있다. 이 책은 그간 그의 다른 시집들과는 좀 다른 면모의 것이다.

우선, 〈이 시집을 사랑하는 아내 강창희의 영전에 드린다〉는 헌사가 붙어 있다. 흔히 이런 헌사는 수록된 내용에 관계없이 붙여지기도 하지만 경우가 다른 것이다. 수록된 48편의 시들은 시인이 책머리에 쓰고 있듯, 아내의 돌연한 죽음으로 받은 충격과 그로 인해 죽음과 그 이후를 생각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들로 일관되고 있다. 그런 만큼 소재적이고 의식적이라는 점에서 시적 본질로서의 수용에 다소 방해가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든 비유'가 아닌, '살아 있는 비유'의 실체를 거기서 만나고 놀라기도 한다. 진정한 비유는 우리의 삶에 구속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열어 주는 힘, 근원적인 자유를 허락한다는 말은 언제나 옳다. 거듭 확인하지만, 비유는 시와 삶의 남다른 시간의 굴절과 공간의 이동을 직접 체험해 온 시인의 새처럼 날아보았으면 하는 자유로움이 아닐까.



진달래

이영도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히 뗏등마다,
그 날 스러져 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여울 붉었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무거운데,

연연히 꿈도 설워라,

물이 드는 이 산하(山河).

- 시조집 <석류> (1968 이호우와 공동시집)

중학교 3학년인 딸아이의 국어책을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다. 이영도 시인(1916~1976)의 '진달래'가 실려 있어서 감회가 깊었다. 이 시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큰 획을 그은 시점이자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4.19 때 꽃다운 젊음을 바쳐 민주화를 위해 산화(散花)한 젊은이들을 기리는 노래로 기억된다.

이 시를 읽자니 시인의 시에 곡을 부친 노래가 하나 생각날 법도 하다. 산에 들에 점점이 붉은 빛을 태우며 곳곳에 피어있는 진달래의 모습을 젊은 학생들의 뺨으로 비유한 이 진달래라는 노래는 이영도 시인의 4.19 추도시의 노랫말에 한태근 목사가 곡을 붙인 노래이다. 한태근 목사는 <꼬부랑 할머니>라는 동요를 작곡하신 분이요 또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으로도 유명하다.

대학생 시절, 이 노래는 진달래를 찬양한 노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의 국화(國花)인 <진달래>를 찬양한 노래니까 사상이 의심스럽고 이적혐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풍문이 돌았던 웃지 못 할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작고한 이영도 시인이 그 말을 들었으면 무덤에서라도 뛰쳐나올 지경이었겠지만 아무튼 괜히 이 노래를 부르면 무슨 꼬투리를 잡힐까 두려웠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은 흘러 이 시가 중학교 국어책에 실리게 됐으니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까. 당시 젊은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원하던 민주화의 시대가 오고 통일을 향한 토대가 조금씩 마련 되가는 것 같긴 하지만 4.19 세대들이 그렇게 퇴색해갔듯이 오늘날 4.19 정신은 많이 퇴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긴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는 이 노래가 또 어떻게 각인되고 있을까 하는 궁금스런 생각도 든다. 우리가 젊은 시절 학생들 사이에 구전되던 이 노래는 1994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 4집>에서 이정석의 편곡과 김은희의 노래로 취입되어 음반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조는 산에 난만히 피어있는 진달래로부터 4.19 혁명 때 희생당한 젊은이들의 뺨을 떠올리며 그들에 대한 추모와 자기 회한의 심경을 읊은 작품이다. 두 수가 한 편인 연시조로서 구별, 배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첫째 수에서는 화자가 진달래에서 발견한 바를 제시하고, 둘째 수에서는 첫째 수와 연결하여 자신의 심리상태를 담담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이 시의 제재인 '진달래'를 통해 그것이 담고 있는 전통적인 정서와 현실의 상징적인 의미를 적절하게 결합하고 있다. '사랑과 이별의 한'이라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진달래꽃을 4.19 혁명에 참여한 학생들의 피 흘림에 대한 슬픔의 정서를 새롭게 형상화함으로써 창조적 상징의 효과를 만들어 낸 주옥같은 시이다.

황진이 이후 최고의 여류시인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시조시인 이영도는 같은 시조 시인 이호우(李鎬雨, 70년 작고)의 누이동생으로서 20대 초반 결혼하여 딸을 하나 얻은 후 남편과 사별했다. 그러다가 한때 유명 시인 유치환과의 플라토닉 러브를 펼치기도 했다. 그런데 유치환이 뜻하지 않은 죽음(1967년)을 맞이하면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자 이영도 시인은 그로부터 받은 여러 통의 편지를 묶어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는 서간집을 펴냄으로써 세상에 둘 사이의 순수한 교류를 공개하게 된다. 이 책은 유치환 명의로 발행되었다. 당시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유치환 시인의 시를 소개할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



유리(□里)에 가면

노태맹

그대 유리(□里)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지
먼지처럼 가볍게 만나
부서지는 햇살처럼 살자던 그대의 소식 다시 오지 않고
유리(□里)에 가면 그대 만날 수 있을까.

봄이 오는 창가에 앉아 오늘은
 대나무 쪼개어 그대 만나는 점도 쳐보았지
 유리(□里) 기억 닿는 곳마다 찢러오던 그 시퍼런 땃바람.
 피는 피하자고 그대는 유리(□里)로 떠나고
 들풀에 허리를 묶고 우리 그때 바람에 흔들리며 울었었지.
 배고픈 우리 아이들
 바닷가로 몰려가 모래성 쌓고
 빛나는 태양 끌어 묻어 다독다독 배불렀었고,
 그대, 지금도 유리(□里)에 가면 그대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아프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아
 물마른 강가에 앉아 있다던 그대와
 맑은 물이 되어 만날 수도 있을텐데
 어쩌면 그대는 유리(□里)를 떠나고
 유리(□里)엔 우리가 살아서
 오늘은 그대가 우리를 만나러 오는
 시퍼런 강이 되기도 하겠지만

- 시집 <유리(□里)에 가서 불탄다> (세계사 1990년)

노태맹(1962~)의 시에서는 유리(□里)가 단골처럼 등장한다. 유리(□里)는 시인의 화두인 것이다. ‘유리(□里)’란 삼천백여 년 전 은(殷)의 폭군 주왕(紂王)이 문왕(文王)을 가둔 감옥이다. 중국 고대사를 공부한 이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다. 문왕은 주(周)를 건국한 무왕(武王)의 아버지로 ‘유리(□里)’에서 복희(伏羲)씨가 그린 ‘팔괘(八卦)’를 처음으로 연역(演易) ‘하였는데 이것이 주역(周易)의 시작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주역의 내용들은 고대 중국인들이 긴 세월을 걸쳐 점(占)을 친 기록들을 모은 것으로 자연과 인간에 대한 통찰과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는 지혜 나아가 세상의 도리를 통달하여 진리에 도달하는 중국식의 방법론을 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유리(□里)’는 감옥(監獄)이라는 현실의 이미지와 해탈(解脫)의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곧 감옥같은 이 현실이 해탈의 터전이요 육체라는 감옥없이 어떤 종류의 천국의 열쇠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식을 통해 또다른 지식을 재창출해낸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진리가 그 지식 안에 있을지, 아니면 밖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며 늘상 철학자들의 화두가 되어왔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를 찾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뫼비우스의 띠 속을 맴도는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많지 않은 기록만으로 우리는 인간의 삶과 사유의 궤적을 규명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록의 대부분이 편협한 인간의 사고관에 갇혀서 전개된 것이라는 게 유

사 이래 인문학의 한계일 것이다.

위의 시에서는 인간의 삶이 유리(□里)의 감옥과 같은 괴로움이며 궁극으로는 그 속에서 해탈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갈등과 분열, 고통과 헤어짐이 유리(□里)와 같은 세상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그러한 '괴로운 삶'속에서도 빛나는 태양을 끌어다가 배부를수도 있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우리를 관념 속의 유리(□里)로 몰고 간다. 우리가 유리(□里) 밖으로 뛰쳐나가도 또 다른 유리(□里)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불가에서 이야기하듯이 생은 번뇌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의식의 유리(□里)를 우리 스스로가 깨뜨려 보는 것은 어떨까?



시간을 위한 조곡(組曲)

- 꽃들의 생애(生涯)

홍윤숙

1.

바람이 종일

산 하나를 헐어내고 있다

쉬엄쉬엄
숲을 짊어내고 있다

여기저기 단명한 꽃들이
아름다운 소문을 피워놓고
돌아오지 않는 아침 이야기를
꽃피우고 있다

아직은 이별을 모르는
행복한 눈매들이 웃고 있다

이제 곧 종이 울리고
커다란 손이
그들의 눈을 감길 것이다

2.

아무도 그 손의 임자를
본 적이 없다

아침에 분홍빛 장미를
축복 속에 피워놓고
저녁에 지체없이 걷어가는 손

꽃들은 이유없이 태어나
유예없이 간다

눈물도 사치한 모일(暮日)이 오고
순명(順命)의 아픈 지혜
가시로 꽃히는 저녁

더러 맑은 혼들이 무리를 빠져나와
차디찬 이슬로 맺히기도 하지만
이내 작은 바람을 놓아
허실의 꿈을 일깨운다

참 이상한 손

손의 임자다

3.

노을이 저녁 뜰에

새빨간 유서를 뿌리고 돌아간다

꽃들이 아름다운 최후를 진술하고

두꺼운 책장을 하나씩 닫는다

뜰은 남은 이야기를 지우며

커다란 손으로 묵화를 친다

혼자 사는 사람의

정결한 눈매로 묵화를 친다

슬프지도 않은 비극이

날마다 반복되고

살아남은 꽃들이

무서움도 없이 어둠 속에 웃는다

누가 저 어둠 뒤에 숨어

꽃들의 희망을 흙으로 덮고

다시 하얗게 바랜 새벽의 시체를

널고 있는가

참담한 것은

아무도 그 손의 집행을

의구하지 않는 일이다

아침이면 말갈게

꽃들의 죽음을 잊어버리는 일이다

내가 이 시를 읽은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이다. 당시 대학생이던 형님이 읽던 '창작과 비평'이란 몇 년 지난 계간지를 뒤져보다가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를 처음 읽은 때는 1978년이다. 당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때라 쉴 때마다 원가를 읽고 있었는데 가난한 우리 집에서는 읽을 게 별로 없었다. 하다못해 집안의 족보(族譜)까지 꺼내어 달달 외울 정도로 읽고 또 읽고 했었다. 계간지 '창작과 비평'은 당시 우리사회에서 최고의 지성들이 읽는 격조 높은 문예지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최소한 인문대 학부(學部)는 마쳐야 소화가 가능한 어려운 내용들로 편집되어 있었는데 1/3 정도가 시와 소설이어서 그래도 고등학생인 내가 읽을 부분이 조금은 있었다.

어린시절 내가 좋아했던 시를 생각하다가 위의 시 '꽃들의 생애(生涯)'를 기억해내게 되었다.

물론 성장하면서 이사(移徙)를 하고 또 형제들끼리 분가(分家)를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이사를 여러 번 한 관계로 예의 그 낡은 잡지 '창작과 비평'지는 찾을 수 없었다.

며칠동안 기억을 되살려 낸 끝에 '시간을 위한 조곡(組曲)'이란 주 제목과 '꽃들의 생애(生涯)'란 부 제목을 찾을 수가 있었다. 내 잃어버린 기억의 한 토막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서 기분이 좋았다. 특히 '바람이 종일 / 산 하나를 헐어내고 있다 / 쉬엄쉬엄 / 숲을 찍어내고 있다'는 첫 구절은 뭐라 형언할 수없이 감동적인 구절이어서 기쁨은 배가(倍加)되었다. 이 시가 왜 그다지 좋았는지는 모르겠다. 연애하는 청춘남녀들이 '그냥 당신이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지 모르겠다.

홍윤숙(1925~) 시인의 시들은 신즉물주의(新即物主義)에 입각하여 정감에 흐르지 않고 감정을 억제해가며, 사물이나 관념을 통해 존재로서의 자신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정서의 충일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시인은 지적인 풍모를 지니고 있다. 또한 시를 통해 자기 확인이라는 주제를 하나의 여로를 통해 드러내며 이 과정에서 생애에 대한 긍정과 현실에 대응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어떠한 시도 침묵을 능가할 시는 없다. 어떠한 삶도 또한 침묵을 능가할 삶은 없다. 침묵 앞에 내 삶은 유희(遊戱)고 내 시도 유희(遊戱)다. 유희(遊戱)란 영원히 불완전한 것이다. 따라서 내 시도 불완전하다"는 시인의 시론은 증언과 침묵으로서의 현실대응을 효용성 있게 조화하는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의 대비가 있다.

<꽃들의 生涯>에서는 참담하고 하얗게 시체(屍體)되어 널려 있는 손의 집행과 꽃들의 죽음을 잊어야 하는 숙명으로 보이고 있다. "누가 저 어둠 뒤에 숨어 꽃들의 희망을 흙으로 덮고/다시 하얗게 바랜 새벽의 시체를/널고 있는가."란 신랄한 꽃의 옹호, 생명의지의 옹호에 그것에 대응하는 침입자로서의 손의 집행에 대한 증언을 나타나고 있다. 얼핏 읽으면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음미해보면 시의 뒷면에는 가락과 시의 서정성이 배제되고 가능한 한 메시지 전달이라는 지성적인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이후.....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홍윤숙 시인의 시는 '우리' 의식의 역사적 공동체 운명을 따르며 그 동참의 사랑을 노래하는 여유를 가진다. 따라서 1970년대의 숨 가쁜 절규가 한결 투명한 서정을 바탕으로 변모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메시지 형식으로서의 한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철학적인 깊이를 더하고 있을 뿐이다. 망가져 이겨지는 '장미'의 모습이 침묵의 증언으로 등장하지만, 극기적 자세로 사회에 맞서는 정의로움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독자의 가슴을 두드리며 예술적인 아름다움으로 남아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욱 소리 호루락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벼들의 피물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 시집 <타는 목마름으로> (창작과 비평사 1982)

이 시를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을까?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지는 시이다. 우리 시대에 양심이 살아있고 정의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국보'와 같은 시인 것이다.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엔 많은 말이나 수사보다도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의 한 구절을 읽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 1975년 2월 [동아일보]에 발표된 <고행 1974>와 인혁당 사건에 관한 내외신문 기자 회견 내용이 문제가 되어 재수감되었을 때, 박정희 정부에서는 그를 공산주의자로 몰아 세웠다. 그 때 김지하는 방대한

분량의 양심선언을 하게 된다. 다음은 그 중 일부이다.

"내가 요구하고 내가 쟁취하려고 싸우는 것은 철저한 민주주의, 철저한 말의 자유—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 자유주의자이다. 내가 가톨릭 신자이며, 억압받는 한국 민중의 하나이며, 특권, 부패, 독재 권력을 철저히 증오하는 한 젊은이라는 사실 이외에 나 자신을 굳이 무슨 주의자로 규정하려고 한다면, 나는 이 대답밖에 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백성을 사랑하는 위정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피와 시민의 칼을 두려워하는 권력을 바란다."

한국 민주화 운동사에서 상징적인 존재인 김지하 시인은 1970년대를 온통 감옥에서 보내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품고 절규하듯 살아왔다. 군사 정권 아래서 압살당해 온 민주주의를 '너'라고 지칭하며 애타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시인 엘뤼아르의 〈자유〉라는 시의 어조가 느껴진다.

이 시는 유신 체제의 질식할 듯한 억압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의 열망을 절규한 1970년대 초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제 1연은 가슴 속에 묵마른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이른 새벽 뒷골목에서 남 몰래 써야 한다는 시적 상황 속에 당시의 현실이 찢자국처럼 선연하게 적혀져 있다.

제 2연은 여러 가지 소리의 중첩을 통해 이 시대의 공포와 고통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발자국 소리'에서부터 '탄식 소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구체적 사건의 서술이 없지만, 오히려 소리들 사이에 있는 무서운 사태가 독자들의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떠오르도록 만든다.

제 3연에서 화자(話者)는 감옥과도 같은 험한 상황에서의 분노와 비통함으로 흐느끼면서 뒷골목의 나무판자에 '민주주의여 만세'라고 쓴다. '뒷골목'에서 '숨죽여 흐느끼며 / 남 몰래 /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 만세를 쓸 수밖에 없는 이 대목은 그 어떤 산문적 서술보다 뚜렷하게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비장한 결의를 보여 준다

이 시는 1975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1970년대 중반, 이른바 '10월 유신'이라고 불리는 군사 독재 정권의 강압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아 노래한 작품이다. 무력으로 집권한 군사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영구 집권을 목표로 해서 단행한 10월 유신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암살한 계기였다. 시민은 그와 같은 군사 독재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에 맞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부르짖어 왔고, 그로 인해 거듭되는 체포와 구금에 시달렸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이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또다시 체포, 구금되는 상황을 맞게 되고, 이 작품은 이른바 불온한 작품으로 취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재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은밀히 읽혀졌고, 급기야는 노래로까지 만들어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심어 주었다. 이 시가 널리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우리의 불행한 정치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나,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 없다. 이 시의 문학성 또한 시대성 효용성을 뛰어넘는 '진실함의 절정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는 절실하면서도 자칫하면 추상적인 구호의 수준에 그치기 쉬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생경하고 공허한 구호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읽는 이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반성하게 만들고 있다. 시인 자신의 개인적 서정으로 육화(肉化)시켜서 표현함으로써 깊은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가 1970년대 저항시의 정점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비웃을 빌어입고

김종삼

온 종일 비는 내리고
가까이 사랑스러운 멜로디
트럼펫이 울린다.

이십 팔 년전
선죽교가 있는

비 내리던

개성,

호수돈 고녀생(高女生)에게

첫 사랑이 번지어졌을 때

버림 받았을 때

비웃을 빌어입고 다닐 때

기숙사에 있을 때

기와담장 덩굴이 우거져

온 종일 비는 내리고

사랑스러운 멜로디 트럼펫이

울릴 때

-시집 <십이음계> (삼애사 1969)

김종삼 시인(1921 ~ 1984)은 클래식음악의 전문가, 그 중에서도 바하를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그는 통상적인 의미의 경제적 생활력은 없었으면서도 고상한 취미를 가꾸어 갔다. 때 묻은 옷을 싫어하고 와이셔츠도 고급으로만 입고, 소주를 마신다 하더라도 빈대떡 대신 조개 하나로 때우기가 일쑤였다. 그리고 가장 혐오한 것이 속물근성으로 어느 직장에 있을 때는 아침배를 박치기하다가 그것이 빗나가 지프차를 받는 바람에 머리에 열 바늘 가랑이나 상처를 꿰맨 적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반공에 투철하면서도 거창학살사건 때는 울면서 시를 쓴 적도 있다는 그의 시는 무척 짧은 것이 특징이다. 보들레르가 ‘긴 시는 짧은 시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해 낸 것이다.’ 고 말한 것을 그대로 시작(詩作)에 옮기듯이 말이다. 그는 초현실주의의 영향이 보이는 특이한 시 소재의 사용과 표현기법의 단절·비약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의 시세계는 동안(童眼)으로 바라보는 순수세계와 현대인의 절망의식을 상징하는 절박한 세계로 나눌 수 있다. 현실세계와 거리를 둔 채 고독한 내면의식을 바탕으로 순수지향의 시의식을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것과 거리를 가지는 이상세계를 그려내는 그의 언어는 아름답고 간결한 동시에 체념적이거나 암울한 색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고도의 비약에 의해 어구들 연결시키고 올리는 음향효과를 살린 시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는 철저하게 보헤미안이었고, 무산자(無產者)였고, 생활인으로서 철저한 무능력자였다. 그의 인생에는 생활이 없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시와 음악과 술이었다. 그는 단지 시인일 뿐이었다. 때로 그는 자조적으로 ‘나같이 인간도 덜 된 놈이 무슨 시인이냐. 나는 건달이다, 후라이나 까고’ 라고 내뱉었다. <제작(製作)>이라는 시에서 ‘그렇다 / 비시(非詩) 일지라도 나의 직장은 시이다’ 라고 선언했듯이 그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시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김종삼 시인의 가장 아름다운 시편의 제목이기도 한 ‘묵화(墨畵)’ 처럼, 적막하게 번져가는 아름다운 이 시에서는 하루 종일 비 내리는 날, 가까운 데서 트럼펫 소리가 들려온다. 그 사랑스러운 멜로디를 따라 지나간 추억들이 하나 둘 번져오는 것이다. 아주 오래전, 분단이 되기 전의 북쪽 땅 개성(開城)에서 만났던 한 여고생을 향한 사랑과 실연의 기억이 빗속으로 연결된다. 비웃마져 빌어

입고 다녔던 가난의 기억도 빗소리를 따라 흘러간다. 그때도 담쟁이가 우거진 기숙사의 기와 담장 위로 하루 종일 비는 내리고 트럼펫 소리가 들렸나 보다.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비를 타고 흘러 번지는 아름다운 소품이다.

연애시에는 한없이 인색했던 그는 “나의 연인은 내가 살아가는 날짜들” (‘연인’)이라고 했을 뿐인데, 바로 그가 월남하기 전 잠깐 마주쳤던 ‘첫사랑’ 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구체성으로 호명하고 있는 것이다. 비웃을 빌어 입고 다니던 28년 전 개성의 호수돈 고녀(高女), 기억 속의 그곳에서는 아마 지금도 비가 내리고 사랑스러운 트럼펫 멜로디가 환청(幻聽)처럼 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시를 읽다가 한 때 조용필이 불러서 유행했던 '단발머리'라는 유행가 가사가 갑자기 생각났다.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개성의 호수돈 고녀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 소설가 박완서 선생은 그 학교가 “화강암으로 지어진 아주 아름다운 건물” 이었다고 회상한 바 있다. 이제는 건물만 남아 있다는 그 아름다운 학교는 그대로 간직되어 있을까? 호수돈 고녀의 그 여학생은 전쟁통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세상 처음

하종오

우리 세 살 짜리 빈영이
햇빛 한 줄기 쬔며
중얼중얼 입 속 노래 불렀지요
앞뜰에 온갖 꽃들 피던 봄에 불렀지요
앞뜰에 온갖 꽃들 지는 가을까지 불렀지요
콩콩콩 뛰며 부르다 부르다 꽃 다 지고
그 사이 배운 말 한 마디 뱉었지요, 씨발 !
꽃에게도 씨발 하늘 보고도 씨발 씨발씨발
씨발까까 씨발밥 씨발우유
줘요오 씨발돈
고것참 고것참
우리 세 살 짜리 빈영이

하종오 시인(1954 ~)은 모진 내공과 끈기가 요구되는 서사시에 매달려왔다. 그의 작품에는 설익은 구호나 이념이 없다. 시의 본질과 정신을 반추케 하는 그의 시편들은 언뜻 보면 담백하게 느껴진다. 반짝거리거나 요란하지도 않다. 그러나 오늘은 그의 소품 한 편을 읽어보기로 하자.

아주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음은 신문에서 본 내용이다. 누군가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몇한테 집에서 평소에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을 세 개만 써보라는 숙제를 하나 던져준 적이 있었나 보다. 그 중 한 아이가 첫 번째로 쓴 것은 '꿀배기실어 '이었다고 한다. 아마 아이가 미운 짓을 할 때 꿀 보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던 모양이다. 이 일을 알고 난 후 엄마는 다음부터는 그 말을 쓰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을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집 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선생님이 학생들 모두에게 '가훈'을 적어보라고 해서 나름대로 기억하고 있는 우리집 가훈을 적어서 제출했다고 했다. 큰 아이가 제출했다는 우리집 가훈은 '눈치껏 살자'였다. 아, 이런……. 왜 그렇게 적어냈느냐고 물었더니 엄마에게서 하도 자주 들은 말이라서 그게 가훈인줄 알았다고 하는데 나는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만화가 고우영 선생이 즐겨 쓰던 격언이 생각난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다.'

금년에 큰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다.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식은 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2~3학년 때까지 귀여운 짓으로 부모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다가 그 이후로는 평생 부모에게 애먹인다. 즉, 다시 말해서 어릴 때 귀여운 짓을 저축하여 그걸로 평생을 우려먹고 사는 게 자식이다. 아이들을 키워 보니 돌아가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하하, 위의 시는 귀여운 짓을 저축한 부분이다.

아이가 처음 배운 말 한 마디는 어른이 천 개의 단어를 외우고 익힌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시에서 '씨발'은 쌍스러운 욕이 아니다. 이것은 천진무구한 동심이 발음하는 하나의 노래, 하나의 숨결 같은 것이 아닐까? 악의가 가득 찬 세상에서 이렇듯 아이는 늘 어른의 아버지이다. 이 점을 깨닫게 해주신 고우영 화백님, 감사합니다.



옥탑방

함민복

눈이 내렸다

건물의 옥상을 쓸었다

아파트 벵랑에 몸 던진 어느 실직 가장이 떠올랐다

결국

도시에서의 삶이란 벼랑을 쌓아올리는 일
24평 벼랑의 집에서 살기 위해
42층 벼랑의 직장으로 출근하고
좀더 튼튼한 벼랑에 취직하기 위해
새벽부터 도서관에 가고 가다가
속도의 벼랑인 길 위에서 굴러떨어져 죽기도 하며
입지적으로 벼랑을 일으켜 세운
몇몇 사람들이 희망이 되기도 하는

이 도시의 건물들은 지붕이 없다
사각단면으로 잘려나간 것 같은
머리가 없는
벼랑으로 완성된

옥상에서
초혼(招魂)하듯
흔들리는 언 빨래소리
덜그럭 덜그럭
들리는

- 시집 <말랑말랑 힘> (문학세계사 2005)

옥탑방에서 살아 본 적이 있나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살고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게 뭐냐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20대 후반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타지인 서울시내에서 자취방을 구한다고 구한 게 반 지하여서 몇 달 만에 옮긴 곳이 옥탑방이었다. 물론 그곳에서도 오래 지내지 못했다. 옥탑방은 여름에는 옥상의 지열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관계로 무지 덥고 겨울에는 그와 정반대로 외풍을 막아주지 못해 한없이 춥다.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 머리가 없고 지붕이 없으며 사각단면으로 잘려나간 것 같은 벼랑으로 완성된 콘크리트 숲속의 섬같이 외로운 곳이다. 그리고 밤이 깊으면 왠지 음산한 느낌이 드는 경험을 한 적도 있다. 그 뭐라고 할까……. 도시괴담의 배경일 것 같은. 다행히 사당동 언덕의 빌라 단칸방을 얻은 후배 덕에 6개월 동안의 옥탑방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데 옥탑방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묘한 분위기를 알기가 어렵다. 위의 시를 읽으면서 따뜻한 시심을 가진 시인이 바라보았을 옥탑방과 고통을 생각해 보았다.

함민복 시인은 1962년 충북 충원군 노은면에서 태어났다. 가난했기 때문에 단지 무료라는 이유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졸업 후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입사했지만 기계와의 대면이 너무 힘들어 4년 만에 그만두고 서울예전 문예창작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2학년 때인 1988년 ‘세계의 문학’에 ‘성선설’ 등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서울 달동네와 친구 방을 전전하며 떠돌다 1996년, 우연히 놀러 왔던 마니산이 너무 좋아 보증금 없이 월세 10만 원짜리 폐가를 빌려 둥지를 틀었다. 그는 그래도 “방 두 개에 거

실도 있고 텃밭도 있으니 나는 중산층” 이라고 천진하게 주장한다.

위에서 밝혔듯이 그는 가난에 이골이 난 사람이다. 그는 없는 게 많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다. 그런데도 그에게서 느껴지는 여유와 편안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모 잡지사와의 대담에서 “가난에 대해 열등감을 느낀 적은 없느냐” 고 물었을 때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가난하다는 게 결국은 부족하다는 거고, 부족하다는 건 뭔가 원한다는 건데, 난 사실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혼자 사니까 별 필요한 것도 없고. 이 집도 언제 비워줘야 할지 모르지만 빈집이 수두룩한데 뭐. 자본주의적 삶이란 돈만큼 확장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체험했지만 굳이, 확장 안 시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늘 ‘이만하면 됐다’ 고 생각해요.”

시인은 그러면서도 자기 혼자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미안하다고 말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뻔히 알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삶의 그물망을 넓혀 나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성자(聖者)라고 말했다.

소설가 김훈은 그를 “가난과 불우가 그의 생애를 마구 짓밟고 지나가도 몸을 다 내주면서 뒤통수를 긁는 사람” 이라고 했다. 그의 표현대로 함민복은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은자(隱者)이고 숨어서 내다보는 견자(見者)라고 판단된다. 강화도 남쪽 끝자락에는,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자인, 이 시대의 빈자, 함민복 시인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와 같은 사람을 성자(聖者)로 표현하는 그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다.

필사적으로

김사인

비 오고, 술은 오르고, 속은 메숙거리 식은 땀 배고, 비는 오는데, 어디 마른 땅 한 귀퉁이 있다면 이 육신 벗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찌자고 눈앞은 자꾸 아련해지나, 양손에는 우산과 가방 하나씩 쥐고, 자꾸 까부라지려 하네, 비는 오고, 오는데, 몸뚱이는 젖은 창호지처럼 척척 늘어지는데, 기억에도 흐릿한 옛 벗들 그림자, 환등(幻燈)과도 같이, 가슴에 예리한 칼금 긋고 지나가네. 한 손에 우산, 또 한 손엔 내용불상(內容不詳)의 가방을 쥐고 필사적으로, 달리 마땅한 품이 없으므로 다만 필사적으로, 신발에 물은 스미고, 신호는 영영 안 바뀌는데.

김사인 시인(1955~)은 시적 대상의 안팎을 헤아리는 섬세한 시선과 결고운 시어로 무르익은 시의 아름다움을 한껏 전하는 시인이다. '누구도 펴박해본 적 없는 가녀린' 것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 세상살이의 쓰라림에 공명하는 진실한 마음이 절묘한 시어와 고즈넉한 어조에 실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 아름다움과 슬픔을 시적 풍경으로 형상화한다. 그가 시를 쓰지도 어느새 4반 세기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제는 중진 시인으로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이지만 서울대학교 재학시절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겪은 여러가지 시련과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짐작된다. 그 당시 그는 박노해 등과 '노동해방문학'을 만들어 진보문학 운동을 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작고 하찮은 존재들에 대한 연민이요, 상처를 보듬는 눈물이다. 시의 대상과 하나되어 그의 말을 받아내려는 지극한 정성이 시 한편 한편마다 웅숭깊은 울림으로 남게 한다.

"1990~1991년 수배생활 때는 시집 한 권 분량의 원고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대학로 다방에서 지인들과 몰래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시집 제목도 정하고 출판사에서 계약금도 받았는데 말이죠." 그때의 심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시는 이렇게 노래한다. '한 손에 우산, 또 한 손에 내용불상의 가방을 쥐고 필사적으로, 달리 마땅한 품이 없으므로. 다만 필사적으로, 신발에 물은 스미고, 신호는 영영 안 바뀌는데.'

그의 시가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하나의 뜻을 이루는 단어는 물론 심지어 하나의 내용을 이루는 구절이 두 개의 행으로 나뉘어 지는 '구 걸치기' 같은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행들은 대체로 절 단위로 암전히 배열되어 시를 읽는 호흡의 갑작스런 단절과 감각의 새로움을 주지 않는다. 어휘들의 생략이나 비틀기 또한 없다. 그의 시의 문장 조직은 가능한 한 표준말을 거스르지 않는 단어들에 의해 문장의 요소들이 뜻을 모호하게 하는 생략이나 어순의 도치 없이 가지런히 모여져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형식상의 단정함은 무수히 들끓는 감각의 반란을 통제하기 위한 시인의 혹독한 극기의 산물이다. 그는 시인의 마음속에 들이닥쳐 마음을 들쭉시고 뒤집으며 저희끼리 엉키고 싸우는 감정물들을 이성적으로 잠재운 후에야 겨우 한 편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의 시는 마음속에 들어차는 외부를 통제하기보다는 그것들과 함께 뒹굴고 있다. 이것은 그의 시를 단정의 얼굴에도 불구하고, 절제보다는 터져 나오려 하는 긴장을 돋보이게 한다. 대화법이 그 긴장의 최초의 기미였다면 그것의 심층적 형태는 긴 음보와 짧은 음보의 대립을 통해 종합된다. 이 긴 음보 / 짧은 음보의 긴장·대립·상호작용을 통해 시는 이념의 경직성과 감각의 무형성이 함께 겹쳐져 체험화, 구체화되는 자리가 된다.

몇 년 전 대입을 준비 중이던 아들 녀석의 논술 모의고사 시험지에서 위 시를 읽었던 적이 있다. '경제 불황 속에서 퇴근이 늦은 셀러리맨이 회식 후 중요한 서류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며 고뇌하는 모습을 적은 시'라는 해설문도 함께 읽었다. 필자는 이 시가 어떠한 배경에서 만들어 졌는지를 대강 알고 있는 터이었지만 그러한 배경을 상정하고 감상하여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1989년 가을이었다. 아직 대기업의 초급사원티를 벗지 못하던 내게 생활 속의 별것 아닌 양자택일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자신에게 엄청난 파국을 예고하는 지는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다. 직장의 회식자리에 가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는데 문제는 그 사건의 주동자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필자의 대학 2년 선배로서 퇴근할 때 종종 한 잔씩하는 사이였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는 회사에서 '문제사원'으로 찍혀있는 노조의 핵심배후 인물이었다. 지금도 '무노조 경영'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회사입장에서는 골치덩이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며칠동안 계속된 야근으로 몸이 녹초가 되어있었지만 회식자리는 가야만 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그는 회식자리에 가지 말 것을 권유했고, 몸이 피곤하여 쉴 수 있는 핑계를 찾던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 그 회식자리는 구조조정 당한 직원들의 송별회였다. 나와는 친한 사람이 없는 것도 참석을 꺼렸던 이유 중 하나였는데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도 순진했나 보다. 부서장은 본인이 주재하는 회식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부직원들을 회사에 대한 항명으로 판단했고, 그 중 나를 그 선배의 최측근세력으로 간주하여 시범 케이스로 인사 조치를 한 것이었다. 단순히 몸이 안 좋아서 회식에 불참한 것뿐인데……. 며칠 후 태평로의 본사에서 강원도 구석의 영업소인 k시로 발령이 났다. 사실상 회사를 그만두어라는 통첩이었던 셈이다. 당시 나는 신혼 2개월째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편모를 모시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했다. 어리둥절해 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뒤로 한 채 보따리를 사서 도착한 k시의 밤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자서 밤늦게 술을 마시다가 끝없는 한숨을 쉰 적이 있었다. 위의 시를 읽으니 그때의 암담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어찌됐던 다만 필사적으로 살아남아야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설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독자의 몫일 것이다. 신호가 바뀌지 않는 건널목에서 필사적으로 현실과 생존의 벽을 건너려는 이 시대의 생활인들에게는 이루 다 말하지 못할 사연들이 있을 뿐이지 않겠는가.



님의 침묵(沈默)

한용운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 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에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

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시집 〈님의 침묵〉 (회동서관 1926)

만약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을 모르는 외국의 문학 독자가 아무 선입견 없이 〈님의 침묵〉을 읽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틀림없이 아름다운 연시(戀詩)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도 남성이 아니라 님을 향한 한 여인의 절절한 사랑을 노래한 서정시를 연상하게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만해가 불교의 승려이며 기미독립운동을 일으킨 애국지사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님의 침묵〉을 사랑의 시로서 읽으려 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연애시 같으면서도 속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했던 사군가(思君歌)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 결과로 님은 님이 아니라 조국을 가리킨 것이며, 침묵은 이별이 아니라 그 조국을 잃은 식민지 상황을 의미한 것이라는 모범답안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아 님은 갔습니다’로 시작하는 〈님의 침묵〉은 기미 독립운동의 좌절을 노래한 삼일절 노래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만해의 님은 님이 아니라 니르바나의 마음을 현상화한 부처님이며, 그 침묵은 깨달음을 향한 끝없는 구도(求道)의 길을 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를 증도가(證道歌)의 하나로 바꿔버린다. 만해의 님은 수많은 비평서 속에서 이렇게 속(俗)과 성(聖)의 양극을 오가는 시계추가 된다.

그러나 정말 〈님의 침묵〉은 기미독립선언문이나 혹은 불교 유신론의 연장선상에서 읽혀야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만해 자신이 직접 대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집 〈님의 침묵〉의 첫머리에 실린 ‘군말’이라는 서시(序詩)이다. 만해는 그 글에서 자기가 시의 키워드로 삼은 ‘님’이란 말에 대하여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것인 바로 ‘님만 님이 아니라 기리운 것은 다 님이다’라는 구절이다. 무엇보다도 이 시구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만 아니라’의 그 조사용법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님을 조국 또는 부처님으로 풀이해온 사람들은 ‘님만 님이 아니라...’를 ‘만’자를 빼고 그냥 ‘님은 님이 아니라’로 읽어온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님의 침묵〉은 연시적(戀詩的) 요소가 전연 배제된 애국시 또는 종교시의 이데올로기로서만 남게 된다. 하지만 만해는 분명히 ‘군말’에서 ‘님은 님이 아니라’라고 하지 않고 ‘님만 님이 아니라’라고 읊고 있다. 그가 말하는 ‘님’ 속에는 일상적인 님(戀人)의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한용운의 시는 불교적인 비유와 고도의 상징적 수법으로 이루어진 서정시인데, 그 사상적 깊이와 예술적 차원의 높이로 그는 한국 현대시 사상 가장 빛나는 시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 나라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사람 들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만해 한용운을 꼽을 것이다. 어쩌서 그가 위대한가. 그는 다방면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독립운동가이고, 시인이었으며, 또한 승려였으며, 혁명가였다. 그러나 여러 방면에서 남긴 숏한 업적만으로는 그의 위대함을 설명할 수 없다. 그가 민족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 진정한 까닭은 시인 조지훈이 지적했듯이 ‘혁명가와 선승(禪僧)과 시인이 일체화’되었던 그의 생애에 있다.



하(河)

이호우

어떻게 살면 어떠며, 어떻게 죽으면 어떠랴
나고 살고 죽음이 또한 무엇인들 무엇하랴

시조시인 이호우(1912 ~ 1970)는 의지(意志)를 주제로 한 독특한 관념 세계를 개척하여 시조사(時調史)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분이다. 여류시조 시인 이영도의 오빠이다. 그는 자신의 시론에서 '서민적이어야 할 것이며, 그 형은 간결하여 짓기 쉽고, 외우기 쉽고, 전하기 쉽게 내용이 평명(平明)하고, 주변적(周邊的)이어야 할 것' 이라고 시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것은 곧 위의 작품에도 해당된다. 종래의 감정 투입이나 퇴폐적 감상을 배격했다. 자연이나 예술지상주의의 베일에 숨으려 들지 않았던 그는 정신적 가열성(苛烈性)의 차원에까지 도달하면서도 시조 본령인 장(章)과 구(句)를 다치지 않았다. 그의 작품은 기존의 시조들과 차원이 다르다. 즉, 그의 작품에는 계절적 변화를 통한 한국의 고유 미학이나 생활 감각을 형상화하려 하지 않았다. 명승지나 역사적 고적을 소재로 택함으로써 민족정서를 인유적(引喻的)으로 도입한 흔적도 없다. 종래의 시조작가들이 회고투나 영탄적인 작품을 생산함으로써 시조문학이 넘지 못하던 고비를 개척했던 것이다.

그의 작품은 초기의 연작형(連作形)에서 후기로 오면 대개 단수(單首)로 집약되고 있다. 한국시조사(韓國時調史)의 최고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대표작 <개화(開花)> <휴화산(休火山)> <바위 앞에서> <진주(眞珠)> 등이 그 예이다. 현대시조가 겪고 있는 위기를 우리는 그의 후기 작품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시정신의 가열성이 시조 형식을 압도할 때 시조가 존속할 명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는 만년에 와서 계속적으로 문제작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1970년 1월 6일 뇌일혈로 쓰러져 그의 시조문학은 개화(開花)의 단계에서 시들게 되었다. [영남문학회]와 문단의 모금으로 세워진 그의 시비(詩碑)가 대구 남산공원에 세워졌다.

그의 묘비에는 "여기 한 사람이 / 이제야 잠들었도다 // 뼈에 저리도록 / 인생을 울었나니 // 누구도 이러니 저러니 / 아예 말하지 말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그의 삶을 생각해보게 한다. '살구꽃 핀 마을', '개화', '깃발', '바위 앞에서', '휴화산', '달밤', '바위' 등 주옥같은 명편들이 겨레의 숨결 속에 영원히 이어질 시의 탑을 세워 놓았는 다. 달리 어떻게 시인의 시를 짧은 언어로 설명하겠는가..... 대하는 소리를 거두고 흐를 대로 흐르는데 거기에는 다른 부언이 가해진다면 무슨 실개천 흐르는 듯한 잡설로 변질될 듯하다. 그의 시를 줄줄 읊어 보면 절로 의미를 깨치게 되는 주옥같은 시이다.

인생이란 길지만 짧지도 않은 길이다. 최초의 발원지 산 속에서 흐른 물 한 줄기는 넓은 강 대하로 흐르고, 산은 산맥대로 흘러내린다. 우리가 살아 오면서 부딪쳐야 할 길 많고도 험난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주의 일부분이고 대자연의 작은 조각에 불과한 것을 무엇을 탓하겠는가. 반천년 전에 정몽주가 읊었던 '하여가'의 통 큰 세간 삶에 대한 답시(答詩) 같은 이 시조 자체가 대하인 것이다.



행복(幸福)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술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 더 의지삼고 피어 형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뜻한 연분도
한 망을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 월간 <문예> (1953)

유치환(1908~1967)은 몇 편의 수필과 소설을 남겼지만 원래부터 시인이다. 160편 이상의 시와 10권의 시집을 펴냈다. 그의 고향 형구 도시 통영이 그의 시작(詩作)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명백하다. 그의 시에 나오는 주제는 대개 자연인데 특히 바다가 많이 나온다. 그는 자연의 모든 면을 다루었다. 꽃, 동물, 바위와 대개의 경우 자연의 일부로써의 인간. 자연을 통하여 삶의 충만함과 무상이라는 이중적 테마를 강조하였다. 그의 시에 나오는 무상은 인간이 삶을 통하여 극복해야만 하는 긍정적인 무상인 것이다.

그의 시는 삶의 참여와 강조, 삶을 짓누르는 것에 대한, 삶의 자연적인 과정에 대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는 현대 한국시단에서 생명파의 대표로 일컬어진다. 삶에 대한 위대한 연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끔 상대하기 어려운 일상의 사회적 상황을 발견하는데 종종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공허함이 그것이다. 일제시대(1910~1945)에 쓰인 초기 작품은 당연히 조국에 대한 일본의 압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친일 의혹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감에 의하여 인간이 겪는 고뇌를 이러한 시를 통하여 표현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는 제도적 부조리인 사회악(社會惡)에 분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제, 자유당 독재 정권과 그에 빌붙어 아유구용(阿諛苟容)하는 세력들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는 질타하던 사회적, 제도적 불의(不義), 부정(不正)의 근원이 인간의 본성에 잠재한 어둠(부정)의 자아, 곧 원초적 부조리에 있음을 알고 좌절한다. 그에게는 그 부정적 자아를 구원할 '위대한 정신적 지주(支柱)'가 될 형이상학이 없었던 것이다. 이 점이 청마의 시가 높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했고, 고도의 정신적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위대성을 얻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너무 길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이 시는 허무의 극복이라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 존재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정념(情念)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으로, 일반적인 유치환식의 시와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어찌 보면 감상적이고 애상적인 감상주의에 휩싸인 사춘기적 연정을 노래한 듯한 이 시는 진정한 행복의 가치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통해 지극히 순결한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 시를 통해 현실에 만연되어 있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의해 사랑을 주기보다 받기를 원하거나, 먼저 사랑하기를 꺼리는 그릇된 풍조에 참사랑의 경종을 울려 주고 있다.

문학평론가들의 편리한 분류에 의하여 생명파 시인으로 불렸던 그는 생명에 대한 애정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온갖 사물의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생명에 대한 애정이 그의 시의 바탕을 이루고, 그 바탕 위에서 동양적인 허정(虛靜)·무위(無爲)의 세계를 추구하며, 또한 이러한 허무의 세계를 극복하려는 원시적인 의지가 살아 있다. 그 강렬한 허무적 의지는 그 밑바닥에 생명의 뜨거운 꿈틀거림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간직한 것 때문이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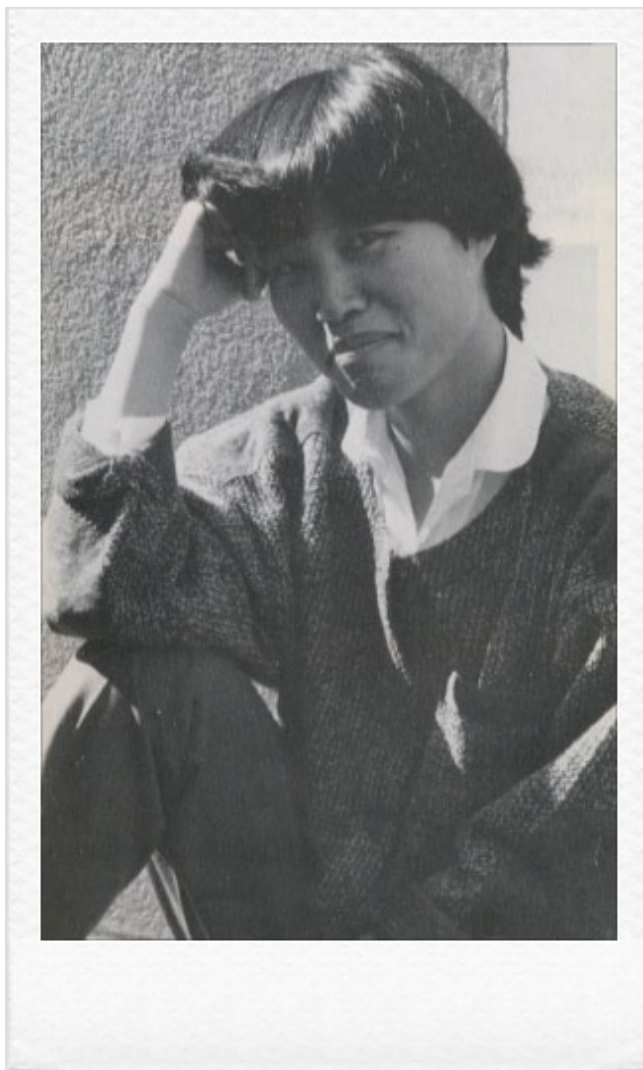
이 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랑의 서간집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이다.

서간집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는 1967년 간행되었다. 청마가 여류 시조시인 이영도(李永道)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를 그의 사후에 출판한 것이다. 통영여자중학교 교사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이영도(일찍이 결혼했으나 21세의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당시 딸 하나를 기르고 있었다) 시인에게 청마는 1947년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보냈다. 그러기를 3년, 마침내 이영도의 마음도 움직여 이들의 플라토닉한 사랑은 시작됐으나 청마가 기혼자였던 관계로 이들의 만남은 거북하고 안타깝기만 했다.

청마는 67년 2월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편지를 계속 보냈고 이영도는 그 편지를 꼬박꼬박 보관해 두었다. 그러나 6·25 전쟁 이전 것은 전쟁 때 불타 버리고 청마가 사망했을 때 남은 편지는 5,000여 통이었다. [주간한국]이 이들의 '아프고도 애뜻한 관계'를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라는 제목으로 실은 것이 계기가 되어 청마의 편지 5,000여 통 중 200통을 추려 단행본으로 엮었다. 이영도는 이 책의 인쇄(印稅) 수입을 한국문학사가 주관하는 정운시조상(丁芸時調賞) 기금으로 쓰게 하였다.

필자의 사담을 내놓자면 이 서간집을 읽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걸로 기억한다. 국어교과서에 유치환의 시 〈깃발〉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당시 무명시인이었던 국어선생님이 시인 소개를 하면서 아름답기 그지없는 제목을 가진 이 서간집을 소개하였던 것이다. 한 달 용돈을 털어서 구입하여 읽어본 책의 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서간집이라 함은 당연히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글이리라라는 예상을 깨고 청마의 일방적인 구애 편지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내용 또한 얼굴을 붉히게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탓이다. 부인이 있는 40대의 중년 교육자가 특하면 '나는 지금 그대의 가슴에 안겨 울고 싶소.'라는 표현을 남발해대니 고등학교 1학년생인 내가 읽기에는 너무 형이상학적인 책이었다. 당시 문학도(文學徒)이던 친구들과 돌려 읽기를 했는데 한결같은 의견은 유치환은 '청마(靑馬)'가 아니고 '색마(色馬)가 아니냐'는 표현과 유치환의 글은 '유치(幼稚)하다'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제목에 비해 내용이 어린 우리가 상상하던 소설 '독일인의 사랑'류의 감동적인 산문과는 동떨어진데서 온 실망이었다.

그럼, 나이가 든 지금 이 서간집을 읽는다면 그때 그 소년들은 뭐라고 할까? 하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니 원.....



관계

고정희

싸리꽃 빛깔의 무당기 도지면

여자는 토문강처럼 부풀어
 그가 와주기를 기다렸다
 옥수수꽃 흔들리는 벼랑에 앉아
 아흔 번째 회신 없는 편지를 쓰고
 막배 타고 오라고 전보를 치고
 오래 못 살 거다 천기를 누설하고
 배 한 척 들어오길 기다렸다
 그런 어느 날 그가 왔다
 갈대밭 둔덕에서
 철없는 철새들이 교미를 즐기고
 언덕 아래서는
 잔치를 끝낸 들쥐떼들이
 일렬횡대로 귀가할 무렵
 노을을 타고 강을 건너온 그는
 따뜻한 어깨와
 강물 소리로 여자를 적셨다
 그러나 그는 너무 바쁜 탓으로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미안하다며
 빼놓은 마음 가지러 간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여자는 백여든아홉 통의 편지를 부치고
 갈대밭 둔덕에는 가끔가끔
 들것에 실린 상여가 나갔다
 여자의 희끗희끗한 머리칼 속에서
 고드름 부딪는 소리가 났다
 완벽한 겨울이었다

- 시집〈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창작과비평사 .유고시집 .1992)

*토문강 :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하여 북으로 흐르는 송화강의 지류

취재차 지리산 등반 중 불의의 실족사고로 숨진 고정희 시인(1948 ~ 1991)은 생전의 시 작업에서 냉철한 현실 비판 의식과 미학적 성취를 함께 갖춘 탁월한 문인이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해방문학]을 중심으로 여권 신장 운동에도 족적을 남긴 분방한 사회 활동가였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고향인 전남 해남의 남도 정서를 담은 첫 시집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이 있으며, 이후 연시집 〈아름다운 사람 하나〉에 이르기까지 8권의 시집을 남겼다.

그 중 장시집 〈초혼제〉는 남도의 판소리 가락을 녹여냈으며, 1989년에 펴낸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에는 ‘어머니’를 축으로 여성 해방의식을 집중적으로 표출했다. 미학적 성취를 이루면서도 그의 시는 기존의 여류시에서 자주 지적되던 애잔함이나 섬세한 파

문에 의존하기보다는 장중하고 웅혼한 문체를 보여 ‘우리 시대에서 가장 남성적 리듬’을 갖고 있는 여류시인으로 평가됐다.

미혼이면서도 독신주의를 고집하거나 자폐적이지 않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추구한 그는 개인적 고독을 분방한 사회 활동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시대의 불행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이웃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우리 민족의 설화와 역사에 깊이 연계된 상상력으로 힘 있게 노래한 시인이었다.

대표시집 <초혼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남도가락과 씨김굿 형식을 빌려 민중의 아픔을 위로한 장시집(長詩集)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생명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였던 것이다.

위의 시 ‘관계’는 전반적으로는 잔잔하지만, 읽다보면 어느새 폭풍 같은 숨결로 가슴을 휘젓는다. 한 편의 잘 정제된 단편소설을 읽는 듯한 착각을 줄 정도로 스토리 구성이 단단하며 세련되고 아름답다. 아니, 너무 아름다워서 슬프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사회 활동가로서 이념들을 내세워서 읽기 거부했던 대자보(大字報)조의 구호를 내세운 시들은 거칠고 투박해서 읽기가 영 부담스러웠다. 위의 시 ‘관계’를 읽으면서 ‘이 시가 고정희의 시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정도이다. 이 시에는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펼쳐진다. 이 이미지만으로 잃어버린 ‘우리 것’들을 고스란히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싸리꽃, 둔덕, 막배, 토문강, 잔치를 끝내고 일렬횡대로 귀가하는 들쥐떼…. 섬세한 우리말에 실린 이미지들은 매우 토속적이며 동시에 현대적이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시인의 직접적인 감정이입이 절제된 채 조용하게 전개된다. 그 속에서 미안하다며 빼놓은 마음 가지러 간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어긋난 관계가 나타나며, 그것을 해결해주는 자연의 숨결이 어른거리는 눈부신 시이다.



비

김수영

비가 오고 있다
여보
움직이는 비애를 알고 있느냐

명령하고 결의하고
'평범하게 되려는 일' 가운데에
해초처럼 움직이는
바람에 나부껴서 밤을 모르고
언제나 새벽만을 향하고 있는

투명한 움직임의 비애를 알고 있느냐
여보
움직이는 비애를 알고 있느냐

순간이 순간을 죽이는 것이 현대
현대가 현대를 죽이는 '종교'
현대의 종교는 '출발'에서 죽는 영예
그 누구의 시처럼
그러나 여보
비오는 날의 마음의 그림자를
사랑하라
너의 벽에 비치는 너의 머리를 사랑하라

비가 오고 있다
움직이는 비애여

결의하는 비애
변혁하는 비애.....
현대의 자살
그러나 오늘은 비가 너 대신 움직이고 있다
무수한 너의 '종교'를 보라

계사 위에 울리는 곡괭이소리
동물의 교향곡
잠을 자면서 머리를 식히는 사색가

--- 모든곳에 너무나 많은 움직임이 있다

여보

비는 움직임을 제(制)하는 결의

움직이는 휴식

여보

그래도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비가 오고 있는데!

- 시집 <달나라의 장난> (춘조사 1959)

각박한 세상에 시 한 편 마음속에 담고 다니는 낭만이 아쉬운 시대이다. <벼락 치듯 나를 전율시킨 최고의 시구>이란 책이 있다. 대체 시인들은 어떤 시에 탄복하고 경이로움을 느꼈을까.

장석주 시인은 '마음에 화살처럼 꽂힌 시구'로 김수영의 '비'를 꼽았다. "놀라워라, 움직이는 비애라니! 비와 비애의 음가가 겹쳐지며 한 순간에 눈이 번쩍 뜨인다."라고 읊었다. 김남조 시인 역시 40여 년 전 <그대들 눈부신 설목 같이> (삼중당 1986) 라는 수필집에서 비를 표현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아래 부분을 들었다.

'비가 오고 있다 / 여보 / 움직이는 비애(悲哀)를 알고 있느냐'

김수영 시인(1921 ~1968)은 신동엽과 더불어 1960년대 한국문학의 르네상스를 이끌며 우리 시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시인이다. 그의 작품은 이지적이며 때로 난해한 현대시가 주를 이루지만 위의 '비'는 20대의 젊은 연인들이 비 오는 날 조용한 찻집에서 잃어버린 좋을 것 같은 이지적인 시다. 김수영은 초기에는 모더니스트로서 현대문명과 도시생활을 비판했으나, 4·19혁명을 기점으로

현실비판의식과 저항정신을 바탕으로 한 참여시를 썼다. 그는 1945년 [예술부락]에 〈묘정(廟庭)의 노래〉를 발표한 뒤 마지막 시 〈풀〉에 이르기까지 200여 편의 시와 시론을 발표하였다. 김수영이 가진 작품의 시사적(詩史的) 맥락에 대해 평론가 김현은 “1930년대 이후 서정주·박목월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재래적 서정의 틀과 김춘수 등에서 보이던 내면의식 추구의 경향에서 벗어나 시의 난삽성을 깊이 있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공로자” 라고 말하였다.

김수영은 〈풀〉을 짓고 난 뒤 15일 만에 밤늦게까지 통음하면서 시대의 울분을 토로하다 귀가 도중 취한 채로 집 앞에서 좌석버스에 치여 죽사했다.

그는 죽고 난 뒤 점점 더 새로운 빛을 발하면서 신화처럼 우리 사회에 머물고 있다. 전형적인 난해시에서 거침없는 참여시까지, 개인적 서정을 노래한 시에서 혁명을 노래한 시까지 그의 시는 참으로 커다란 진폭을 가졌다. 그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모더니즘 시 그룹에서는 꿈과 자유를 노래한 그를 ‘시적 스승’으로 모시고 민족시 쪽에서는 자유와 혁명을 노래한 그를 ‘정신적 선배’로 섬겼다.

도대체 무엇이 김수영을 우리 시사에 이처럼 장대하게 일으켜 세웠는가. 어떤 이는 그것이 ‘뭔지 모를 것 같은 난해한 시들 속에 노다지로 숨어 있는 기발한 이미지의 결정’ 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당대 모더니즘시와 참여시를 모두 수용했으면서도 오늘날에도 폭넓게 공감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의 선진적인 시대정신’ 이라고 했다. 백낙청은 1970년대 이후 활발한 활동을 보인 시인 신경림, 고은, 조태일, 그리고 김지하까지도 김수영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러 문학평론가들과 후대 시인들이 한결같이 지적한 김수영 시의 미덕은 어느 문학평론가가 표현한 아래의 구절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난해해 알 듯 모를 듯 하면서도 기가 펄펄 살아있다. 강렬하고 역동적이며 양심적이고 솔직하다. 해방과 혁명의 이미지를 담고 있고 온몸으로 몸부림치며 썼다. 그 절실함은 당대는 물론 후대 시인 그 누구도 따르기 어렵다.”

전진하는 행동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제약에 부딪치고 만다. 이럴 때 인간은 사회의 허위와 모순과 압박을 극명하게 인식하며 자유를 절규하게 된다. 자신의 삶은 자유를 향한 싸움이라고 김수영은 믿었다. 안주와 정체에 만족하며 자유를 위해 비상(飛翔)하여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자유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전진에 전진을 거듭하려는 그의 삶은 자유를 향한 영원한 여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자유를 얻기 위해 현실과 치열하게 맞서는 이런 태도로 인해 그를 참여파라고 분류하는 것이다.

가난한 시인이었던 그는 생활 현실에서도 적잖은 구속을 받았다. 따라서 그의 시에는 삶, 생활, 육체, 현실, 돈, 여자, 가족 따위와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대상들이 자주 등장한다. 위의 시 '비'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여과 없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생활 현실을 수궁하고 그 범속의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전진하는 자의 삶이 세속적 제약으로 인해 고통스러워질 때에도 그는 자기 혁파(革罷)를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위의 시 '비'는 기나긴 장마철, 끊임없이 내리는 비를 보며 인간 본연의 실존으로 돌아가 욕심 없이 자신을 탐구하여 시심(詩心)을 굴려 빛은 대작이라 하겠다.



정동(貞洞) 골목

장만영

얼마나 우쭐대며 다녔었냐.

이 골목 정동 길을
헤어진 교복을 입었지만,
배움만이 나에겐 자량이었다.

도서관 한구석 침침한 속에서,
온종일 글을 읽다,
돌아오는 황혼이면,
무수한 피아노소리
피아노소리 분수(噴水)와 같이 눈부시더라.

그 무렵
나에겐 사랑하는 소녀(少女) 하나 없었건만,
어딘가 내 아내 될 사람이 꼭 있을 것 같아,
음악 소리에 젖는 가슴 위에
희망은 보름달처럼 둥긔 떠올랐다.

그 후 20년
커다란 노목(老木)이 서 있는 이 골목
고색창연한 긴 기와담은
먼지 속에 예대로인데,
지난날의 소녀(少女)들은 어디로 갔을까.
오늘은 그 피아노소리조차 들을 길 없구나.

- 시집 <밤의 서정> (정양사 1956)

장만영 시인(1914~1975)이 1956년에 출간한 시집 <밤의 서정>에 수록한 작품이다. 농촌과 자연을 소재로 현대적 감성으로 그림 같은 선명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그의 시의 특징이다. 그는 동심에 가까운 순수한 서정으로 많은 시를 남겼다. 그의 시세계는 자연과 현실 경험을 모티브로 한 정적인 인간관을 주축으로 하는 의식세계이다. 스타일면에 있어서는 모더니즘의 한 유파인 이미지즘적 요소를 가미한 알기 쉬운 언어로 형상화하였다. 그러나 이 시는 그 소재가 도회지, 도회지하고도 서울의 중심인 정동이다.

서울시 중구 정동……. 덕수궁이 있고 이화여고가 있는 그 동네……。 이제 40대에 들어선 시인이 학생시절에 날마다 오고가던 ‘정동 골목’을 지나며 옛날을 회상해 보는 그리운 추억의 노래이다. 덕수궁을 낀 정동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소로서 깨끗하지만 시인이 고등학생이던 1930년대에도 그랬나 보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나이가 들면 사랑은 가고 추억만 남는다. 그만큼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이인 중년 초입에 접어든 시인은 지난날 이 골목에서 나던 피아노 소리며, 날마다 마주치던 책가방 든 단발머리 소녀들을 떠올리고 있다. 이 시는 눈에 보일 듯이 선하게 과거의 추억과 현실간의 적막감을 가슴 아프게 소묘하고 있다. 비록 가난했지만 배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찼던 학창 시절,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던 정동 골목길에서 한 소녀가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이성애에 대한 순수한 희망에 젖어들던 때를 기억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년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커다란 노목’처럼 시간이 흘러 시인이 다시 찾은 정동 골목은 ‘기와담’은 그대로인데, 그 옛날의 ‘소녀, 피아노 소리’와 아름다운 희망은 찾을 수 없음에 진한 그리움과 상실감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무상감과 허망함을 담담하고 처연한 톤으로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장만영 시인은 1975년 위암 진단을 받았고 그 해 10월 8일 새벽 2시 반 급성췌장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에 남기고 간 시집은 미간행된 시집까지 모두 8권이였다고 한다. 〈양(羊)〉, 〈축제〉, 〈유년송〉, 〈밤의 서정〉, 〈저녁 종소리〉, 〈장만영시선집〉, 〈등불 따라 놀 따라〉 (미간행), 〈저녁놀 스러지듯이〉가 그것인데 시집을 낼 때마다 제목의 글자가 한자씩 늘어가고 있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구절초 시편

박기섭

차물을 올려놓고 가을 소식 듣습니다
살다 보면 웬만큼은 뚝은 물이 든다지만

먼 그대 생각에 온통 짓물러 터진 앞섶
 못다 여민 앞섶에도 한 사나흘 비는 오고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허기를 버리는 강
 내 몸은 그 강가 돌발 잔돌로나 앉습니다
 두어 평 꽃밭마저 차마 가꾸지 못해
 눈먼 하 세월에 절간 하나 지어놓고
 구절초 구절초 같은 차 한 잔을 올립니다

- 시조집 <비단 형값> (태학사 2001)

구절초는 9월 ~ 10월이면 우리나라 산하를 수놓는 들꽃이다. 보통 들국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꽃, 구절초, 쑥부쟁이……. 가을에 산을 오르거나 들을 지니면 구절초를 꼭 보게 된다. 그런데 걸핏하면 시기를 놓쳐서 꽃잎이 시들어갈 때어야 구절초 마중하러 갈 때가 많았던 것 같다. 올 가을에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늘이 너무 맑고 푸르러서 눈이 아픈 가을날, 박기섭 시인(1954 ~)의 시조로 구절초를 만나본다. 파란 가을 하늘에 하늘거리는 구절초를 그려본다.

필자는 중, 고교 시절 국어시간에 수많은 시조를 접했으면서도 '현대시'라는 자유스럽고 세련된 장르가 있는데 틀에 박혀있는 듯한 고리타분한 시조가 왜 있어야할까 하고 늘 의아해했었다. 그러한 선입견을 깨게 해주신 분은 고3 시절의 담임선생님이셨다. 수업시간에는 엄격하셨지만 제자들과의 일대일 대면에서는 한없이 자애로우시며 성실하셨던 아버지뻔 나이의 선생님이 시조시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졸업 후 십수 년이 훨씬 지난 후였다. 나에게 시조가 좋아지게 된 것은 '시조' 자체의 매력보다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시조를 쓰셨다는 데 기인한다는 게 맞는 말 같다. 시조는 원래 고려 중기 때 생겨난 걸로 알려져 있다. 시조가 융성한 때는 조선이 건국되면서 부터이다. 조선 초기에는 상류계급인 양반 중심으로 퍼져갔다가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양반 외에 중인을 중심으로 서민층으로 확산되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최남선을 통한 시조부흥운동을 거쳐서 이태극 등의 창작을 통한 현대시조로 탄생되었다.

지나치게 서구화된 문학 형식에 대한 반성으로 민족적 시형식인 시조를 다시금 창작하자는 시조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이후부터 장을 현대시의 연으로 배행하는 장별 배행 시조 등의 형식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 겨레의 얼이 담긴 운율과 형식을 우리글에 담은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신문사에서 해마다 열리는 문학작품의 등용문인 신춘문예에서는 시조부분을 두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는 걸로 여겨진다.

하얀 구름, 파란 하늘, 노을 진 하늘 색깔 닮은 구절초, 쑥부쟁이, 들국화 꽃 피어나며 가을을 부르고 있는 계절이다. 바람에 하늘거리며 앞섶 풀어 이 땅, 우리 땅의 순정한 빛깔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가을날 찻물 올려놓고 가을 소식 듣는 시조는 참으로 그윽하기 그지없다. 씹씹하면서도 뒷맛이 개운한 구절초 같은 가을차 한 잔 얻어 마시며 여름 내내 삶에 헤진 마음자리를 추스리면 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어머니

박경리

어머니 생전에 불효막심했던 나는
사별 후 삼십여 년
꿈 속에서 어머니를 찾아 헤매었다

고향 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서울 살았을 때의 동네를 찾아가기도 하고
피난 가서 하룻밤을 묵었던
관악산 절간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알지 못할 곳을
애타게 찾아 헤매기도 했다

언제나 그 꿈길은
황량하고 삭막하고 아득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다

꿈에서 깨면
아아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그 사실이 얼마나 절실한 지
마치 생살이 찢겨나가는 듯했다

불효막심했던 나의 회한
불효막심의 형벌로써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 놓아주지도 않고
꿈을 꾸게 하나 보다

- 〈현대문학〉 (2008년 4월호)

민족문학사에 길이 남을 걸작 <토지>의 작가. <토지>가 없는 한국 문학사를 상상해 보면, 박경리(1926 ~ 2008)란 인물이 우리 문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박경리 선생의 어린 시절은 각박했다고 한다. 열네 살에 네 살 연상의 여자와 결혼해, 열여덟에 박경리를 낳은 아버지는 박경리가 태어나자마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그런 아버지를 박경리가 좋아했을 리 없고, 어머니와의 사이도 좋지 않았다. 진주여고를 다닐 때는 학비를 보내주기로 했던 아버지가 학비 부담을 어머니에게 미루자, 아버지를 찾아가 따지다 맞은 일도 있다. '여자가 공불하면 똥하나. 시집가면 그만이지' 하는 말에, '당신이 공부시켰어요? 그만두라 마라 할 수 있습니까?'라고 서슴없이 '당신'이라 부르며 대들자, 아버지가 솔뚜껑 같은 손으로 박경리의 뺨을 때렸다고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인천 전매국에 근무하던 남편과 만나 결혼해 어두웠던 가정사의 그늘에서 벗어나는가 했으나, 그 남편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투옥되고, 6·25 때 월북하면서 다시 홀로 되고 말았다. [평화신문]과 [서울신문]의 문화부 기자를 거치며, 기자가 부족해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했던 그는 일년 뒤 힘들다는 이유로 신문사를 그만두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1969년 <토지>를 집필하면서 그는 일년간 세상과 철저히 담을 쌓고 살았다. 원래 <토지>는 지금처럼 방대한 분량의 대하소설로 계획되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외할머니에게서 들은 얘기를 토대로 한 권 분량으로 써서 탈고까지 마친 후에야 세상에 공개하기로 작정했던 작품이었다. 독하게 마음 먹고서 전화도 끊고 신문도 끊고 원고 청탁도 일체 받지 않은 채 원고지를 채워 나가던 그는, 그러나 어머니와 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 가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현대문학]에 연재를 시작했고 <토지>는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시인만 시를 쓰는 것이 아니겠지만 소설가인 박경리 선생이 만년에 쓴 이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과 슬픔의 정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이 시를 읽으면 어떤 소설의 주인공이 내뿜는 독백처럼 느껴진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세상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위의 시는 나이가 많아져서 세상사에 대해 깊이 있는 시선을 던지게 되고 삶의 이치에 좀더 가까이 다다를 때 느끼게 되는 삶의 독백이 묻어 나오는 글이다. 찐빵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면 만두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이야기기를 쓰는 소설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물씬 나는 시를 쓸 수 있는 것 같다. 박경리 선생은 모친을 늘 가슴에 묻어두고 사셨나 보다.

삼 년 전에 지병을 앓으시던 필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나이가 들면 인간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지만 생애의 반 이상을 병마에 시달리시다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니 견딜 수없이 가슴이 아팠다. 몇 십 년 동안을 당뇨병에 시달리셨고 그 후유증으로 앞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셨다. 남들이 자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믿지 않았는데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날 꿈에 약 이십 오 년 전에 돌아가셨던 아버님을 만났다. 세월은 끊임없이 흘러, 내 나이가 돌아가실 때의 아버님 나이에 가깝게 되고……. 지금의 나와 비슷한 연배의 아버님을 뵈었지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었다. 어릴 때 살았던 낡은 집을 배경으로 서로 안타깝게 바라만 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꿈속에서 눈물이 났다. 당시 갓 스물이 된 아들을 두고 가시는 아버님의 마음은 오죽했으랴. 돌아가신 후 몇 십년 만에 처음으로 꿈에서 아버님을 뵈었는데 공교롭게 그 날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꿈에서 아버님을 뵈었던 이야기를 지인에게 전했더니 그건 어머니를 데리러 온 것이라고들 이야기 했다.

이십 오 년 동안을 아버님을 찾아 헤맸는데 아버님은 꿈속에서도 만나주시지 않았다. 그러시다가 어머니를 데리러 오신 것이다. 지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나의 불효가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러셨을까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다. 혹시라도 다음에 꿈에서 부모님 양친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바다가 보이는 산길

김윤성

바다가 보이는 산길이 난 좋아,
영경귀, 들장미 피는 유(六)월 녹음 밑에 앉아 바라보는
바다가 난 좋아,

한잠 들고 깨어봐도 그 자리 그 곳에
오도 가도 염(念)도 않는 범선(帆船) 두어 개,

먼 먼 바위섬엔

부서지는 파도성(波濤聲)이 들리지 않아
고요히 피었다가 사라지는 흰 물살들이
아직도 꿈속인 양 아물거리는
유(六)월 바다가 보이는 산길이 난 좋아.

-시집 <바다가 보이는 산길> (춘조사 1956)

김윤성 시인(1926 ~)의 시집 <바다가 보이는 산길>은 장만영·박남수 등의 주선으로 1956년 [춘조사(春潮社)]에서 간행한 시집이다.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 전반기까지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작품의 집필 연대는 6·25전쟁 이전의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에는 현실 상황의 급박성 때문에 작품을 많이 쓰지 못한 때문이다. 그 초기의 작품들이 쓰여질 무렵에는 청록파적인 서정주의가 그 당시 신인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집의 수록 작품들은 그와는 달리 지적인 태도로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김윤성의 말대로 발레리와 릴케의 영향을 받아, 주로 만물의 윤회를 지각(知覺)한 형이상학적 고민과 비애를 노래한 것이 이 무렵의 작품세계이다.

6월의 자연은 아름답다. 6월의 산길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을 시인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필치로 담아내고 있다. 담백하고 맑은 시어는 잔잔한 바다와 초여름의 싱그러운 정취를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시를 읽으면서 바다와 먼 바위섬을 향하여 하얀 화폭을 펼쳐 들고 그림 그리는 이를 상상하여도 좋을 것이다.

시인이 서 있는 자리는 바다와 먼 바위섬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산길이다. 인공적인 손길이 닿지 않고 엉겅퀴와 들장미가 피어 있는 산길은 물결이 반짝이는 바다를 감상하기에 좋은 곳이다. 한참을 바라보아도 움직이지 않는 범선은 여유로운 바다의 풍경을 더해 준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바람을 조절하여 띄우는 배가 범선이다. 범선은 기계의 동력을 이용한 빠르고 거대한 배보다 조용하고 자연에 친근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바람을 안고 부푼 범선의 돛은 바다를 향한 꿈과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 파도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바닷가는 삶의 어려움이 배제된 순수한 아름다움의 공간이다.

바다와 산길은 삶의 고단함이 배어들지 않은 순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바다와 산이 평화롭게 어우러지는 산길에서 시인은 아무런 감정의 동요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곳은 정신적 안식처이기도 하고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도피처이기도 하다. 순수한 아름다움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삶의 일상적 체취가 배어있는 곳은 아니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만족은 다양한 것이다. 이 시에서 보이는 아름다움은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다만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산길'은 풍부한 삶의 의미가 배제된 길이며 그 산길이 이어주는 바다와 산의 공간은 적극적인 움직임이 억제된 채로 얻어진 고요하고 정적인 동양적인 침묵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해 여름 숲 속에서

김지향

이른 아침 산을 오른다

아직 바람은 나무를 베고 잔다

동쪽 하늘에 붉은 망사 천을 깔던 해가 숲을 깨운다

숲은 밤새 바람에게 내준 무릎을 슬그머니 빼낸다
베개 빠진 바람머리 나뭇가지에 머리채 들려나온다

잠 깬 산새 몇 마리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그네를 뛰는 사이 숲들이 바람뭉치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복채가 된 가지로 산새의 노래를 바람 배에 쏟아 부으며
탤버린이 다 된 바람 배를 치느라 부산댄다

입 다물 줄 모르는 가지가 종일 바람바퀴를 굴린다
숲 속은 진종일 탤버린 소리로 탤탱 살이 찢다
세상을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서 위로 숲을 안고 돌며 바람바퀴를 굴리는
숲의 재주를 배우느라 여름 한 철을 숲에서 산다

-〈문학마당〉 2008. 여름호

여름이 지나갔다. 이른 아침 산을 오른다. 장마와 폭염으로 대변되는 기나긴 여름은 아침저녁 찬바람이 슬며시 불어올 때 우리곁을 떠난다. 지난 여름 무슨 일이 있었을까?

김지향 시인(1938~)의 시세계의 특징은 시각적 이미지의 환상적 결합에 의한 언어의 명징성(明澄性)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시적 자유분방함(이를 흔히들 '에스프리'라고 부른다)이 독특한 지적구조를 통하여 심도있는 내면세계를 형상화함으로써 서정적인 정취(리리시즘)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천성적일 수도 있고 오랜 시작에서 오는 노력의 소산일 수도 있는 감각의 발달함을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는 위의 시는 세상을 향한 특유의 다양한 시각과 다층적 정서를 힘껏 펼쳐보인다.

숲에서 바람이 잠잠해짐을 '숲은 밤새 바람에게 내준 무릎을 슬그머니 빼낸다'라고 표현하며 나뭇가지에서 바람이 불어옴을 '베개 빠진 바람머리 나뭇가지에 머리채 들려나온다'고 서술했다. 이 정도면 국보급의 상상력과 표현력이 아닐까 한다.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시정(詩情)의 수맥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만큼 자주 다루어진 시의 소재도 흔치 않다. 시인은 그 '사랑'을 자연에 승화시켜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 거느리고 있는 다양하고 풍성한 감정과 사유의 빛깔 때문일 것이다.

이 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대상인 '자연'에 대한 칭송으로 시작한다. 그것의 이름은 산새, 나무가지, 바람 등이다. 변치않는 자연의 이름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도 명성이 상하는 법 없이 빛난다. 혹 누가 그 이름을 더럽히거나 그에게 모욕을 가하려 하여도 가하는 자의 손만 더러워질 뿐 그의 이름은 낡지 않다. 시의 화자는 '자연'을 사랑으로 충만한 눈길로 승화시켜 그해 여름 숲 속에서 바라보고 있음에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청정해지는 것 같다.



비처럼 음악처럼

안현미

새춘천교회 가는 길 전생처럼 패랭이꽃 피어 있을 때 흩뿌리는 몇 개의 빗방울 당신을 향한 찬송가 같았지

그때 우리에게 허락된 양식은 가난뿐이었지만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처럼 가난하기에 더 열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찬송가를 불렀었지

누구는 그걸 사랑이라고도 부르는 모양이지만 우리는 그걸 음악이라고 불렀지

예배당 앞에 나란히 앉아 기도 대신 서로가 서로에게 담배불을 붙여줬던가
 그 교회 길 건너편엔 마당에 잡초 무성한 텅 빈 이층 양옥집도 있었던가
 그 마당에 우리의 슬픔처럼 무성한 잡초를 모두 뽑고 당신의 눈썹처럼 가지런하게 정리비질하고 꼭 한 달만 살아보고 싶었던가
 햇빛 좋은 날 햇살로 풀을 췌어 문풍지도 바르고 싶었던가
 그렇게 꼭 한 달만 살아보자고 꼬드겨보고 싶었던가
 그럴까봐 당신은 이 생애 나를 술래로 세워놓고 돌아오지 않는 기차를 탔던가
 춘천을 떠나는 기차 시간을 기다리다 공지천 '이디오피아' 창가에 앉아 돌아오지 않는 당신의 눈썹에서 주워온 몇 개의 비애를 안주
 로 비루를 마실 때 막 사랑을 하기 시작한 연인들의 백조는 물 위에서 뒹뒹뒹, 그 뒹뒹뒹뒹거림조차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는
 데 아직도 찬송가처럼 몇 개의 빗방울 흩뿌리고 있었지
 누구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지만 우리는 그걸 음악이라고 불렀었지

- 시집 <곰곰> (렌덤 하우스 2006)

아, 이 시는 너무도 아름답고 또 눈부셔 한숨이 나온다.

위의 시를 쓴 안현미 시인(1972~)은 거침없고 활달한 상상력에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을 사용하여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눈부신 시'를 쓰고 있다. 요즘 젊은 시인들의 시는 너무 형이상학적이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류의 시와는 좀 다른 시인 것이다. 필자의 과문함 탓이겠지만 어려운 시를 읽을 때는 중간 정도 읽다가 손을 놓아버리는 버릇이 있다. 어렵기 짝이 없는 난해시를 쓰는 '미래파'의 일군과는 차별화되는 것은 독특함. 그것은 우리말을 가지고 표현하는 데 있어 자신만의 개성적인 필력이 발휘된 결과이다. 아름다운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이 시를 만든 힘은 상상력일 것이다. 상상은 시공을 초월하여 낯선 곳으로의 유쾌한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기다림으로 점철된 유년의 통로를 시인이 모두 가슴 속에 담고 형상화시킨 결과가 이토록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지 않았을까. 인간은 이렇게 상상을 통해 육체의 제약에서 벗어나 그 본체인 무한한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시의 정의를 생각해 보자. 시는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 있는 언어로 압축해 표현한 글'이다. 다른 모든 문학 양식의 모체이며, 가장 순수한 정신의 경지를 표현하는 문학 형식인 것이다. 원래는 '공상에 의한 생산'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었는데, 그것이 차차 한정적(限定的)으로 문학적 생산 전반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산문에 대한 율어(律語)의 문학을 가리키게 되어, 결국은 한 문학양식으로서의 시의 개념을 담는 말이 되었다. 정형시, 자유시 등 여러 가지 형식이 있으나, 원래는 가창(歌唱)되었던 것이 노래 부르는 가요와 읽는 시로 분화된 것이다.

위에서 구구하게 시의 정의를 인용한 것은 음악과의 관계 때문이다. 시인은 하나의 그 어떤 음악을 상상하면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음악 중에서도 가창(歌唱)되는 노래일 것이다. 그 음악은 사랑이라고 불렀다가 음악이라고도 불리는 노래 같은 것으로 마음을 새춘천교회의 어느 외딴길 건너편에 세워 두었을 때 어디인가로부터 들려왔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도 언젠가 새춘천교회와 같은 분위기의 장소를 지나다가 문득 아련한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을 이 시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이 시 속에는 경험담인지 아닌지는 모르

겠지만 가난한 연인이 등장한다. 잡초가 무성한 텅 빈 이층 양옥집이 보이고 예배당 앞에 나란히 앉아 서로 담뱃불을 붙여주는 연인이 보인다. 젊은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멋있을 것 같다. (늙은 여자가 담배를 피우면 멋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춘천을 떠나는 기차를 기다리다 비애 속에서 맥주를 마셨을 것이다. 시인은 언젠가 그 깨끗한 양옥집에 들어가 꼭 한 달만 살아보자고 연인을 꼬드겨 보고 싶었을 것이다. 꼬드킨다는 말이 주는 여운이 이토록 아름다운 비애를 자랑하는 글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한 달만..., 둘이서..., 살아보자고..., 꼬드겨 보고 싶다는 생각....., 우리도 과거에 누군가의 속눈썹을 훑쳐보며 마음속으로 수십 번 중얼거리지 않았는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김남주

무엇하랴

콧잔등 타고 내려

입술 위에 고인 눈물 위에

그대 이름 적신들

타고 내려 가슴에서 애를 태우고

발등 위에 떨어진 이슬 위에
그대 이름 새긴들

무엇하라
벽은 이리 두텁고 나는 갇혀 있는 것을
무엇하라
철창은 이리 매정하고 나는 묶여 있는 것을
오 새여 하늘의 바람이여
나래 펴 노래에 살고
내래 접어 황혼에 깃드는 새여 바람이여

나에게 다오 노래의 날개를
나에게 다오 황혼의 보금자리를
만인의 입술 위에서 노래가 되기도 하고
대지의 나무 위에서 비둘기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고
압제자가 묶어 놓은 세상의 모든 매듭을 풀어
인간의 팔에서 날개가 되고 바람이 되기도 하는
새여 바람이여 자유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시선집 <사랑의 무기> (창작과 비평사 1989)

시인 김남주(1947 ~ 1994)는 작가생활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자본주의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비인간화를 비판하고 사회주의적인 공동체 생활을 염원하는 시를 써 왔다.

김사인 시인이 ‘강인한 정신성의 시’ 라고 평한 그의 시들은 대개가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돼 무기수 생활을 하던 중 쓴 것이다. 독재정권과 노동의 비인간화에 항거하는 그의 시는 1980년대 대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시였다.

1974년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진혼가>를 선보이며 등단했지만, 본격적인 시인으로 주목받은 것은 옥중에 있던 1984년 첫 시집 <

진혼가》를 펴낸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옥중 시집은 광주교도소에 갇힌 시인 김남주를 독재정권에 대한 문학적 항거의 표상으로 부각시켰다. 이후 〈나의 칼 나의 피〉, 〈사랑의 무기〉, 〈솔직히 말하자〉 등의 옥중시집을 잇달아 발간하면서 그는 ‘광주학살’을 가장 격렬하게 몸과 글로 규탄하는 시인으로 우뚝 섰다. 1988년 특사로 출옥 후 출판된 시집 〈사상의 거처〉를 제외하면 그의 옥중시집은 모두 담뱃갑 은박지와 휴지조각, 책 여백에 깨알 같은 글씨로 써 교도관 몰래 밖으로 내보낸 것을 친지들이 묶어 펴냈다. 이 때문에 시인은 자신이 쓴 시들이 제대로 인쇄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 저항의 표상으로 널리 읽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순수문학을 표방하는 이들로부터는 지나친 사상성을 비판받는 시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외쳤다. 자신이 이상으로 삼아 온 사회주의를 표방한 국가들이 몰락하고 후배들이 지향점을 상실하고 헤매는 변화 앞에서도 ‘사회의 모든 현상이 시가 된다’며 스스로와 후배들을 격려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다 사라졌으며 또 이름 없는 들꽃들은 피다가 사라졌는가. 바쿠닌, 플레카노프, 로자 룩셈버그, 베라 자수리치, 트로츠키, 체게바라……. 동지는 간 곳없고 깃발만 나부낀다. 김남주의 시는 그렇게 남아있다.



즐거운 편지

황동규

I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II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끝

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 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 시집 <어떤 개인 날> (중앙문화 1961)

너무나도 유명한 이 시는 황동규 시인(1938 ~)의 첫 시집 <어떤 개인 날> (1961)에 수록되어 있다. 황동규의 초기 작품인 이 시는 작가가 고등학교 3학년인 18세 때 연상의 여대생을 사모하는 애절한 마음을 노래한 연애시라고 한다. 지금도 널리 애송된다.

2연으로 이루어진 산문시로 변함없는 기다림의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사랑은 우리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과 함께 언젠가는 끝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헤어짐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영원히 변치 않는 기다림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시는 사랑과 기다림을 주된 제재로 삼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늘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다림을 통해 극복해나가겠다는 사랑의 굳은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이루지 못할 사랑으로 인한 젊은 날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때 묻지 않은 시각과 감성이 풍부한 서정적인 어조로 적어 내려간 낭만적·우수적 성격을 띤 서정시이다. 작가 개인의 서정적 관심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감정표현을 이미 지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는 첫 시집 <어떤 개인 날>에 실린 대부분의 연가와 마찬가지로 서구적 인식의 로맨티시즘에 바탕을 둔 투명한 정감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작가의 초기 시세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연애시이다. 이 시의 '내 그대를 생각함은' 이후로 오는 것은 실은 다 여백이다. 독자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편지를 쓰게 하는 능동적인 여백이다. 나의 짝사랑의 입장에서선 사소한 것일 수도 있음까지 헤아리는 순수함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괴로움 속을 헤매 일 때'가 온다면 그때는 화자가 그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는 결연한 열정이 아름답다. 자신의 사랑을 '사소함'이라 말하는 조숙함은 사랑이 아니라면 어디서도 얻지 못할 자세일 것이다.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노래함으로써 전형화되어온 전통적 연애시의 계보와는 차원이 다른 또다른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랑을 주제로 한 한국 영화 <편지> (1997)와 <8월의 크리스마스> (1998) 등은 이 시에서 주된 모티프를 얻어 제작되었다고 한다.

편지를 모티브(motive, motif)로 쓴 시를 읽다보니 청년시절에 주고받았던 슬픈(?) 편지 사건이 기억난다.

대학 2년을 마치고 휴학한 뒤 7월 달에 입대(入隊)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5월의 어느 봄날이었다. 요즘 군대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말뚝 근무'라는 것이 있었다. 부대의 정문인 위병소(衛兵所) 근무를 하루 종일 선다고 해서 '말뚝'이라는 악명(惡名)이 붙은 것이었는데 고참병들의 횡포로 주로 힘없는 후임병(後任兵)들이 하루 종일 고생하기 일쑤였다. 어떤 날은 교대자가 오지 않아서 아침, 점심을 굶은 채 근무서는 것도 예사여서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필자는 주로 아침 6시부터 10시에 끝나는 아침 위병(衛兵)근무를 했는데 그 시간에는 부대 앞 도로 교통정리도 같이 해야만 했다. 부대가 위치한 K도의 시골도시 K시에는 방직공장이 몇 개 있었는데 통근버스가 부대 앞을 매일 지나갔다. 하루도 빠짐없이 보초(步哨)를 서는 특정 군인을 누군가가 눈여겨 본 모양이었다. 'XX방직'이라는 로고가 쓰인 버스가 부대 앞을 막 지나갈 때 차 안에서 돌멩이에 쓴 쪽지가 내게로 날아왔다. 쪽지의 내용은 '매일 아침마다 오빠를 버스에서 지켜보며 사모하는 여성 직장인이다……. 아래의 주소로 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그런 내용이었다.

낙(樂)이 없는 군복무생활이었다. 매일의 고된 사역(使役)과 이유 없이 행해지는 고참병들의 구타(毆打)로 괴롭기 짝이 없는 와중에서 묘령의 여성으로부터의 펜팔(penpal)신청이 왔던 것이다. 봄이어서 그랬나? 며칠 후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연락하게 되어서 기쁘다'는 내용을 편지지에 적었다. 수정에 수정을 가해서 정성스레 쓴 편지를 저녁에 퇴근하는 방위병(防衛兵)을 통해 발송했다. 얼마 후 부대로 답장이 왔는데 편지내용은 의외였다. '통근할 때마다 부대 정문에서 근무 중인 오빠를 보는 것이 생활의 기쁨이다……. 자주 편지를 해도 괜찮겠느냐…….'는 내용이었는데 글씨체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글씨체처럼 비뚤비뚤했고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엉망이었던 게 특이했다. 그러나 나를 매일 지켜보는 누군가를 내가 모른다는 사실에 그 여성의 정체는 날이 갈수록 궁금해져 갔다. 그렇게 편지를 두어 번 주고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대 밖으로 외출할 기회가 생겼다. 일을 다보고도 1시간 정도 여유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고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편지를 보낸 주소지의 공장으로 곧장 달렸다. 공장 수위 아저씨에게 000양을 면회 왔다고 이야기 하니 아래위로 훑어본 후 전화를 걸어 '김OO양에게 윤XX라는 이름을 한 육군상병이 면회 왔다'는 통지를 하며 내게 면회 시간은 15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이는 스무 살 정도 되는 순박한 시골 처녀이겠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약 10분이 지났을까? 면회실 문이 열리고 수위 아저씨가 당신이 찾는 사람이 왔다고 했다. 순간 나와 눈이 부딪친 여자를 보고 나는 '억' 소리를 지를 만큼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나이는 많아봐야 12살에서 13살 정도로 키는 150cm가 겨우 될까 말까 했다. 누렇게 뜬 얼굴에 야위고 깡마른 작은 체구에 어린 얼굴을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소녀가 내 앞에 서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전태일(全泰壹)도 이런 살인적인 강도(強度)의 노동분위기에 일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놀라움이 가시기도 전에 웃음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근처에 소녀와 같이 근무하는 듯한 30 ~ 40대의 아주머니 대여섯 명이 깔깔거리면서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겼다는 듯이 면회 장면을 숨어서 훑쳐보고 있었다.

이왕 앞질러진 물이었다. 나는 소녀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면회신청을 했다… 갑자기 불쑥 찾아와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어쨌든 만나서 반갑다… 는 말을 했다. 그 소녀는 흥당무 얼굴로 병어리 상태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으며 주변의 웃음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색함 속에서 주어진 15분의 면회시간 중에서 5분을 채우지 못하고 곧장 공장 문을 나서야 했다.

사흘 후 부대로 편지가 왔다. 물론 그 소녀에게서 온 편지였다. 총 너댓 줄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였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오빠, 그 날 오빠가 가고 난 뒤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그렇게 오빠를 그렇게 보내고 난 후 나는 내가 참으로 죄가 많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는 여자를 이제는 잊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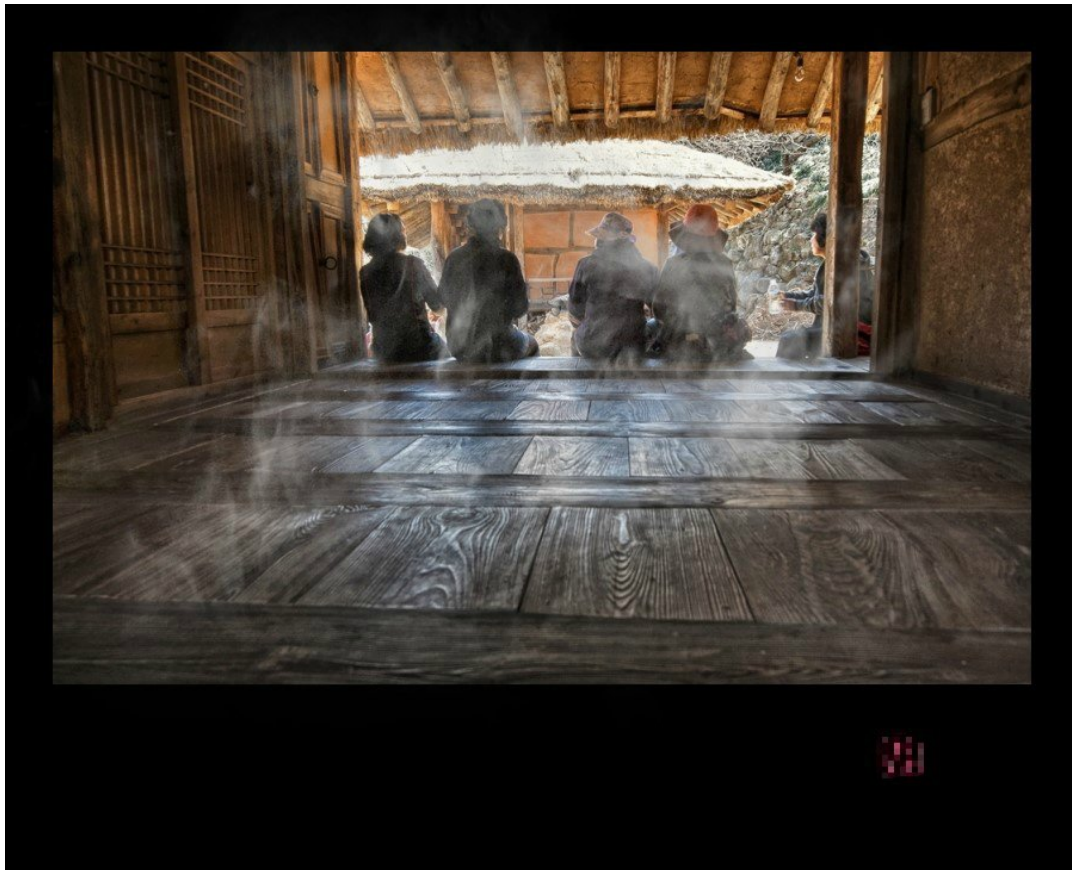
한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응석을 부려야 할 나이이고, abba나 carpenters의 노래에 흥미를 가지고 라디오의 pop song에 귀를 기울여야 할 또래였다. 무엇이 저 어린 소녀를 저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아, 그것은 가난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작 초등학교 연령의 소녀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정서적으로는 30 ~ 40대 중년여성의 '때묻은 신파조'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린 아이의 입에서 스스로 죄가 많은 여자라니…….

그 날 저녁 몇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 편지를 쓰기로 결심을 했다. 당시 베스트 셀러였던 펄 벅 (Pearl Sydenstricker Buck)여사의 '자서전'에서 읽은 내용을 생각해 내었다. '젊은이여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실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이라는 짧은 경구(警句)를 기억났다. 내가 보낸 편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빠는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사는 살지는 않았지만 너보다는 조금 더 산 것 같다. 네가 살다보면 앞으로 참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어야지만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실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이다. 오빠 같은 어른에게 편지를 하지 말고 틈이 나면 동화책이나 시집, 소설책을 읽는 것을 권하고 싶다. 힘들겠지만 중학교 과정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니. 그리고 내게 편지를 주어서 너무 고맙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겠다."

물론 이 후로 그 소녀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지금쯤 30대 후반의 아줌마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글이 책으로 만들어 진 후 그 소녀가 이 글을 읽는다면 연락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황동규 시인의 시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주절주절 해보았다. 위의 시와 전혀 연관이 없지만 '즐거운 편지'라는 단어에 떠오르는 옛 기억 때문이다. 이제는 e-mail을 보내고 휴대폰(mobile)을 사용하는 관계로 만년필로 편지를 쓰고, 풀로 봉투와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가고 하는 일이 없어졌다. 누군가로부터 하얀 편지지에 만년필로 곱게 적어 내려간 편지를 받아보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왜 모를까

김용택

이별은 손끝에 있고
서러움은 먼데서 온다
강 언덕 풀잎들이 돌아나며
아침 햇살에 핏줄이 일어선다

마른 풀잎들은 더 깊이 숨을 쉬고
 아침 산그늘 속에
 산 벚꽃은 피어서 희다
 누가 알라 사람마다
 누구도 닿지 않는 고독이 있다는 것을
 돌아앉은 산들은 외롭고
 마주보는 산은 흰 이마가 서럽다
 아픈 데서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슬픔은 손끝에 닿지만
 고통은 천천히 꽃처럼 피어난다
 저문 산 아래
 쓸쓸히 서 있는 사람아
 뒤로 오는 여인이 다정하듯이
 그리운 것들은 다 산 뒤에 있다
 사람들은 왜 모를까 봄이 되면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이 꽃이 된다는 것을.

-시집 <사람들은 왜 모를까> (문학사상사 1997)

너무나도 유명해서 국민시인 반열에 올라있지만 그래도 김용택 시인(1948 ~)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다. 전북 임실 진메마을 출생으로 1969년 순창 농림고교 졸업했다. 1982년 21인 신작시집 <꺼지지 않는 햇불로>에 <섬진강 1>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으며 임실 덕치국교 교사 역임했다.

그는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읽고 문학에 첫 관심을 가졌으며 박목월, 이어령, 서정주 등의 전집을 읽었다고 한다. 그는 발레리 시 중에 '바람이 분다/살아 봐야겠다.'를 늘 가슴에 새겨두고 삶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 김수영의 <풀>을 읽고 작은 풀을 간단하면 서도 정확한 느낌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놀란다. 이때부터 김수영을 비롯하여 박용래, 김종삼, 황동규의 시에 심취했다. 이성부의 시집과 <해방전후사의 인식>, 잡지 [문학과 지성] [창작과 비평]을 읽고 역사와 문학에 눈뜨게 되었다.

그의 시 대부분은 섬진강을 배경으로 한다. 그는 섬진강에 대하여 “나의 모든 글은 거기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고 끝이 날 것을 믿

으며 내 시는 이 작은 마을에 있는 한 그루 나무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정도이다. 초기 시는 주로 고향과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태에 비추어 서정적으로 노래했다. 이는 이성부나 고은의 시에 영향받은 듯하다. 초기 연작시 <섬진강>의 지배적 이미지는 작가 주변 인물들의 서사적 이야기이며 대부분 긴 형태로 기도나 분노, 풍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시의 제목 ‘사람들은 왜 모를까’ 에서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대로 보면, 마지막 두 행에서 말하고 있는 ‘봄이 되면 손에 닿지 않는 것이 꽃이 된다는 것’ 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봄이 되면 꽃이 되는 ‘손에 닿지 않는 것’ 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말하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은, 봄이 되면 꽃이 되는 ‘손에 닿지 않는 그 무엇인 것’ 이다. 화자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시 속에서 있을 것이다.

그는 집 앞에 흐르는 섬진강을 배경으로 많은 작품을 썼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순리의 철학을 인정과 세태에 연결시켜 서정적으로 노래했고, 소박한 정서와 농촌 경험의 진실성을 시의 바탕으로 빚어냈다. 대상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정겨운 시선, 자연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정신은 그만의 독특한 시 세계를 이루고 있다.

이 시에서는 고통과 슬픔을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승화시킨 이별의 순간이 지나간 뒤에도 슬픔은 멀리서 밀려오고 고통은 시간이 흐를수록 꽃처럼 피어난다고 비유하고 있다. 이 시는 절제된 언어를 통해 시적 정서의 긴장과 전형을 잘 살려내고 있다. 특히 시적 대상으로서 자연을 경험적 현실로 인식하고 그것을 상상력의 세계 속으로 끌어올리는 필력은 시인의 고운 심성을 짐작케 한다. 이별의 순간이 지나간 뒤에도 슬픔은 멀리서 밀려오고 고통은 시간이 흐를수록 꽃처럼 피어난다고 비유했다. 지난날의 슬픔이나 고통 등이 오늘의 나를 있게 성장의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것들이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다. 시골집 담벼락에 피어있는 한 모듬 채송화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시이다.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

장정일

그랬으면 좋겠다 살다가 지친 사람들
가끔씩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
계절이 달아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지 않아
오랫동안 늙지 않고 배고픔과 실직

잠시라도 잊거나
그늘 아래 휴식한 만큼 아픈 일생이
아물어진다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굽직굽직한 나무등걸 아래 앉아
억만 시름 접어 날리고
결국 끊지 못했던 흡연의 사슬
끝내 떨칠 수 있을 때
그늘 아래 앉은 그것이 그대로
하나의 뿌리가 되어
나는 지층 가장 깊은 곳에 내려앉은
물맛을 보고
수액이 체관 타고 흐르는 그대로
한뿔박 녹말이 되어
나뭇가지 흔드는 어깨짓으로 지친
새들의 날개와
부르튼 구름의 발바닥 쉬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사철나무 그늘 아래 또 내가 앉아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내가 나뭇에 될 수 없을 때
이제는 홀로 있음이 만물 자유케 하며
스물 두 살 앞에 쌓인 슬병
먼 길 돌아서 가고
공장들과 공장들 술한 대장간과
국경의 거미줄로부터
그대 걸어나와 서로의 팔목 야윈
슬픔 잡아 준다면
좋은 것이다 그제서야 조금씩
시간의 얼레도 풀어져
초록의 대지는 저녁 타는 그림으로
어둑하고
형제들은 출근에 가위 놀리지 않는
단잠의 베개 벨 것인데
한 컨디션 되게 낮잠을 자 버린 사람들이 나즈막히 노래불러
유행 지난 시편의 몇 구절을 기억하겠지

바빌론 강가에 앉아
사철나무 그늘을 생각하며 우리는
눈물 흘렸지요

- 시집 <햄버거에 대한 명상> (민음사 1987)

장정일 (1962 ~)은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등 모든 장르의 글이 영화화되고 연극 무대에 올려지면서 우리 문화계에 '장정일 신드롬'을 일으킨 혁신적 작가이다.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음란물로 분류되어 사법적 판단의 도마에 오름으로써 다시 한번 세간에 파란을 일으킨 문제적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중학교 졸업 후 어머니의 종교였던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가 되어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았다. 19세 때 폭력사건으로 대구교도소 미결수방을 거쳐 소년원으로 보내져 1년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양의 다양한 책들을 읽었다. 1984년 무크지 [언어의 세계] 3집에 <강정간다> 외 4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하였으며, 198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실내극>이 당선되기도 하였다. 1987년 첫 시집 <햄버거에 관한 명상>을 발표하였고, 이 작품으로 제7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역대 최연소 수상자가 되었다.

1988년 [세계의 문학] 봄호에 단편 <펠리컨>을 발표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첫 장편소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를 출간하였다. 그 후 첫 소설집 <아담이 눈뜰 때>, 장편 <너에게 나를 보낸다>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 <내게 거짓말을 해봐> 등을 발표하였는데, 이 작품들은 모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1천여 장의 재즈 음반을 수집하며 관심을 가지던 분야인 '재즈'를 소재로 한 소설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는 '재즈적 글쓰기'라는 평단의 조명을 받았고,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성 시비로 출간되자마자 출판사측에서 자진 수거하고 결국 그는 구속·수감되었다. 또한 <아담이 눈뜰 때> <너에게 나를 보낸다> <내게 거짓말을 해봐> 등의 작품은 영화화되기도 하였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어 원작과 함께 음란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장정일은 자신의 소설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해체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주인공들의 도착적인 성관계를 여과 없이 표현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소비사회의 인간적 삶을 독창적으로 형상화하는 작가이자 한국의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이 시를 읽어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마운' 그들의 존재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그들은 눈부시지 않고 어둡지 않다. 뜨거운 햇살은 가려주고 비바람도 얼마간은 막아준다. 여운, 깊이, 안식, 편안함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림자와 다르다. 이 시 속의 그늘 아래 서면, 일상의 복잡함과 피곤함을 잊고 잠시 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늘 아래 스스로를 내버려 두고 노동과 불안과 걱정을 제껴두고, 잊거나 잃은 것을 떠올리며 눈물도 짓고 안식을 얻는 것이다.

각박한 21세기의 세상에서 시간과 계절은 너무 빨리 달아나고, 우리는 너무 빨리 늙는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항상 배고픔과 실직의 공포에 시달린다. 그리고 출근과 스트레스와 피로와 시름과 술과 담배에 지쳐 있다. 맨땅에 뿌리를 내린 채 사시사철 변함 없는 사철나무의 그늘이니 얼마나 넓고 깊겠는가. 누구나 그런 그늘 하나쯤은 꿈꾸기 마련이다. '가장 장정일답지 않

는 시'임에도 가장 많이 애송되고 있는 시이다.

이 시의 끝부분에서는 보니엠(Boney M)의 노래 '바빌론 강가에서(Rivers of Babylon)'가 나온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시편, 137편)라는 성경 구절이 연상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탑과 공중정원이 있었다는 번영의 땅 바빌론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대중가요이다. 바빌론은, '시온(Zion · 예수살렘의 도시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을 생각하며 견뎌야 했던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방의 땅, 고난의 땅, 타락의 땅이다. 디스코 풍의 이 노래는, 1980년대 내내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쉬던 공장노동자들의 휴식시간을 장악하기도 했다. 장정일이 '동사무소 하급 공무원'을 꿈꾸며 들었다고 하는 '바빌론의 강가'를 다시 듣고 싶다. 우리에게도 아직도 쉴 수 있는 그늘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늘

박두진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머얼리서 온다.

하늘은, 머얼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 몸이 안긴다.

가슴으로, 가슴으로
스미어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별,
초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익는다
능금처럼 마음이 익는다.

-시집 〈해〉 (학원사 1949)

박두진 시인(1916 ~1998)의 학력은 시골 국민학교 졸업이 전부다. 1939년 〈문장〉을 통해 〈향현(香峴)〉, 〈묘지송〉, 〈낙엽송〉 등으로 정지용의 추천을 받아 데뷔했다. 추천자 정지용(鄭芝鎔)은 그의 시에 대해 ‘그의 새로운 자연의 발견은 삼림에서 풍기는 식물성의 체취’ 라고 하였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침묵으로 절조를 지켰으며, 1946년 박목월(朴木月) . 조지훈(趙芝薰)과의 3인시집 〈청록집〉을 펴내 ‘청록파’ 라는 말을 들었으나 향토정서보다는 그리스도교적 윤리의식으로 기울었다. 초기에는 역사와 인류의 부조리에 소극적 저항을 보였고, 중기에는 그 저항을 심화시켰으며, 그 뒤 그리스도교 신앙체험의 고백을 드러내었다.

이 시는, 맑고 푸른 초가를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샘솟는 생의 기쁨과, 나아가 자연과의 합일(合一)을 이루는 경지를 연쇄의 표현 기법과 정제된 언어로써 잘 나타낸 작품이다. 1970년대 중반 서유석이 곡을 붙이고 서유석과 양희은이 노래를 불러 더 알려진 작품이다.

박두진이 노래하는 자연은 다른 청록파 시인들이 추구하는 목가적 세계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종교적 신앙과 일체화된 신성(神性)의 자연이다. 전 7연의 이 작품은 내용상 2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단락(1~4연)에서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는 시적 자아가 그 아름다움에 도취됨으로써 무아지경(無我之境)에 빠져들어 자연의 넓은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하늘과 하나가 된 희열감(喜悅感)과 함께 자연의 숭고함에 대한 시인의 경건한 자세가 나타나 있다.

둘째 단락(5~7연)에서는 시상이 점차 고조되어 '능금처럼 내 마음이 익는다'는 마지막 행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따가운 별 / 초가를 햇별로' 세속에 물든 자신의 육신을 씻어낸 다음, 그 깨끗해진 가슴에 절대 순수의 '하늘'을 가득 채워넣었을 때, 마침내 영혼은 빨갭게 익어가는 '능금처럼' 성숙, 결실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하늘'은 단순히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시적 자아의 세속화된 영혼을 맑게 씻어줌으로써 그의 삶을 살찌우는 생명수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늘'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수로 되어 있다. 곧 영혼·정신·생명의 근원이며, 평화와 결실을 주재(主宰)하는 어머니이기도 하다. 이런 '하늘'과의 높은 조화와 동화의 경지를 보이며, 그것을 구가하고 찬미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의 시정신이다.

박두진 시인이 살아있을 때 모일간지 문화란에서 기자와 대담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난다. 돌아가시기 1~2년전으로 기억하는데 근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너무 오래 살았다..... 이제는 사는 게 지겨워요.'라고 기자에게 말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1990년대에 이르자 시 〈빙벽을 깬다〉를 통해 인류발전을 가로막는 이기심인 '빙벽'을 깨기 위한 노시인의 처절한 투쟁의지는 사회비판과 더불어 시정신의 준열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었는데 이 위대한 시인에게도 세월이라는 괴물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던 셈이다.

'우주 전체 무한공간/ 어디나 얼음인 얼음절벽(중략) 아, 맨주먹, 맨주먹, / 나혼자 맨주먹으로 얼음절벽을 깬다/박치기 알몸뚱이로 얼음절벽을 깬다' ('빙벽을 깬다' 의 일부)



도솔가(兜率歌)

김혜순

죽은 어머니가 내게 와서
신발 좀 빌어달라 그러며는요
신발을 벗었더랬죠

죽은 어머니가 내게 와서
부축해다오 발이 없어서 그러며는요
두 발을 벗었더랬죠

죽은 어머니가 내게 와서
빌어달라 빌어달라 그러며는요
가슴까지 벗었더랬죠

하늘엔 산이 뜨고 길이 뜨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
둥그런 달이 두 개 뜨고 있었죠

- 계간지<문학과 지성> (1979)

김혜순 시인(1955 ~)의 시 세계는 격렬한 언어와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데, 이는 세계의 부조리와 죽음의 운명에 저항하는 시적 방법이다. 대상을 주관적으로 비틀어 만든 기괴한 이미지들과 속도감 있는 언어 감각으로 자신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해온 그가 시를 통해 끈질기게 말하는 것은 죽음에 둘러싸인 우리 삶의 뜻없음, 지옥에 갇힌 느낌 등이다. 그 죽음은 생물학적 개체의 종말로서의 현상적, 실재적 죽음이 아니라, 삶의 내면에 커다란 구멍으로 들어앉은 관념적, 선험적 죽음이다.

위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솔가'와 '도솔천'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알아야 할 것 같다.

도솔가는 신라의 향가(鄕歌)이다. 760년(경덕왕 19) 4월 초하루, 해가 둘 나타나서 열흘 동안 없어지지 않으므로, 왕명에 따라 연승(緣僧)으로 뽑힌 월명사(月明師)가 산화공양(散華供養)을 하면서 <산화가(散花歌)>도 부르고 이 노래도 지어 부르자, 괴변이 곧 사라졌다는 유래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한다.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一然)은 이 노래를 <산화가>가 아니라 <도솔가>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도솔은 미륵을 지칭한 말로서, 미래 불로서의 미륵불을 모시는 단을 모아놓고 이 노래를 불러 미륵불을 맞이하려고 한 것이다. 떨기 꽃을 통하여 미륵불을 모시겠다는 뜻의 전형적인 찬불가(讚佛歌)이다.

바람이 돈을 날려 떠나간 누이에게 보내고
피리 소리 밝은 달을 흔들어 향아를 머물게 했다
도술천이 멀다고 말하지 말라
큰 스님 꽃 한 가지 한 곡의 노래로 맞았네』
(〈삼국유사〉 권5 감통. 월명사 도술가)

자, 이제 어떤 점에서는 두 도술가의 합일점이 찾아질 것 같다. 김혜순의 시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격렬한 언어와 강한 이미지, 죽음과 부조리에 저항하는 방법으로서의 시는 여기서도 유용한 것이다. 〈도술가〉는 하늘에 해가 둘 나타난 괴변을 없애기 위한 의식에서 불린 노래이다. 합리적 사고로는 하늘에 해가 둘 나타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두 해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의 기록이 아니며, 우회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도술가는 미래의 부처님(미륵불)을 모시기 위해서 사전정지 작업조로 행해야 하는 찬불가이다. 김혜순은 시에서 죽은 어머니가 찾아와서 고통 속에서 하소연할 때 딸은 (어머니의 평안을 위해) 신발을 제공하고 발을 잘라드리고 목숨까지 바친다. 그 결과 둥그런 달이 두개가 뜬 상태에서 하늘에는 길이 뜨고 산이 뜨는 도술천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도술가에서의 도술천은 미륵보살이 머무르고 있는 천상(天上)의 정토(淨土)가 된다. 이렇게 시를 쓰는 시인의 마음은 천상의 평온함을 찾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김광규

4·19가 나던 해 세밑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 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로우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흥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 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만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 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포우커를 하러 갔고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송동 길을 걸었다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흘린 곳에
낮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러며

우리는 짐짓 중년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늙으로 발을 옮겼다

-시집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 (문학과 지성사 1979)

김광규 시인(1941~)의 시는 대부분 평이한 언어와 명료한 구문(構文)으로 씌어진 일상시(日常詩)이면서도 그 속에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난해시에 식상한 독자와의 통교(通交)를 회복시킨 시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독일에 유학한 후 서울대에서 <권터 아이히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독문학을 전공한 대학교수이지만 우리말에 있어서 더욱 자유롭다. 이 시 역시 일상적 삶에서 얻은 구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평이한 표현 방법을 통해 중년기 사내의 소시민적 의식 구조를 명징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시에는 화자가 중심이 된 간단한 줄거리가 담겨 있다. 4·19 혁명이 일어나던 무렵, 젊은 혈기와 '때묻지 않은 순수'로 살던 화자는,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어느 세밑, 중년의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옛 추억이 서린 곳에서 '동창회' 형식으로 친구들을 만난다.

그들은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기고 전화번호가 달라진 만큼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부와 지위를 얻은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중년이 되어 있다. 월급이 대화의 전부가 되고, 물가가 고민의 주종을 이루는 소시민의 중년이 되어 버린 그들은, '늙' 같은 일상적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옛사랑'을 노래하던 젊음을 떠올려 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포커'나 '춤'으로 대표되는 향락적 세계를 즐길 뿐이다. 그러므로 행여 누가 들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 받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열지 못한 채, 그저 '살기 위해 살고 있는' 소시민적 생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시는 꾸밈이 없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점에서 '자연'에 가깝다. 그가 자연을 관조하는 가운데서 안심입명(安心立命)에 접어들고 진리를 감득해내는 것처럼 독자들도 그의 시를 읽고 위안도 받으면서 교훈도 얻어내게 될 것이다. 자연과 같은 시, 김광규는 이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문학평론가 조남현)

화자와 옛 친구들에게 순수와 젊음을 반추시켜 주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다만 '플라타너스 가로수'만이 간신히 남아 그들을 반겨 줄 뿐이다. 그들은 더 이상 '하얀 입김 뿜으며 / 열띤 토론을 벌일' 수 없는 자신들을 확인할 뿐이다. '부끄럽지 않은가 / 부끄럽지 않은가' 라며 꾸짖는 것 같은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한 발짝 깊숙이 늙으로 발을 옮기는 화자의 무거운 발자국이 있을 뿐이다. 유수 같은 세월 속에 젊음과 열정, 순수와 이상을 잃어버리고 거의 맹목적인 만큼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년의 소시민이 한 발짝 깊숙이 현실 속으로 발을 옮기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저녁눈

박용래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붓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발굽 밑에 붓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여물 써는 소리에 붓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붓비다.

- 〈월간문학〉(1966)

* 말집 : 추녀가 사방으로 뿔 돌아가게 만든 집.

박용래 시인(1925 ~ 1980)의 시는 점차 사라져가는 한국 농촌과 자연의 풍물에 강한 연민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이 전통적 . 애상적 정서에 힘입어 독특한 토속 미학을 형성한다. 이 시에서 겨울에 여행을 떠난 화자는 저녁때가 되어 허름한 주막에 찾아 든다. 저녁을 먹고 우연히 바깥을 바라보는데 함박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자 한가하던 주막은 갑자기 활기를 띠고 바빠진다. 주막임을 표시하는 희미한 호롱불과 마굿간에 매어 있는 조랑말의 수선스런 움직임, 온종일 짐을 지거나 주인을 등에 태워 고단하고 시장할 조랑말을 위해 부산하게 여물을 준비하는 주인들이 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화자는 바쁨 속의 한가함 혹은 한가함 속의 바쁨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인적이 끊긴 허허벌판에서 휘몰아치는 눈발을 묘사한 마지막 연은 날이 새면 다시 먼 길을 떠나야 할 길손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 길손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한 해가 저무는 겨울, 그리고 하루의 바쁜 일상을 마감하는 저녁, 온 세상을 흰색으로 뒤덮으며 내리는 눈발은 나그네의 외로움, 회한, 애상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 무엇이다. 그런데 화자는 봄비는 눈발 속에서 지나온 한평생을 돌아보고 감상에 젖기보다 무덤덤히 눈발을 응시하고만 있을 뿐이다. 그러한 화자의 눈에 비친 주막의 풍경은 바쁜 듯하지만 전혀 바쁘지 않다. 오히려 늦은 저녁의 함박 눈을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더욱 강하다. '봄비다'란 말이 거듭 반복되고 있음에도 전혀 바쁘다는 느낌이 없이 평화롭고 적막한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이 시의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런 한가함 혹은 여유는 전적으로 화자의 관조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정신세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바쁘게 변해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추억(追憶)

조병화

잊어버리자고

바다 기슭을 걸어보던 날이

하루

이틀

사흘

여름가고

가을가고

조개줍는 해녀의 무리 사라진 겨울 이 바다에

잊어버리자고

바다 기슭을 걸어 가는 날이

하루

이틀

사흘

-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 (산호장 1949)

조병화 시인(1921 ~ 2003)은 1949년 처녀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을 낸 뒤 거의 한 해에 한 권의 시집을 내었을 정도로 다작, 다산의 기록을 세운 분이다.

초기에는 실생활의 주변에서 취재한 도시인의 감상(感傷), 외로움 같은 것을 모더니즘의 수법으로, 평이한 시어에 담아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많은 독자에게 수월하게 읽히는 시를 썼다. 이것은 독자와의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므로 기록적인 양산을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후기에는 초기의 이런 경향에서 약간의 변모를 보여, 인간의 영적인 세계에 눈을 돌려 존재의 의의를 파악하려는 자세로 그 시작 태도를 바꾸었다.

그의 시는 원초적인 감정을 지배하는 몇 가지 속성으로 볼 때 '나'와 '너', '만남'과 '떠남', '생존'과 '죽음', '남남'과 '동행'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 표현이 단조로운 대신 사물을 보는 숙련된 시선으로 이것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별다른 기교를 부리지 않고 뛰어난 시적 표현과 쉬운 일상어로 심도 있는 내면세계를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표현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다 시집 발간 회수를 보이고 있으며, 현대시가 난해하여 독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상식을 무너뜨린 시인이기도 하다. 필자가 고교시절에 '의자'라는 시가 국어교과서에 실렸는데, 국어선생님께서 조병화 시인이 '물론 훌륭한 시를 쓰시지만 한 단계만 더 수준을 높인다면 세계적인 시인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라고 하신 평을 지금도 기

억한다. 그 한 단계 높은 수준이 무엇인지는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무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조병화 시인의 다작(多作)과 다산(多産)의 비결은 바로 쉬운 낭만의 언어로 넓은 독자와 대화를 이어왔다는 데 있으며, 현대시가 어렵고 안 팔린다는 상식을 무너뜨린 희소한 시인이기도 하다. 일찍이 시로써 베스트셀러의 톱을 확보하고 있던 김소월의 서정시가 두 메산골을 노래했다면, 그는 외로운 도시인의 고독을 구가(謳歌)하고 있다.

수학·물리를 공부해서 수학교사를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시를 열강 했다고 하며, 학창시절에는 럭비선수로 이름을 날렸고, 그림에도 손을 대어 자신의 시집을 손수 꾸미는 솜씨도 보였다.

위의 시 '추억'은 교과서에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소년소녀 시절에 읽고 또 읽어서 외우던 시이다. '그리운 금강산'을 작곡한 최영섭의 가곡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과거 청소년들의 가슴에 우리시도 이렇게 로맨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시라고나 할 것이다. 작곡가 최영섭에 의하면 그가 20살, 조병화 시인이 28살 정도였을 때 친하게 지냈던 둘은 서울의 모 극장에서 진행된 여류 피아니스트 R 씨의 피아노 독주회에 동행했다고 한다. 피아니스트의 독특한 터치와 표현, 화려한 의상은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조병화 시인은 그 피아니스트에게 마음을 사로잡혀버린 것 같았다고 한다. 시인은 한국판 베를리오즈가 된 것이었다.(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는 20대 초반, 영국 셰익스피어 극단의 여주인공 '해리엘 스미스'의 연기와 미모에 홀딱 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함) 그날 이후, 시인의 가슴에는 피아니스트 R씨에 대한 그리움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만나본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나눈 일도 없이, 가슴 가득 이루지 못할 사랑이 커갔던 것이다. 그 해 1949년 초겨울, 그날도 최영섭은 조병화 시인과 단 둘이서 인천 송도에 갔었는데, 검은 갯벌에 나란히 앉아 찬란하게 물든 서해의 낙조를 말없이 바라보던 시인이 가방에서 소주를 꺼내 한 병을 다 마시면서 어찌하지 못하는 괴로운 얼굴로 즉흥시를 읊었다고 한다.

“잊어버리자고 바다기슭을 걸어보던 날이 하루, 이틀, 사흘…… 여름 가고 가을 가고 조개 줍는 해녀 무리 사라진 겨울바다에…….”

작곡 공부를 하던 음악도 최영섭은 재빨리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그 시를 받아 적었는데 그것이 그의 작곡 생애 가장 애지중지하는 곡 「추억」이 완성된 순간이라고 회고했다. 청춘의 고뇌를 삭히기 위해 홀로 바닷가를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이 시가 아름다운 지 이해할 것이다. '잊어버리자고 / 바다 기슭을 걸어 가는 날이 / 하루 / 이틀 / 사흘'



오후의 마천령(摩天嶺)

박세영

장마물에 파진 골짜기,
토막토막 떨어진 길을, 나는 홀로 걸어서
병풍같이 둘러싼 높은 산 아래로 갑니다.
해 질 낭이 멀었건만,
벌써 회색의 장막이 둘러집니다.

나의 가는 길은 조그만 산기슭에 숨어버리고,
멀리 산아래 말에선 연기만 피어오를 때,
나는 저 마천령을 넘어야 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저 산을 넘다니,
산을 싸고 도는 길이 있으면, 백 리라도 돌고 싶습니다.
나는 다만 터진 북쪽을 바라보나,
길은 기어이 산 위로 뻗어 올라갔습니다.

나는 장엄한 대자연에 놀리어,
산 같은 물결에 삼켜지는 듯이,
나의 마음은 떨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빠빠론 사람처럼,
칼을 빼어 든 무녀(巫女)처럼,
산에 절할 줄도 몰랐습니다.

나는 기어이 고개길로 발을 옮겼습니다.
불긋불긋 이따금 고갯길 토막이 보이는 듯 마는 듯,
이 몸이 어디로 가질지도 모르는, 사로잡힌 마음이며,
이리구도 천하를 근심하였나, 스스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은 갑옷을 입은 전사(戰士)와 같이,
성난 이리와 같이,
고개길을 쿵쿵 울리고 올라갑니다.
거울 같은 산기슭의 호수는 나의 마음을 비쳐 보는 듯,
올라가면 오를수록 겁나던 마음이야 옛일 같습니다.

나는 마천령 위에서 나의 오르던 길을 바라봅니다.
이리 꼬불, 저리 꼬불, W자, I자, N자,
이리하여 나는 승리의 길, WIN자를 그리며 왔습니다.

모든 산은 옹디고,
원 세상이 눈 아래서 발버둥칠 때,
지금의 나의 마음은 나를 내려다보든 이 산이나 같이 되었습니다.

이 장쾌함이며,
이 위대함이며,
나는 언제나 이 마음을 사랑하겠습니다.

*

〈마천령〉: 함경남도 단천(端川)과 함경북도 성진(成津) 사이의 고개. 해발 725m.

〈해질 낭〉: 해 질 양, 해가 지려 하는 것.

〈빠빠론〉: 바빌론

마천령은 마천령 산맥에 위치한 고개를 의미한다. 마천령 산맥은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이다. 두류산과 소백산(남한의 소백산이 아님)과 같은 2,000미터 이상의 높은 봉우리가 많다고 한다,

박세영(1907~1989)의 대표작인 이 시는 우리 시문학사에서는 아주 드물게 식민지 시대 혁명 전위(前衛)의 역사적 전망을 뚜렷이 보여 주는 카프(KAPF: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계열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시는 기존의 여성적 편향의 고향 상실을 노래하는 작품이나, 북방 정서를 바탕으로 유랑민의 비애를 노래하는 동시대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혁명 의지와 역사적 전망이 강하고 장중한 남성적 어조를 바탕으로 형상화되어 있어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인 좌익 계열의 시로 손꼽힌다.

시적 화자는 지금 오후의 마천령을 넘고 있다. 이 시는 이러한 등정의 길을 따라 구성된다. 시적 화자는 1연에서 산길로 접어들어, 2연에서는 어느새 마을이 산 아래 놓여 있는 위치에 올랐으며, 5연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험한 마천령을 넘어서 6연에서 드디어 그는 마천령 위에 올라 발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가 힘들게 올라온 꼬불꼬불한 길은 위에서 내려다보니, 영어의 W자 I자 N자 등으로 생겨 마치 WIN의 의미로 보인다. 이는 시적 화자의 성취감과 전위의 혁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 시의 주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전망이 확보되었을 때, 시적 화자의 마음은 자신을 '내려다보든 이 산이나 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때, 그는 마음껏 '장쾌함'과 '위대함'을 느끼고, 결연한 의지로서 '언제나 이 마음을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이 시의 화자는 직접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 보인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감 없이 산을 오른다. 그의 길은 '조그만 산기슭에 숨어버리고' 그는 산을 싸고 도는 길이 있으면, 백리라도 돌고 싶은 심정이며, 장엄한 대자연에 놀리어 산 같은 물결에 삼켜지는 듯 마음이 떨린다. 그러면서 그는 이리구도 천하를 근심하였나, 스스로 마음 먹으며 자신을 반성해 본다. 그리하여 그는 강한 의지로 기어이 고개길로 발을 옮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나약한 패배주의적 감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비록 그는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북쪽'으로 활동 중심을 옮기고 있지만, 이제는 겁나던 마음이야 옛일 같아 갑옷을 입은 전사와 같이 성난 이리와 같이 고갯길을 쿵쿵 울리고 고개를 넘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고갯마루에 올랐을 때 그는 '장쾌함'과 '위대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 고양 출신인 박세영은 1924년 가을 중국으로부터 돌아와 염군사 동인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주의 문학관을 다져갔다. 1925년 연희전문학교에 편입함과 동시에 카프(KAPF: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맹원으로 참가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일제치하 대표적 좌익시인인 그는 그의 이러한 문학적 경향을 바탕으로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시분과위원·아동분과위원 등을 지내다가 1946년 6월에 월북하게 된다. 월북작가 중 숙청 당하지 않은 소수 중의 한 명이다. 월북 후 그는 북조선문학예술동맹

출판부장과 중앙상임위원을 거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국가상임위원·조국평화통일 상임위원·작가동맹 상무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북에서 출간한 시집으로는 〈진리〉(1946) 〈승리의 나팔〉(1953) 〈박세영시선집〉(1956) 등이 있다. 이외에도 〈밀림의 역사〉 등을 창작하여 문학적 능력을 인정받았고, 북한의 ‘애국가’를 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향(思鄕)

김상옥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썩으로 흘러가고
백양 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구요.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멧남새도 캐어 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 도로 애젓하오.

-시집 <초적>(수향서헌(水鄉書軒) 1947)

- * 멧남새 : 산나물
- * 어마씨 : 어머니
- * 꽃지짐 : 화전(花煎)
- * 애젓하오 : 애뜻하오

위 시조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노래한 3연으로 된 현대연시조이다. 1947년 <수향서헌>에서 간행한 김상옥의 첫 시조집 <초적(草笛)>에 수록되어 있다. 지금 40~50대들은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 접했을 것이다.

제목에 주제가 함축되어 있는 이 작품은 고향에 대한 생각을 노래한 현대시조이다. 고향마을의 자연과 인정의 세계를 다양한 심상을 통해 실감나게 묘사함으로써, 각박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잊고 지내던 고향에 대한 향수를 일깨워준다.

고향의 시골 풍경, 어렸을 적의 소박한 생활, 어질고 가난한 고향 사람들의 생활의 애환을 노래한 이 시조는 눈을 감는 데서 시작하여 눈을 뜨는 데서 끝난다. 달리 말해서 이 작품의 화자는 고향에 대한 회상에 잠기는데, 그 회상 속의 고향이 바로 이 시조의 주요 내용이 된다.

이 시조는 '향수'라는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정서를 향토적인 시어를 통해 현대적 감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현대화된 시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영탄이나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다채로운 묘사에 의해 심상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고향을 그려낸 솜씨는 현대시조의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린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호우가 시조에 현대시적 내용을 도입한 공로자라면, 김상옥은 시조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한걸음 발전시킨 공로자라 할만하다.

그가 즐겨 쓰는 시조의 세계는 한국적 생활과 사상이다. 따라서, 소재를 선인이 끼친 문화재나 역사적 설화 또는 예스러운 몸맵시 따위에서 취하여 한국의 미를 끈질기게 추구하되, 특히 주옥같은 영롱한 시어를 마음껏 구사하여 가구(佳句)로 엮어 놓는다. 한마디로 그의 시는 다분히 낭만적이며 시상은 현대시와 동질하다. 그러나 언어 구사에 있어선 고아(高雅)한 말을 쓰기에 힘썼다. 명상적이고 관념적이며 화려하다.

예향 통영 출신인 초정 김상옥(金相沃) 시인(1920~2004)은 일제시대 때는 항일운동으로 몇차례 투옥당했던 우국지사였다. 1946년 이후 삼천포·부산·마산 등지를 전전하면서 교원생활을 계속하면서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섬세하고 영롱한 언어를 잘 구사하는 이 시인은 시조로 출발, 해방 후에는 시조보다 시쪽에 기울면서 1963년경부터 시조를 3행시라고 주장했다. 1959년 경남여고 교사를 거쳐 상경, 표구사(表具社) [아자방(亞字房)]을 경영했다.

김상옥 시인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화랑에 그림을 보러 갔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친 뒤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했다. 부인의 극진한

간병과 보살핌을 받아왔는데, 부인이 먼저 세상을 뜨자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했으며 부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만에 이승을 떠났다. 노시인은 부부의 깊고 애뜻한 정을 시작품과 함께 세상에 남기고 떠난 것이다.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김영랑

"오매 단풍 들것네."

장광에 골붙은 감넙 날러오아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 들것네."

추석이 내일모레 기둘리니
바람이 자지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매 단풍 들것네."

- 〈시문학〉 (창간호(1930. 3))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는 시로 기억되는 김영랑 시인(1903 ~ 1950)의 또다른 서정시이다. 이 시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감탄과 놀라움, 두려움이 토속적 방언의 가락 속에 녹아있는 아름다운 글이다. 우선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어휘부터 이해하여야 할 것 같다.

〈오매〉 : '어머나'의 전라도 사투리.

〈장광〉 : 장독대.

〈기둘리니〉 : '기다리니'의 전라도 사투리.

〈자지어서〉 : '자아지어' 또는 '자아서, 빠르고 빈번하여'의 전라도 사투리.

김영랑은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빠짐없이 나오는, 193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특히 사라져가는 우리의 고유어를 발굴하고 향토어인 방언을 널리 사용하였으며 독창적인 조어를 활용하는 등 국어의 심미적 가치를 개발한 시인으로 평가된다. 그의 서정과 시어의 미적 구조에 대한 인식은 생경한 관념이나 도식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시를 예술적 차원으로 상승시키는 데 공헌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930년대라는 식민지 상황에서 시대의 고뇌와 현실인식이 철저히 배제된 채 정제된 언어와 박제된 조선의 혼을 여성적 어조로 읊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김영랑의 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는 주제 의식이 약한 면이 있지만 아름다운 가락과 섬세한 정서만으로도 훌륭한 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는 운율, 정서, 언어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오매 단풍 들것네' 라는 전라도 방언의 리듬있는 구사가 독특한 청각영상을 형성하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이다. '장광, 굴불은 감잎, 누이, 추석, 바람'의 이미지와 각 연의 시작과 끝에 이어지는 사투리가 결합하여 가을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나타낸다.

갑자기 여름이 사라지고 추석이 오고 또 가버렸다. 계절의 빠른 변화에 대한 감탄과 놀라움, 바람이 잦아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오매 단풍 들것네'에 함축되어 감칠맛나게 녹아 있다. 친근한 사물들의 등장은 따뜻한 정서를 유발하고, 부드럽고 리듬있는 운율은 향토적인 묘미를 더해준다. '감각과 이미지와 리듬의 유려한 결합이 빚어낸 언어미학의 성취'라는 평을 받는, 김영랑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이 시의 핵심은 천진난만한 누이와 '나'의 대조적 심리에 있다. 누이는 장독대 위의 감나무를 쳐다보고 아름다움에 도취하여 '오매 단풍 들것네'(어머나 단풍들었네)라는 감탄을 연발한다. 반면에 '나'는 며칠 남지 않은 추석에 할 일을 생각하고,

가을바람에 잦아지니 더 추워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을 걱정하고 있다. 즉, 누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진한 영혼'이요 천진한 감성의 인물인 데 비해, '나'는 그러한 심성으로부터 멀어진 생활인이요 성인(成人)이다.

그러한 대조적 모습 속에서 이 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누이의 맑고도 천진한 감성의 아름다움이다. 이런저런 일거리나 걱정을 모두 잊어버리고 단풍의 아름다움에 놀라고 기뻐하는 누이의 소박하고도 순진한 모습—그 모습 속에서 '나'는 스스로 잊고 있었던 아름다운 심성의 반짝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결국 '누이'의 마음을 단풍 들게 하는 것은 감잎이고, '나'의 마음을 단풍 들게 하는 것은 누이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감잎→누이→나'로 연결되는 묘한 동화(同化) 관계를 읽어 낼 수 있게 된다. 주제는 다르지만, 낙엽과 누이와 나라는 이 삼자의 관계가 재미있게 설정되어 있는 작품이다.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촉(十五燭)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글은 낡은 무명 샛뜨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시집 <백석 시전집> (창비, 1999년(백석/저, 이동순/편))

시인 백석(1912 ~ 1963?)은 본명이 백기행으로서, 1912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 오산학교를 졸업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그 모와 아들' 이 당선되어 시인으로 등단했다. 그리고 조선일보사 사장 계초 방응모 선생의 지원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 일본 야오야마학원(청산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조선일보사에 입사했다. 백석이 필명으로 석(石)이라고 지은 것은 일본의 시인 이시카와 다쿠보꾸(石川啄木)를 좋아해서라는 설이 있다. 그리고 친구 허준의 결혼피로연에서, 평생 구원의 여인으로 남게 되는 통영 출신의 난(蘭)이라는 여성을 만난다.(후일 난은 백석의 친구인 조선일보 기자 신현중과 결혼하게 된다) 이후 조선일보사를 그만두고, 함흥영생고보 영어교사로 부임하여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그때 김영한이라는 기생을 만나게 된다. 그녀는 기명이 진향으로서, 조선정악계의 대부이던 하규일 문하에서 궁중무를 배우고, 삼천리라는 잡지에 수필을 발표하기도 한 인텔리 여성이었다. 그녀는 최근 몇년전 법정스님에게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회사하여 길상사라는 절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던 이로 백석이 이백의 시 자야오가(子夜吳歌)에서 따와 '자야(子夜)' 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한동안 동거를 했다고 전해진다. 남한에서 잊혀진 백석의 시집을 편집 / 발행케 한 장본인이다.

이 시에서 화자의 처지와 정황은 매우 슬프다. 스스로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다고 토로한다. 좁은 방에 누워 희미한 불빛, 서글픈 느낌을 자아내는 차갑고 흰 벽을 쳐다보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떠올려 보고 있다. 어렵게 살아가는 늙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설령 삶이 힘들지라도 좌절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하늘이 낸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수용하고 있다. 요컨대 이 시는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 모두의 자화상을 기억 속의 희미한 영상에 담아낸 영상시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시인은 허름하고 낡은 토굴 같은 낡은 방에서 흰 바람벽을 바라보고 있다. 마치 영사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갖가지 풍경이 영화 화면처럼 흰 바람벽에 그려진다. 당시, 그의 처지는 '때글은 다 낡은 무명섯츠' 라는 표현에서 확실히 볼 수 있다. 시인이 이 시를 지은 시기는 그야말로 시퍼러둥둥하게 매서운 만주벌판의 추위 속에서, 따뜻하고 달디단 감주가 먹고 싶어지던 때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지치고, 외로운 시기에 흰 바람벽 앞에 선 시인에게 스쳐지나가는 첫 번째 모습은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다. 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 때, 위안이 되어주는 종교와도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어머니를 떠올리니, 실제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머니가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우며 배추를 씻고 있는 모습이다. 뜨근뜨근한 구들장에서 평온하게 있는 어머니를 떠올리지 못하고, 왜 엄동설한에 김장을 하고 있는 불쌍한 어머니 모습일까? 시인의 마음이 춥고 외롭고 지쳤기에 그런 이미지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이 화면을 스치고 지나간 후, 흰 바람벽이라는 화면에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엇이 비쳤을까? 그는 먼저 주관적인 모습인 자신의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면서 현재의 처지를 표현하는 온갖 수식어를 사용한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고, 그런 처지로 살아가는 자신의 가슴은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 것이 비쳐졌다고 노래했다. 개인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하늘의 시각에서 흰 바람벽에 스스로를 위로하듯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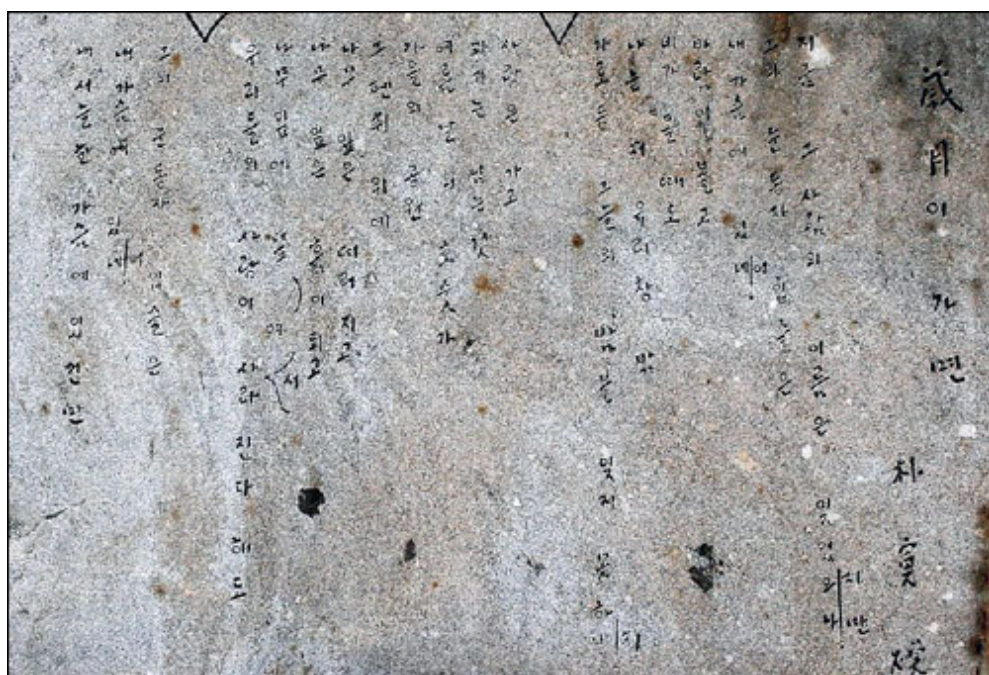
김기림은 백석시집 '사슴' 독후감에서 '백석(白石)의 시에서 우리는 아무런 회상적인 감상주의도, 부어오른 복고주의도 만나지 않아

서 유쾌하다. 백석은 우리를 충분히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세계를 주무르면서도 그것 속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추태인가 하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시인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시집 <사슴>은 그 외관의 철저한 향토미각에도 불구하고 주책없는 일련의 향토주의와는 명료하게 구별되는 치열하고 비타협적인 '모더니티'를 품고 있는 것이다.'라며 감상이 배제된 치열함을 극찬했다.

해방 직후 만주에서 고향인 평북 정주에 돌아온 그는 당시의 남북 현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꿈을 가졌던 백석에게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큰 차이가 없었는지 모른다. 결국 그는 6.25 이후에도 남하하지 않고 삼팔선 이북에서 활동했다. 그는 본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 쓰기를 버리고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등을 번역하는 한편, 동시나 동화를 발표했다고도 한다. 1957년에 나온 <집게네 형제>는 시의 형식을 빌린 동화시집으로 혁명이나 계급의식보다 휴머니즘을 고양하려는 글들이 주로 실려 있다.

이런 경향이 북한 내부의 당파 분쟁에 겹쳐 백석은 1958년 사실상 숙청되어 삼수군에 있는 국영협동조합으로 내려가 양치기 일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1962년 북한의 문화계 전반에 내려진 복고주의 비판과 연관되어 마침내 창작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를 읽다가 떠오르는 것은 수십 년 전의 여인숙 풍경이다.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옛날 여인숙은 두개의 방이 하나의 등불을 공유하던 시절이 있었다. 일반 집도 방을 나란히 하고 하나의 등불을 공유하곤 했다. 전기세가 비싼 탓이었다. 60촉 전등이 대부분이었는데 15촉 전등은 드물었다. 그러나 사라진 15촉 전등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시켜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경상도에는 '비름뺨'이라는 말이 있다. 유년시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비름뺨에 껌을 붙이고 나서 다음날 떼어 먹던 기억이 난다. 그 비름뺨이 흰 바람벽으로 해서 백석의 시에서 살아날 줄이야.



세월이 가면

박인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들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옛날을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이름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시집 <박인환 시선집>(산호장 1955)

이 시는 박인환 시인(1926 ~ 1956)의 시작(詩作) 활동 마지막 시기의 것으로 <목마와 숙녀>와 함께 대표작으로 꼽힌다. 작고하기 일주일 전에 쓰여진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명동 어느 술집에서 작가는 이 시를 읊었고, 친구 김진섭이 즉흥적으로 작곡하였다는 에피소드와 함께 노래로도 잘 알려진 작품이다. <목마와 숙녀>와 함께 박인환의 대표적 작품으로, 상송 스타일의 곡을 붙여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시는 낭만적 시의 정수라 할 만하다.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박인환이 불안한 시대 의식과 위기감, 허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한 잔의 술과 이 같은 낭만적 시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그를 우수 어린 시인으로 만든 것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감상적 성품이라기보다는 시대적 운명일 것이며, 그에게 <세월이 가면>과 같은 시는 커다란 정신적 위안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 시는 전쟁을 통해서 맛본 비운과 불안함에서 비롯되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노래하고 있다. 잃어버린 기억을 더듬어 보헤미안처럼 고뇌하고 방황하는 시인의 찢긴 삶의 모습이 도시적 이미지를 통해 간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시는 도시적 서정, 도시적 감상주의, 도시적 보헤미안 기질이 절절히 넘치는 작품이다.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가를 파악해야 한다. 6·25전쟁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해 버렸다. 6·25전쟁 당시 박인환의 삶이 그러했듯이, 그의

시와 사랑도 이 작품에서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 ‘사라진’ 그것이었다.

1955년 환도(還都) 후의 황량한 잔해가 명동거리에 그림자를 던지고 있을 때, 그는 이 상송과도 같은 시를 즐겨 쓰고, 노래불렀다고 한다. 그만큼 시는 그에게 있어 고뇌에 찬 생활의 마지막 보루(堡壘)였고, 고독한 돌파구였던 것이다.

이 시는 구체적인 이미지 제시를 통하여 시인의 체험의 실체를 보여 주는 대신, '그 사람'이 떠나버린 상실의 아픔과 슬픈 자아의 모습이 전면에 나타남으로써 애상적인 분위기가 주조를 띤다.

신(神)이 존재한다면 저토록 처참한 전쟁을 묵과했을까? 신(神)을 상실한 시대, 삶의 지향성을 잃은 상황에서 화자 '나'는 가슴에 남은 옛 추억과 아름다운 환상만을 떠올리며 후미진 도심(都心) 밖 언저리를 거닐면서 허무에 젖어 있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 연의 '서늘한'은 허무 의식과 상실의 슬픔이 비장감으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박인환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의 화자 역시 아름다웠던 시절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을 통해 어두운 시대가 안겨 준 상실의 슬픔과 고뇌를 뱉으면서 방황했을 것이다.

편지 - 어머니에게

박영근

새떼들이 날아가고 있어요, 어머니
들판의 가득한 벼 포기들도 오늘은
내 앞에서 자꾸만 흔들리고 있어요. 보고 싶은 어머니
만나야 할 얼굴들도 웬일인가요
고개 숙이고 내가 없는 곳으로

더 먼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가위질에 부르튼 손마디는 더 시리고
자꾸만 어디선지
눈물이 나네요, 어머니
외롭습니다.

- 박영근 시선집 <술아 술아 푸른 술아> (도서출판 강 2009)

박영근 시인은 195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다. 1981년 <反詩> 6집에 「수유리에서」 등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취업공고판 앞에서>, <대열>, <김미순傳>, <지금도 그 별은 눈뜨는가>, <저 꽃이 불편하다> 등이 있으며, 1994년 신동엽창작기금을 수혜하고, 2003년 백석문학상을 수상했다. 2006년 5월 결핵성 뇌수막염과 패혈증으로 타계했다.

이 시를 읽으니 편지를 써본 적이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시에서 흐르는 절절한 그리움에 눈물이 난다. 만나야 할 얼굴들이 고개 숙인 채 내가 없는 더 먼 곳으로 가야만 하는 세상……。 이 글을 쓴 시인은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시를 ‘사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는 시를 누군가를 의식하여 객체를 대상화하여 해석하고 평가하여 글쓰기 이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시인은 곧바로 시 내부로 깊숙이 파고들어 시의 깊은 움직임과 교감하며 그것을 절제된 언어 속에 담아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탄생한 한편한편의 글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상식과 교과서적 해석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실한 내밀함’ 이다. 그것은 이론이나 외적 규정이 선부르게 시의 해석에 끼어드는 것을 경계하는 살아있는 글이다. 시 한 편을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 펼쳐진 노력들은 곧바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직한 심성으로 안내한다. 무엇보다도 그의 심미적인 문장들은 시적 영혼의 고백과 반응하면서 읽는 이들이 뿜어내는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는 드문 경험을 선사한다. 거기서 우리는, 낱말의 시들이 내밀한 고민 속에서 탄생하는 과정을, 그 시들이 그 나름의 깊이와 그늘 속에서 비상하고 꿈꾸는 여정을 지켜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위의 시를 쓴 시인은 세상을 이기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시는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남았다. 마흔여덟의 생애를 겨울 산정에 서 있는 한 그루 외로운 나무처럼 살다간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 시를 읽을수록 외로움과 사무치는 그리움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시인이 작시해 국민가요가 된 ‘술아 술아 푸른 술아’ 노래에 흐르는 분위기보다 더 깊고 처연한 눈물이 흐른다. 일렁이는 황금빛 물결 위로 새떼들이 날아오르는 결실의 계절이다. 가을이 깊을수록 갈 곳 없는 고적한 마음, 아아 , 외롭고 쓸쓸해서 터져 나오는 어머니라는 이름! 어머니, 아들은 이제서야 철이 드는지 눈물이 납니다.



가을비

신경림

젖은 나뭇잎이 날아와 유리창에 달라붙는
간이역에는 찻시간이 돼도 손님이 없다
플라타너스로 가려진 낡은 목조 찻집
차 나르는 소녀의 머리칼에서는 풀냄새가 나겠지
오늘 집에 가면 현 난로에 불을 당겨

먼저 따끈한 차 한 잔을 마셔야지
빗물에 젖은 유행가 가락을 떠밀며
화물차 언덕을 돌아 뒤통거리며 들어설 제
붉고 푸른 깃발을 흔드는
늙은 역무원 굽은 등에 흩뿌리는 가을비

- 시집 <쓰러진 자의 꿈> (창비 1994)

신경림(申庚林) 시인(1935 ~)의 여섯번째 시집 <쓰러진 자의 꿈>을 읽다가 찾아낸 시이다. 위의 시는 시인이 육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쓴 작품이다. 인생과 사물을 바라보는 원숙함과 달관의 경지가 돋보이는 한쪽의 아름다운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수작이다. 그가 이 시집을 통해 도달한 결론 중의 하나는 세상살이에 대한 시적 탐구가 결국 자기자신에 대한 탐구와 동떨어질 수 없다는 점이라고 한다. 이 말은 자기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지 않는 문학은 그것이 제 아무리 거창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진실을 담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무게와 깊이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과 언어를 남발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생각한다면 부단한 자기성찰의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 위의 시는 서러운 삶을 살아온 이들의 인생 풍경이 서경적인 운치로 그려져 있어 '절제되어 있는 슬픔'을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의 시는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쓸쓸한 삶을 되짚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내면을 돌아보고 있다. 이 시집에 등장하는 '늙은 역무원', '늙은 모녀' 등의 형상이 그것이다. 이들의 슬픔은 이미 분노나 걱정을 지나온 것이다. 이러한 풍경 너머에는 '절제되어 있는 슬픔'만이 유일한 형식으로 남는다.

시집의 말미에서 그는 '최근 나는 시는 근본적으로 자기탐구요, 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많이 하지만, 쓰러지는 자들, 짓밟히는 것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고 흠어지는 것들, 깨어지는 것들을 다독거리는 일, 이 또한 내 시의 숙명인지 모르겠다.'고 매듭을 지었다. 쓸쓸한 가을비가 내리는 저녁, 따듯한 차 한 잔을 탁자에 놓고 눈을 감고 이 시를 감상해보자.



귀촉도(歸蜀途)

서정주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삼만 리.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巴蜀) 삼만리.

신이나 삼어 줄 걸 슬픈 사연의
울음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銀粧刀) 푸른 날로 이냥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 걸.

초롱에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हत물 목이 젖은 새,
참아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울로 가신 님아.

- 월간 <춘추> 32호 (1943년 10월)

*어휘 · 시어 풀이

<파촉(巴蜀)> : 중국 쓰촨성(四川省)에 있던 촉 나라 땅을 일컫는 말. 여기서는 '서역'과 함께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죽음의 세계를 의미한다.

<육날 메투리> : 삼 겹질로 짠 신. 메투리는 미투리의 방언.

<이냥> : 이대로. 내쳐.

<귀촉도(歸蜀途)> : 문자 그대로는 '촉(蜀) 나라로 가는 길'. 여기서는 새 이름, 새 울음소리와 겹쳐 있고, 돌아간 임의 환생한 모습을 가리키기도 함. 옛날 중국 촉나라의 망제(望帝)가 쫓겨나 촉 나라를 그리다가 죽은 낮이 이 새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음. '두견새'로서 망제혼(望帝魂), 불여귀(不如歸), 자규(子規) 등 많은 이칭(異稱)이 있다.

위의 시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당 서정주(1915 ~ 2000)의 제2시집 <귀촉도>(1946)의 표제가 된 작품이다. 그러나 이 시는 제1시집 <화사집>(1938) 시기보다 앞선 1936년에 쓴 것이라 한다. 시기적으로 보아 <화사집>에 수록될 시가 제2시집에 수록되고 또 표제가 되었다.

'두우(杜宇)가 죽어 그 혼이 화하여 새가 되니, 그 새를 두견(杜鵑) 또는 자규(子規)라 하였다'는 전설을 소재로 하여, 망국의 설움을, 애절한 여인상의 가락에 나타낸, 비애절정(悲哀絶頂)의 시다. 표제가 된 '귀촉도'는 두견 · 자규 등과 함께 불리는 새의 이름에서 나왔다.

이 시는 사별한 임을 향한 정한과 슬픔을 처절하게 노래한 시이다. 애절한 한의 객관적 상관물로 '귀촉도'가 나오고, 그와 걸맞게 계

절감을 나타내 주는 '진달래'가 나온다. '서역'이나 '파촉'은 서정주의 불교적 상상력과 결부된 죽음의 세계를 나타낸다. '은장도'는 이 시의 화자가 여자임을 알게 해 준다.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달래와 두견새에 얽힌 전설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조조의 위나라와 손권의 오나라, 유비의 촉나라 세나라가 공존했던 시절을 우리는 삼국시대로 부른다. 유비가 죽고 제갈량이 죽은 뒤 촉나라는 위나라의 침공으로 망하게 된다. 유비의 아들인 망제(望帝) 유선은 당연히 위나라에 인질로 잡혀가게 된다. 그는 애타게 촉나라를 그리워했고, 돌아가 복위(復位)를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그리움이 얼마나 애뒀던지 죽어 원혼(冤魂)이 되어 두견새가 되었다. 그리하여 밤이고 낮이고 '귀촉도(촉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하고 슬피 울다가 피를 토했다. 이 두견새의 피가 진달래의 뿌리에 배어들어 꽃이 붉어졌고, 그래서 진달래를 두견화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중국식의 이름이다. 두견새나 진달래, 즉 두견화의 이미지는 그리움이다.

중국의 역사가 오천년이 넘는다고 하지만 한족이 중국대륙 전체를 지배한 것은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등 몇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북방계의 이민족이 중국을 지배했다. 우리민족과 같은 계열인 동이족이 세운 나라만 해도 은나라, 진나라, 수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등 셀 수 없이 많다. 소위 오랑캐에게 지배당한 한족의 스트레스는 심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이민족의 지배를 받을 때마다 이민족과는 관계없이 한족의 전통을 이어려고 했던 삼국시대의 촉나라를 좋아하고 유비나 관우를 광적으로 섬긴다. 이 시는 이토록 중국인이 좋아하는 촉나라와 피를 토하며 우는 그리움의 새, 두견새와 두견화(진달래)가 소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 망제가 돌아가고자 애태웠던, 삼만리 밖의 파촉을 소재로 하여 이별의 애상(哀傷)과 승화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눈물에 가려 아른거려 보이는 임 떠난 길은 서역(촉나라)으로 가는 삼만리만큼이나 아득하다. 그 길은 그리움의 꽃이 만발하여 꽃비처럼 지는 길이기도 하다. 임을 보내고 나니, 그 그리움이 너무도 사무쳐 은장도 칼로 머리카락을 잘라 메투리나 삼아 드릴 걸 하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정감은 한국 여성의 전형적인 것이다. '육날 메투리' 나 '은장도' 가 또한 우리 고유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움을 표현하는 소재는 중국 고사에 얽힌 것이지만, 그것을 더욱 승화시켜 주는 것은 우리 고유의 소재들이다. 임 그리는 마음은 밤이 깊을수록 더욱 사무쳐만 온다. 초롱불도 지친 밤하늘에는 은하도 기울고, 두견새가 촉나라 그리운 마음으로 목이 젖도록 피를 토하며 운다. 임 보낸 나의 마음도 '귀촉도, 귀촉도' 하고 우는 두견새의 울음처럼 피가 맺힌다.

이 시는 중국이야기를 우리식으로 풀이하여 그려낸 이런바 '퓨전 요리' 같은 시이다. 자세히 들어가보면 미당의 사대주의적인 역사관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경멸해하는 오랑캐인데 미당은 중국인이 좋아하는 소재를 갖고 우리식으로 쓰고 있으니 말이다.

〈국화옆에서〉 등 미당의 시 1~2편을 암송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과연 있을까? 미당의 시편들은 시 그 자체로, 혹은 패러디한 글로, 아니면 가곡으로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새삼 일깨워준 시인. 민족 고유의 정서와 차원 높은 언어의 기교를 결합한 '언어의 연금술사'. 노벨문학상에 5차례나 추천된 한국의 대표문인이다. 그러나 그 많은 찬사를 한몸에 받았던 그였지만, 친일행적 시비와 5공시절 전두환씨에 대한 지지발언으로 두고두고 후학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필자의 고교시절 국어선생님은 시인으로서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에서 미당의 지도를 받으셨다.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시인이신 국어선생님과 그의 시세계에 대해서도 소개해 보겠다) 선생님은 송기원 시인과 대학동기이시다. 선생님은 대학시절은 물론이고 교단에서도 정치 및 현실참여 문학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셨다. 수업시간에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언젠가 미당에게 '현실참여 문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미당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인간이 유사 이래로 현실에 만족해 본 적이 있느냐?"

위의 일화는 미당의 정치관이라던지 세계관을 한 눈에 파악하게 하는 좋은 예인 것 같다. 미당은 85세 되던 해 부인 방옥숙(方玉淑) 씨 별세(2000년 10월)이후 곡기를 끊고 맥주로 연명하다 2000년 12월 속환으로 별세했다.



한로(寒露)

이상국

가을비 끝에 몸이 피라미처럼 투명해진다

한 보름 앓고 나서

마당가 물수국 보니

꽃잎들이 눈물 자국 같다

날마다 자고 나면
어떻게 사나 걱정했는데
아프니까 좋다

힐링한 옷을 입고
나뭇잎이 쇠는 세상에서 술을 마신다

- 시집 <어느 농사꾼의 별에서> (창작과비평사 2005)

한로(寒露)는 늦가을에서 초겨울 무렵까지의 이슬을 말하는 것이나 절기로는 추분과 상강 사이에 들며 10월 중순경이다. 이 때쯤 되면 푸르던 나뭇잎은 조금씩 변색되어 가고 아침저녁 서늘해지는 바람소리가 온 몸을 스산하게 만든다. 오다 가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내어서 먼저 인사를 하자.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선선해진다. 그러다가 한번씩 오는 가을비에 기온은 뚝뚝 떨어진다. 시인은 한로(寒露)에는 이슬도 얇은 얼음물 밑 피라미처럼 투명하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름내 푸르던 초록 곁에서 시원하고 소담스럽게 꽃 피어있던 수국 꽃잎이 눈물자국처럼 시들어 버리는 시기인 것이다. 가난한 농촌살이에서는 매일매일이 걱정이고 시름일 것이다. 차가와 지는 계절, 곧 올 겨울을 어찌 날까 염려되지만 그러한 걱정은 몸이 아파서 그 와중에 잊어버린다. 곧 이어 겨울이 혼자 쓸쓸히 우리의 팔짱끼에 와서 조용히 바람 소리 내고 손바닥에 흘러내릴 것이다.

큼직하지만 적당히 넓고 편안한 옷을 입고 나뭇잎도 함께 지내는 자연 속에서 술을 마시며 시름을 덜어보는 장면은 한 폭의 정갈한 동양화를 연상시킨다. 그런 게 인생이다. 세상은 마음먹기 나름이 아닌가. 몸이 피라미처럼 투명해지는 조락(凋落)의 계절이다. 나 자신 좋은 글을 쓸 수 없지만 마음이나마 투명하게 비워 이상국 시인(1946~)의 맑디 맑은 시를 음미하는 것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유리창

오정환

우리가 얼굴 맞대고 정성스레
입김불어대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좋지 않으랴, 모두들
안에서만 내다보지만
우리가 서로 눈짓하는 의미를
누가 알아내랴, 바람불어
내가 흔들린다면 너는 흔들리는
나를 위하여 또 입김을 불 테지
더럽고 칙칙한 어둠도, 스치는
그림자도 우리는 투명하게 걸러내고
반짝이며 웃는 이빨, 고운
입술로 만나자
풀빛, 하늘빛 깨끗한 그리움으로

- 시집 <물방울 노래> (도서출판 신생 2004)

위 시가 누구의 시냐고? 월북시인 오장환(吳章煥 : 1918 ~ 1951)이 아닌 오정환 시인(1947 ~)의 시집에서 골라보았다. 비교적 유명하지 않은 시인의 시를 고르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필자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국어선생님이셨기 때문이다. 선생님과 과거사(過去事) 여행을 시작해보고자 한다.

중학교 1학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국어선생님이 아프셔서 결근하시고 새로 부임하신 총각선생님이 수업시간을 매우게 되었다. 그 선생님이 위의 시를 쓰신 분이다. 160cm가 될까 말까한 단구(短軀)에 단아한 얼굴을 한 귀공자 타입의 20대 후반의 젊은 선생님이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얼굴은 영화배우 이범수를 닮으셨다. 선생님은 그 한 시간을 지극히 개인적인 에피소드와 사담(私談)으로 적당히 보내셨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청소년 문예지 '학원(學園)'지의 문학상에 응모하여 '장원' 상을 받게 되었고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현. 중앙대 문창과)에 특차 입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교수인 서정주, 김동리 같은 기라성 같은 문인들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교직에 몸을 담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부임한 곳은 경북 문경의 어느 사립여자고등학교였다. 여자학교의 총각선생이어서 그랬는지 아침에 출근하면 교무실 책상 위의 화병에는 항상 꽃이 꽂혀 있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그날은 화병에 꽃이 담겨있지 않고 대신 책상 위에 커다란 수박이 한 덩어리 놓여 있었다. 그때 함께 출근한 교사들이 그 수박을 보더니 "이게 뭐고? 시원하겠는데!"하며 주먹으로 수박을 "퍽!" 깨어서 나누어 먹는 바람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 나이 어린 여학생이 1~2 시간을 걸어서야 등교가 가능한 거리에서 수박까지 들고서 여름날 얼마나 힘들게 등교를 했는데 그 수박을 한 주먹에 깨어서 먹어버리다니……. 그러나 시골 사립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직(職)은 오래 가지 못했다. 학교 재단 측에서 끊임없이 부당한 잡부금을 학생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유와 정의에 불타는 젊은 시인에게 용납될 수 있겠는가? 교직원 회의 자리에서 교장의 먹살을 잡고 흔들면서 소리쳤다. "당신이 과연 교육자야? 부끄럽지도 않아!" 그 일로 사표를 쓰고 부산에 위치한 또다른 사립학교 재단에 부임을 하신 것이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마칠 때 수업 종료 벨이 울리고 선생님의 "땀땀" 수업이 끝났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당시에는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이 없었다. 교육청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가야만 하는 것이 당시의 제도였기 때문이다. 나는 부산의 전통적인 명문학교인 K고교나 B고교에 배정되길 내심 원하였으나 불운하게도 내가 다니던 D중학교와 같은 재단인 D고등학교에 배정되었다. D중학교에서 D고등학교로 배정되었으니 실망이었다. D사학재단은 한 울타리 안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여중학교, 남자 중학교, 여자상업고등학교,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 등 6개의 학교를 거느린 시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사립학교였다. 이사장(理事長)은 정치인이었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 내에서도 비주류인 JP(김종필)계열이어서 더 이상 공천을 받지 못하고 전직 '2선 의원'의 명함을 가지고 야인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위, 조카 등 친인척들이 학교 내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사들 중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무자격 교사들도 상당한 수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다. 개그맨 이경규씨의 출신 고등학교라고 하면 간단한데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다니 원…….

고등학교 첫수업이 국어시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국어 선생님은 다름 아닌 중학교 때 '땀땀 수업'을 하셨던 그 분이였다. 길은 사학재단(私學財團)이었기 때문에 2년 전에 이미 고등학교로 전보하여 오셔서 자리를 잡고 계셨던 것이다. 3년 전의 젠틀(gentle)한 귀공자 분위기는 이미 사라지고, 큼직한 몽둥이를 든 채 학생들을 응징하는 '별종 파이터(fighter)'로 변신하셨던 것이다. 그 후 3년 동안 수업을 받을 때마다 느꼈던 거지만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수업 분위기, 참고서를 그대로 대독하는 듯한 고리타분한 수업진행으로 학생들로부터 '개성만 대단하고 실력은 별로인 교사'로 낙인을 받으셨다. 그러나 수업시간 간간이 들려주셨던 문학과 문단이야기는 문학도(文學徒)였던 몇몇의 학생들에게는 나름대로의 활력소가 되었던 것 같다. 서라벌 예대 동기생인 송기원 시인(당시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 중이었다)에 대한 교우담, 스승인 김동리, 서정주로부터 받은 가르침, 미모의 여류문인 강신재, 정연희 선생을 만났던 일 등을 이야기 해주셨던 것이 기억난다.

일 년이 지난 고2 때였다. 국어시간은 체육시간 다음 교시로 편성되어 있었다. 몸이 약한 3학년 우수 학생들의 체력장 시험을 체육 선생님의 지시에 의해 (사실은 교장의 지시에 의해) 2학년 학생 중 튼튼한 친구 몇 명이 대신 치뤄야만 했다.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관례였다. 예비고사에 체육이 20점이나 배정되어 있고 공부를 잘하던 학생들은 대부분 몸이 허약했으니 체육점수만 만점을 받는다면 그들의 S대 입학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S대 입학생을 몇 명 배출했느냐가 학교서열 평가의 척도였다. 그날도 '튼튼이' 몇 명이 '애교심(愛校心)'이라는 명목 하에 3학년 대신 턱걸이와 1000M 달리기 등을 하고 난 후 땀을 뻘뻘 흘리며 교실에 돌아와 국어수업을 준비했다. 수업시작 종이 울리고 수업에 들어온 선생님의 표정은 비장했다. 땀을 흘리고 있는 친구들을 일일이 지적하시며 교단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다. 6명 정도였을까? 선생님은 윗도리를 벗으시고 와이셔츠 소매를 거지신 후 본격적인 '타작'에 들어갔다.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유 없이 맞는 학생들 입장에서선 억울하기 짝이 없지 않겠는가? 체육선생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이렇게 심하게 때리시다니 말이다. 한 시간 동안 잠지도 쉬지 않는 무자비한 폭력이 계속되었다. 지켜보던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웃음이 났다. 겨우 160cm가 될까 말까한 단구의 선생님이 180cm가 넘는 거구의 제

자들을 타작하는 모습이 흡사 고목나무에 매미가 매달린 모습의 코미디 극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 학교에서 몇 년간 쌓은 선생님의 주먹 내공은 대단했다. 학생들은 거의 목사발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켜보던 학생들은 동료들이 맞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때 선생님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소리가 들렸다.

"어른들이 잘못하면, 너희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왜 말하지 못하는 거야! 젊은 놈들이 이렇게 썩어 있어도 돼? "

아, 나름대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다. 그게 그런거구나. 선생님은 독재정권의 불합리함에 대하여 늘 통탄하셨는데 대학에 진학 후 모교 출신 운동권이 타 학교에 비해 유달리 많은 (그게 좋던 나쁜던 간에) 선생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 일정 부분 있었다고 생각한다.

며칠 후 실시된 기말고사에서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가 애매해서 내가 이의(異意)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여러 권의 참고서를 자세히 살펴본 후 선생님의 답안이 오답임을 주장하며 나름대로 반기(反旗)를 든 것이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완곡하게 출제한 문제의 정당성을 주장하시다가 내가 끈질기게 오류를 입증하니 또다시 고함을 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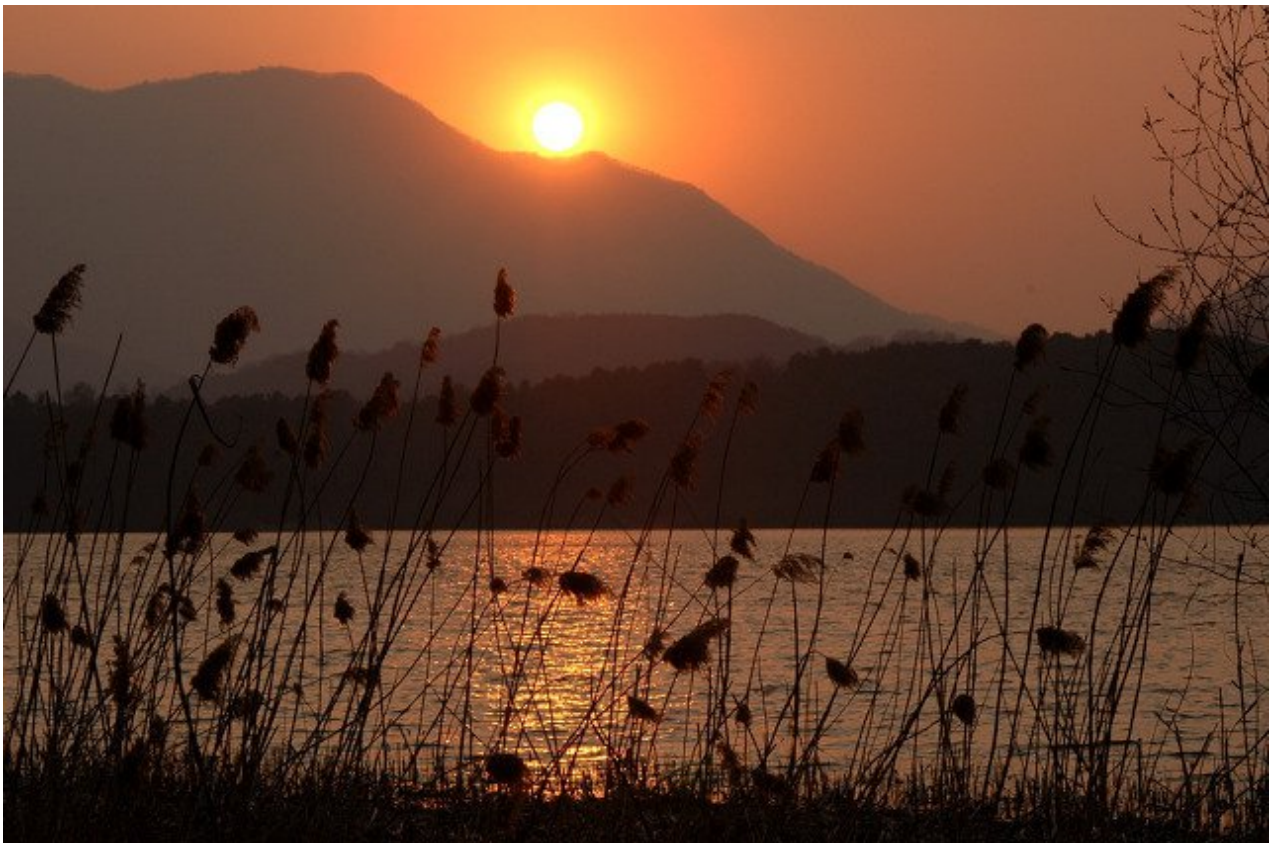
"맞다면 맞는 거지. 왜 말이 많아!"

선생님이 행하시면 정의(正義)요, 내가 하면 생떼니……. 하하, 내가 당시의 선생님보다 훨씬 많은 나이가 되어서 생각해보니 그런 거다.

또 생각나는 건……. 당시 국어교과서에는 국사학자 이기백 교수의 수필이 게재되어 있었다. 저자를 소개하면서 '존경할 만한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분'이라는 극찬을 하셨다. 이기백 교수는 친일파(親日派) 이병도 교수의 수제자로 우리 사학계를 식민사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평을 받는 또 다른 장본인이다. 이병도는 우리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왜곡하는데 앞장서는 일본역사연구기관인 조선사편수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으며, 우리의 고조선과 단군의 역사를 신화화하고 역사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했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국사 교과서처럼 사용되어지는 한국사신론의 저자인 이기백은 바로 이병도의 맥락을 그대로 이어가는 식민사관의 견해를 갖고 있다. 아마 당시에 선생님은 민주화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관계로 역사학이라는 장르에는 아주 무지하셨나 보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80년 1월, 선생님은 한국일보 신춘문예의 시 부문에 당선되셨다. 신문을 보던 우리는 선생님이 이전에 그런 곳에 서너 번 당선된 줄 알고 있었던바, 의아했었다.

몇 주 전 저녁, 지상파 텔레비전의 지방뉴스를 보다가 어떤 시민단체의 자문위원에 위촉되어 잠깐 화면에 잡힌 노안(老顔)의 선생님을 발견하고 지난날들을 떠올려 보았다. 시집에 수록된 글 중 비교적 마음에 드는 위의 시(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평이나 감상문을 적지 않겠다. 제자가 스승의 글을 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충이요, 결례(缺禮)이므로. 그나저나 선생님은 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가을 강물 소리는

이향아

이제는 나도 철이 드나 봅니다, 어머니
가을 강물 소리는 치맛귀를 붙잡고

이대로 그만 가라앉거라, 가라앉거라
 타일러 쌓고
 소슬한 바람 내 속에서 일어나
 모처럼 핏줄도 돌아보게 합니다
 함께 살다 헤어지면 사촌이 되고
 다시 가다 길을 잃어 남남이 되는,
 어머니,
 가을 강물 소리에 귀기울이다가
 지금은 내왕이 끊긴 일가친척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고 가면 바다가 벼랑처럼 있어
 거기 함께 떨어져 만난다고 하지만
 죽어서 가는 천당처럼 아득하기만 합니다

가을 강물을 보면 문득 용서받고 싶습니다, 어머니.
 즐겁히 너브러진 물줄기가 심장으로 고여서
 땀으로 눈물로 이슬 맺는 은혜
 가을 강가에 서서
 나는 모처럼, 과묵한 해그림자 갈대그늘을
 따라가면서 잠겨들면서
 내 목숨 좁은 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 시집〈강물 연가〉(나남 1989)

깊어가는 가을에 잘 어울리는 주옥과 같은 시이다. 강물은 흔히 인생의 흐름에 비유되곤 한다. 산악에서 발원하여 바다에 이른 강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 강 상류의 빠르고 격한 흐름은 젊은 날의 열정을, 하류에 이르러 깊고 완만해진 흐름은 노년의 지혜를 상징하기에 적절하다. 또한 강의 쉬임 없는 흐름은 시간의 끊임없는 운행에 비유되기도 한다. 시인은 지금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의 강가에 서 있다. 이 시의 소재가 되는 가을 강물은 여름과 달리 수량이 많지 않으므로 유속이 빠르지 않다. 유유한 강물의 흐름을 보면서 시인은 자기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향아 시인(1938 ~)은 범상한 일상을 소재로 단아한 언어, 자연스런 가락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장황한 수식어를 쓰지

않고 삶의 애환을 표현하고, 사물을 유정한 것으로 형상화하는 데에 탁월하다. 또한 엄정한 언어의 구사로 표현의 사실성을 뒷받침하면서 몽롱한 환상과 꿈을 여백으로 두고 있다. 내면으로 침잠하여 자신을 돌이켜 보는 시인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자신과 찢줄을 나눈 사람들의 삶에 관한 관심이다. 멀리 있는 친척, 더욱 멀어져 남과 같아진 친척들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혈족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찢줄을 나눈 사람들의 삶에 관한 관심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근원적 삶의 모습을 돌아보려는 의지와 결부된다. 시간이 흘러 강물이 바다에 도달하듯이 삶의 종말에는 결국 모두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 아득한 끝에 도달하기 이전 현재적 삶의 양상에 시인은 관심을 둔다.

근원적 삶의 양상을 돌아볼 때 삶과 목숨에 대하여 한층 겸허한 자세를 가지게 되기 마련이다. 2연에서 용서를 구하는 겸허함은, 삶이라는 강물이 땀과 눈물로 고여서 흐른 냇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찾아온 것이다. 강이 해 그림자 드리운 갈대그늘을 가지듯 삶에는 밝음과 그늘이 있기 마련이다. 시의 화자는 삶의 굴곡 많은 강 언덕을 따라가며, 혹은 깊이 침잠하기도 하면서 삶에 대한 겸허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다.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최승자

겨울 동안 너는 다정했었다.

눈의 흰 손이 우리의 잠을 어루만지고
우리가 꽃잎처럼 포개져
따뜻한 땅속을 떠돌 동안엔

봄이 오고 너는 갔다.
라일락꽃이 귀신처럼 피어나고
먼 곳에서도 너는 웃지 않았다.
자주 너의 눈빛이 셀로판지 구겨지는 소리를 냈고
너의 목소리가 쇠꼬챙이처럼 나를 찔렀고
그래, 나는 소리 없이 오래 찔렸다.

찔린 몸으로 지렁이처럼 기어서라도,
가고 싶다 네가 있는 곳으로,
너의 따뜻한 불빛 안으로 숨어들어가
다시 한번 최후로 찔리면서
한없이 오래 죽고 싶다.

그리고 지금, 주인 없는 해진 신발마냥
내가 빈 벌판을 헤맬 때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꽃잎처럼 포개져
눈 덮인 꿈속을 떠돌던
몇 세기 전의 겨울을,

- 시집 <이 시대의 사랑> (문학과 지성사 1981)

1980년대에 최승자 시인(1952 ~)의 출현은 우리나라 현대 여성시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 그는 '여성시'와 '남성시'의 경계를 한 순간에 날려버렸다. 전통적 여성시가 보여 왔던 곱고 아리따고 여린 감수성이 사라진 그의 시는 과감하게 단언하고, 잔인하고 통쾌하게 나타난다. 그의 시에 이르러 여성시와 남성시의 구분이 없어졌던 것이다. 위의 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시인의 인식저변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인다.

이 시에서는 화자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표현한다. 자신의 전생은 애초부터 마른 빵에 핀 곰팡이,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 등의 비유적 매개들이 보여주듯 아주 하찮고 지저분한 그 어떤 것이었던 것이다. 지난 날 아무 부모도 나를 키우지 않았으며, 지금은 아무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 두 연에서는, 극도의 공격적 태도로 자신을 몰아세워 통상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자신에 대한 낭만적 환상을 깡그리 부순 후, 세 번째 연에 이르러 그는 타자 앞에 선다. 이미 나는 아무 것도 아니므로 우리의 만남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안다고 하지 말라고 냉정하게 명령한다. 나 또한 너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에서 '너' '당신' '그대'를 바꾸어서 사용하며 두 번씩, '행복' '사랑'을 한번씩 쓰고 있는 것은 다소 난해한 이 시를 폭넓게 이해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누군가 가슴에 응어리진 욕지를 대신 퍼부어줄 때 대리만족의 쾌감을 느끼듯 그의 시는 자신을 찌르면서 다른 이들을 처절한 쾌감으로 인도한다. 세상의 모든 위선을 향해 말랑한 선심을 향해 쉬운 길로만 걷고 싶은 비굴한 오늘 나의 발자국을 향해 침을 뱉는다. 이 시를 공감하며 읽는 독자들의 감정은 자학적일 것이다.

숙명여대가 있는 청파동……. 20년 전의 청파동 언덕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가는 언저리는 하숙집이 많았다. 소나무 숲이 넓은 효창공원은 달밤이 좋았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차려놓은 아침상에는 계란부침(후라이)이 늘 있었다. 눈이 내린 아침, 미끄러지지 않으려 걸어가는 출근길에 보이는 대우센터 빌딩은 괴물같이 보였다. 숙명여대 아래편의 세실당성당의 오르간 소리가 귓전에 선하다. 지금 청파동은 예전 모습 그대로 일까? 서울의 중심부가 한 눈에 보이는 청파동. 눈 오는 저녁 길과 숨쉴던 고개. 세상의 청파동을 아직도 기억하는가?



정릉(貞陵) 살면서

박재삼

솔잎 사이사이
아주 빗질이 잘된 바람이
내 뇌혈관에
새로 달아 와서는
그 동안 허술했던
목숨의 운영을 잘해 보라 일러주고 있고…
살 끝에는 온통
금싸라기 햇빛이
내 잘못 살아온 서른다섯 해를
덮어서 쓰다듬어 주고 있고…
그뿐인가
시름으로 고인 내 간장(肝臟) 안 웅덩이를
세월의 동생 실개천이
말갈게 씻어주며 흐르고 있고…
친구여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이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資産)을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

- 시집 <햇빛 속에서>(문원사 1970)

박재삼 시인(1933 ~ 1997)은 일본 동경에서 태어났다. 경남 삼천포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삼천포여자중학교 사환으로 들어가 일하였는데, 이곳에서 교사이던 시조시인 김상옥을 만나 시를 쓰기로 결심하였다. 그 뒤 삼천포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해 수료하였다. 1953년 [문예]지에 시조 <강물에서>가 추천되고, 1955년 유치환, 서정주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시 <정적>, <섭리>로 데뷔했다.

위의 시는 박재삼의 제2시집 <햇빛 속에서> (1970)에 수록된 작품이다. 그의 전생애를 괴롭힌 것은 가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병이었다. 위궤양, 고혈압, 뇌졸중, 신부전증 등 갖은 병마에 시달렸다. 가난과 술은 병마의 원인이 되었지만, 그는 병과 같이 가기로 작정했더니 한결 나아진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주눅들지 않고 웃으면서 살았다. 그의 묘는 충남 공주에 있으며, 박재삼 시비(경남 사천시 서금동 노산공원)에는 <천년의 바람>이란 시가 새겨져 있다. 이 시는 1969년 「대한일보」에 재직하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졌을 때, 그 병중에 겪은 고뇌와 병후(病後)에 다시 햇빛을 우러러볼 수 있게 된 기쁨이 주조(主調)를 이루고 있다. 난해한 것이 특징이 된 현대시의 병폐(病弊)가 이 시 <정릉 살면서>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한 시인의 꾸밈없는 생활감정이 나타나는 서정으로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독자에게 허술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의 시는 소월, 영랑, 목월의 시보다도 관념적인 요소가 적고 서정성이 두드러진다. 그 서정은 우리의 전통적 한에 관계되는 데, 이는 박재삼이 어린 시절을 보낸 삼천포 시절의 가난했던 생활환경, 즉 시인이 직접 체험한 가난에 기인한다.

박재삼은 <한 경험>이란 글에서 이 시에서 보이는 서정성과 유사한 서술을 보이고 있다.

“언덕은 바다가 바로 눈 앞에 보여 오는 곳에 있었다. 가만히 앉았기도 어좁은 일이기도 해서, 머리를 땅에 닿을 만하게 물구나무 서서 두발 사이로 바다를 보았다. 그때 웬일인지 내 눈에선 눈물이 괴더니 그것이 얼굴로 젖어 내렸다. 바다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늘 보는 바다가 훌륭한 경치로서 내 눈에 도달해 온 것이다. 그때까지 바다는 이웃 사람의 얼굴을 대하듯 별것 아닌 것으로 내 마음에 자리하여 있다가 별안간에 아름다워 왔기 때문이다. 은금이라 한다면 좀 속된 표현일 것이고, 하여간 눈물의 꽃이 꽃 피어 난 꽃밭인 양 바다는 온통 현란한 경계로 내게 밀어 닥쳤는지 모른다.”

고려대 국문과 중퇴 후 신문 등에 바둑관전평을 쓰는 일 말고는 평생을 다른 직업 갖는 일없이 살았던 이 자유인에게 대신 가혹한 가난과 병마는 혹독한 것이었다. 35세에 처음 고혈압으로 쓰러진 후 그는 임종시까지 만성 신부전증과 심근경색으로 투병해왔다.

“남편이 젊으셨던 시절에는 지나칠 정도로 약주를 드셨지요. 매일 밤 12시가 돼야 집으로 들어서는 골목 어귀에서 노래소리가 들리지요.” 그래서 박씨는 동네 부인들 사이에서 ‘12시 5분 전’이라는 별명으로 통했다고 한다.

필자가 대학 1학년 때 친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부모가 이혼한 상태였는데 용돈을 뚜렷한 직업이 없는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타쓰고 있었다. 용돈을 받으러 가는 어느날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장소가 기원이었다. 늦은 저녁 무렵, 누가 술을 드셨는지 흥시 냄새가 간간히 풍기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친해보이는 또래의 중년 신사와 바둑을 두고 있었다. 친구는 어려워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용돈을 챙긴 후 자리를 나오며 이런 말을 했다. “아버지와 바둑 두시는 저 분이 박재삼 시인이야.”



소릉조(小陵調)

- 1970년 추일(秋日)에 -

천상병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배기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저승 가는 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생각느니, 아,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 시집 <새> (조광출판사 1971)

천상병 시인(1930 ~ 1993)은 1949년 마산중학 5학년 때, [죽순(竹筍)] 11집에 시 <공상(空想)> 외 1편을 추천받았고, 1952년 서울대 상과대학 재학 중 [문예(文藝)]에 <강물>, <갈매기> 등을 추천받아 데뷔 후 여러 문예지에 시와 평론 등을 발표했다.

1967년 7월 동베를린 거점 문인간첩단 사건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가난·무직·방탕·주벽 등으로 많은 일화를 남긴 그는 우주의 근원, 죽음과 피안, 인생의 비통한 현실 등을 간결하게 압축한 시를 썼다. ‘문단의 마지막 순수시인’ 또는 ‘문단의 마지막 기인(奇人)’으로 불리던 그는 지병인 간경변증으로 고생하다가 아침 식사 도중 갑작스럽게 변을 당해 세상을 떠났

다.

그는 어렵고 불행한 생활로 이어지는 생애를 보내면서 삶의 어두움, 외로움, 죽음 등의 문제를 다루는 시를 많이 지었다. 이러한 시를 쓰면서도 맑은 눈과 청순한 시정신을 구현하려고 애썼다. 그의 시를 읽어보면 맑고 투명하게 사물을 인식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 순진무구한 시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현실 삶의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말할 때에도 천진한 상상력을 잃지 않는다. 특히 세속 삶에 대한 거추장스러움을 벗어나는 소박한 정서는 죽음과 가난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허무주의와 구차함에 떨어지지 않는 자연스러움과 당당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소릉(少陵)은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호이다. 위의 시에서는 두보와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두보와 천상병의 시 대부분은 가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 생애(全生涯)에 걸쳐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시대와 불화를 겪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가난과의 끈질긴 갈등과 화해 속에서 가난 길들이기에 이력이 알 것도 자명한 이치이다. 가난이란 어쩌면 그에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한 운명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다.

이 시는 조금은 진부하고 산문적이면서도 그 단순, 소박함으로 하여 어떤 시적 운율을 느끼게 한다. 시인은 자신의 신상 진술에 이어 어떤 개인적이거나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신비에 대한 경이감을 표출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시가 지닌 기능 중의 하나가 우리의 의식을 굳어 있는 틀에서 해방시켜 인간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가을에

정한모

맑은 햇빛으로 반짝 반짝 물들으며
가볍게 가을을 나르고 있는

나뭇잎

그렇게 주고받는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로도

이 커다란 세계를

넉넉히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엄마의 치마 곁에 무릎을 꿇고

모아진 아가의

작은 손아귀 안에

당신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제 오늘이

마침내 전설 속에 묻혀버리는

해저(海底)같은 그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달에는

은도끼로 찍어낼

계수나무가 박혀 있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영원히 아름다운 진리임을

오늘도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어렸을 적에

불같이 끓던 병석에서

한 없이 밑으로만 떨어져가던

그토록 아득하던 추락(墜落)과

그 속력으로

몇번이고 까무러쳤던

그런 공포의 기억이 진리라는

이 무서운 진리로부터

우리들의 이 소중한 꿈을

꼭 안아 지키게 해주십시오.

-〈여백을 위한 서정〉(신구문화사.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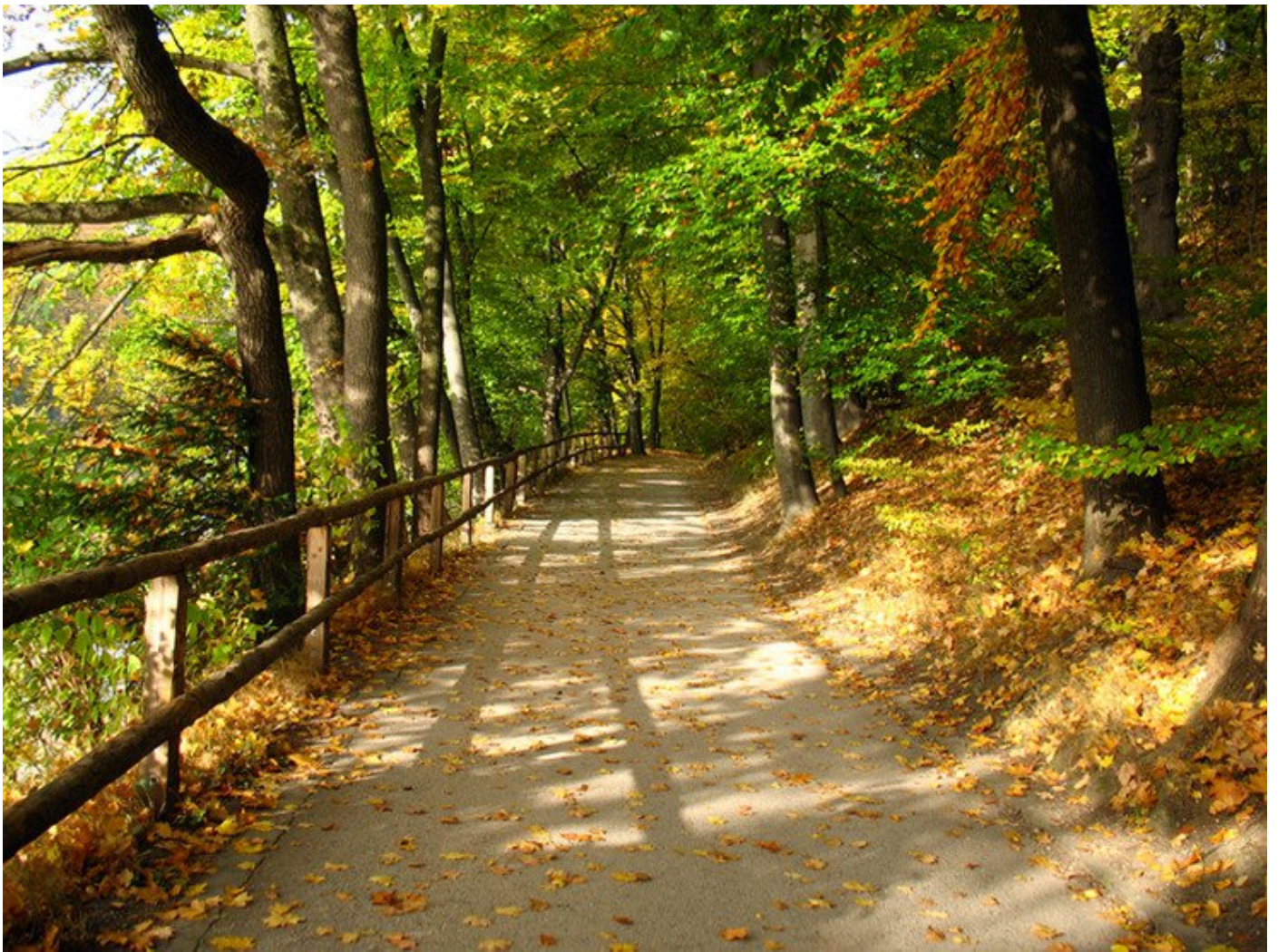
필자가 고등학교 시절 머리를 싸매고 읽었던 정한모 시인(1923 ~ 1991)의 시 '가을에'는 불혹이 지난 다음에야 불세출의 가작임을 알게 되었다. 이 시는 자세히 읽어보면 감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의 핵심 제재인 '가을'의 이미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조락(凋落)의 이미지로서 반(反)문명적인 현대의 삶 속에서 파괴되어 가는 인간성의 상실을 그리고 있다. 또 하나는 명징하고 온화한 가을의 이미지로 파악한 점이다. 이것은 휴머니즘을 옹호하고 고양시키려는 의지로서, 시인의 사상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주제로 볼 수 있다.

이 시는 비인간적 물질문명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생명에의 신뢰와 사랑을 지키게 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경건한 기도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점차 삭막해져 가는 세상일지언정 따스한 인간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화자는 어린아이가 올리는 순수한 기도 같은 성스런 생활을 소망하며 옛이야기같이 순수한 인간성 회복을 기대한다.

당신을 향한 화자의 기도는 우주의 합일에 의한 영원히 아름다운 진리를 간직하게 함으로써 한 차원 더 높아진 차원에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화자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병상 체험처럼 '아득한 추락과 / 그 속력으로 몇 번이고 까무러쳤던 / 공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진리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계 문명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것이 범람하는 1950년대의 현실, 즉 전쟁이나 폭력 등을 암시한다. 1차대전, 2차대전, 6.25전쟁, 월남전쟁, 이라크전쟁……. 이렇게 전쟁과 예기치 않은 죽음은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절대자를 향해 올리는 화자의 간절한 기도는 아름다움과 진실된 인간 세상을 향한 열망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이는 휴머니즘에 바탕을 두고 순수의 본질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시인의 정신 자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저녁 숲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유현숙

어두워지는 저녁 숲에 남은 햇빛이 비치는 것에 대하여, 그 빛 아래서 은사시 나뭇잎들 반짝이며 제 몸을 뒤집는 것에 대하여

혼자 듣는 시냇물 소리에 대하여, 그 물소리 어떻게 저무는가에 대하여

시냇물소리 내 몸 구석구석이 다 저문 뒤까지 흘러
서늘한 저녁물빛이 되는 모양이라든가 그런 슬픔이라든가
슬픔보다 더 길게 개망초꽃들이 자라고 있는 것 그 개망초꽃들 하얗게 흔들리는
난동에 대하여

간간이 들리는 지빠귀 울음소리의 아득한 고적감이나
여뀌 풀 더미에 엮히는 여뀌 꽃 색깔이며 그 여뀌 꽃의 그늘 빛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어두워지는 저녁 숲에서 내가 혼자 저물고
한 사람을 찾아가는 길이 어떻게 긴 기도인가에 대하여

-시집 <서해와 동침하다> (문학의전당 2009)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숲은 가을빛으로 변하고 있으나 아직은 너무 쇠락하지 않은 모습이다. 가을 숲길을 걸어 본다. 산책은 늘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에서 막을 내린다. 일몰 시간, 숲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한낮을 태우고 곧 스러질 태양이다. 박목월의 시처럼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는 것이다. 어둑해지려는 숲의 터널을 관통한 후에 만나는 태양은 신성에 가깝다. 중년의 언덕에서 새로운 것을 바랄 때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가진 걸 버리면 되는 것이다. 하루 한 가지 생각나는 감사의 제목들을 불러 보도록 하자. 계절의 변화는 냉정하도록 정확하다. 달 포전까지 간간히 들리던 빠꾸기 소리는 소쩍새에게 자리를 내어줘 버리고 이제는 저녁 숲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용히 생각하면 될 것이다.

유현숙 시인(1958 ~)의 이 시를 읽다보면 여뀌 꽃의 그늘 빛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마음을 차분하게 해 주는 정갈한 시이다. 잠든 미의식을 두드리는 영롱한 시어들의 난무 속에서 내년엔야 볼 수 있을 것 같은 황홀한 꽃비를 만난다. 혼자 듣는 시냇물 소리에 대하여, 그 물소리 어떻게 저무는가에 대하여 절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보지 않은 이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일상을 파고들어 주변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풀어내는 절묘한 흐름은 더운 여름날 산 정상에서 청명한 바람줄기를 맞는 느낌이다.

술 노래

정현종

물로 되어 있는 바다
물로 되어 있는 구름
물로 되어 있는 사랑
건너가는 젖은 목소리
건너오는 젖은 목소리

우리는 늘 안 보이는 것에 미쳐
병(病)을 따라가고 있었고
밤의 살을 만지며
물에 젖어 물에 젖어
물을 따라가고 있었고

눈에 불을 달고 떠돌게 하는
물의 향기(香氣)
불을 달고 흐르는
원수인 물의 향기여

- 시집 <고통의 축제> (민음사 1974)

서랍정리를 하다가 30여년전에 친구로 부터 받은 편지를 발견하였다.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편지를 주고 받았으나 고교 졸업, 군입대, 대학 졸업, 취직, 결혼, 이사, 해외근무 등등의 이유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다 보니 대부분들 유실해버렸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몇 통만 대봉투에 담아두었는데 집안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고3때 예비고사를 20일 정도 앞둔 날 받은 편지인데 앞면에는 아래의 내용인 사연이, 뒷면에는 정현중 시인의 '술 노래'라는 위의 시가 적혀있었다. 고등학생이 무슨 '술 노래'냐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우리는 소풍 때나 집에서 부모님 몰래 숨어서 몇번 술을 마셔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술의 의미는 대강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철부지였다. 그리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하였던 '범생이'였음을 밝혀둔다. 아래의 편지내용이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런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이 편지를 보낸 친구는 신림동에 있는 S대에 진학했으며 현재 서울의 모 여자대학교에서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아,

편지 잘 받아 보았다. 저번 편지도 받았었다만 귀찮아서(?) 답장 안했다. 이렇다. 요즘 내 생활이라 카능기. 그저 무위롭고 하릴없고 그러면서도 초조하고 조금은 굴욕스럽고... 이력저력 20일 남았는 갑다. 한 것없이 많이 얻으려는 내 욕심이 두렵긴 하다만 그래도 뿌린 씨앗은 거두리라. 비록 그게 알이 들지 않은 껍데기 뿐일지라도 내가 뿌렸으므로 내가 거둘 밖에.

오아.

조금은 결과에 대한 불안과 초조가 밀려오곤 한다. 종종 추락한 내 물골을 스스로 그려보곤 한다는 말이다. 정말 이게 기우로나 끝나길 빌 뿐 이제 내가 더이상 할 짓거리는 없는 것 같다. 20일이나 남겨놓고 이 따우 소리 씨부린다면 뭐잡고 지랄하는 놈이라고 비웃을 지 모르겠지만 (실례) 어쩐지 내 생활에 내 스스로 관객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다. 아무 작위도 자기 생활에 가하지 않은 놈들이 필시 귀결하고 마는 주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고픈 말은 두렵다 두렵다는 단 한 마디.

시험을 친 오후에 친구나 누군가 잘 쳤느냐고 묻는다면 "아는 건 다 썼다"고 씨부릴 수 있어알긴대, 모르겠다.

오아.

이렇게 온 생활과 생각들이 시험하나로만 치달아 가끔 웅졸하고 편협하기 짝이 없는 놈이라고 스스로 욕을 하곤 한다면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 조차 생각이 싫다. 세수하기조차 귀찮다고 할까?

아, 세월은 벌써 겨울로 다가가고 나는 자꾸 타락의 끝모를 깊이로 추락하고 모르겠다, 뭐가 뭔지. 기판소리 다 집어 치우고 우리 시험치고 출가분히 한 잔 할 생각이나 하자. 따습은 기억 한 장 또 만들어야재?

더 쓸 기력이 없다. 필체가 성의가 없더라도 용서해라. 이만 총총.

1979. 10. 30 00 쓰

다

하하, 옛 편지를 다시 읽으니 그 시절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살아난다. 우리시를 읽으시는 이들에게 정현종 시인이 어떤 분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예의상... 정현종 시인(1939 ~)은 박남수의 사물 이미지 추구와 김춘수의 존재 의미 천착 경향을 결합해 놓은 듯한 독특한 시풍을 가진 이다. 그는 인간성과 사물성, 주체성과 도구성 사이의 정당한 의미망을 나름대로 추구함으로써 그 동안 인간들의 아집과 욕망에 의해 더럽혀지고 훼손된 사물 본성의 회복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에서도 그러한 순결한 의도가 엿보인다. 그는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온갖 사물들이 자기의 기능과 직분을 다하면서 다채롭고 조화로운 화해의 세계를 만들기를 소망한다.

필자는 요즈음 잘 마시지 않는 편이지만 젊은 날에는 꽤나 자주 술을 마셨다. 누군가가 왜 술을 마시느냐고 물으면,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마신다고 대답했으며, 그 부끄러움이 무어냐고 물으면 술 마시는 부끄러움이라고 객기(客氣)를 부렸었다. 위의 시구가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는 늘 안 보이는 것에 미쳐 병(病)을 따라가고 있었고 밤의 살을 만지며 물에 젖어 물에 젖어 물을 따라가고 있었고 ...' 그래서 원수인 물의 향기여.



봄날은 간다

기형도

햇빛은 분가루처럼 흩날리고
쉽사리 키가 변하는 그림자들은
한 장 열풍에 말려 둥글게 휘어지는구나
아무 때나 손을 흔드는
미루나무 앞은 그늘 속을 침범이며
2시착 시외버스도 떠난 지 오래인데
아까부터 서울집 뒷마루에 앉은 여자

외상값처럼 밀려드는 대낮
신작로 위에는 흙먼지, 더러운 비닐들
빈 들판에 꽃혀 있는 저 희미한 연기들은
어느 쓸쓸한 풀잎의 자손들일까
밤마다 술한 나무젓가락들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사내들은 화투패마냥 모여들어 또 그렇게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간다
여자가 속옷을 행구는 시냇가엔
하룻밤새 없어져버린 풀꽃들
다시 흘러들어온 것들의 인사(人事)
흐린 앞전구 아래 엉망으로 취한 군인은
몇 해 전 누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자는
자신의 생을 계산하지 못한다
몇 번인가 아이를 지을 때 그랬듯이
습관적으로 주르르 눈물을 흘릴 뿐
끌어안은 무릎 사이에서
추억은 내용물 없이 떠오르고
소음은 무서울이만치 고요하다, 누구일까
세숫대야 속에 삶은 달걀처럼 잠긴 얼굴은
봄날이 가면 그뿐
숙취는 몇 장 지전 속에서 구겨지는데
몇 개의 언덕을 넘어야 저 흙먼지들은
굳은 땅 속으로 하나들 섞여들는지

- 시집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 지성사 1989)

1980년대 마지막을 장식하며 요절한 위대한 시인 기형도 (1960 ~ 1989)의 작품은 주로 유년기에 경험했던 일들에 대한 우울한 기억이나 회상, 그리고 현대의 도시인들의 살아가는 생활을 독창적이면서도 강한 개성이 묻어 나오는 시어와 문체로 그려내고 있다. 그는 살아 있을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일부 비평가에 의해서만 내면적이고 비의적이며 우화적인, 독특한 색채의 시인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집인 <입 속의 검은 잎>이 출간되었을 때 그에 대한 평가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후 한국 시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시에는 죽음과 절망, 불안과 허무 그리고 불행의 이미지가 환상적이고 일면 초현실적이며 공격적인 시인 특유의 개성적 문체와 결합한 독특한 느낌의 시를 이루어 내고 있다. 그는 동일 이미지의 반복, 돌연한 이미지와 갑작스런 이질적 문장의 삽입, 도치, 감정의 고조(그는 감탄사를 연발한 드문 경우의 시인이었다)등 특징적인 시어 구성과 문체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그러한 그의 필체 대부분은 암울한 세계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년시절 불우한 가족사와 경제적 궁핍, 그리고 죽음에 대한 체험과 이에 대한 강렬한 심미적 각인이 시 전체에 가득한 삶에 대한 부정적 영상을 이끈 원인이라 그의 시적 모티브를 유발하고 있는 동인일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달고 비관적 세계로 침전케 한 주된 이유로 이해되고 있다. 그의 시에는 현실에 대한 역사, 즉 역사적 전망이 없으며 따라서 그의 시는 퇴폐적이라 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초현실적 이미지를 추구하면서도 일상의 현실을 비판한 독특한 시세계는 주목할 만 하다 하겠다.

위의 시는 늦은 봄날, 변두리 도시의 시외버스 정류장 근처 '서울집'이라는 대포 집에서의 늙은 작부의 일상을 그리고 있는 몽환적인 시이다. 그 작은 도시는 1980년대의 광명시일 것이다. 미루나무 그늘 속을 첨벙이며 오지 않을 2시착 시외버스는 기다리고 있을 그녀는 분가루 냄새를 날리며 외상값을 받아야 한다. 저녁이면 나무젓가락을 두드려야 하고 숙취가 가시지 않은 낮에는 못 남정네들의 손때가 묻은 속옷을 술집 근처 시냇가에서 빨았을 것이다. 성에 굶주린 군인은 그녀의 동생뻘이고 그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낙태를 해야 하는 서글프고 비참한 인생이다. 시인은 손노원이 작사하고 박시춘이 작곡하여 백설희가 부른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많은 풍상을 겪은 뒤쯤에 바라본 듯한 흑백의 무성영화처럼 담담하고 표정 없이 읽혀지는 이 시 속의 그녀에게 숙취 속에 지전이 구겨질 뿐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고통의 시간이 사라지겠는가를 탄식하고 있다.

이처럼 기형도의 시들은 유년시절의 가난, 사랑의 상실,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 자본주의 사회의 물화(物化)된 인간의 모습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대체로 절망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그의 절망은 절망의 끝까지 가본 자의 처절한 절망으로, 우리 시에서 보기 드문 풍경에 속한다. 이 시는 폭력적인 현실과 그로 인한 죽음, 공포의 삶을 고도의 상징적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다. 이 시는 지나치면서 보아온 어떤 장면을 머리에 새겨 두었다가 시로 풀어 썼을 것이다. 그의 시세계에는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부터 돌출되어진 고통과 파괴의 흉터들이 즐비하고, 젊어서 세상을 등진 불우한 운명이 자아내는 죽음과 쇠락의 이미지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폐사지(廢寺地)

도종환

열정이 식으면서 노을도
하늘 한쪽을 폐허로 만들고 있었다
마음이 잿더미인 사람들은
떠도는 동안 자주 폐허와 만나곤 했다
사원(寺院)들은 수백 년을 걸어서

마침내 폐허의 완성에 이르렀지만
 우리가 쌓은 성채(城砦)가 무너지는 데는
 채 몇 해가 걸리지 않았다
 기울어진 내 성벽(城壁)의 전돌이 허리를
 땅에 대는 순간 폐허의 벌레들이 달려들어
 내 생애를 분해해서는 땅속 깊이 내려갔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비문(碑文) 하나 남기지 못한
 왕국은 바로 잊혀지고
 노을은 어둠으로 바뀌어 흔적 없이 지워졌다
 영생(永生)의 선약 같은 말씀 한 모금 만들지 못하고
 약초 뿌리 몇 개를 캐다만 나의 행로는
 적막과 함께 마른 풀냄새를
 바람에 흘려보내게 될 것이다
 신화(神話)를 허공에 벽화처럼 새기고 싶어 하던 날들을
 새들은 저희의 목소리로 비웃을 것이다
 인간이 이룩한 모든 것은 반드시
 폐허의 긴 복도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길게 누운 채 마모되어 가는
 돌부처들이 먼저 알았을 것이다
 제국(帝國)의 영광을 위해 이룩한 모든 것들도
 폐허의 제단에 바쳐야 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나무의 씨앗과 뿌리에게 자신의 영역 전부를 맡기고
 나머지도 새들의 잠자리로 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폐허의 따뜻하고 편안한 품 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 시집 〈슬픔의 뿌리〉 (2002. 실천문학)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갔는데 입구에 시비가 있었다. 도중환 시인(1954 ~)의 시였는데 아마 관공서에서 관청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 같다. 각 동네마다 유명 시인의 시비가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 동네 동사무소에서는 시집 <접시꽃 당신>에 게재된 시가 시비로 세워져 있다. 밀리언셀러 시집 <접시꽃 당신>(1986)은 '한 사내가 앞서간 제 아낙에게 한 혼잣말'의 형식을 빌려 그 그리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노래한 시집이다. 도중환 시인(1954 ~)은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시 <어떤 마을>이, 고등학교 문학, 국어교과서에 <흔들리며 피는 꽃> 등 여러 편의 시와 산문이 실려 있으며, EBS TV '도중환의 책과 함께 하는 세상'의 진행을 맡기도 하였다. 시노래 모임 <나팔꽃>의 동인으로 시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일에 참여해 왔다.

이 년 전의 일이다. 고등학교 반창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의 30년 만에 문예부에서 시를 쓰던 친구를 만났다. 고교시절, 동양회 같이 명징한 시를 쓰던 친구는 적성을 잘 살려서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술이 몇 잔씩 돌아가고 우리는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사람 사는 모습의 대부분이 그러하겠지만 40대 이후에 만나면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정치 이야기' 빼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친구와 나는 특이하게도 도중환 시인을 화제로 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접시꽃 당신>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린 후(영화로도 나왔다) 얼마 되지 않아 재혼을 해버린 한 남자의 지조와 사랑의 진정성에 대한 내용이 주된 것이었다. 그날의 주된 화제는 너무나 가벼운 남자의 사랑에 대한 씁쓸함이라고 정리하면 간단하겠다.

<접시꽃 당신>을 넘어서는 일은 그로서도 힘겨운 과정이었을 것이다. 국문학을 전공한 그였지만 주류의 문학계에서는 그를 시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념적으로 무장된 시단의 입장에서는 그가 감상주의적 시나 쓴다는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실 1985년 <고두미 마을에서>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민족과 계급의 문제에 천착하는 참여시의 경향을 보여 왔다. 세상과 역사에 대한 책임감과 특유 감수성은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1988), <지금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1989), <당신은 누구십니까>(1993) 등의 시집을 거치면서 더욱 정련되고 깊어졌다. 교사였던 그는 1989년 6월 해직됐다가 1999년 복직되는 등의 우여 고통을 겪었다.

'마음이 잿더미인 사람들은 떠도는 동안 자주 폐허와 만나곤 했다. 사원들은 수백 년을 걸어서 마침내 폐허의 완성에 이르렀지만 우리가 쌓은 성채가 무너지는 데는 채 몇 해가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주말이면 멀리 가지 않은 도시 근교의 산길을 거닌다. 조락의 풍경을 호흡하면서 조락하는 것은 낙엽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게 흘러가는 세월에 자신이 조락하는 것이다. 이천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찰들이 들어서고 사라졌겠는가. 폐사에서 만나는 것은 조락한 세월이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시간의 영혼인 것이다. 연륜은 쓸쓸함도 위안이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마음이 잿더미일 때는 더욱 그럴 것이다. 폐사지(廢寺址)를 육안(肉眼)으로 본다면 그다지 흥미로운 일은 아니다. 절은 사라지고 터와 명맥만 유지하는 곳. 고즈넉한 사찰 분위기도 귀를 맑게 하는 풍경소리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다 발견하게 되는 석당간 지주에 뿌리내린 거무죽죽한 이끼와 석축을 반쯤 감싼 누런빛의 잡초는 세월의 증거며 흔적이다. 이 자리에 발자국을 남긴 수많은 중생과 물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폐사지는 '시간 앞에서 풍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란 진리를 알리는 공간이다. 세월은 유구하고 인간의 삶은 극히 짧다. 사원이 폐허가 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리지만 우리가 집착하며 매달리는 욕심과 이기심의 결과인 번뇌의 성채가 무너지는 것은 몇 해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주옥과 같은 시를 읽고 또 읽는다.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이해인

손 시린 나목(裸木)의 가지 끝에
홀로 앉은 바람 같은
목숨의 빛깔

그대의 빈 하늘 위에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차 오르는 빛

구름에 숨어서도
웃음 잃지 않는
누이처럼 부드러운 달빛이 된다.

앞새 하나 남지 않은
나의 트랙엔 바람이 차고
마음엔 불이 붙는 겨울날

빛이 있어
혼자서도
풍요로와라

맑고 높이 사는 법을
빛으로 출렁이는
겨울 반달이여.

-시집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분도출판사 1983)

이해인(李海仁 1945 ~)은 수녀 시인이다. 이 아름다운 글을 쓰는 수도자의 시는 독자가 몰래 엿듣는 듯한 내밀한 고백과 같은, 서정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서정적이면서 명상적이다. 종교와 예술과 삶을 조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시인의 경건하면서도 정갈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쓰는 시인의 생애가 궁금했다. 언론에 알려진 중요한 연보들만 살펴보자.

1945년 강원도 양구에서 이대영, 김순옥의 1남 3녀 중 셋째로 출생
1950년 서울 청파동에 살 무렵 한국 전쟁발발. 9월에 부친이 납북 됨
1952년 부산 피난시절 부산 성남초등학교에 입학
1958년 서울 창경초등학교 졸업
1958년 서울 풍문여중 입학
1961년 부산 동래여중 졸업
1963년 제2회 신라문화제 전국 고교 백일장 시 장원
1964년 김천 성의여고 졸업.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원 입회
1968년 수녀로 첫 서원
1970년 [소년]지에 동시 〈하늘〉, 〈아침〉 등으로 추천 완료
1975년 필리핀 성 루이스 대학 영문학과 졸업
1976년 종신서원과 더불어 첫시집 〈민들레의 영토〉 출간
1976년 부산 성분도 병원 근무(∼1978)
1978년 부산성베네딕도수녀원 수련소 강사(∼1982)
1985년 서울 서강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졸업. 제2회 여성동아 대상 수상.
1997년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부산 신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개방강좌 출강.
1998년 제6회 부산여성 문학상 수상
1998년 부산 신라대학 사범대학에서 시감상 교양 강좌(∼1999)
2000년 부산 가톨릭대학 지산 교정에서 '생활 속의 시와 영성' 강의

그 후 지금은 2009년..... 병원에서 암투병 중이다.

수녀 시인 이해인의 작품 문체는 독자가 몰래 엿듣는 듯한 내밀한 독백체, 고백체이다. 이 작품도 그러한 특징을 지닌다.

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어는 '반달'이다. 이 반달은 '오늘'이라는 현실 상황 속에서는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시인은 보름달처럼 완전하고도 충만한 '내일'의 삶을 꿈꾸게 된다. '반달'이라는 현재의 결핍 상황은 일상적인 굶주림과 불완전성을 뜻한다. 따라서 오늘은 내가 비록 보름달이 아닌 반달로 남아 있지만, 언젠가는 보름달과 같이 맑고 높이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시인의 시를 읽다보면, 우리가 왜 시를 찾고 시를 읽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해인 수녀는 지상의 모든 대상들과 기도 안에서 만나고, 편지로서 만나고, 그리움으로서 만난다. 그리하여 그의 시는 기도로서, 편지로서, 그리움으로서 다가온다. “뒤틀린 언어로 뒤틀린 세계를 노래” 한 시들이 줄 수 없는 “위안, 기쁨, 휴식, 평화”를 주기에 종파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그는 악기의 소리로 시를 쓴다. 우리를 불안해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감동으로 이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리듬에는 사기(邪氣)나 불화가 없다. 오묘한 화성의 조화, 부드럽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가득하다. 평생을 죄지은 자, 상처받은 자들을 감싸 안아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사랑해온 수도자의 맑디맑은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경건하고 순결한 언어가 아닐런지.



너의 창에 불이 꺼지고

황금찬

너의 창에 불이 꺼지고
밤 하늘의 별빛만
네 눈빛처럼 박혀 있구나

새벽녘
너의 창 앞을 지날라치면
언제나 애처롭게 들리던
너의 앓음소리
그 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는다

그 어느 땐가
네가 건강한 날을
향유하였을 때
마리아 칼라스가 부르는
나비부인 중의 어떤 개인 날이
조용히 들리기도 했었다

네가 그 창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건어 갈 때
한개의 유성이
긴 꼬리를 끌고
창 저 쪽으로 흘러갔다

다 잠든 밤
내 홀로 네 창 앞에 서서
네 이름을 불러 본다

애리야! 애리야! 애리야! 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려올 뿐
대답이 없구나

네가 죽은 것이 아니다
진정 너의 창이 잠들었구나

네 창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나
모두 부질없구나

-시집 <산새> (조광출판사 1975)

황금찬 시인(1918 ~)의 초기 작품은 시조적 발상으로 이룩된 향토색이 짙은 것이었으나, 중앙에서의 시작활동(詩作活動)이 활발해지면서 현실성이 강해지고, 다분히 서술적 표현에 의존하게 되었다. 현실에 둘러진 그의 눈은 점차 날카로워졌고, 처절한 비탄(悲嘆)으로 절창(絶唱)을 이루었다. 초기의 나이브한 정서가 가신 대신, 역사적 현실을 인식하는 참여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장시(長詩) 〈한강(漢江)〉은 이러한 계열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는 주로 자연의 교감을 노래하는 다양한 경지를 보여주다가, 1970년대에 와서는 인간의 자유 문제와 생활 주변에서 애환과 알팍한 위선에 대한 부드러운 풍자를 보여주었고,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신앙적인 것과 인류의 사랑을 시화(詩化)하고 있다. 그의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박하고 진솔한 감정과 맑고 투명한 신앙적 고백으로 일관되고 있다.

위의 시는 시인이 고명딸 황애리를 백혈병으로 저 세상에 보내고 난 후 적어내린 아버지의 비탄어린 호소문이다. 그 슬픔을 어찌 필설로 다할 수 있겠는가. 따님은 1974년 이화여대 영문과 4학년 졸업을 2개월 앞두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시를 읽으면 과연 그 심정이 이해가 될 것이다. 이 시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1978년에 이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되었다. 시인은 〈너의 창에 불이 꺼지고〉란 제목의 그 영화를 가슴이 아파서 아직도 보지 못했다는 기사를 최근에 읽은 적이 있다. 차마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같은 시집에 게재된 '촛불'이라는 시를 보도록 하자.

촛불!
심지에 불을 붙이면
그 때부터 종말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다.

어두움을 밀어내는
그 연약한 저항
누구의 정신을 배운

조용한 희생일까.

존재할 때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간의 국한을
모르고 있어
운명이다.

한정된 시간을
불태워 가도
슬퍼하지 않고
순간을 꽃으로 향유하며
춤추는 촛불.

- 시 '촛불' 〈전문〉 -

이 시 역시 딸을 잃고 난 후의 슬픔을 시작(詩作) 배경으로 하여, 인간의 지상적이고 유한적 삶을 '촛불'에 형상화하여 그 슬픔을 표현하였다. 한정된 존재의 달관된 생명이 주제이다. 촛불을 볼 때 그것은 인생의 단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믿게 하고 있다. 운명적인 면에서 인생과 동일하고, 종말을 모르고 달려가면서도 언제나 춤추고 있는 일관된 움직임인 것이다. 인생은 촛불처럼 타들어가도 비판하지 않고 언제나 춤추며 끝날을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화자의 인생관이며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일 것이다.



꽃피는 나무에게

장석주

꿈틀거리는 성욕이 없다면

꽃을 피울 수 없지

꽃피지 않는 나무라면

살아 있다고 할 수 없지

봄날 저녁 하늘을 향하여

솟구치는 성욕으로

마구마구 꽃을 피워 올려

꽃핀 구름들을 이고

서 있는 나무

취한 여자처럼 발갈게

아아, 이빠라

당. 신. 을. 사. 랑. 해. 요

- 시집 <애인> (좋은날 1998)

위의 시를 쓴 장석주 시인(1954 ~)은 부재의 씨앗이 자라나서 맺은 열매가 바로 시라고 이야기 한다. 그의 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모든 시들은 부재의 숲에서 싹을 틔우는 어린 나무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부재의 존재였고, 죽은 뒤에 다시 부재의 존재로 돌아간다. 문자들은 이 존재와 부재의 간극 사이를 붙여가는 바람이다. 뭔가를 쓰는 자들은 이 부재의 권태를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채집망을 휘둘러 바람을 붙잡는다. 어리석은 몸짓, 아무 보상도 없는 몸짓들. 그러나 부재의 씨앗들은 여기저기에 흩뿌려져서 마침내 싹을 틔운다. 누구나 무의식에 그 어린 나무가 자란다.

그는 우리의 삶과 꿈 사이에 가로놓인 갈등의 골을 해체하려는 몸부림을 비극적이며 초월적인 아름다운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비슷한 이미지의 시 한 편을 보도록 하자.

꽃은 피고요,

햇빛은 빛나고요,

검고 무거운 구두는

어디 그늘진 곳이라도 벗어놓고요,

꽃피는 나무 밑에서
우리
입맞추어요,

꽃은 지고요,

날은 저물고 말지요,

- 꽃나무 밑에서의 입맞춤 (전문)

인간의 삶이란 태어남에서 죽음의 순간까지의 시간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성욕(性慾)의 의미는 어디까지 갈까? 좀 낭패스런 질문이지만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이런 질문을 쉬지 않고 자문한 적이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때의 일이다. 같은 동네에 살던 급우의 아버지가 폐병으로 사망을 하였다. 30대 후반의 젊은 분이 요절(夭折)을 한 것이다. 그런데 임종을 엿본 이웃사람들로부터 희한한 소문이 번졌다. 그분은 임종 순간 아내에게 나신(裸身)으로 서있기를 부탁했고 실제로 친구의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그 부탁을 들어주신 것이다. 기묘한 순간이었겠지만 죽는 순간까지 성욕은 지속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는 필자와 절친한 친구 집안의 이야기이다. 친구 내외는 중풍에 걸린 팔순의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친구의 아버님은 금년 여름에 노환으로 돌아가셨다. 팔순의 노인이 아내 없이 혼자 살게 되면 아무래도 며느리의 통제 속에 살게 마련이다. 친구의 부인은 씩씩하고 용감한 '여장부'형의 여성이다. 우리 친구들로부터 효부(孝婦)로 칭송받던 그녀는 매일 시아버님 방청소를 했다. 어느 날, 방을 정리하러 시아버님 방에 들어가니 친구의 아버님은 민망하게도 팬티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계셨다. 당황한 그녀는 얼떨결에 "아버님, 지금 뭐하세요?" 라고 물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랬다. "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언젠가는 그 걸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되는 지 안 되는지 혼자서 해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그렇구나, 죽는 순간까지 성욕은 인간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봄날에 성욕처럼 아름답게 꽃피는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샅길로 빠졌다. 위의 시는 성욕처럼 꽃피우는 꽃의 아름다움이 나, 성욕이 꽃처럼 일어나는 것이나 결국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같은 게 아니냐는 뉘앙스를 던져준 채 전개되고 있다. 쓰는 행위 안에서 쓰기와 지우기는 반복된다. 글을 쓴다는 것은 쓰면서 동시에 뭔가를 지워가는 행위다. 쓴다는 행위는 쓰지 않는 것들, 끝내 억압되어 무의식의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것들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씹어지면서 표출되는 것들의 아래로 숨는다.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워지는 것이다. 위의 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성(性)에 대한 기존의 편견과 선입관을 지우고 음미하면 즐거운 시이다. 취한 여자처럼 발갛게 아아, 이빠라 당. 신. 을. 사. 랑. 해. 요 .



향수(鄉愁)

정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뒤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젊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벼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 빛이 그림어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든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전설(傳說)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의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뻐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안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는 석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 〈조선지광〉 65호(1927. 3)

정지용 시인(1902 ~ ?)은 우리 현대 시사에서 언어에 대한 자각, 언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킨 최초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까지는 대다수의 시인들이 감정의 분출에 의거하여 본능적인 시를 쓴 '초보단계'였을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의 대표적 시인으로 군림하게 된 정지용에 의하여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선명한 심상과 절제된 언어로 포착해 내는 시가 싹어진다. 감정을 감각화하는 방법은 정지용이 철저히 인식했던 언어에 대한 자각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정지용의 대표작으로서 국민들에게 널리 애송되는 작품 한 편을 들라고 한다면 위의 시 〈향수〉를 꼽아야 할 것이다. 성악가 박인수 교수와 대중가수 이동원의 노래로 널리 알려진 이 시는 노래를 듣는 사람 모두를 언제나 따뜻한 마음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만든다. 정지용은 〈향수〉에서 독특한 감각적 표현을 율격 언어로 응축시켜 한국인들이 마음의 고향에 도달하는 심정적 통로를 열어 보였다.

〈향수〉는 1920년대 초반의 젊은이가 고향을 떠나와 고향을 그리는 그리움이 융해되어 있다. 오늘의 우리들 또한 상실한 낙원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생의 근원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과 동경을 담고 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그리고 이를 넘어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한국인들에게 〈향수〉는 생의 근원에 대한 아름다운 동경을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닐까.

고향 충북 옥천을 떠나 낯선 타국(他國)땅에서, 그것도 식민지 망국의 설움을 간직하고 생활하던 젊은 시인은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 고향의 따스한 정경들을 떠올리며 그리움에 목이 말랐을 것이다. 그가 노래하는 고향의 정경과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느 한 특정 지역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개천이 지줄대고 얼룩백이 황소가 금빛 울음을 우는 곳이며 짚베개를 돌워 고이 시는 늙으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우리 민족의 고향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그의 시〈향수〉는 정지용만의 향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향수〉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 시는 음악의 반복 형식처럼 구성되었는데, 각 연 모두 '는(던) 곳'으로 끝맺고 있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고향의 정경을 실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 뒤에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라는 독백이 이어짐으로써 간절한 그리움을 반복, 강조하는 단순한 표현 기법을 통하여 감동의 극대화를 이루고 있다. 이 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시인이 작시할 때 의도했던 구성의 절묘함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흠수 연은 고향의 정경고 따스한 모습을, 짝수 연은 고향의 아픈 모습을 교묘하게 배합시켜 고향의 밝고 어두운 모습을 번갈아 보여 줌으로써 고향을 아름답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푸근한 흠내음과 간난(艱難)한 삶의 고난이 함께 존재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줄대는' · '해설피' · '풀섣' · '함초롬'이라는 감각적 우리말 구사와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와 공감각적 이미지, 냉온 감각 등의 수준 높은 이미지 활용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는 현대시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오빠와 화로

임화

사랑하는 우리 오빠 어저께 그만 그렇게 위하시던 오빠의 거북 무늬 질화로가 깨어졌어요
언제나 오빠가 우리들의 '피오날' 조그만 기수라 부르는 영남(永南)이가
지구에 해가 비친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담배의 독기 속에다
어린 몸을 잠그고 사온 그 거북 무늬 화로가 깨어졌어요

그리하여 지금은 화(火)젓가락만이 불쌍한 영남(永男)이하구 저하구처럼
똑 우리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남매와 같이 외롭게 벽에 가 나란히 걸렸어요

오빠……

저는요 저는요 잘 알았어요

왜—그날 오빠가 우리 두 동생을 떠나 그리로 들어가신 그날 밤에

연거푸 말은 껄려를 세 개씩이나 피우시고 계셨는지

저는요 잘 알았어요 오빠

언제나 철없는 제가 오빠가 공장에서 돌아와서 고단한 저녁을 잡수실 때 오빠 몸에서 신문지 냄새가 난다고 하면

오빠는 파란 얼굴에 피곤한 웃음을 웃으시며

……네 몸에선 누에 똥내가 나지 않니—하시던 세상에 위대하고 용감한 우리 오빠가 왜 그날만

말 한 마디 없이 담배 연기로 방 속을 메워 버리시는 우리 우리 용감한 오빠의 마음을 저는 잘 알았어요

천정을 향하여 기어올라가던 외줄기 담배 연기 속에서—오빠의 강철 가슴 속에 박힌 위대한 결정과 성스러운 각오를 저는 분명히 보
았어요

그리하여 제가 영남(永男)이의 버선 하나도 채 못 기웠을 동안에

문지방을 때리는 쇠소리 마루를 밟는 거칠은 구둣소리와 함께—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오빠는 불쌍한 저의 남매의 근심을 담배 연기에 싸 두고 가지 않으셨어요

오빠—그래서 저도 영남(永男)이도

오빠와 또 가장 위대한 용감한 오빠 친구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뒤집을 때

저는 제사기(製絲機)를 떠나서 백 장에 일 전자리 봉통(封筒)에 손톱을 부러뜨리고

영남(永男)이도 담배 냄새 구렁을 내쫓겨 봉통(封筒) 꿈무늬를 뚫니다

지금—만국지도 같은 누더기 밑에서 코를 고을고 있습니다

오빠—그러나 염려는 마세요

저는 용감한 이 나라 청년인 우리 오빠와 핏줄을 같이 한 계집애이고

영남(永男)이도 오빠도 늘 칭찬하던 쇠같은 거북무늬 화로를 사온 오빠의 동생이 아니예요

그리고 참 오빠 아까 그 젊은 나머지 오빠의 친구들이 왔다 갔습니다

눈물 나는 우리 오빠 동무의 소식을 전해 주고 갔어요

사랑스런 용감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화로는 깨어져도 화(火)젓같은 깃대처럼 남지 않았어요

우리 오빠는 가셨어도 귀여운 '피오닐' 영남(永男)이가 있고

그리고 모든 어린 '피오닐'의 따뜻한 누이 품 제 가슴이 아직도 더웁습니다

그리고 오빠……

저뿐이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영남(永男)이뿐이 굳세인 형님을 보낸 것이겠습니까

슬픔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고마운 청년 오빠의 무수한 위대한 친구가 있고 오빠와 형님을 잃은 수없는 계집아이와 동생

저희들의 귀한 동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음 일은 지금 섭섭한 분한 사건을 안고 있는 우리 동무 손에서 싸워질 것입니다

오빠 오늘밤을 새워 이만 장을 붙이면 사흘 뒤엔 새 솜옷이 오빠의 떨리는 몸에 입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누이동생과 아우는 건강히 오늘 날마다를 싸움에서 보냅니다

영남(永男)이는 여태 잡니다 밤이 늦었어요

—누이동생

- [조선지광] 83호(1929. 2) -

* 피오닐 : 러시아 말로 영어의 pioneer에 해당됨. '개척자, 선구자' 라는 뜻과 함께 '공산소년단원'(9세~14세)을 일컫는 말이기도 함.

이 시는 카프 계열의 최고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임화(1908 ~ 1953)의 초기 대표작이다. 끈기있게 읽다보니 1980년대 대학가의 벽에 붙어있던 대자보를 연상시킨다.님을 위한 행진곡..... '동지는 간 곳없고 깃발만 나부껴~' 라는 노래가사가 '화로는 깨어져도 화(火) 젖같은 깃대처럼 남지 않았어요'라는 구절에서 연유하였음을 알겠다. 임화(林和)는 시로 시작해서 문단에 알려지고 카프 계열의 최고의 이론가이자 실권자로 활동하여 해방 후에는 좌익 문학계의 거두로 활약했다. 그후 월북하지만, 6·25 후의 김일성의 남로당 숙청 과정에서 박헌영과 함께 사형당한다. 그의 내면과 그의 생애 속에서 그 명석한 모순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면서 임화의 생애는 잡히지 않는 근대성을 향해 나아가는 파멸의 길을 걸어갔다. 시적 진실과 정치적 정의(正義), 가출한 모던보이의 모더니즘과 현해탄 너머 적도(敵都)로부터 수입된 유물변증법, 민족의 문학과 계급의 문학, 시인의 운명과 혁명가의 운명, 정치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식민지 현실과 정치 권력의 창출을 향해 청춘의 열정을 몰아대는 계급투쟁의 논리 사이에서 임화의 생애는 비극의 장관을 이루며 무너졌다.

그의 문학은 그 동안 남·북한 양쪽에서 다 소외받아 온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계급주의 문학을 도외시하고는 한국 문학을 온전히 알 수 없고, 특히 임화를 모르고서는 계급주의 문학을 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존재는 한국 문학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놓았다. 그가 이데올로기에 치우쳐 예술성을 소홀히 하였다는 후대의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예술성의 부족이라는 잣대로 계급주의 문학을 평가하고자 하는 태도 자체가 오늘날엔 비판받고 있기도 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작품을 무조건 예술성이 뒤떨어진다고 하여 작품 자체의 의미를 축소시켜 버리는 것은 온당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급주의 문학은 일제 식민지가 낳은 일종의 저항 문학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임화를 비롯한 카프계열 지식인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문학을 통한 정치투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문학은 선전·선동의 도구로서 우선 간주되는 것이므로, 얼마나 이러한 목표에 충실하였는가 작품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작품이 무조건으로 예술성을 배척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술성보다는 사상성을 그 우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인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는 <네거리의 순이>와 함께 임화의 대표작으로 <카프> 계열의 단편 서사시이다. 작품의 내용 속에는 강한 계급의식과 함께 현실에 대한 투쟁 또는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연초(煙草) 공장 직공으로 있던 오빠가 노동 투쟁으로 감옥에 간 뒤에 어린 남동생과 편지 봉투 만들기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느끼는 오빠에 대한 애정을 편지 형식을 빌어 표현하고 있다.

서두에 소개한 것처럼 임화의 삶은 비극적이었지만 임화의 아내인 소설가 지하련의 삶은 더 비극적이다. 지하련은 1947년 남편과 함께 월북했다. 한국 전쟁 발발 후 만주에 피난차 머물고 있다가, 임화의 시신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실성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지하련은 거창에서 몇 천 석 쌀농사를 하는 부잣집 딸로 태어났으며 동경소화여고, 동경경제전문학교에 유학했다. 작품 <도정>으로 최초의 조선문학상을 수상했다. 이 미모의 엘리트를 나꿔챈 남자는 임화였는데 그는 전처 이귀래와 동거 중이었으니 재혼이었다. 당시 임화는 예술동맹의 총수의 위치에 있었다. 프로로 전향하기 전에 필명을 임다다라고 할 정도로 다다이즘으로 출발한 세련된 댄디보이였다고 한다. 조선의 모든 문예 이론가들을 거꾸러트린 논객이었으며 카프 동맹의 서기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미제의 스파이란 죄목으로 북에서 총살당해야 했다. 사랑하던 연인을 따라 나섰던 지하련은 만주에서 남편의 스파이 혐의와 숙청, 사형집행의 비보를 연달아 접해야 했다. 이 비련의 여성은 실성상태에서 두만강을 헤메다 수용소에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사평역(沙平驛)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툰밥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툰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히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싹싹싹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 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 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사평역에서〉 (문학과지성사1983)

이 시는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당선작품으로 곽재구 시인(1955 ~)의 등단작이다. 사평역은 실제로 존재하는 역이 아니다. 이 땅엔 없는 지명이며 시를 살리기 위한 시인의 의도된 선택일 뿐이다. 그의 시에서는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의 사랑과 슬픔이 응축되어 표현되고 있고, 이를 통하여 민족 정체성을 위협하는 정치적 상황에 맞서는 강력하고 넉넉한 정신을 드러내면서 역사의 현장에 몸 붙이고 사는 젊은 가슴의 함성이 배어 있다. 여기에는 이 시대의 진정한 화해와 사랑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다. 이 시가 실린 그의 처녀 시집 〈사평역에서〉는 고통 받는 민중의 억압된 삶을 서정적으로 승화하였는데, 1983년 5월 초판을 발행한 뒤 10만 부가 팔리는 스테디셀러를 기록하고 있다.

제한된 공간 속에서 알뜰하게 사람 사는 얘기를 서정적인 필치로 엮어내고 있는 이 시는 1980년대의 한국 서정시가 도달한 한 정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시의 화자는 혼자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인 모양이다. 시행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여행은 조금은 쓸쓸하고 우울해 보인다. 이 시를 모티브로 하여 시인의 친구인 소설가 임철우는 비슷한 제목의 단편을 쓴 바 있는데, 그 소설에서 1인칭의 화자가 수배중인 운동권 대학생이었음을 참고하면 이 시를 재미있게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쨌든 그가 어두운 분위기의 여행을 하고 있음은,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라는 서정적 표현에 의해 뚜렷이 드러난다. 이 표현은 이 시의 처연한 분위기에 주춧돌을 이루는데, 마지막에는 약간 변주되어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에서 한 번 더 나타난다. 조용히 지난 일을 떠올리며 톱밥난로에 톱밥을 던져주는 젊은 남자, 이 장면은 이 시가 이룩한 하나의 서정적 성취의 중심에 있다고 할 만하다.

특급열차가 서지 않는 변방의 낡은 간이역을 상상해 보자. 그 역사의 바깥을 채우며 눈은 내려 쌓인다. 그리고 막차를 기다리는, 삶에 지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난로가 지펴져 있는 극적 공간에서 시인은 시적 경구를 생산해 내는데, 그것은 '산다는 것은 때론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는 아름다운 구절이다. 살다 보면 조용한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실체를 느끼게 될 법도 하다. 이 시는 우리에게 혼자만의 여행이 주는 사색과 응시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그의 시에서는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의 사랑과 슬픔이 응축되어 표현되고 있다.



비가(悲歌)

신동춘

아! 찬란한 저 태양이
숨져버려 어두운 뒤에
불타는 황금빛 노을
멀리 사라진 뒤에
내 젊은 내 노래는

찾을 길 없는데
들에는 슬피 우는
벌레 소리뿐이어라
별같이 빛나던 소망
아침 이슬 되었도다

- 시집 <신동춘 시전집> (한국문학도서관 1996)

이 시를 쓴 분은 여류시인 신동춘(1931 ~)으로 그는 평북(平北) 신의주(新義州) 출생이다. 신의주는 중국과 국경을 맞닿은 미지의 도시이다. 바다와 강을 안고 있어서 이미륵이 사랑했던 도시인데 바다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부산과 비교하면 맞지 않는 비유일까? 과거 필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종합상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누군가가 장래 희망을 물으면 남북통일이 될 때 신의주 지점장이 되는 게 꿈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다.

신동춘 시인의 작품에서는 선명한 북방의 정서가 은연중에 살아있다. 그의 시에 넘치는 지적인 세련미는 서정시의 교본처럼 느껴진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했던 시인은 영국의 3대 낭만파시인 세리·워즈워드·키츠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의 시에서 보이는 선명한 이미지 구사는 난해성(難解性)의 함정에서 시를 구해내고 있다. 위의 시에서는 대부분의 시인들이 시를 쓴다는 이유로 자기중심적으로 취사선택해 왔던 복잡한 언어의 나열과 같은 난해함과 번잡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 대신에 세상 모든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시의 참맛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황혼의 언덕에 서서 세상을 관조하는 노시인의 애절한 시심을 엿볼 수 있다. 세상 시름에 고달픈 이들에게 위의 시는 잠시나마 작은 위안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시를 쓰고픈 욕망에 이끌려 자기 목소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와 같은 성품을 가졌으리라 여겨지는 여류시인의 달관되고 원숙한 경지가 피부에 와 닿는다. 고원(高原)같이 드넓게 펼쳐진 산마루 갈꽃 사이사이에서 태양이 빛난다. 강 건너편에서는 서녘 하늘 붉게 타오르며 시린 바람 불어오고 풀벌레 소리가 들려온다. 이 시는 김연준이 곡을 붙인 가곡으로도 유명하다. 시 전체를 감싸고 도는 비장한 멜로디와 소프라노 떨림은 장중하다. 젊은 날의 꿈과 순정이 느껴지는 몇 줄의 운문이 가을이 깊어감을 전해준다. 우리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2009년 10월의 마지막 달력이 넘어가고 있다.



序 詩

이성복

간이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늦고 혈한 저녁이 옵니다
낮선 바람이 부는 거리는 미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맞은 편 골목에서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당신이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사방에서 새 소리 번쩍이며 흘러 내리고

어두워 가며 몸 뒤트는 풀밭
당신을 부르는 내 목소리
키 큰 미루나무 사이로 앞뒤로 춤춥니다.

- 시집 <남해금산> (문학과 지성사 1986)

이성복 시인(1952 ~)은 김소월과 한용운의 뒤를 잇는 연애시인으로 평가되는 분이다. 그의 시는 개인적 삶을 통해서 얻은 고통스런 진단을 보편적인 삶의 양상으로 확대하면서, 시대적 아픔을 치유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는 소설가 김훈이 문학기자 시절 100번을 읽었다는 <남해금산>이라는 시집의 첫 문턱에 실려 있다.

<남해금산>에 실린 시들은 대체로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에서 해독과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들이 많지만, 이 시는 상대적으로는 좀 평이해 보이고,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간이식당에서 혼자 사먹는 저녁은 얼마나 혈한가. 그리고 '혈한'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혈한' 그 느낌, 그 청각적 뉘앙스에서 시적 자아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맞은편 골목에서 /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 나는 정처 없습니다"

이 구절이 한번 더 반복되고 있다. 아, 이 정처 없음은 얼마나 대책이 없는 것인가.

이 시의 화자는 간이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사먹고, 저녁을 먹어도 혈한, 쓸쓸한 저녁의 시간대에 낯선 바람이 부는 거리, 미끄럽고 위태로운 거리에 있다. 그리고 그는 정처가 없다. 그저 막막할 뿐이다. 당신이 나를, 그것도 '문득' 알아볼 때까지. 외로움이 뚝뚝 흘러내린다.

"사방에서 새 소리 번쩍이며 흘러내리고 / 어두워가며 몸 뒤트는 풀밭, / 당신을 부르는 내 목소리 / 키 큰 미루나무 사이로 앞뒤로 춤춥니다."

사방에서 새 소리가 번쩍이듯 들리며, 온 세상이 그 소리로 흘러내리고, 세상은 계속 어두워진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부른다. 당신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은 계속 어두워만 가고,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앞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오는 것에 대한 역설일 것이다. 이 시는 대상으로부터의 인지와 사랑에 대한 갈구를 정말 절실히 표현하고 있다. 시적 자아가 추구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것일까 하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하기에 '나'는 정처없는 것이다. 이 시의 제목이 '서시'인 것은 바로 그러한 물음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아닌가 한다.



산 너머 남촌에는

김동환

1

산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불 제 나는 좋데나.

2

산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불 제 나는 좋데나.

3

산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가,

그리운 생각에 재를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네.

꽃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는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네.

- [조선문단] 18호(1927.1)

이 시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3월의 봄날, 햇살 비치는 창가에서 읽으면 좋을 듯한 쉽고 정다운 시이다. 이상향을 추구하는 시인의 욕구가 자연과 융합되어 자연의 운율적 질서와 동화됨으로써 민요적 리듬을 창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시인이 보여주었던 북방의 역센 사투리와 강한 남성적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섬세하고 부드러운 언어 구사와 여성적 어조로 표현되어 있어 그리운 고향을 그림처럼 보여 주고 있다. 김동환은 〈국경의 밤〉, 〈눈이 내리느니〉와 같은 작품에서는 북방의 춥고 어두운 겨울을 배경으로 암울한 시대 상황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데 반해, 이 시에서는 겨울이 없는 '남촌'을 무대로 하여 그가 그리워하는 이상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 나오는 '진달래 향기', '보리 냄새', '호랑나비떼', '종달새 노래'로 대표되는 사랑과 평화의 낙원으로서의 '남촌'이 지니고 있는 희망과 사랑의 이미지는 배나무 꽃 아래 서 계실 '남'이 비록 구름에 가려 보이지는 않더라도, 내게 전해 주는 사랑의 노래는 봄바람을 타고서 계속 들려오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

파인 김동환(1901 ~)은 한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자로 일을 하다가 1929년 월간지 [삼천리(三千里)]를 창간 주재하였고, 1938년 [삼천리문학(三千里文學)]을 발간하여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초기에는 신경향파에 속했으나, 향토적이고 애국적인 감정을 토로한 민요적 색채가 짙은 서정시를 많이 발표하여 한국 문학 초창기에 이광수, 주요한 등과 함께 문명을 떨쳤다. 그는 문학사적인 관점에 따라 민족주의적이면서도 소시민적인 이상주의 시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또 그는 계급적인 것을 노래한 무산파(無産派)의 시인이라기보다 향토적이고, 애국적이어서 원시적인 등잔불 등을 사랑하고, 민요적인 색채가 농후한 시인이었다. 이것은 곧 이 시인이 자신의 특유한 기질을 집단적인 의식으로 승화, 표상시킨 하나의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동시대의 시인인 김억·김소월에게서는 물론, 뒤에 등장한 박목월의 초기의 시편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흥미있는 세계이다. 미국의 시인 칼 샌드버그의 후기 민요풍의 시편들을 연상시켜 주기까지 한다. 그러나 1939년 총독 미나미(南次郎)의 〈새로운 동양의 건설〉 등을 [삼천리]에 실어 친일활동으로 오점을 남겼다. 1950년 6·25전쟁 때 납북되어 생사불명이다. 1962년 부인인 소설가 최정희에 의해 해방 직후부터 6·25 직전까지의 작품을 모은 시집 〈돌아온 날개〉(종로서관) 발간되었다.



아지매는 할매되고

허홍구

염매시장 단골술집에서
입담 좋은 선배와 술을 마실 때였다

막걸리 한 주전자 더 시키면 안주 떨어지고
안주 하나 더 시키면 술 떨어지고
이것저것 다 시키다보면 돈 떨어질 테고
얼굴이 곰보인 주모에게 선배가 수작을 부린다
"아지매, 아지매 서비스 안주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주모가 뭐 그냥 주모가 되었겠는가
묵 한 사발하고 김치 깍두기를 놓으면서 하는 말
"안주 안주고 잡아먹히는 게 더 낫지만
나 같은 사람을 잡아 먹을라카는 그게 고마워서
오늘 술값은 안 받아도 좋다." 하고 얼굴을 붉혔다

십수 년이 지난 후 다시 그 집을 찾았다
아줌마 집은 할매집으로 바뀌었고
우린 그때의 농담을 다시 늘어놓았다
아지매는 할매되어 안타깝다는 듯이
"지랄한다 묵을라면 진작 묵지."

- 시집 <사람에 취하여> (시선사 2008)

하하, 재미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시를 쓴 허홍구 시인(1946 ~)은 본인이 의도했던 아니던 간에 시가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반드시 아름답거나 관념적이어야 한다는 선입관을 깨고 해학적이고 재미있는 운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시의 소재는 그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다. 환경미화원 '정씨 아저씨', 동창생 '권여사'에서부터 원로시인 '황금찬', 국회의원 '추미애' 등이 그의 '시적 소재'가 된 이들이다. 줄여 쓴 평전 같은 시들은 시적 대상이 된 사람의 장점을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따뜻하고 해학적인 것들이다. "지랄한다 묵을라면 진작 묵지"라며 면박 주는, 이제는 할매가 된 염매시장 아지매까지 허홍구의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따뜻하다.

이 시를 읽다보니 십 년 전의 사건이 생각난다. 필자가 모 대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었다. 생산라인에서는 선공정과 후공정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필자는 완성부품의 조달을 담당하는 자재업무를 책임지고 있었고 후공정은 공장 내에

서 그 부품을 접수하여 라인에 투입하는 부서였다. 그 부서의 책임자와는 필자와는 동갑으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는데 근무가 끝나면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연락하여 소주를 마시는 것이 서로의 기쁨이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학창(대학)시절의 추억담이 나오고 유머러스한 입담에 포복절도하면서 항상 즐거웠다. 고향이 마산인 그는 인천에 있는 모 공대에 유학했는데 학교에서 하숙집을 오가는 길모퉁이에 있는 허름한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다. 내가 그에게 얼마나 좋아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부모님이 고향 마산에서 매월 빠듯한 하숙비와 용돈을 보내주는데 그가 매일 다방에 가서 그 아가씨를 만나려면 두 잔의 커피 값이 있어야 했다. 돈은 없고…….그러다 보니 돈이 드는 하숙집 생활을 저렴한 자취방 생활로 바꾸어야 했고 급기야는 매일 세끼 밥 먹던 것을 두끼 라면으로 때워야만 했다. 이야기도중 그는 필자에게 눈을 동그라니 뜨고 크게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 몇 달 동안 매일 라면을 끓여 먹어야 했다니깐!" 그 우직한 청춘의 순정이 우스워서 눈물이 날 뻔했다. 하하, 라면만 끓여 먹었겠는가? 계란 노른자가 든 커피도 매일 한 잔씩 마셨겠지. 세월이 흘러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인천에 출장갈 일이 있어 그 다방을 다시 찾았었는데 다방 주인은 그대로인데 그 아가씨는 딴 데로 가고 없었다고 했다. 당연하지, 찾아간 사람이 미련한 것이다.

위의 시를 읽으니 ' "오늘 술값은 안 받아도 좋다." 하고 얼굴을 붉혔다'는 부분이 참 마음에 든다. 그리고 세상풍파를 어렵게 겪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다방 아가씨와의 대면을 위하여 밥 대신 라면을 끓여먹고 때로는 끼니를 굶어가며 청춘을 낭비했던 순정이 슬프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게 순수한 인정의 거리가 사라진 듯 하여 위의 시를 떠올려 보았다.



어떤 개인 날

노항림

낮고 외진 침탑 끝에 빨래가
위험하게 널려 있다.
그곳에도 누가 살고 있는지
깨끗한 햇빛 두어 벌이
집계에 걸려 펄럭인다.
슬픔이 한껏 숨어 있는지
하얀 옥양목 같은 하늘을
더욱 팽팽하게 늘인다.

주교단 회의가 없는 날이면
텅 빈 돌계단 위에 아원 고무나무들이
무릎 꿇고 황공한 듯 두 손을 모은다.
바람이 간혹 불어오고
내 등 뒤로 비수처럼 들이댄
무섭도록 질푸른 하늘.

- 시집 <후투티가 오지 않는 섬> (창비 1998)

맑게 개인 하늘을 소재로 한 맑은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이 시에서는 '질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빨래가 널려 펄럭인다. 그 빨래를 '햇빛 두어 벌'로 표현하고 있다. 그 햇빛 두어 벌이 "하얀 옥양목 같은 하늘을 더욱 팽팽히 늘린다"는 표현은 읽는 이의 상상력을 극대화시켜 빛나는 것으로 환치시키는 마력을 발휘한다. 침탑과 빨래, 하얀 옥양목과 비수, 돌계단과 아원 고무나무의 대비는 시를 누비 이불처럼 요철이 심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어떤 개인 날'. 우리에게 참으로 낯익은 글귀다. 어둠의 터널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비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 글귀는 우리들 삶의 깊은 곳을 건드린다. 그렇기에 동서를 불문하고 많은 예술가의 사랑을 받았나 보다.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중 '어떤 개인 날', 황동규 시집 '어떤 개인 날', 노향림의 시 '어떤 개인 날' 등 이 글귀를 사용한 예술작품들이 많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 준다. 이 좋은 말속에도 옥에 티가 있다. 표기법상 '개인'은 '갠'의 잘못이다. 기본형이 '개이다'가 아니라 '개다'이므로 '개니 / 개어 / 갠'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갠 날'이 바른 표기다. '어떤 개인 날'을 '어떤 갠 날'로 고쳐 놓으면 왠지 감칠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한 시적 언어일 뿐이다.

노향림 시인(1942 ~)의 시적 상상력은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이런 시를 읽을 때는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히고 높은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침탑이 가리켜 보이는 곳. 빨래가 펄럭이는 곳. 세상의 깃발들 중에서 빨래처럼 높이 받들어야 할 깃발이 또 있을까? 그 깃발이 게양된 곳에는 언제나 맑은 하늘이 있고 햇빛이 있고 바람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는 세상의 먼지로 더럽혀졌으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우리들의 순결한 열망이 높게 펄럭인다. 빨래가 마르는 저 드높은 곳, 외진 침탑이 있는 곳은 우리들의 교회다. 하늘이 너무 맑아서 잎새 떨어진 고무나무들도 경배를 한다. 그 하늘은 슬픔도 갖고 있고 비수도 지니고 있다. 아아, 맑은 가을하늘이다.



엽서 두 장

이유경

하얀 대낮에도 비 내리고 무지개 섭디다
숲 위에 선 무지개는 완벽한 반원에서 무너지고
대서양 쪽에서 꺼먼 구름이 악마처럼 몰려오는 게 보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루가 지곤 하였지요.
쫓그만 불씨를 돌려 만찬을 초라하게 차려 먹고
다 저문 밤에 빗질하고 있습니다 그대 보이나요?

2

빛을 머금고 반사하는 예수 초상화 하나 샀지요
침묵의 바다 밑에 가라앉아 그와 나는 늘 마주서고
무료하게 서로 바라보다가 내가 먼저 외면합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과 번개 잠들면 또 악몽이겠네
예수 초상은 언제나 한쪽만 보면서 빛을 머금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합니다 그대 들리나요?

- 시집 <초락도(草落島)> (문학세계사 1983)

이유경 시인(1940 ~)은 다양한 제재를 소화하여 해학·풍자를 곁들인 현실 의식과, 특히 현대에 있어서 이상과 자아의 갈등에서 오는 이율배반적인 인간의 고뇌를 즐겨 표현하고 있다. 이유경 (李裕憬) 시인은 여성적인 예쁜 이름을 가졌지만 여류시인이 아니다. 비슷한 경우는 소설가 김유정(金裕貞)이다. 위의 시집 초락도(草落島)의 저자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시(詩)를 쓴다는 일에 점점 외로움을 느낀다. 남의 시(詩)들을 읽어가노라면 더욱 그렇다. 좁고도 알팍한 생각들과 타성에 빠진 언어로 적당하게 시라는 이름으로 발표해 놓은 시들을 읽고, 그런 것을 모아 시집으로 묶어 놓은 것을 읽으면 시는 왜 써야 하는가? 따위의 의문도 갖는다. 사람들이 시를 읽고 삶의 뜻을,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자각 때문에 나는 더욱 시 쓰기가 어려운가 보다.'

먹물냄새 풀풀 풍기는 표현이겠지만 시(詩)는 자아와 세계, 또는 본래적 자아와 일상적 자아의 교섭에서 탄생된다고 한다. 이 때 그 양자간에 동일성이 확보되면 시는 행복한 노래가 되고, 동일성이 상실될 때는 갈등, 대립, 소외, 고립 등 비극적 양상을 띠게 된다. 그의 시세계는 이와 같은 이른바 동일성 이론으로 조명하면 그 모습이 잘 드러난다. 시집 <초락도>에서 나오는 길은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 길이나 바른 행선지로 통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어두운 늪에 빠져버린 발걸음, 염전에 괴인 바닷물, 인적도 불빛도 없는 어둠이 드러내듯 화자를 둘러싼 외부환경은 불투명하고 사물의 윤곽이 어둠에 감추어진 채 흐릿하고 모호하다. 막막한 어둠만이 가득한 길, 음습한 습기와 소름을 머금은 길은 지리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막막하고 어두운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위의 시는 화자가 '그대'라고 지칭하는 지인(또는 가상의 연인)에게 보낸 두 장의 엽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적인 섬세하고 고운 표현이 돋보이나 이것은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노력의 산물일 뿐이다.

첫 번째 엽서는 대낮에 비가 내리고 무지개가 보였다가 사라지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하여서 하루가 저물고 그런 상태에서 초라하게 저녁을 먹은 후 하루를 정리하는 외로운 남자의 단아한 모습을 지인에게 알리고 있다.

두 번째 엽서는 빛을 머금고 반사하는 금박 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구입하여 바라보다가 외면하곤 하는 화자의 구도적인 내면 심리가 담담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고통스러울수록 인내를 해야 한다는 처연하고 경건한 심경을 지인에게 호소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가 끝나고 디지털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중년의 세대들이 사용했던 '엽서'를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것 같다. 수학여행 가서 구입했던 명승지의 그림엽서, 외국간 친지가 선물로 주었던 남국의 사진이 담긴 엽서, 이중섭의 그림이 담긴 그림엽서, 음악 신청하러 남몰래 라디오 방송국에 보냈던 빛바랜 엽서……. 그 많던 엽서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어찌하여 컴퓨터 키보드와 이메일 계정만 남아있을까?



소금인형

류시화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 시집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다> (푸른숲 1991)

라즈니쉬 명상가로 더 유명한 류시화 시인 (1957 ~)에 대해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시인이자 번역가이며 본명은 안재찬이다. 충북 옥천 출생이다. 대광고등학교를 거쳐 경희대학교 국문과 졸업했다. 1980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시 부문 당선, 1980~1982년 시운동 동인으로 활동했으나,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창작활동을 중단하고 구도의 길을 걷기 시작한 후 명상서적 번역 작업을 시작, 이 때 <성자가 된 청소부>,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티벳 사자의 서>, <장자, 도를 말하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등 명상과 인간의식 진화에 대한 주요 서적 40여 권을 번역하였다. 이 기간 중인 1988년 '요가난다 명상센터' 등 미국 캘리포니아의 여러 명상센터를 체험하고, <성자가 된 청소부>의 저자 바바 하리 다스와 만나게 된다. 1988년부터 열 차례에 걸쳐 인도를 여행하며, 라즈니쉬 명상센터에서 생활해왔다. 1994년에는 태국, 인도, 스리랑카, 네팔, 히말라야 등지를 여행했다.

소금인형이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갔다. 바다를 알기 위해 들어간 것이었는데 소금은 녹아버리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녹아버린 것이다. 소금은 바다에서 만드는데 소금인형이 바다에 녹아버렸으니 바다의 일부가 되었다는 말이 된다. 위의 시에서 '나'는 자신이 소금인형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신'의 깊이를 알기 위해 뛰어든 '나'는 소금인형처럼. 녹아버리고, '당신'의 일부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부분에서는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당신'을 알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국 자신은 바다에 뛰어든 소금인형처럼 녹아버렸다. 결국은 '나'는 '당신'의 일부가 되었다는 말이다. 바다와 소금인형이 있었다. 소금인형은 처음 접한 바다가 무척이나 신기하여 바다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바다는 자기에 대해 알고 싶으면 바다에 발을 담그라고 했다. 그 의미를 소금인형이 모르겠다고 하니 더 들어오라고 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어 소금인형은 모두 녹았고 바다는 자신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이 정도의 희생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명상으로 가득

한 시인의 소금인형은 이런 전설에 입각하여 바다에 대한 큰 이해와 그것에 따른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뇌리 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이 시의 이미지이다.

위의 시는 가수 안치환이 부른 노래 가사로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시이다. 위의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드는 일은 무엇일까?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무엇'의 깊이를 재기 위해 누군가 '그 무엇' 속으로 뛰어 들고 있을 것이다. 아침에는 밥 한 숟가락이, 낮에는 물 한 모금이, 저녁에는 서늘한 바람 한 줄이 우리의 피 속으로 들어와 녹아버린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까닭은 '나'를 위해 누군가, 무엇인가 자꾸 '소금인형'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가을 (60.5Cm/46Cm) Oil on Canvas

가을 빗소리

박화목

간 밤에

찾아 올 사람 없는 나의 객창(客窓)에
누가 몰래 와서 자꾸만 두드리더니

흐느끼듯 기타의 외로운

가락을 울려 들려주더니

밤 새 담쟁이 가랑잎들이
비(悲)에 흠뻑 젖어, 이 아침
이별을 결심하고 찾아온
마지막 시간의 그 여인처럼
아무 말이 없다.

비는 그쳤어도 피부 속 스며드는
싸늘한 한기(寒氣), 가슴 속에도 병든
가랑잎들이 이리저리 구울르고 쫓기다가
담장 밑이나 그런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들 있을 테지.

잠시나마 종말(終末)의 화사한 별이
그들의 못다한 생명의 보람을
쓰담는가 했는데, 아

조국의 자랑이라는 가을 하늘이 다시
흐리어, 창 밖에 가을 빗소리…….

이 마음 하염없이 얼룩이 진다
낙엽이 쌓인다.

- 시집 <천사(天使)와의 씨름>(한국문화사 1975)

박화목 시인(1924 ~ 2005)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구원과 동심의 세계를 서정적으로 그려냈으며 가곡 <보리밭>과 동요 <과수원길>

의 작사가로도 유명하다. 1924년 2월 15일 황해도 황주(黃州)에서 태어나, 평양신학교와 만주 봉천 동북신학교를 거쳐, 한신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41년 어린이 잡지 [아이생활]에 동시 〈피라미드〉를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그 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구원과 동심의 세계를 서정적으로 그린 작품들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한국 아동문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30대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박화목 '지음, 옮김, 번역, 역음' 등의 동화책 / 위인전을 단 한 권이라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1957년 첫 시집 〈초롱불〉을 출간한 이래 〈시인과 산양(山羊)〉(1958), 〈그대 내 마음의 창가에 서서〉(1960), 〈꽃 이파리가 된 나비〉(1972), 〈천사와의 씨름〉(1975), 〈이 사람을 보라〉(1986), 〈순례자의 기도〉(1989) 등 모두 16권 시집·동시집을 출간하였다. 그밖에 저서 〈아동문학개론〉(1995)을 비롯해, 수필집 〈보리밭〉, 〈그 추억의 길목에서〉, 동화집 〈아기별과 개똥벌레〉, 〈인형의 눈물〉 등을 남겼다. 2005년 7월 9일 숨을 거둘 때까지 창작활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들었다. 필자의 손위 동서와 절친한 친구 분이 있는데 부인이 박화목 시인의 따님이다. 경남 밀양시 단장면 언덕 위에 하얀집을 갖고 있는 내외는 무척이나 배려깊고 지적인 분들인데 따님을 보면서 아버님이신 박화목 시인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았다.

위의 시를 보도록 하자. 50살이 넘은 중년의 시인이 바라본 가을에 관한 이야기이다. 세상에는 가을이 왔으나 시의 화자에게는 찾아올 누군가가 없다. 그래서 외롭고 슬픈 그에게 비[雨]는 비(悲)와 같다. 그의 객창(客窓)에는 밤새 가을비가 내린다. 외로운 그 창 주인은 그 소리를 누군가가 창을 두드리는 소리로, 누군가가 울리는 기타의 슬픈 가락으로 들었다. 비에 젖은 담쟁이 잎들은 말없이 창밖에 색 바랜 채 있는데 시의 화자는 그것이 '이별을 결심하고 찾아온 마지막 시간의 그 여인'과 같다고 생각한다. 쓸쓸한 가을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회상 때문일 것이다.

봄부터 생명의 기운을 내뿜던 나뭇잎들은 가을을 맞이하여 그 한살이의 마감을 준비한다. 가을의 햇빛은 스산하고도 맑아서, 시의 화자는 그것을 '종말의 화사한 별'이라고 처연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때론 비가 내리기도 해 일찍 바랜 힘없는 잎사귀들을 떨어지게 한다. 사라져 가는 것들의 시간, 끝을 맞이하는 불가항력의 시간에, 시인은 상심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 낮아지는 계절에는 상심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시인은 가을을 보았고, 비를 보았고, 바랜 잎들을 보았고, 맑디맑은 가을 하늘이 흐려지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가을비는 내리고 마음 깊은 곳에 하염없이 얼룩이 지고 낙엽이 쌓여 가는 것이다.



미완성을 위한 연가

김승희

하나의 아름다움이 익어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슬픔이
시작되어야 하리
하나의 슬픔이 시작되려는
저물 무렵 단애 위에 서서
이제 우리는 연옥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꿈꾸어서는 안 된다고
서로에게 깊이 말하고 있었네

하나의 손과 손이
어둠 속을 헤매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스치기만 할 때
그 외로운 손목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무엇인지 알아?
하나의 밀알이 비로소 싹을 때
별들의 씨앗이
우주의 맥박 가득히 새처럼
깃을 쳐오르는 것을
그대는 알아?

하늘과 강물은 말없이 수천년을 두고
그렇게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네
쳐다보는 마음이 나무를 만들고
쳐다보는 마음이 별빛을 만들었네
우리는 몹시 빨리 더욱 빨리
재가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기에
어디에선가, 분명,
멈추지 않으면 안 되었네,
수갑을 찬 손목들끼리
성좌에 묶인 사람들끼리

하나의 아름다움이 익어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리움이 시작되어야 하리,
하나의 긴 그리움이 시작되려는
깊은 밤 단애 위에 서서
우리는 이제 연옥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필요치가 없다고
각자 제 어둠을 향하여 조용히 헤어지고 있었네……

‘불의 여인’, ‘언어의 테러리스트’, ‘초현실주의 무당’으로 불리는 김승희 시인(1952 ~)은 동시대의 다른 여성 시인들과 달리 사변적 시나 페미니즘적 시를 쓰지 않았다.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상의 시 〈절벽〉을 읽고 ‘인간이라는 모순과 인생이라는 절망을 자기 언어로 노래한다’는 것에 매력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상과 니체의 실존적 고뇌에 대해 철학적 관심을 가졌다. 그는 현실과 문명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 시를 썼으며, 제도와 인습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시적 아이러니를 통해 ‘당연과 물론의 세계’를 거부하는 진지한 인간성 해방을 쓰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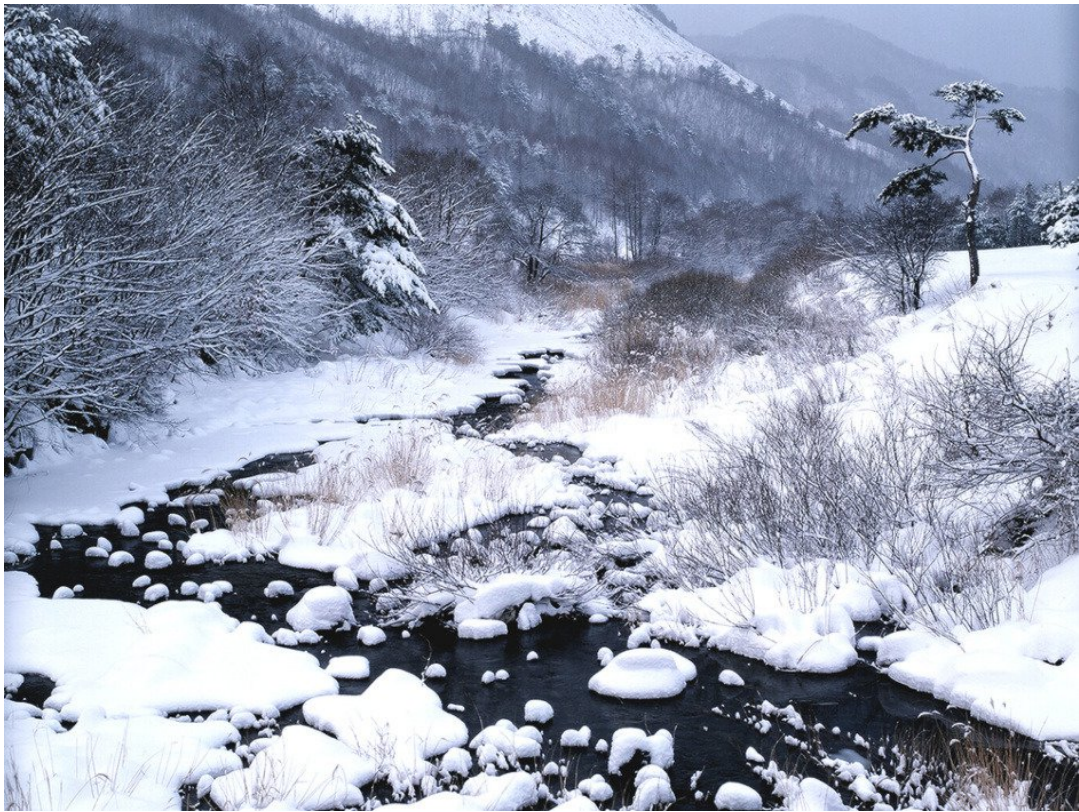
시인을 시를 자세히 읽다보면 뜻밖의 낱말, 엉뚱한 표현, 당돌하고 거침없는 비유, 상상치 못했던 형상들을 통해 ‘꿈을 찾기 위한 현실과 절망에 도전’하는 여성 전사와도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 시인은 TV의 교양프로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다. 관념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지적이고 재치 있으며, 날카로운 현실 분석은 놀랍도록 예리하다. 1994년 이후 발표된 소설도 이러한 시적 경향을 산문의 영역으로 확대시킨 것일 것이다. 또한, 주술적인 운율과 초현실주의적인 상상을 결합하면서 폐허 속에 빠진 인간 세상의 종말적인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1987년 펴낸 위의 시〈미완성을 위한 연가〉는 이전의 주관적 경향에서 벗어나 객관적 거리를 두고 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인생의 가치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맺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이별을 하고 그리워하는 과정 자체가 인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고 대부분은 인간관계의 진행에 불과하다. 정치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보면 인간관계의 테이블을 큰 판으로 늘여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학연, 지연, 혈연 등이 중요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연속인 삶 속에서 하나의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시는 그것을 진지하게 묻고 있다.

그 시작은 우선 슬픔이다. 하나의 슬픔이 시작되는 순간에는 연옥이 가장 아름다운 꿈이 되며, 그 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꿈꾸어서는 안 된다고 시인은 잘라서 말하고 있다.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이다. 연옥은 가톨릭 교회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죄를 씻기 위하여 곁을 말한다. 불로써 단련받는 천국처럼 황홀하고 행복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지옥처럼 처참하고 고통만으로 가득찬 것도 아니다. 마음의 아픔을 잊지 못해 서로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기에 연옥은 시인에게 가혹하면서도 아름다운 공간이 되는 것이다.

4연으로 구성된 위의 시는 1연에서 슬픔이 아름다움의 밑거름으로 나타났고, 2연에서는 어둠 속을 헤매며 스치는 인연사가 나온다. 외로운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의 밑알이 썩음으로써 새의 비상이 생기는 것처럼 희망을 키우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마음

은 3연에서 창조의 힘을 발휘한다. 쳐다보는 마음은 나무를, 별빛을 만든다. 상황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간직한 채 헤어지게 된다. 그러한 헤어짐의 슬픔이 4연에서 곱게 승화되고 있다. 헤어지면서 하나의 긴 그리움이 시작된다. 그러한 때에는 연옥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필요하지조차 않을 것이다. 연옥의 상태를 긍정하는 것은 헤어짐과 이별을 감내하고 살면서 스친 인연들을 그리움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 의미심장한 시이다. 인생의 흐름에 대한 핵심을 설파하는 가볍지 않은 시이다. 인간의 삶이 왜 미완성인지 생각을 해보게 한다.



겨울골짜기

조향미

가슴 수북이 가랑잎 쌓이고
머칠내 뿌리는 찬비
나 이제 봄날의 그리움도

가을날의 쓰라림도 잊고
 묵묵히 씹어가리
 물어 둔 씨앗 몇 개의 화두(話頭)
 폭폭 씹어서 거름이나 되리
 별빛 또록한 밤하늘의 배경처럼
 깊이 깊이 어두워지리

- 시집 <새의 마음> (내일을 여는 책 2000)

조향미 시인(1961 ~)은 가시적인 사물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저편의 심연을 응시하고 삶-존재의 근원성을 파고드는 고독하지만 깊고 차분한 목소리의 시 세계를 가지고 있다. 신경림 시인은 위의 시에 대한 평문에서 가랑잎, 찬비, 밤하늘의 별빛, 깊은 어둠의 이미지들을 통하여 사람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깊은 슬픔과 아픔, 쓸쓸함과 외로움을 부각시키는데 크게 성공하고 있다고 평한 뒤, 실연으로 인해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 간 19세기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예감>이란 시를 연상했다고 술회했다. 위의 시에서는 움직이는 대상을 한순간 정지시켜 고요 속에 천천히 가라앉는 존재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시인의 모습과 절제의 미덕을 엿볼 수가 있다. 대상의 내면은 시인의 내면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들의 음조는 자연의 전이를 관조하는 부분은 옛 시들을 닮았다. 그러나 음조만 그럴 뿐, 모든 것들의 내부에 가라앉은 불멸의 결정체를 쓰다듬는 시의 손길은 명료하면서도 적막하고, 또한 신비롭다.

이러한 겨울골짜기의 고요 속에서 화자가 꿈꾸는 것은 생에 대한 관조와 예지일 것이다. 침묵 속에서 움터 나온 말, 적막과 고요의 공간에서 단련되는 말이라면 곧 삶의 예지와도 같은 그 어떤 궁극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말없음에 대한 열망, 침묵이나 적막이나 죽음에 대한 열망은 요컨대 가식없는 참된 말, 그러한 말 같은 말에 대한 열망이며, 말의 부활에 대한 열망인 셈이다. 그렇다면 화자가 그려낸 저 자연 풍광 속의 죽음과 허무주의의 의미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언어도단의 세계, 자연과 죽음의 세계, 폐허와 유적의 세계는 우리 삶의 일상성의 일부분이다. 죽음이 스쳐가는 인간의 유한한 삶과 그를 둘러싼 자연의 표정을 포착해냄으로써 저절로 겨울이 되어가고 있을 뿐이 아니겠는가.



낙엽론

허만하

고독의 부둣가에서

그치지 않고 불어오는 식민(植民)의 바람을 맞으며

소금에 저린 손으로

포도송이처럼 알진 포말을 문지르고 있었다.

난리에 시달려 풍화한 저 얼굴들을
 왜 어제까지도 다정하던 저 시가(市街)의 황혼을
 무너진 현실의 오브제를
 나는 보이지 않는 철조망 너머로만 바라봐야 하는가
 산의 요부(腰部)
 그리고 노을에 물든 수평(水平)
 가령 스피노자가 닦던 고독한 렌즈
 아니면 문득 눈에 스며드는 저 오랑캐꽃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원경(遠景)으로 용암(溶暗)하고
 투명하게 자라온 시야를 횡으로 절단하는
 왜 초점은 이 가시영쿨에만 멎는가
 역사의 손이 뿌린 씨앗이라 하자
 통구스의 대륙에 매달린 시든 유방(乳房)같은 나라라 하자.
 식민의 거름 속에 떨어진 혜지(慧智)라 하자.
 왜 자학(自虐)의 술잔을 들이키면서
 두 대전(大戰) 사이
 바람이 때리치는 음참(陰慘)한 회의(懷疑)의 계곡을
 나의 시(詩)의 낙엽들은 일산(逸散)해 갔던가.
 마지막 잎사귀처럼 매달려 떨던 여정을 위해
 파토스의 무구(無垢)를 지키기 위해서도
 나는 왜 이 사랑하는 이데아의 파편들을
 목선 갈매기의 절규같이 격(激)한 바람에
 한 잎, 두 잎 결별(訣別)해야 했던가.

- 시집 <해조海藻>(1969)

허만하 시인(1932 ~)은 대구출생으로 의사생활을 하면서 시를 써왔다. 동족상잔의 6.25의 비극을 겪으면서 젊은 시인은 시를 쓸 무렵, 그 당시의 나라와 자신이 처한 현실의 암울한 상황에 좌절하면서 시의 감성을 위해선 사랑했던 이데아를 버려야하는 현실의 억

압 구조에 절망과 비판의 태도를 갖고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 서정적인 이 시는 6·25 전쟁이라는 현실 상황이 준 회의와 절망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다.

고독의 부두는 실제의 부두일 것이다. 일제가 남겨놓은 식민의 바람이 거침없이 불어오는 상황을 상징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치지 않고 불어오는 식민(植民)의 바람을 맞으며 소금에 절인 손으로 포도송이처럼 알진 포말을 문지르고 있다. 난리에 시달려 지친 얼굴들과 우울한 그림자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의 목표를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세계와 자아를 단절하는 벽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 때문에 투명한 예지의 이성 세계, 시적 감성 세계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은 사라져 버렸고 철조망의 가지 매듭에 좌절되어져 간다. 역사의 손이 뿌린 씨앗이라고 체념을 해도 거대한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에 매달린 작은 나라인 나의 조국은 황폐하기만 하다. 그러나 그나마 우리가 지혜 있는 민족이라는 것에 위로를 할 수 밖에 없다. 화자는 2차대전과 6·25 전쟁을 상기하면서 민족 수난의 현실에서 지식인의 회의와 고난이 준 상처가 큰 것에 대하여 자학하고 있다. '바람이 때리 치는 음참(陰慘)한 회의(懷疑)의 계곡을 나의 시(詩)의 낙엽들은 일산(逸散)해 갔던가'라고 표현하며 현실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회의하며 절망하고 있다. 화자는 파토스의 무구(無垢)를 지키기 위해서 즉, 시적 감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중요시 하는 이성(이데아의 파편)을 버려야 하는 현실의 억압구조에 절망과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신문에서 노 시인의 동정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바위를 보면 인간의 절멸을 기다리는 듯한 어떤 적의를 느낀다.'고 했다. 지층은 그 적의의 바위처럼 이미 절멸을 품은 채 또 다른 절멸을 기다리고 있다. 그에게는 '고유한 목숨의 꿈'이 길에서 크게 짓밟힌 경험이 있다. 그는 6·25 때 군번 없는 신분의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짐승처럼 비루하고 처참한 목숨의 실상을 낱알이 보았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고교 2학년이던 그는 집으로 돌아가던 대구의 한 길에서 느닷없이 학도병으로 전장에 끌려갔다. 두려움에 휩싸여 평북 태천까지 갔다가 후퇴하는 1년여의 경험이었다고 한다. "그때 나 자신의 소중한 일회성을 깨달았고, 그것은 고유한 나 자신의 언어 찾기로 이어졌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시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 그는 '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보다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의 문제, 즉 방법이 모두이다'라고 지적하며 '시어는 날카로운 칼자국이 패여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었다. 그는 고신대 의대 교수(병리학)로 있다 정년퇴임했다.



수수께끼

허수경

극장을 나와 우리는 밥집으로 갔네

고개를 숙이고 메이는 목으로 밥을 넘겼네
밥집을 나와 우리는 걸었네
서점은 다 문을 닫았고 맥줏집은 사람들로 가득해서 들어갈 수 없었네

안녕, 이제 우리 헤어져
바람처럼 그렇게 없어지자
먼 곳에서 누군가가 북극곰을 도살하고 있는 것 같아.

차비 있어?
차비는 없었지
이별 있어?
이별만 있었지

나는 그 후로 우리 가운데 하나를 다시 만나지 못했네
사랑했던 순간들의 영화와 밥은 기억나는데
그 얼굴은 봄 무우순이 잊어버린 눈물처럼
기억나지 않았네

얼음의 벽 속으로 들어와 기억이 집을 짓기 전에 얼른 지워버렸지
뒷모습이 기억나면 얼른 눈 위로 떨어지던 빗처럼 잠을 청했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당신이 만년 동안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들여다보고 있었네
내가 만년 동안 당신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붙들고 있었네
먼 여행 도중에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나와 당신은 어린 꽃을 단 눈먼 동백처럼 중얼거렸네

노점에 나와 있던 강아지들이 킁킁거리는 세월이었네
폐지를 팔던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지하도를 건너가고 있는 세월이었네
왜 그때 헤어졌지, 라고 우리는 만년 동안 물었던 것 같네
아직 실감나지 않는 이별이었으나
이별은 이미 만년 전이었어

그때마다 별을 생각했네
그때마다 아침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던
다리 밑에 사는 거지를 생각했네

수수께끼였어,
당신이라는 수수께끼, 그 살[肉] 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잊혀진 대륙들은
회빛 산맥을 어린 안개처럼 안고 잠을 잤을까?

-〈현대문학〉 2009년 3월호

허수경 시인(1964 ~)은 경남 진주 출생이다.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했다. 1987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혼자 가는 먼 집〉,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등이 있다. 현재 독일에 거주하며 윈스터 대학에서 고대동방고고학을 공부중이다.

젊은이들은 나 같은 중년층을 보면 궁금해 할 것이다. 저런 사람들도 연애를 해보았을까 라고. 답은 아주 간단하다. 지나간 시절 눈물 없는 연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삼십대 초반의 5월의 푸른 초록이 눈부신 오전이었다. 용인시에 위치한 회사 연수원에서 일주일 동안의 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다. 오십대 후반의 남루한 옷차림의 노신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름을 대면 다 알만 한 분.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선생님이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 보이지?"

그 질문에 모두들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예!"하고 대답했다.

"해마다 봄이 되면 햇복숭아가 열려요. 여러분도 서른 개 정도만 먹어봐, 나처럼 되니까."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지나온 뒤 페이지의 기억 속에는 숨어있고 말 못하는 사랑들이 빛바랜 일기장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가슴 이릿하게 저민 사랑을 유적(流謫)인 듯 남몰래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이 시를 읽으면서 줄곧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시를 쓸 정도인 선연한 기억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프랑스 시인 폴 랭보가 이야기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라고. 젊은 시절의 사랑은 가슴 찢어질 듯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깊은 몸살을 앓고 난 다음날의 어지러움처럼 고통이 상당기간 가지만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르면 자신이 무척 성숙해져 있음을 느끼게 만든다.

앞에 이야기했던 햇복숭아를 십수 개를 먹어야 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보면 만나서 그 순간 행복했으나 수수께끼처럼 어긋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빗나간 인연으로 새겨지는 일인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일이란 서로가 인연이거나 인연이 아니거나 그 것도 아니면 다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자문(自問)을 해본다. 사이가 뜸하게 되고 먼저 연락을 몇 번 해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불혹(不惑)을 지나고 지천명(知天命)하고 이순(耳順)해지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이란 옷깃이 한번 스칠 때마다 그 인연에 의해 우리가 서로를 들고나며 그 인연을 건너가는 다리와 같은 것은 아닐까.



북방(北方)의 길

오장환

눈 덮인 철로는 더욱이 싸늘하였다
소반 귀퉁이 옆에 앉은 농군에게서는 송아지의 냄새가 난다
힘없이 웃으면서 차만 타면 북으로 간다고
어린애는 운다 철마구리 울 듯
차창이 고향을 지워버린다

월북시인 오장환(1918 ~ 1951)은 일제 강점 말기의 폭압적 상황에서도 절필하지 않으면서, 친일적인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시인 중의 한 사람이다. 특히 신장병으로 병상에서 해방을 맞은 그는, 좌익 쪽의 문학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선문학가 동맹]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1948년 2월경 월북했다. 그러나 이렇게 남한에서의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오장환은 시집 〈성벽〉, 〈헌사〉, 〈나 사는 곳〉, 〈병든 서울〉을 간행하는 등 비교적 왕성한 창작적 실천력을 보였다. 그리고 일제말에서 해방정국에 이르는 격동의 상황 속에서, 오장환의 삶과 시 창작은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즉 서자라는 신분적 제약과 도시에서의 타향 살이, 이에 따른 사상적 지향이 그의 시작품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그의 시 창작들은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연대순으로 시집으로 묶여서 간행되었다.

그는 청각적 이미지와 서정의 양면을 두루 갖춘 시를 썼다. 그러나 회화에 경도되어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또 감상에 몰입하여 값싼 영탄에 머물지도 않으면서, 직접 현실 속에 들어가서 현대적인 심연을 형상화했다. 또한 그의 관심은 시적 사실주의를 탐구하는 데에도 미쳐 훌륭한 시들을 두루 남겼다. 그의 시는 전통의 거부, 나그네 의식, 허무주의 등으로 나타났으나 광복 직후에는 현실문제에 관한 시를 썼다.

위의 시는 1930년대, 일제에 의해 땅을 빼앗기고 만주로 쫓겨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겨우 여섯 줄로 그린 이농민의 모습이 감동적이다. '힘없이 웃으면서 차만 타면 북으로 간다고'는 바로 당시 우리 민족의 초상화다. '철마구리(개구리의 일종)울 듯' 울며 열차에 실려 간 어린이의 후예들이 지금 연변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할아버지요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다.

일제 강점기 만주나 연해주로 몰려간 "북방의 길"은 결코 행복을 찾아 떠나던 삶의 통로는 아니었다.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쳐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비록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도 송아지 냄새가 여전히 배어있는 농군내외와 철모르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풍경은 낯설지 않다. 과거에는 탈출구였던 "북방의 길"조차 막혀버린 오늘의 농민들이 새삼 떠오르는 까닭이다.



재한준

조오현

어제, 그저께 영축산 다비장에서

오랜 도반을 한준 재로 훌뿌리고

누군가 훌쩍거리는 그 울음도 날려보냈다.

거기, 길가에 버려진 듯 누운 부도

돌에도 숨결이 있어 검버섯이 돌아났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내려왔다.

언젠가 내 가고 나면 무엇이 남을 건가

어느 숲 눈먼 빠꾸기 슬픔이라도 자아낼까

곰곰히 뒤돌아보니 내가 뿌린 한 줌 재뿐이네.

- 시집 <아득한 성자, 현대시학(2007)>

시인 조오현(1932 ~)은 승려이다. 어릴 적에 절로 들어가 팔순을 바라보는 이 날까지 절을 지키고 있다. 만해 한용운과 같은 승려 시인으로 똑같이 백담사에서 나온 시인이다. '설악, 무산'이라는 승명을 쓰고, 스스로는 자신을 낮춰 '낙승(落僧)'이라고 부른

다. 약력을 볼 때마다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절간 소머슴’으로 입산한 것을 굳이 밝히고 있는 점이다. ‘절간 소머슴’이 주는 이미지는 소박하고 친밀하다.

위의 시에서 ‘곰곰히 뒤돌아보니 내가 뿌린 한 줌 재뿐이네’라는 표현은 삶의 허무함을 표현한 구절인데 종교적이라기 보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속적인 느낌이다. 그래서 누구든 쉽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반전의 부분은 ‘둘에도 숨결이 있어 검버섯이 돌아났다’는 부분이 아닐까 한다. 죽음이 삶의 마지막이라기 보다는 불교의 윤회적인 사상에 입각해서 다른 생명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는 달관의 경지가 느껴진다. 동시에 인간적인 고뇌가 시의 밑바닥에 깔려있어서 푸근함을 안겨준다.

수십년간 수행을 해온 시인의 시 세계를 한 마디로 압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모든 시편에서 ‘일체지향’을 보인다. 즉 사람과 자연, 자연과 사람의 경계를 일거에 허물어버리는 경지를 내비친다. 이속의 삶,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속인과는 동 떨어진 드높은 곳에 결코 홀로 올라 앉아 있지 않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친근감을 준다. 그렇다고 쉽게 읽히지는 않는다. 중후한 사유의 세계가 그만의 독보적인 가락과 결합하여 이룬 성취는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 법과 축생이 사는 법은 판이하다. 그런데도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이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축생으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겉모습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는 꼴은 축생의 그것을 닮아가고 있다. 그들은 축생처럼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방법인 줄 안다. 사람이 축생처럼 살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음이 안개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 안개를 걷어 내지 않는 한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란 이름의 축생’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의 시편은 우리의 무딘 의식에 때로 깨달음과 같은 밝음으로 다가온다. 몇 번이고 되뇌어 생각하게 하는 진폭이 큰 울림을 내장하고 있다. 현대의 종교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한 줌 재뿐인 삶의 가벼움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수도하며 구도하는 스님의 시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설날 아침에

김종길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 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맛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세상은
험난(險難)하고 각박(刻薄)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 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것들 잇몸에 돌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맛을 일이다.

-시집 <성탄제>(1969)

늦가을인데도 간밤에 첫눈이 내렸다. 나무가지 위에 쌓인 눈을 보면서 출근을 했다. '아스라이 사라진 기억들... 너무도 그리워, 너무도 그리워...' 옛날에 불렀던 노랫가락들이 하나둘씩 생각나기 시작했다. 위의 시는 필자가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국어교과서에 실

려 있었던 시이다. 당시 40대 중반의 국어선생님은 마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신 분이셨는데 '이 시는 읽으면 읽을수록 좋다'시면서 여러 번 감탄을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과거 입시체제 때 삼류 사립고교였던 우리학교는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진지 몇 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선생님들은 참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셨던 것이 기억난다. 국어선생님은 당신이 고교시절 입시 준비를 하면서 적어두었던 일기장을 하나하나 읽어주시며 제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독려하셨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말씀이 왜 그토록 감동적으로 들렸는지 모르겠다. 선생님들의 열정 탓인지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해는 30명 가까이 서울대에 합격했다. 지방 변두리의 사립 고등학교가 요즘으로 치면 강남의 외고수준을 능가했던 것이다.

존경하던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던 시를 읽으면서 떠오른 선생님 생각에 몇 자 적어보았다. 현대시 100편 감상을 쓰면서 마지막 100번째에는 꼭 이 시를 올려하지 하고 생각을 해왔다. 김종길 시인(1926 ~)이 쓴 이 시는 누구나 쉽게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평이한 내용이다. 우리 생활 주변의 평범한 소재로, 알기 쉬운 시어를 사용하여 삶의 밑거름이 될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는 자연의 변화에 따라 어김없이 맞이하는 설날, 새해 아침에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설계하고,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험난할 지라도 삶을 긍정적으로 밝게 맞이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시상(詩想)은 밝고, 건강하고, 건설적이다. 그 표현에 쓰인 말투는 아주 점잖고 교훈적이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달관의 태도가 잘 엿보인다. 그러나 이 시의 표현 기법이나 구사된 언어는 너무 평범하고 범상한 것들이다. 그만큼 시로서의 산뜻한 맛도 드물다. 이를테면, 싱거운 밥과 같은 글이다. 그러나 싱거운 것은 밥의 맛을 두고 하는 말이지 밥의 자양(滋養)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 시는 험난하고 각박한 우리 인간의 현실을 극복하고 이를 긍정하면서, 희망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영위해야 한다는 삶의 예지를 제시한 아주 훌륭한 작품이다.

이 시는 7연의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 그러나 세상은 살 만한 곳'이라는 달관과 초탈의 경지를 시적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역경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으로, 주어진 삶을 더 지혜롭게 영위하여 기쁨과 보람을 찾고자 하는 시인의 삶에 대한 경건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설날, 우리는 인생살이의 고달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 높은 이상의 실현을 위해 그것을 긍정적, 희망적 삶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현대시 100편 감상'을 읽어주신 네티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물고기 싹이 터라

블로그 Blue & Blue <http://blog.daum.net/yooni3>

저자 언덕에서

발행일 2011.04.28 15:36:12

 블로그